현대불교

제 764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불기 2554년 1월 1일(음력 11월 17일) 금요일(주간)

불자님들의 소중한 후원은
부처님의 말씀을 널리 홍포하는
밑거름으로 사용 될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사 ARS 포교후원
060-700-1080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 / 794-4055



"희망 가지고 사세요" 경인년(庚寅年) 새 아침이 밝았다. 백호(白虎)의 해를 알리듯 온 대지에는 하얀 눈이 내렸다. 전북 부안의 월명암 사성선원에는 봉갑사 회주 도륜 스님이 여섯 분의 스님과 함께 겨울 안거를 나고 있다. 미수(米壽)를 바라보는 도륜 스님은 "내 나이가 많지만 내게는 아직도 무엇인가를 이루겠다는 마음이 있다"며 독자들에게 쉼 없이 희망을 가지고 살 것을 당부하는 덕담을 전했다. 새 아침의 눈길을 걷는 스님의 포행길을 만순이가 따라가고 있다.
관련기사 A12 · A13면
글 · 사진=박재완 기자

2010 경인년 신년특집 48면 발행

A

◆ 종단대표 신년법어 ····· 4~6면
◆ 새아침 대담/ 고은 소통을 말하다 ····· 7면
◆ 새아침에 만나 선지식/ 도륜스님 ····· 12~13면

B

특집1. 어흥~ 호랑이 해가 밝았다

◆ 불교 속의 호랑이 ····· 2면
◆ 그림과 조각으로 만나는 호랑이 ····· 3면
◆ 호랑이 인간에게 외치다 ····· 4면
◆ 올해는 호랑이 해 내가 주인공 ····· 5면
◆ 2010 호랑이 해 불교계 가상뇌우스 ····· 6면

특집2. 일체가 하나 되는 길을 열다

◆ 경전 속 가족의 의미 ····· 9면
◆ 우리절 가족법회를 소개합니다 ····· 10면
◆ 우리집 가족법회를 소개합니다 ····· 11면
◆ 움직이는 선원 동행기 ····· 12~13면
◆ 주변 사람과 하나 되는 길 ····· 15면
◆ 4대강 발원지에서 띄우는 편지 ····· 16~17면
◆ 우리는 동창생 불심도 하나 ····· 20면
◆ 사회를 하나로, 사회적 기업 ····· 21면

경인년 새해 독자여러분 가정에
자비 광명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임직원 일동

일체가 하나임을 알면 희망·행복의 주인공

새로운 시간은 언제나 가슴을 설레게 한다.

시작도 끝도 없는 것이 시간이라지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간의 분절은 마디마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나간 시간도, 지금 이 시간도, 다가올 시간도 이미 우리에게는 의미의 마디들이다.

문명이 발달한다는 것은 시간을 앞질러 사는 것일지도 모른다. 시간이 오기 전에 이미 많은 것들이 계획되고 시간이 오는 순간 또 다시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과학문명의 시대다.

시간보다 빨리 사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일까? 우리는 이 물음 앞에서 주저한다. 브레이크 없는 전차처럼 달려 온 물질문명의 시대를 돌아보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상실해 온 우리의 얼굴을 찾으려는 노력이 새로운 사조로 떠올랐다.

2010년 경인년. 새해도 많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 불교계 안팎에서 일어날 일들의 밑그림을 보면, 지난해와 별 다를 것도 없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 그것은 작년 보다는 모든 결과가 더 좋을 것이라는 바람, 희망이다.

새해를 맞는 희망이야말로 또 다른 역사를 이끌어갈 원동력이다. 희망이 없다면 아무도 동해까지 해를 맞으러 가지 않을 것이다. 희망이 없다면 아무도 수행도량에 마음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 희망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주변을 돌아보지 않을 것이고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희망은 생명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희망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새해를 맞는 희망인가? 사람마다 사회조직마다 시뻘건 동해의 새해를 가슴에 품는 희망은 다를 것이다. 그 다름이 모이고 모여 하나의 같음을 만든다. 희망의 개별성이 귀하지 않다면 그 희망들의 총체는 허망해진다. 작은 희망이 큰 희망이다. 그래서 희망은 있다는 그 자체로 고귀하고 성스럽다. 우리들 희망의 총체는 행복일 것이다.

행복하길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행복을 위해 물질에 기대는 사람이 있고 마음을 닦는 사람이 있다. 물질에 기대는 사람은 마음보다 물질에 가치를 두고 마음을 닦는 사람은 물질보다 마음 비우기 혹은 마음 다스리기에 가치를 둔다. 물질이건 마음이건 우리가 거는 희망의 당간은 또 다른 차원에서 공통분모를 제공한다. 그것은 바로 일체가 하나라는 가르침이다. 인간 세상의 갈등은 일체가 하나임을 자각하지 못하는데서 비롯된다. 어제의 '너'가 오늘의 '나'임을 안다면 갈등도 없을 것이다. 너와 나를 다르게 보고 내 편과 네 편을 다르게 인식하는데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고 그 갈등은 너와 나를 함께 병들게 하지 않는가?

2010년 경인년 새해는 일체가 하나임을 자각하고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깨우침 속에서 살아가는 한해가 되길 발원한다. 일체제불의 마음이 곧 내 마음임을 알면 우리의 희망은 그 자리에서 행복이 될 것다. 임연태 기자

현불만평 박구원



많이 물어다 주렴

謹賀新年

소통과 화합, 불교중흥

종 정 도림 법전

원로회의의장 종 산 총무원장 자 승
중앙종회의장 보 선 교육원장 현 응
호 계 원 장 법 등 포교원장 혜 총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법난 상이자 치료비 등 1400만원

10·27법난심의위, 의료지원금 첫 심의

'10 · 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위원장 영담, 조계종 총무부장)는 구랍 21일 열린 제8차 회의에서 위원회 발족이래 처음으로 의료지원금에 대한 심의를 의결했다.

제8차 회의는 10 · 27법난으로 인해 상이를 입은 자에게 소요되는 향후 치료비 및 보조 장구 구입비 명목으로 1400여 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동의시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현재까지 접수된 신청건수는 총 41건(신청자 30명)이다.

명예회복심의위는 이번 의료지원금 심의 의결 후 "여전히 일부 피해 스님들이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신청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 10 · 27법난 명예회복을 위해 정부 및 종단차원에서 적극적인 후원과 격려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10 · 27법난특별법은 1980년 10월 말에 발생한 10 · 27법난과 당시 피해자들과 불교계 명예를 회복시키고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도록 제정된 법. 이에따라 2009년 2월 19일부터 국무총리실 산하에 심의위원회가 활동 중에 있다.

박선주 기자

조계종, 최우수 종무사업 포상

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은 구랍 24일 2009년 최우수 종무사업에 '국립공원 해제 및 문화유산지역보전 추진 활동'을 선정하고 실무팀을 포상키로 했다. 이번 우수사업 선정은 각 사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보다 활발한 사업추진을 이끌기 위해 처음마련됐다.

조계종은 '국립공원 해제 및 문화유산지역보전 추진 활동'의 최우수 사업 선정 이유로 환경부의 일방적 자연공원법 개악을 저지하고 종단과 협의토록 이끌어 냈으며, 7 · 2전국본말사 주지결의대회를 원만 성취한 점을 들었다. 또한 사회 각계에 국립공원 제도의 문제점을 널리 알려 공감대 형성했다는 자평도 내렸다.

이 밖에 우수사업에는 △중앙종무기관 종무원 불교소양강좌 △불교음악 육성 기반 마련 △저소득 실직가정을 위한 자비나눔 △불교입문 강사 양성과정 △어린이청소년포교 전진대회 △사찰음식체험사업 및 사찰음식점(바루) 운영 등 6개 분야가 선정됐다.

노덕현 기자

승가학원 이사장에 자승 스님 선출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장에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이 선출됐다.

승가학원은 구랍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86차 이사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자승 스님을 제8대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자승 스님은 인사말에서 "前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중앙승가대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잘 이끌어 오셨다"며 "중앙승가대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조계종, 일반직 종무원 인사 단행

조계종 인사위원회(위원장 자승)는 구랍 24일 일반직 종무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차장 인사로는 총무차장에 박용규 재무회계팀장, 기획차장에 김영일 포교차장, 교육차장에 이석심 총무차장, 포교차장에 황철기 신도팀장, 사서차장에 박희승 기획차장을 임명했다.

팀장 인사로는 총무팀장에 김한일 기획팀 행정관, 재무회계팀장에 전형근 교육차장, 국제팀장에 홍민석 국제팀 행정관, 신도팀장에 김병주 전통불교문화원 행정관, 중앙박물관 사무팀장에 이분희 문화팀 행정관을 발령했다.

이번 인사발령은 1월 4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명문사학 위상 찾도록 최선"

제25대 동국대 총동창회 이연택 회장… 기금 25억원으로 늘리는 등 성과

"100년 전통의 동국대가 과거 명문사학으로서의 위상을 되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월 동국대 제25대 총동창회장에 선출된 이연택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사진)은 구랍 22일 서울 인사동 모 음식점에서 기자를 만나 이같이 다짐했다.



이날 자리는 총동창회장 취임 후 첫 간담회였다. 이연택 총동창회장은 "말보다는 계획과 실적으로 발로 뛰는 행정가로 잔뼈가 굵다보니 총동창회 조직 정비와 장학기금 마련에 바빠 첫 만남이 늦었다"며 "취임 후 지금까지 7억원에 불과했던 총동창회 기금을 25억원으로 늘리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동창회장은 1961년 동국대 법학과 졸업 이후 공직에 나서 1~7차 5개년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참여해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해왔다. 이후 청와대 행정수석, 총무처장관, 노동부 장관 등을 역임했고, 2002한일월드컵조직위 공동위원장, 대한체육회장 겸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으면서 정부와 체육행정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인물이다.

불교와 인연도 깊다. 이연택 총동창회장은 청와대 행정수석 등을 맡으면서는 '전통사찰보존법' 제정과 중앙승가대의 정규대학 승격에 크게 기여했다. 대한체육회장 시절에는 태릉선수촌에, 대학올림픽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는 올림픽회관에 법당을 열었다.

이연택 총동창회장은 "최근 일간지의 대학순위평가에서 동국대가 중위권에 머문 것은 큰 충격"이라며 "총동문회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동국대의 위상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동국대의 발전을 위해 이 총동창회장이 집중하는 분야는 인재불사이다. 총동문회에서 지급되는 장학금 수혜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교수의 연구활동을 지원해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이 그의 구상이다.

이 총동창회장은 "명문사학으로 자리 굳힌 고려대 총동창회는 연간 500명에게 20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동국대 총동창회가 현재 연간 40명에게 4000만원 규모로 지급하는 장학금을 고려대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동국대 총창회장은 2010년에는 장학생수를 100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어 이 총동창회장은 "대학평가에서 동국대 교수의 연구업적이 저조한 것도 순위를 낮춘 한 원인"이라면서 "2010년부터 1차로 20명의 교수에게 1인당 300만원의 연구지원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학생과 교수 지원에 필요한 기금 확보를 위해 이 총동창회장은 취임 후 총동창회 조직 정비부터 나섰다. 출신고 · 지역별 · 학과별로 흩어져 있던 동창회를 엮어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총동창회 운영 방식에도 변화를 줬다. 개별 동창회에서 상납되던 돈의 흐름을 양방향으로 바꿨다. 총동창회에서 개별 동창회에 장학금을 지원해 개별동창회 이름으로 지급되도록 했다. 이렇게 되자, 총동창회에서 지급된 장학금에 자극 받은 개별 동창회 구성원들이 발 벗고 나서 기금을 보탰다.

이 총동창회장은 "불과 3개월 여만에 총동창회 기금이 7억원에서 25억원으로 늘어난 것을 보고 동국인의 저력을 새삼 경험했다"며 "총동창회를 장학재단으로 발전시켜 제도적으로 투명한 운영을 공고히 하고,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연택 총동창회장은 "동국대는 1700여 년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불교를 건학이념으로 설립한 민족사학으로서 동국대의 발전이 불교중흥이며, 민족정신의 부흥"이라며 "동국대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제2의 건학'이란 각오로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 구성원 모두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동국대 총동창회는 구랍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2009동국인의 밤'을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2009 자랑스러운 동국인상' 수상자로 선정된 송석구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공동위원장(사회교육부문)과 이인정 아시아산악연맹 회장(체육부문), 김현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의료부문)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은해사 장학금 2000만원 기탁

12월 21일 동대 경주캠퍼스에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손동진)는 구랍 21일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주지 돈관)로부터 장학금 2000만원을 기탁받았다.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이 동곡일타장학금 2000만원을 동국대 경주캠퍼스 손동진 총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영천 은해사가 동국대에 전달한 금액은 '동곡장학회' 기금으로 동국대 경주캠퍼스 학생을 대상으로 불자인재 육성을 위해 사용된다.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은 "은사인 동곡 일타 대종사의 열반 10주기를 맞아 불교인재 육성에 각별했던 스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 동곡장학회를 설립했다"며 "불교의 미래를 밝히는 지름길은 바로 능력 있는 불교인재를 많이 키워 내는 것이라는 신념으로 불교인재 육성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손동진 총장은 "불자엘리트 양성은 더 이상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차대한 과제"라며 "돈관 스님의 각별한 관심과 고귀한 뜻을 받들어, 불교인재 육성을 위한 적극적이고 경쟁력 있는 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조동섭 기자

혜총 스님 상금 전액 장학금으로

진흥원, 제7회 대원상 시상식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은 구랍 23일 서울 다보빌딩 3층 대법당에서 제7회 대원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원상 승가부문 대상에 선정된 혜총 스님이 상금 1000만원을 명호근 대불련 총동문회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7회 대원상 승가부문 대상에 선정된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을 비롯해 재가부문 대상 미국 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 박성배 교수를 대신한 동국대 김선근 교수, 불교미디어콘텐츠 부문 하훈 나무아트방송 대표 등에게 상패와 상금이 전달됐다.

시상 후 혜총 스님은 당신이 부상으로 받은 상금 1000만원을 불자 대학생 육성에 써달라며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인 명호근 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장에게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대원상은 대한불교진흥원 설립자인 대원 장경호 거사(둥국제강 창업주)의 뜻을 기리기 위해 2003년 제정됐다. 불법 홍포와 진흥에 귀감이 되는 불자들을 지원하는 데 취지가 있다. 조동섭 기자

"미디어렙법 제·개정 공익성 담보돼야"

최근 헌법재판소 판결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디어렙 관련법의 제 · 개정이 준비중이다. 이와 관련, 불교(불교방송) 개신교(CBS) 카톨릭(평화방송) 원불교(원음방송) 등이 참여한 종교방송협의회는 구랍 22일 미리 공개한 성명서에서, "미디어렙법 도입에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다양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종교방송협의회는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미디어렙법이 되어야 한다'는 제하의 성명서에서 "국회의원이 상정한 법안 중 특정 방송사의 이익을 위해 방송의 공공성을 저버린 법안이 있어 실망스럽다. 미디어렙 도입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종교방송사들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다양성의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이러한 종교방송의 노력에 반하는 정치세력은 강력한 반대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조동섭 기자

韓國佛教太古宗

佛紀 2554年 庚寅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宗正 崔慧草
宗正禮敬室長 趙常虛

僧正院院長 柳南坡
副院長 李寶峰
副院長 金法藏

元老會議議長 金一宇
副議長 權德化
副議長 姜慧宗

總務院長 朴印空
副院長 姜靑峰
副院長 閔法顯
副院長 李華鏡

宗務調整室長 金淸光
敎務企劃室長兼總務部長 朴圓明
交流協力室長 金能解
財政支援室長 車月潭
文化宗務特補 金法顯

敎務部長 朴智海 財務部長 朴法京 企劃部長 金法雲 社會部長 曺古潭 文化部長 沈智虛 糾正部長 安九山 敎任部長 金道法
宗務委員 李無爲 宗務委員 尹祥河 宗務委員 趙完月 司書室 金淸空

中央宗會議長 成圓峰
副議長 尹靈祐
副議長 趙常虛
中央司正院長 朴芸谷
副院長 馬一雲
中央初審院長 金慶潭
副院長 高呑海
中央選擧管理委員長 金月雲
中央敎育院長 文普經
中央布敎院長 片白雲

■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 서울시 종로구 사간동 112번지 전화 (02)739-3450~4 FAX (02)739-3470 http://www.taego.kr

향일암 화재 '인재?' '방화?' '미궁속'

소방용수 저장탱크 완공 앞두고 화재 안타까움 더해… 부실한 방재시설이 피해 키워

최근 낙성한 황금단청 대웅전 등을 모두 태우고 화재발생 후 3시간 만에야 진화된 여수 향일암(전남문화재자료 제40호) 화재가 화재원인은 차치하고서라도 소방 방재시설 등의 미비로 이미 예견된 인재였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 따라 전국 사찰의 목조문화재에 대한 화재방재시스템의 총체적 점검이 시급한 상황이다.

향일암 화재는 구랍 20일 0시 24분경 일어나 대웅전(51㎡), 종무실(27㎡), 종각(16.5㎡) 등 사찰 건물 8동 중 3동을 태우고 3시간 만에 진화됐다.

화재 직후 향일암에 있던 스님 등 16명은 소방대원 공무원 주민 등과 진화작업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대웅전 등 전각과 청동불상, 탱화, 범종 등 문화재는 지키지 못했다. 화재원인은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이 방화에 무게를 두고 조사중이다.

향일암 사무장 등 목격자에 따르면 불은 대웅전 쪽에서 처음 발생했다. 대웅전이 전소되는 등 피해가 컸던 것은 인적이 끊긴 시간대에 발생해 거센 바람을 타고 번져 피해가 컸다. 또, 강추위로 곳곳이 얼어붙어 초기진화를 어렵게 한 것도 원인으로 지적됐다.

화재 진압 후 소방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향일암 화재 발생 추정 시각은 자정 무렵으로 0시 24분 119에 신고 됐다. 향일암서 가장 가까운 소방시설은 여수소방서 군내지역대로 15km 거리였고, 돌산 119안전센터로부터 26km, 여수소방서로부터는 39㎞나 떨어져 있어 첫 소방차는 신고 후 20분이 지난 0시45분에야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향일암에 이르기 전 1km 구간은 소형 소방차만 진입이 가능할 정도로 비좁았다.


구랍 20일,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로 순식간에 잿더미가 된 향일암에서 소방대원들이 잔불을 끄고 있다.

당시 풍속은 초속 5~6m로, 불길은 거센 바닷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져갔다. 영하의 기온은 진압초기 뿌려진 물을 얼어붙게 해 사건 현장에 접근을 어렵게 했다. 한밤중이라 헬기 투입도 쉽지 않았다.

여러 악재 속에 화재진화까지 소요된 시간은 3시간 여. 이 사이 최근 황금불사를 마친 대웅전(51㎡)을 비롯해 종무실(27㎡), 종각(16.5㎡) 등 사찰 건물 8개동 가운데 3개동이 잿더미로 변했다.

숭례문 화재사건 후 다수의 목조문화재에는 스프링클러 등 방재시설이 설치됐지만 이번 화재로 소실된 향일암 전각에는 설치되지 않았다. 화재감지기도 관음전 단 한곳에만 설치돼 있었다. 경내에 소화시설이라고는 소화기 15개가 전부였다. 이런 까닭에 CCTV와 옥외소화전도 없었던 부실한 방재시설이 초기진화 시기를 놓치고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적됐다.

향일암 화재 발생 후, 해당 교구본사인 화엄사는 인력을 급파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조계종 총무원도 구랍 21일 문화부 직원을 파견해 화재수습과 복원대책 등을 논의 중이다.

같은 날, 조계종 대변인 원담 스님(총무원 기획실장)은 성명을 통해 "소중한 문화재가 눈앞에서 소실되는 아픔을 드린 것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스님은 "조계종은 지난 2004년 양양 낙산사를 잃은 이후 전국 사찰의 목조문화재 화재 방지와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부와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다만 안타까운 점은 정부지원이 국가 지정문화재에 집중되고 있어 향일암과 같은 지방문화재는 방재시스템 구축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도 구랍 22일, 여수 향일암 화재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신도회는 입장발표문을 통해 "향일암을 화마로 잃게 것은 방화의 대비에 소홀한 모두의 책임이며 국가의 성보문화재 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지방문화재 관리와 보존에도 아낌없는 지원과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소실의 원인규명과 철저한 조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향일암 화재는 대부분의 시각처럼 사찰의 허술한 방재대책과 정부의 지정문화재 중심의 지원에 문제가 있다.

안타까운 사실은 향일암이 최근 100톤 가량의 소방용수를 보관할 수 있는 저장탱크 완공을 앞두고 있었다는 점이다. 전남도는 2010년 추가예산안에 향일암 소방용수 탱크를 활용할 소방펌프, 탐지기 설치비용 등을 편성할 예정이었다.

특히, 많은 불자들은 향일암이 지난 4월, 개신교신자가 난입해 쇠파이프 등으로 불상 등을 훼손하다 검거된 사실도 있어, CCTV조차 마련하지 않은 사찰의 조치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향일암을 비롯한 관할구역 내 사찰에 방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주지 용문 스님은 "관음기도 도량을 화마에서 지키지 못해 불보살님에게 너무 큰 죄를 지었다. 대웅전을 건립하는데 지극정성으로 동참한 신도들에게도 죄송하다"며 "하루빨리 향일암이 제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해 복원에 나서겠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조동섭 · 노덕현 · 이상언 기자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행복나눔 홍보대사' 장동건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친구들이 활력소"


영화배우 장동건이 영등포장애인복지관장 지거 스님과 한 조가 되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영화배우 장동건이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관장 지거)의 행복나눔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최근 새 작품(영화 '아름다운 우리' -가제)을 준비하고 있는 곽경택 감독과 장동건은 12월 21일 복지관을 방문해 위촉식을 가진 뒤 봉사활동을 하고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동건은 복지관내 직업적응훈련실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작업재활활동을 하며 "예쁘고 멋진 친구들과 잠깐이지만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친구들이 나에게 활력소가 된 것 같아 고맙다"고 전했다.

또 함께 참여한 곽경택 감독은 "복지관에 인연이 있어 가끔 후원을 하긴 했지만, 행복나눔 홍보대사로 위촉돼 보람되고 즐겁다. 노력을 다해 열심히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작업활동에 이어 장동건은 복지관 지하식당에서 복지관 이용 장애인들과 식사를 하며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 뒤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장동건은 "평소 지거스님과의 인연으로 영등포장애인복지관을 찾게 됐다"며 장애 · 비장애의 벽이나 편견이 없는 상생의 복지사회가 이루어지는데 일조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불자연예인으로 잘 알려진 장동건은 이날 위촉식에서 지거 스님으로 부터 무명(無名)이라는 법명과 수계증을 받았다.

관장 지거 스님은 "취약계층에 행복을 나눠주는 장동건씨가 참 아름답다. 사회통합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갖고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있어 배우 장동건씨와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02)3667-0873 이나은 기자

고려대장경 초조본 디지털 복원

고려대장경硏 · 日 하나조노大 25일 보고회

2011년 조성 천년을 한 해 앞둔, 2010년 고려대장경 초조본(初雕大藏經)이 디지털로 화현된다.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는 "2004년부터 일본 하나조노대학(花園大學) 국제선학연구소와 공동으로 난센지(南禪寺) 등에 소장된 고려대장경 초조본 디지털 복원의 회향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디지털 복원에 공동참여한 일본 하나조노대학 국제선학연구소와 난센지에 감사의 뜻으로 일본 현지에서 보고회를 갖는다"고 최근 발표했다. 보고회는 1월 25일 일본 교토 가든팰리스에서 열린다.

초조대장경 6000여 권 가운데 2000권의 인본(印本) 대부분이 일본 교토의 난센지(南禪寺)에 있다.

고려대장경연구소는 디지털 복원 작업 착수 6년 여 만에 32억 원을 투입해 불사를 마쳤다. 특히 일본 전문가에게도 공개되지 않았던 비장(秘藏)으로 첫 공개되는 경전인 것도 이번 불사의 의미를 더한다.

고려대장경연구소 관계자는 "학자들이 조건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다. 디지털 이미지를 인쇄해 영인본을 발간할 계획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내년 1월 24~27일 보고회 참석을 겸한 참가단을 모집하고 있다. (02)6925-0322 조동섭 기자

'선재의 선물' 훈훈함 전해

아름다운동행 진관지역아동센터서 전달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불교계의 온정이 담긴 선물이 전달됐다.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 스님(조계종총무원장)은 구랍 24일 서울 진관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선재의 선물'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 동참한 아름다운동행 홍보대사 배상문 프로 골퍼는 아이들을 위한 간식으로 호두과자를 선물해 훈훈함을 더했다.

전달식에서 자승 스님은 "진관사가 이런 다양한 지역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종단 대표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곳 어린이들이 티 없이 밝게 생활하고 즐겁게 공부해 달라"고 격려했다.

자승 스님은 함께 참석한 배상문 프로골퍼에게도 "바쁜 일정에도 동행 사업에 참석해줘 감사하다. 불자 프로골퍼로서 국위를 선양하고 불교 포교에도 힘써달라"고 덕담을 건넸다. 박선주 기자 · 공동기자단

동국대 로스쿨 탈락 '확정'

동국대의 로스쿨 탈락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최근 "교수위원들이 규정상 금지된 자신의 소속 대학에 대한 심의에 관여한 것은 규정 위반이지만, 교수위원이 소속되지 않은 동국대까지 규정 위반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조치했다.

지난해 로스쿨 선정에서 탈락한 동국대는 경쟁관계에 있는 대학교수들이 로스쿨 대학 선정 과정에서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선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조동섭 기자

단식 참선 청소년 및 일반 삼매체험 선수련회 5일출가

1.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오는 12월 24일부터 3차례에 걸쳐 〈청소년 및 일반 선수련〉을 개최합니다.
2.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수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과 고교생을 위해 몸과 마음의 원래 아름다움을 찾는 성형(成形)을 위해 〈청소년 선수련〉를 개최합니다.
3. 지금 우리 사회는 향락과 퇴폐가 극도에 이르러 청소년의 위치가 불안하기 그지없는 사회환경입니다. 게다가 고3을 비롯한 수험생들이 연말연시에 들뜨고 혼탁한 분위기에 흔들리기 쉬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부모들까지 나서서 방학을 이용해 아이들의 외모 성형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청소년들의 갈등과 방황을 예방하고, 사회의 잘못된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금강단식과 참선(간화선) 수행을 통해 몸과 마음을 다스려 청소년에게 삶의 목표와 새로운 인생관을 자리잡게 하는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입니다.
4. 이번 수련회의 키워드는 중단과 반조입니다. 사람들은 중단(中斷)하면 파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단이야말로 향상(向上)입니다. 돌이켜 보는 반조(返照)가 나의 근원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청소년들이 자의든 타의든 10여년이란 세월동안 이어온 그릇된 사고와 삶의 태도를 돌이켜보아 본래 온전한 나, 참 나인 존재의 실상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 특 징
- 간화선 수행을 통하여 청소년기의 갈등과 방황을 예방한다.
- 향락과 퇴폐의 사회환경을 극복하고 청소년들의 삶의 목표와 인생관이 자리잡도록 한다.
- 성적 위주의 공부에 지친 청소년에게 자기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신 시킬 수 있다.
- 변화를 막는 의존 의타적인 무기력한 정신을 지양하여 자율적인 주인의식을 확립,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청소년기로 기틀을 확립하는데 참선의 영향을 확대할 수 있다.
- 기존의 지식과 가치관으로부터 자유로운 청소년기라 참선을 받아들이기 쉽고, 화두참구에 집중이 잘 될 수 있다.
- 학부모들도 자녀들과 함께 수행을 하여 자녀들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자녀에 대한 믿음이 키울 수 있다.
- 자녀와 부모가 함께 동참함으로써 가족이 인간회복을 공유하고 삶의 목표를 구현하는 수행환경 조성과 인간가치를 구가하는 가정형성에 이바지할 것이다.
- 4박 5일의 단기출가에서 단기출가의 의미를 보다 신선하고 폭넓게 주지시켜 새로운 삶의 태도와 인생의 폭넓은 이해를 촉진시킨다.

■ 주요 내용
- 나는 무엇인가. 인생사에 있어서 목표의 발견. 간화선과 화두. 인간의 가치와 존귀. 주인의식.
- '시대'의 의미. 자율의 힘. 지혜(깨달음)의 위대함과 지혜의 적용. 참나의 작용. 본래완전무결한 본래자신

■ 일 과 : 법문, 점검, 단식, 묵언, 행선, 좌선, 예불, 선어록독송, 요가, 울력, 산행, 중단반조

■ 효 과
- 참선과 금강단식을 병행한 본 수련은 심신의 홀가분한 경쾌함을 통감할 수 있음
- 통찰로 지혜의 극치에 도달하고 참나 회복으로 천성이 바뀜
- 심신개벽, 성격개조로 자신감 신념증대, 창의성 및 잠재능력개발
- 사회생활과 섭취하는 음식의 변화로 인해 유소년기부터 생기는 성인병 예방 및 치료 효과
- 체질개선을 통한 고혈압, 당뇨, 여드름, 피부미용, 아토피, 여성병 등 다양한 질병의 예방 및 치료
- 다이어트 1일 최고 3kg
- 감식(예비단식)과 보식(단식후) 및 요요현상이 없으며, 참선으로 단식부담 제로

■ 대 상 : 청소년 - 고교생 및 부모동반(부 또는 모) / 일반 - 대학생 및 일반인

■ 수련일정
- 청소년 2009년 12월 24일 ~ 2010년 1월 3일(1,2차)
- 일반 및 청소년 통합 2010년 1월 9일 ~ 2월 24일(3-6차)

차수	수련명	날 짜	기 간	대 상	장 소
1차	인출반	2009. 12.24 ~ 12.28	4박 5일	고등학생(보호자 동반)	활인선원
2차	인출반	2009. 12.30 ~ 2010. 1. 3	4박 5일	고등학생(보호자 동반)	활인선원
3차	비다반	2010. 1. 9 ~ 1.13	4박 5일	일반	활인선원
4차	비다반	2010. 1.16 ~ 1.20	4박 5일	일반	제주 원명선원
5차	통합반	2010. 2. 6 ~ 2.10	4박 5일	고3, 일반	활인선원
6차	비다반	2010. 2.20 ~ 2.24	4박 5일	일반	활인선원

인출반(인생 새출발), 비다반(비우고 다지고)

■ 신청접수 : 네이버카페 활인선원 ▼
■ 문의전화 : ☎ 1644-5266 / 070-7519-9921 찾아오는 길은 카페에 자세히

참선전문도량 활인선원 · 원명선원
안성맞춤고장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대한불교조계종 제주 원명선원 중앙연수원

"번뇌 · 욕망을 깨달음과 선행으로"

■ 법전 스님
조계종 종정



모든 번뇌(煩惱)를 깨달음으로 다듬어 내고
우리들의 욕망을 나눔의 선행(善行)으로 바꿉시다.
오늘 아침 떠오르는 밝은 태양(太陽)이
지혜와 깨달음의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 가운데 번신(飜身)의 대기대용(大機大用)이
있고, 만물(萬物)을 변화시키는 향상(向上)의 일구(一句)가 있으니
모든 번뇌(煩惱)를 깨달음으로 다듬어 내고
우리들의 욕망을 나눔의 선행(善行)으로 바꿉시다.
원(願)은 나와 이웃에게 덕(德)을 입히는 이타적(利他的) 소망이요,
나눔은 내일의 복전(福田)을 일구는 자기 헌신(獻身)입니다.
올해는 용서하는 마음을 실천합시다.
용서는 미운 사람을 받아드리는 자비의 수용이요,
증오와 원한을 사라지게 하는 사랑의 베풂입니다.
올해는 인욕으로 자기를 다스립시다.
분노는 타오르는 불꽃같아 자기를 불태우게 하니,
참고 견디면 백만 가지 장애가 사라질 것입니다.
올해는 두 가지 사랑을 실천합시다.
하나는 착한 것을 사랑하는 일이요,
또 하나는 착하지 않는 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올해는 부끄러워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가집시다.
부끄러워하는 것은 자기 허물을 깨닫는 일이요,
뉘우치는 것은 자기 업장을 소멸시키는 일입니다.
오늘 아침 위와 같은 서원(誓願)을 실천하면,
모든 재앙은 사라지고 가문(家門)이 안락(安樂)해 질 것이요,
나라에 덕행(德行)이 가득하면 백성(百姓)이 태평가(太平歌)를 부를 것입니다. 화(禍)와 복(福)은 본래 문(門)이 없으나 스스로 업력(業力)에 따라 부를 뿐입니다.

"진심을 다해 성심성의로 새해를 열어갑시다!"

■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신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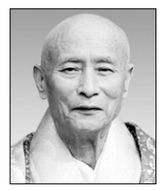
경인년(庚寅年) 희망찬 새해를 맞아 국민 여러분의 평안과 건강을 발원합니다.

지난 해 우리는 어느 해 보다 힘들었던 경제위기, 남북문제, 그리고 우리 사회 내면의 갈등 등 수많은 도전과 시련 속에서도 '희망과 서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난관의 극복은 간절한 발원으로 지혜를 구하고, 무상(無常)의 깨달음을 얻어 보리행을 실천할 때만이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경인년 새해, 우리는 행복을 참구하는 내면의 간절한 발원을 바탕으로 나와 우리, 나와 사회, 그리고 세상을 향해 소통하고 화합하는 성숙된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공동의 선을 위해 노력할 때 우리 사회 곳곳에 '관용의 꽃'이 피어나고, 비로소 '소통의 물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단한 삶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또한 희망과 행복을 꿈꿀 수 있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단성무이(丹誠無二; 진심을 다해 성심성의로 일함)의 마음으로 그 꿈을 실현시켜 나가야 합니다. 사바세계의 화평(和平)과 중생계의 안락(安樂)을 위하여 국민 여러분 모두는 간절하면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발원합시다.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이타심을"

■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 신년사



새로운 희망과 기대에 찬 경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해는 국민생활이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국민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성과를 일구어 냈습니다. 특히 세계금융정상회담인 G20정상회의를 유치해 세계무대 중심으로 도약하는 2010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 불교계도 지난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불교계 주요 종단의 대표자가 새롭게 선출돼 도약과 발전에 새로운 활기를 띠게 됐습니다. 각 종단이 변화와 개혁이라는 기치아래 내실을 다지고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불교문화의 백미로 손꼽히는 '영산재'가 유네스코에 등재돼 불교문화가 국제사회에 새롭게 조명 받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불자 여러분! 세계는 지금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지혜와 자비의 밝은 마음이 바탕이 되고 나보다는 남을 먼저 배려하는 이타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성불하지 못하더라도 중생을 모두 제도하겠다'는 대승보살의 대원력처럼 경인년은 호랑이의 포효하는 기상을 힘차게 펼쳐나가야 하겠습니다. 불자님들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 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삶의 텃밭서 행복의 주인공 되라"

■ 혜초 스님
태고종 종정



어느 때 왕궁 앞을 지나던 요가수행자가 큰소리로 말했다.

"나는 드디어 도를 완성했다. 그 결과 10년 동안 땅속에 갇혀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죽지 않고 사는 비결도 얻었다."

그 소리를 들은 임금이 그를 불러 말했다.

"10년 동안 땅속에 묻어놓아도 살아있다면 나라의 절반을 주고 이 궁궐의 절반크기의 궁궐을 지어주리라."

그렇게 두 사람은 약속을 했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요가수행자는 땅속에 묻혔다. 10년이 흐른 뒤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요가수행자를 땅 속에서 꺼내니 놀랍게도 살아있었다.

"대왕이시여. 제가 이제 살아났으니 약속대로 나라의 절반을 주고 궁궐을 지어주십시오."

그곳을 지나가던 헐벗은 거지가 중얼거렸다.

"떨 떨어진 놈… 10년을 땅 속에 묻혀있어도 살 수 있는 놈이 겨우 땅이나 궁궐을 요구하다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날 때부터 위대한 능력을 스스로 가진 존재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또 실현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사랑하고, 수행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바라고 요구하는지 곰곰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스스로 인생의 주인공인데 누구에게 무엇을 바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능력을 확인하고, 실현하고자 열심히 했으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내게로 돌아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베풀고 나눌 것인가를 궁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 삶입니다.

새 해부터 각자 삶의 텃밭에서 나의 위대한 가치와 능력을 확인하고 실현하기 위해 공부하고, 일하고, 사랑하고, 수행합시다.

그리고 얻어진 결과를 베풀고 나눕시다. 그러면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행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내 안의 부처님을 일깨우라"

■ 도용 스님
천태종 종정



내 안에 부처님을 일깨우라.

죄와 복을 비우고 내 안에 부처님을 일깨우라.
봄에는 꽃이 좋고 가을에는 달빛이 좋구나.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요
겨울에는 눈이 아름답도다.
부질없는 생각 말고 일심청정 이룬다면
언제나 좋은 해요, 좋은 날이로다.

無心心中生般若 (무심심중생반야)
無處住心無生住 (무처주심무생주)
無着心住一切處 (무착심주일체처)
無住無心不思議 (무주무심부사의)
무심은 밝은 거울, 지혜롭게 비춰주니
불생불멸 그 세계를 머묾 없이 가는구나.
그 무엇도 집착 없어 허공같이 살아가니
본래 청정 무심자리 해탈열반 그 자리라.

무심의 눈을 뜨라 어떤 아름다움도 볼 수 있다.
마음을 열라 모든 진실을 이해할 수 있다.
힘껏 뛰어라 푸른 꿈이 이루어진다.

"세계의 리더로 우렁찬 사자후를 떨치자"

■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신년사



경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해는 우리에게 크나큰 인내를 요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국난극복의 능력과 위기일수록 강해지는 위기극복의 유전자가 있기에 지금의 경제위기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당면한 위기극복을 넘어 좀 더 긴 호흡으로 미래의 비전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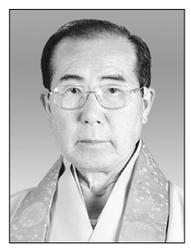
우리 불교가 추구하는 자리이타 사상은 불교의 미래뿐만 아니라 화합을 통한 공동발전이라는 세상의 희망에도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 줍니다.

시련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연마재가 됐듯,

경인년, 우리 국민 모두 당당히 세상의 리더가 되어 용맹하고도 우렁찬 사자후를 떨치길 기원합니다.

"상생화합의 덕행이 실현되길"

■ 도흔 정사
진각종 종정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각계각층 불자 제현님들의 생활 속에 항상 불은(佛恩)의 가호가 함께 하시기를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불은의 가호(加護)와 광명을 받지 못하고, 무명과 혹업(惑業) 속에 살고 있는 중생세계에는 상극(相極)의 불화가 발생한 갈등과 불행의 병폐로 인하여 국가 사회와 인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행의 요소를 시급히 제도하기 위하여 경인년 새해에는 우리 모든 불자들이 다같이 합심(合心)하여 다음과 같이 서원덕목을 세우고 실천하여야 하겠습니다.

첫째, 부처님의 교법 실천으로 마음 속에 있는 탐진치 삼독을 제거하고, 용맹정진으로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여야 합니다.

둘째, 내 허물을 낮과 같이 밝게 보는 행자가 되어서 남의 허물은 내 허물의 그림자임을 알고, 먼저 체(體)가 되는 내 허물을 고치어 그 그림자도 자연 발라지게 된다는 진리를 실천해야 합니다.

셋째, 상생화합(相生和合)의 덕행(德行) 실현으로 국가사회가 통합되며, 남북 상호의 이해가 증진되어 평화통일의 숙원성취를 위한 심혈을 기울이며 인류평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불자와 국민은 민족정기와 국운 융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생활불교의 실천철학이 국민과 인류를 평화롭게 하고 지상정토를 이루어서 인류공영이 실현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서원합니다.

"수행공덕이 모두에게 미쳐 만선동귀를"

■ 통리원장 혜정 정사 신년사



경인년 새해, 참회와 서원 그리고 수행과 회향으로 복지구족(福祉具足)한 한해가 되길 서원합니다.

올해는 몸으로 진실한 행을 실천하고, 입으로 진리의 참 뜻을 전하며, 마음으로 부처의 보리심을 일으켜 선악 시비 선후 본말의 인과 이치를 깨달아 우리의 복과 지혜를 키우는 한해가 되길 서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일상의 부족함을 심인의 넓은 마음으로 덮고, 넘침은 회향의 공덕으로 나눠, 하나 된 민족, 하나 된 인류라는 상생의 문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행공덕이 국가와 인류 모두에게 미치게 하여 만선동귀(萬善同歸)의 가치를 자내증(自內證)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번뇌의 허물은 무분별의 지혜로 깨치시기 바랍니다,

경인년 한해, 부처님의 가지력과 자심선행의 공덕이 넘치시길 합장 서원합니다.

"동체대비의 보살정신 구현하자"

■ 효강 정사
총지종 종령



경인년 새해를 맞이해 불자의 가정에 비로자나부처님의 지혜와 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다시 한 해를 맞이하여 우리 불자들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지금까지의 구태의연한 자세를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물질 위주의 삭막한 현실 속에서 탐진치에 물든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청정한 삶을 영위하여 사회의 모범이 되도록 불자로서의 각오를 새롭게 합시다. 그리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나 자신을 정화하고 그러한 정화를 바탕으로 사회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고 나아가서는 온 인류를 선도하는 대승적인 참된 불자로 거듭나는 한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 위주, 금전만능의 세태라지만 서로가 의지하여 살아가는 중생계의 참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마땅히 아집과 이기심을 벗어버리고 열린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차별없는 마음으로 무연대자, 동체대비의 보살정신을 구현할 때에 비로소 진정한 나의 행복과 나의 가정, 나아가서는 사회의 안정과 국가의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지혜와 자비가 한층 증진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밝은 빛이 모든 중생 깨우치길"

■ 죽산 스님
관음종 종정



元朝佳節到初曉
宇宙森羅盡是光
無思萬思始初心
沙界紅塵氣一塵
又放光明法自在
早光能覺一切衆

새해 아침이 밝아오니
우주 삼라가 온통 광명이로다.
온갖 생각이 초심에서 비롯되고
세상의 먼지도 먼지 하나가 나르는 것이요
광명이 널리 높고 진여의 法 자재함에
밝은 빛이 모든 중생들 깨우침이로다.

"파사현정 기치로 사회역할 다하자"

■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신년사



'지혜와 용맹'의 상징인 호랑이해를 맞이했습니다.

어느 시대든 사람들을 정화시키고 사회를 정진시키는 일은 불교의 몫이었고, 그때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세상을 이끄는 빛이었습니다.

국민 대중은 사회적 소통과 통합을 이루는데 불교계가 많은 역할을 해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파사현정'의 기치로, 불의와 사악함을 혁파하고 우리 사회를 올곧게 만들어 가는데 불제자들이 한마음 되는 경인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가르침 따라 복덕이 구족한 한해 되길"

■ 총지종 통리원장 원송 정사 신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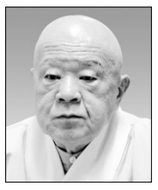
힘찬 도약과 불굴의 정신을 표상하는 호랑이해, 경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본래 무시무종(無始無終)이기에 새해나 지난해나 다를 바 없으나 세간사에 있어서는 지난 잘못을 참회하고 새 마음가짐으로 한 해를 설계하는 것은 필요할 것입니다. 깨달음의 눈으로 본다면 날마다 새로운 날, 날마다 좋은 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열심히 정진하고, 보살도를 실천하는 한 해가 되시고, 법신여래의 광명이 항상 하시기를 진심으로 서원합니다. 옴마니반메훔.

"서로 융화해 안락한 이상사회로"

■ 대한불교원융종 종정 일공 스님



원통 융화한 경인년 인간 사회가 됩시다.

융화는 서로 단합하고 친선하며 서로 도와서 공존(共存), 공영(共榮)하는 공동생활의 규범입니다. 모든 공동생활체가 서로 융화하면 이 사회는 가장 평화롭고 밝고 안락한 이상사회가 될 것입니다.

경인년 새해가 밝아 불타의 지혜의 빛과 자비의 향기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하니 진중에 서 연꽃이 피듯 간혹은 힘든 삶이지만 서로가 융화하고 단결하면 불타의 지혜의 빛을 볼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 자신의 한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밝혀 깨우쳐 일구면 자신이 원하는 길이 보일 것입니다.

"욕심 놓고 인정을 베풀라"

■ 대한불교 무량종 종정 혜안 스님



東天陽出 西邊雪(동천양출 서변설)
黃葉去春 好時節(황엽거춘 호시절)
喜悲本是 夢中事(희비본시 몽중사)
浮欲放下 施人情(부욕방하 시인정)

동쪽에서는 해 뜨고 서쪽에서 눈 온다
시든 낙엽도 지난 봄에는 화려했다네.
울고 웃는 것은 본래 꿈속의 일이라
밝아오는 새해에는 부질없는 욕심을 내려놓고
인정이나 베풀면서 우리 살아가세

"법을 깨달아 불국정토를"

■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정 붕해 스님



雖多誦經(수다송경) 비록 수많은 경전을 외워도
不解何益(불해하익) 깊은 뜻을 알지 못하면 어찌 이로우리.
喜法臥安(희법와안) 불법으로 인해 기쁘면 누워서도 마음이 편안하고
心悅意淸(심열의청) 마음이 기꺼우면 그 뜻이 청정하구나.
從正解脫(종정해탈) 올바른 법을 좇아 해탈하여
寂然歸滅(적연귀멸) 고요함속에서 온 세상 본래의 참 뜻으로 돌아가리라

"중생의 업식서 벗어나 주인공으로"

■ 대한불교불입종 종정 면철 스님



如日月光明 能除諸幽冥
斯人行世間 能滅衆生闇

경인년 밝은 해가 높이 떴습니다. 사람마다 업 놀음에 빠져 쫓기고 있습니다. 자연은 언제나 무정 설법으로 부처님의 태평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중생의 한계를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잘하고 잘못한일이 한치도 어김없이 자기의 몫이란걸 하루 빨리 깨우쳐야 합니다. 새해에는 중생들이 어두운 그늘에서 벗어나 유정 무정이 함께 춤추는 이 성스러운 우주의 법연에 주인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모두가 모두를 아우르는 새해 되길"

■ 대한불교삼론종 종정 혜공 스님



물길은 터주지 아니해도 스스로 흐르는 것

묻거니 무엇을 일러 가는 해라 하고 또한 새 해라 합니까?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건만 세인이 스스로 분별하여 가는 해 오는 해라 합니다. 어제는 지났으니 내 것이 아니요. 내일은 오지 아니했으니 또한 내 것이 아닙니다. 어진 농군은 닭의 울음을 듣고 새벽을 준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개의 짖음을 듣고 도둑을 경계합니다. 옳다 그르다 시시비비는 웬 말입니까? 올해는 모두가 모두를 아우르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길은 터주지 아니해도 스스로 흐르는 것을.

"가정마다 육근청정, 복덕구족하길"

■ 조계종삼화불교 종정대행 총무원장 혜인 스님



계율이 청정하니 가사 한 벌이면 족하구나.

존경하는 불자 여러분 2010년은 여러분의 가정마다 모두 육근청정(六根淸淨)하시고 복덕구족(福德具足) 하시길 염원드립니다.

경인년 새해는 G20국가의 화합과 발전으로 한국 중심의 국운이 융창하니 사해대중(四海大衆)이 부모형제를 만나 행복해하는 해입니다.

동녘해가 천지를 비추니 행복하고 평화롭습니다. 비둘기 노래하고 물고기 춤추니 자유롭고 평화로워 천지에 기쁨이 넘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양보로 화합하자"

■ (사)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 정관 스님



"서로를 격려하고 양보로 화합하자"

다시 태어나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며 보수와 진보, 부자와 가난, 아래와 위, 지위고하 등은 아만과 편견, 대립과 갈등을 버리고 경인년 새해는 동체대비를 새기며 이천만 불자가 앞장서 이끌어 갑시다.

"이해와 합의로 행복사회 이루길"

■ 대한불교 조동종 종정 지명 스님



門門一切境(문문일체경)
回互不回互(회호불회호)
回而史相涉(회이사상섭)
不而依位住(불이의위주)

육근의 일체경계는 이것과 저것이 섞기기도 하고 안 섞기기도 하니 이것과 저것이 번갈아 섞기면서 또 다시 새로운 하나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더 나은 세상 좋은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경인년 새해는 모두를 이해하고 합의해서 행복한 사회를 이루어 나갑시다.

"땀흘리며 고행하신 부처 닮자"

■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회장 목탁 스님



가슴 벅찬 기대와 희망으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고통이 많은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중생들이 사랑하는 마음, 연민의 마음, 기뻐하는 마음, 평등한 마음의 사무량심과 사섭법에 의지하여 행을 보인다면, 이는 높고 낮음이 없고 있고 없음이 없는 평등한 세상이요, 희로애락을 같이하는 공생의 극락정토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이 필요로 하는 모두가 불교의 지도자요 포교사이니 안주보다는 땀 흘리는 고행을 보여주신 부처님을 닮아가는 불제자가 됩시다.

"해마다 달마다 매우 좋은 시간"

■ 대각교단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종정 가산 스님



庚庚喃喃 十方春 寅寅日日法界輝
新新玄玄妙吉祥 年年月月欣好時
曺溪山門無一物 溪聲無盡長廣舌

제비 남남이 우는 소리 시방세계가 봄이요 경인년 첫날의 해가 법계에 빛나고 새롭고 새로우며 그윽하고 그윽한 묘한 길상이 해마다 달마다 매우 좋은 시간이로다.
조계산문에는 한물건도 없으나 시냇물소리 다함없는 부처님의 말씀이니 종문에는 오직 하나 대각의 길 뿐이로다

"이웃과 사회에 대한 봉사로 불법홍포"

■ 해동불교임제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지암 스님



부처님의 바람을 한번 일으킬 때, 불법의 바다가 임제종에 넘쳐흐르고 부처님의 바람을 한번 고요하게 할 때, 불법의 바다가 임제종에 넘쳐흐른다.

촛불을 밝히면 세상은 밝아진다. 이웃과 사회의 봉사가 지름길이면 부처님 법을 세상에 알리는데 최선을 다한다. 신년 경인년에는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충만하시길. 경인년 새해 나무 아미타불.

"조화로운 세상위해 실천하자"

■ (사)한국불교정토종 종정 월호 스님



경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나간 어두운 일들은 모두 잊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화합과 상생의 길로 힘차게 걸어갑시다.

갈등과 분쟁은 모두 마음에서 비롯됨을 알고, 세상 모든 존재와 또 나 자신과 화합해 갑시다. 세상의 모든 존재가 자기 자리를 찾아 조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경인년 새해에는 많은 여러 종도들이 종단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기 바라며 사부대중을 위하여 기도 정진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늘 실천하는 수행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부처삼고 몸을 법당 삼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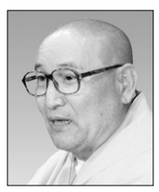
■ (사)대한불교금강종 종정 무학 스님



경인년 새해는 백수의 왕인 호랑이해를 맞습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 내실을 다져 각 개인마다 자성에 충실하여 인격을 완성합시다. 하심하여 스스로 자아를 돌아볼 때 인격은 완성되며 불자로서 깨달음의 세계에 바로 나가 대승의 참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위엄과 관용을 지닌 불자가 된다는 것은 지혜와 복덕을 갖추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부처삼고 몸을 법당삼아 열심히 정진하면 불교의 세계 포교화를 성취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인년 새해에는 '자비 불국정토' 를 이룩합시다. 성불합시다.

"부처님 진리에 의지해 정진을"

■ 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 회장 회암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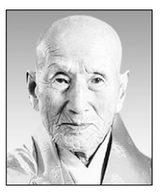


但依金口聖言(단의금구성언)
莫順庸流妄說(막순용류망설)
常念柔和善順(상념유화선순)
不得我慢貢高(부득아만공고)

천년 만년 두고 변치 않는 부처님의 진리 말씀에 의지하고
범부중생의 부질없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며
언제나 부드럽고 온화하고 착하며 순하기 위해 힘쓰고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고 높이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참회 · 자비의 마음으로 이웃 대해야"

■ 대한불교선각종 종정 영담 스님



기축년을 보내고 경인년 새해를 맞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돌아보고, 헛된 것은 버리고 참된 것을 되살려 밝은 마음으로 새해를 맞아야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동체대비심으로 화합하고 양보해야 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거울삼아 자신의 허물을 참회하고 자비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내 가족, 이웃, 사회, 나아가 국가와 민족, 인류의 안녕과 발전을 약속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해의 어려움을 훌훌 털고 화해와 용서로써 밝은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새해에도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항상 가득하시기 서원합니다.

"긴히 마음머리 잡아"

■ 대한불교위앙종 종정 위산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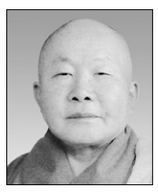


塵勞迥脫事非常 緊把繩頭做一場
不是一番寒徹骨 爭得梅花撲鼻香
百億乾坤長安裡任運騰騰樂萬般

생사의 진로에서 벗어나는 것은 보통일이 아니니 긴히 마음 머리를 잡아서 한바탕 힘쓸 지어다. 만약에 찬 것이 한번 골수에 사무치지 아니 할 것 같으면 어찌 매화의 향기가 코에 가득함을 얻을 수 있으리오.
백억이나 되는 건곤의 장안 속에서 경인 등등해서 오만가지가 다 즐겁도다.

"말보다 정진으로"

■ 대한불교법상종 종정 자봉 스님



다투고 떠드는 잡된 희론의 집착은
의당히 버리고 높은 정진 일으키라
모든 하늘 그리고 세간을 건지려면
이러한 높은 정진을 그대여 배우라.
(해심밀경 분별유가품)

새해 경인년에는 이같이 말보다 정진으로 수행하는 불교인이 되어 남 탓하는 풍조 만연한 세상에 대거리 하지 말고 수행 실천의 표본이 됩시다.

항상 바르게 업을 닦아 정진하면 어떠한 환란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믿고 다함께 정진합시다.

"삼독 번뇌에서 벗어나길"

■ (사)대승불교본원종 종정 대화 스님



일체번뇌는 무명(어두운 마음)에서 생기고 모든 재앙은 삼독(탐욕, 성냄, 어리석음)에서 비롯되나니 다 같이 삼독 번뇌에서 벗어나 맑고 밝은 마음으로 경인년 새해를 맞이함으로써 복되고 희망찬 한해가 되도록 합시다.

나무 아미타불.

"각자 마음의 태양을 발현시키길"

■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종정 정화 스님



경인년 새해를 맞이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살림살이' 를 잘 해야 합니다. 살림살이란 서로가 살리면서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1세기는 인류 최고 · 최대의 문명과 문화 그리고 과학의 세기임에도 실성(失性)한 이들이 부지기수인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본성이 태양처럼 밝은 빛임을 모른 탓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새해의 밝은 빛처럼 우리 모두 다함께 각자 마음의 태양을 발현시켜서 광명세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경인년 새해 아침에.

"여래의 묘법이 도량마다 나투네"

■ (사)한국불교미륵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송정 스님



一心淸淨不動地(일심청정부동지)
萬法歸一祖師禪(만법귀일조사선)
釋迦如來眞如法(석가여래진여법)
庚寅年道場化現身(경인년도장화현신)
自他一時成佛道(자타일시성불도)

마음이 청정하고 동요함이 없음에 만법이 귀일하는 조사의 공안이요 여래의 참된 묘법이 경인년 도량에 화현하여 나투시니 너와 내가 다 함께 성불 하리다

"삼라만상이 모두 불법이라네"

■ (재)대한불교미타종 종정 청연 스님



허공에 하늘 빛깔은 바른 빛깔이 아니오.
아침에 떠오르는 해는 진정으로 떠오르는 해가 아니라네.
석양에 떨어지는 빛 또한 낙조가 아니라네.
초저녁 떠오르는 달 역시 떠오르는 달이 아니로세. 허깨비 같은 나에게 속았으니 진정 한심하지 않을 손가. 모든 것이 착각인데 어찌 알지 못 한다 말인가.
애지중지했던 모든 것이 모두 망상인 것을. 본래 참 성품 찾으려거든 허깨비에 속지 마소. 삼라만상이 모두 불법이라네. 진정 찾고 보면 이것이 견성인 걸 알지 못하고 어렵다고만 하는구나.

"천만가지 어린 소리 국민의 향불이네"

■ 대한불교삼보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법장 스님



數十年來不自由(수십년내부자유)
四方門口爭時咻(사방문구쟁시휴)
我今立守歸中動(아금립수귀중동)
千智聲心琴佛國(천지성심금불국)

수십 년을 사는 동안 자유를 몰랐구나
동서남북 다니면서 말장난에 시간 가고
내 이제 일어나 중방세계 움직이니
천만가지 어린 소리 온 국민의 향불일세.

"깨달음을 향한 용사가 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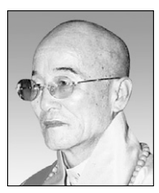
■ 현대불교조계종 종정 벽운 스님



오직 덕성(德性)과 지성(智性)을 겸비한
깨달음을 향한 용사가 되라
생명(生命)의 웅비(雄飛),
그 위대한 법계 평화를 위하여

"국태민안과 경제회복을 기원하며"

■ (사)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 회장 송산 스님



十方同一會(시방동일회)
各各學無爲(각각학무위)
此是選佛處(차시선불처)
心空及第歸(심공급제귀)

시방의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각기 하염없이 진리를 배우나니
이곳이 부처를 뽑는 도량이며
마음 비우고 급제하여 돌아가네.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원력을 다져"

■ 대한불교대승종 종정 천광 스님



경인년 새해에도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제 희망찬 새해를 맞아 항상 진실하고 밝은 말과 행동으로 정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수행이란 때와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돈독한 신심으로 원력을 다지는 것이 수행입니다. 모든 생명이 더불어 화평하고 행복하기를 항상 기원하며 살아야 합니다. 서로가 하나의 뿌리라는 도리를 알아 전생과 후일, 오늘의 나임을 알아야 합니다.

새해에는 부지런히 익혀서 눈 밝은 참 불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본심에서 자신을 관조하길"

■ 대한불교대원종 종정 신풍 스님



月到千虧余本質(월도천휴여본질)
柳經百別又新枝(유경백별우신지)

달은 천 번을 기울어 졌다가 돌아와도 그 본질은 살아 있고

버드나무는 백 번 꺾여도 그 가지는 또한 새로운 가지이네.

불가는 항시 본래마음, 본심에 서서 늘 자신을 관조한다.
이것이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고 내 자신을 살피는 것이다.
어디 부처와 조사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님을.

"정진의 자리 찾아 날마다 기쁨을"

■ 대한불교해동종 종정 혜봉 스님



금고기 노니는 검은 하늘엔 문이 없는데
돌 호랑이 높이 뛰어 붉은 해를 물었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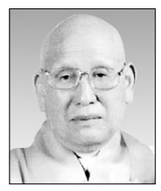
삼동(三冬)의 추위를 싫다 하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시는 사부대중이시여!

모두가 제 자리를 찾아 앉을 수 있다면 다툼이 없을 것이요, 하루 날이 새고 짐을 알 것 같으면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모름지기 이러한 평상심으로 경인년 한해를 날마다 기쁨으로 보내실 것을 바랍니다.

"다함없는 복록과 성취를 기원합니다"

■ (사)대승불교조계종 종정 은파 스님



蒼空暴風佛非動(창공폭풍불비동)
萬年念佛餘無量(만년염불여무량)
今年無盡壽如海(금년무진수여해)
是會大衆必成就(시회대중필성취)

푸른 창공에서 폭풍이 몰아쳐도 본성의 부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일만년 염불을 모셔도 남아넘침이 없나니라.

금년에도 다함 없는 복록이 깨우침의 바다와 같아서

시회대중이 다 함께 뜻하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어 행복한 경인년이 되기를 발원합니다.

"탐욕 성냄 없애면 깨달음 맛보리라"

■ 대승불교태고종 종정 법성 스님



자존심을 버려라

우리가 현세에 눈으로 보고 듣고 행동하는 것을 많이 보아 왔다.

자신의 미약함을 감추고 항상 상대보다 위상을 더 하고자 자기를 내세우고 남을 낮추어 보고 실제 자기는 그 상대보다 훨신 못하면서도 저기의 주장을 내세우고 돌아서며 후회하고 고민하고 고통스로워 하는 것이 자존심인가?

자존심을 버리고 참 나를 알고 바른 행동을 한다면 무한한 부처님의 대 광명의 빛이 있지 않겠는가 자신을 낮추고 [자존심을 접고] [상대를 존경]하며 쉼없이 정진 할지어다.

"열심히 수행하며 자유롭게 사시길"

■ 한국불교법안조계종 종정 운봉 스님



맑은 하늘을 우러러 한바탕 웃고나니
온 법계에 중생들이 춤을 추며 웃네.
한세상 속에 영원이 깃들어 있음이니
어찌하여 다른 곳에 기웃거리는가.

모든 생의 들고 남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 속에서 만 가지 형상들이 돌고 돕니다. 진리 또한 이속에 있습니다. 한 세상 나온 거 열심히 수행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부처님께서 평생을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경인년 새해에 건강하시오.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길.

"밝은 마음으로 행복한 삶 공유하길"

■ 대한불교화엄종 총무원장 화응 스님



경인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나간 한해가 즐거웠다면 다시 다가오는 새해도 분명히 밝고 명랑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불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그리고 세계인 모두가 밝은 마음을 일으켜서 밝고 맑은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밝아지는 마음은 광명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둠을 거두어 버리면 그 곳이 광명의 빛이 뚜렷한 세상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항상 밝은 곳을 향해 기도하고 기원하면서 어둠을 쓸어내는 서원을 세워갑시다.

"참여하는 불제자의 정신을 살리자"

■ (재)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



경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모든 불자님들의 희망이 원만히 성취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신도님들께 올해 신앙생활의 계획을 세우는 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불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둘째, 사회의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재적사찰의 운영에 관심을 갖자는 것입니다. 경인년 한 해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발원하는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佛紀 2554年 庚寅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 조계종 제 2교구 본사
효찰대본산
용 주 사

주 지 정 호
특 보 성 로
부주지 성 직

총무국장 성 무 교무국장 탄 웅 재무국장 응 진
사회국장 본 각 포교국장 덕 본 박물관장 보 승

■ 부설
효행박물관
경기불교대학
효행교육원
용주사 템플스데이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188 ☎ 031)234-0040 / 팩스 031)234-2818 www.yongjoosa.or.kr

佛紀 2554年 庚寅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제 6교구본사
마 곡 사

주지 원혜



총무국장 선일
교무국장 정덕
재무국장 성파
호법국장 혜광
사회국장 임하
대회협력국장 혜우

마곡사 사부대중 일동

주소 : 충남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567번지 / 전화 : 041)841-6221



佛紀 2554年 庚寅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삼환양초 임직원 일동

전화 031)766-0242~3
팩스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14-1 일본산 후리지아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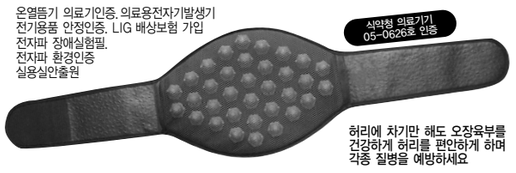


佛紀 2554年 庚寅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불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앓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넘쳐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 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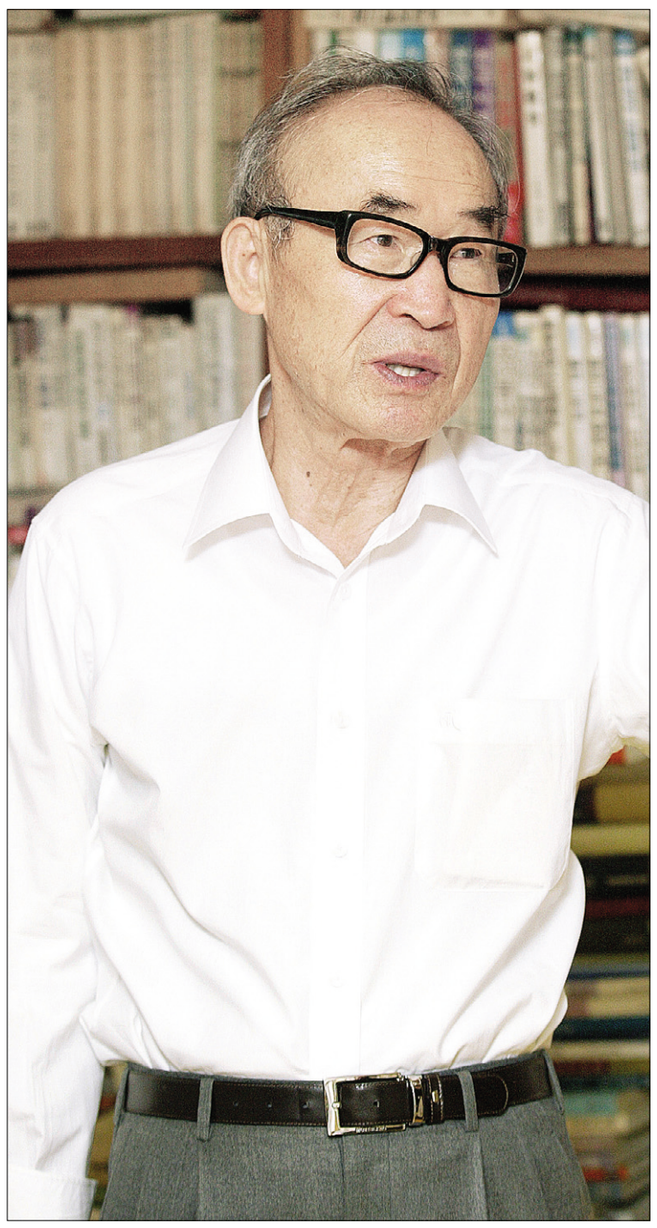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쌍방향 소통'에 현대사회의 모든 해답 있어

고은 '소통'을 말하다

2010년 새 해가 밝았다. 온 인류가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며 흥분하고 열광했던 해로부터 10년이 지났다. 강산이 한 번 변하는 세월이다. 지난 10년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가?

중생계의 10년이 긴 시간인지 찰라에 불과한지 중생은 알지 못한다. 다만, 지나 온 시간을 돌이켜 다가오는 시간을 보다 경건하고 희망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욕망이 있을 뿐이다. 2010년 경인년을 맞아 우리 시대의 '움직이는 선지식' 고은 선생을 만났다.



–시간은 오고감이 없다는 말이 새롭습니다. 경인년, 호랑이 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생각 해 보면 호랑이는 참으로 많은 측면에서 우리 민족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호랑이 뿐이겠습니까? 12지의 동물들이 다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 열 두 동물은 실재하는 것과 상상 속의 동물로 나눠지겠지만, 오랫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해왔습니다. 이 오랜 과정을 통해서 그 동물들은 사람과 구분되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인간 영역에 포함돼 인간의 확대된 개념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동물자체의 존재감과 존엄성보다는 인간의 심성을 반영한 나머지 인간의 권속으로 여겨지기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호랑이 해인데, 호랑이는 어떻습니까? 무서운 존재입니다. 아이들에게서 호식(虎食) 상이 보이면 그 아이를 수명연장을 위해 절에 팔기도 하고 출가를 시키기도 했지요. 조선 후기까지도 한양의 궁성에 호랑이가 출몰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인간에게 직접적인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것이 호랑이의 실상이지만 12지에 포함된 호랑이는 할아버지의 시자노릇으로도 표현되고 속담 속에서 담배를 피우기도 합니다. 산신도에서는 산신의 종자이기도하지요. 호랑이의 용맹성과 무서운 능력을 공포의 대상으로만 인식한 게 아니라 인간의식안으로 불러들여 공포를 제거한 것입니다. 호랑이의 정체성을 내면화함으로써 인간과 호랑이를 동일화시킨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동물을 자기화하여 삶의 양상으로 확대해온 고대의 상상력에 새삼 감탄하게 됩니다.

–그렇게 내면화된 호랑이의 용맹성과 제왕적 권능이 오늘의 우리에게 전이되어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 해는 세상이 좀 더 밝고 행복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호랑이의 기상이 어느 한 사람이나 특정 계층만 떨쳐 일어나는 것으로 작용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우리 민족 나아가 온 인류가 평등하게 골고루 힘찬 기운으로 일어서는 해가 돼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평등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 방위적으로 소통이 잘 되어야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사회는 소통을 화두로 삼아 왔습니다. 새 해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소통은 국가형태나 사회제도의 형식을 초월해 근본적으로 중요한 가치행위입니다.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어느 집단이나 사회도 제대로 운영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한 사회가 기능하는 근본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형제와 남매 사이에 서로 소통하지 못한다면 그 가정은 불행해집니다. 가정의 확대된 개념이 사회이고 국가라고 본다면 소통되지 않는 사회 국가는 끝내 숨통이 막혀 죽게 되겠지요.

그런데 소통은 언제나 쌍방향이어야 합니다. 지배자가 피지배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 다시 말해 일방적은 소통이 아닙니다. 과거 봉건사회나 왕권국가에서도 훌륭한 왕은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읽지 않고 성군이 된 예는 없지요. 원효 스님을 생각해 보세요. 동시대에 훌륭한 스님이 많았지만 유독 원효 스님이 지금까지 더 사랑받는 것은 그는 민중과 함께 소통됐기 때문입니다. 민중 속에서 쌍방향 소통을 했던 원효였기에 그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입니다.

부처님도 쌍방향 소통을 하셨습니다. 그 위대한 깨달음을 중생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언제나 중생들이 원하는 것 아파하는 것 등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거기에 맞는 가르침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스승으로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인간이 역사를 이루어 가는 과정 자체가 소통의 역사인 셈입니다.

–요즘처럼 통신수단이 발달하고 사회의 구성 계층이 다양화 되는 세상에서 소통에 대한 요구가 다양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과분할 정도로 소통의 토대가 잘 마련돼 있습니다. 인터넷 세상에서의 소통경로는 무한정으로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현실 소통뿐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까지 자유분방한 소통의 길이 개척되고 있는 겁니다. 막아서도 안 되고 막을 수도 없는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우리의 의식도 뜨겁게 변화해 나가야 합니다.

한국불교는 대중 속에서 '자기의 타자화' 이뤄야

일상화된 기도해야 자기변혁시키고 삶의 동력 줘

–문학은 어떤 입장에 서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난 오랜 시기에 걸쳐 문학은 행복했습니다. 문학이 작가와 독자로 구성돼 있다면 과거는 작가에서 독자로 일방적인 소통이 이뤄졌었지요. 문학의 주체라 할 작가의 작품이 객체가 되는 독자에게 전달되는 감동형식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객체(독자)가 주체(작가)를 선택하고 평가하는 시대입니다. 쌍방향 소통에 대한 요구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작가의 새로운 모습이 다듬어져야 하는 변화의 선언인 것입니다. 문학의 1차적 유희론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류의 끝까지 함께 할 문학이 소통의 방식에 변화를 요구받는 것은 문학 생산자들에게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를 준 것입니다. 나는 고전적인 문학의 소통방식이 깨지고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거듭날 것을 확신합니다. 특히 인터넷 속에서의 변화는 5년 내지 10년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문학 자체의 본원적 의의는 버뀌어질 수 없습니다.

–한국의 불교계에도 소통의 방식에 대한 담론이 형성돼야 할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불교도 소통에 목말라 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을 물가에 데려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는 것은 말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말이 물을 먹지 않으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말에게 물이 좋다는 것을 알리고 먹기를 권유해야 합니다.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말입니다. 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행태에서 장대를 들고 감을 따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전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중 속으로 들어가서 희로애락을 함께 해야 합니다. 불교는 관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종교 아닙니까? 행여 수행이 배타적이어서는 안 되지요.

지금 서구는 불교를 매우 진지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오래전에 서천축에서 온 불교를 만날 때처럼 말입니다. 니체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이 '서양의 붓다'라고 까지 자처했고 앞으로 불교가 서구로 올 것이라 예언했는데 지금 그대로 되고 있잖습니까?

한국불교는 대중 속으로 보다 더 깊이 들어가 함께 해야 합니다. 자칫 시대의식 없이 태만하면 우리의 전통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할 뿐더러 서구로 갔던 불교가 우리를 압도하는 경우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주어야 할 곳으로 달려가야 하고 가서 대중과 함께 향유해야 합니다. 대중과 하나로 어우러져야 하는 것이지요. 지금은 '자기의 타자화' 시대입니다.

–불교의 역사는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과 중생이 소통해 온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렇지요. 소통이 되지 않고 독선화 관념화 되는 불교는 박물관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계종의 경우를 보면 출가를 해 구도에 대한 치열함을 지키고 있습니다. 출가자의 입장에서 지키는 치열함이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만에 하나 소통불가와 고착성을 낳는 경우를 경계해야지요. 왜 그렇게 되느냐? 한 번의 출가로 끝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출가를 하고 구도를 하는 과정에서도 다시 출가하는 것, 출출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출출출가가 요구되기가 연속돼야 합니다. 출가는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성입니다. 부처님도 끝없이 출가를 했습니다. 돈오와 점수를 얘기하는데, 돈의 연속으로서의 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돈오는 일회성이아니라 수 없이 되풀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점'의 수없는 되풀이로서의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재가자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재가자들도 끝없이 발심하고 또 발심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3일 기도 7일기도 등은 하나의 형식이고 방편일 뿐이고 끝내는 일상화돼야 합니다. 금생에 다 못하면 내생에 한다는 각오로 일상화된 기도여야 자기를 변혁시키고 삶의 동력을 주는 겁니다. 점점이 이어져서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지극한 신행이 필요하고 그러한 자세로부터 이웃과 사회가 함께 소통될 때 진정한 붓다의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대담=임연태 부국장 · 사진=박재완 차장

佛紀 2554年 庚寅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승보살의 서원과 실천으로"



선학원에서 열린 조선불교선종 제 1회 수좌대회(1931년 3월 14일).

한국의 청정 전통 선맥을 계승합니다.

선의 현대적 계승을 통해 21세기 정신문명을 선도합니다.

재단법인 선학원 임원 일동

재단법인 선학원

우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40번지 | 전화 (02)734-9654~6 | 전송 (02)734-3410

佛紀 2554年 庚寅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大韓佛敎 天台宗

종정 김도용

학교법인 금강학원 부이사장 전 운 덕

총무원

총무원장 주정산
총 무 부 장 김무원
교 무 부 장 김유정
재 무 부 장 김용암
교 육 부 장 김세운
사 회 부 장 김경천
규 정 부 장 김영제
종정사서실장 정장호

원로원

원로원장 윤덕산

감사원

감사원장 변춘광
감 사 위 원 이월장

종의회

종의회의장 김도산
종의회부의장 정명구
최인규

참 의 원 장 권무원
금강대학교총장 성낙승
원각불교사상연구원원장 권기종

■ 총본산 구인사 : 충북 단양군 영축면 백자리 132-1번지 전화 043)423-7100 팩스 043)420-7399 www.cheontae.org

---

근하신년

생활불교 실천불교 진각종

대한불교진각문화전승원 건립불사의 원만추진을 서원합니다

총 인 도 흔
사서실장 원 암

통 리 원 장 혜 정
총 무 부 장 수 성
총 무 국 장 일 경
기 획 국 장 상 명
전산미디어팀장 재 당
재 무 부 장 관 천
포교·문화사회부장 덕 정
포 교 국 장 원 혜
문화사회국장 대 원
건 설 국 장 의 신
전승원건립추진 팀장 법 정
전승원건립추진건설담당 원 주
국제불교연구소장 덕 정

교 육 원 장 경 정
교 법 부 장 지 정
교 법 국 장 효 원
교 육 부 장 상 제
교 육 국 장 정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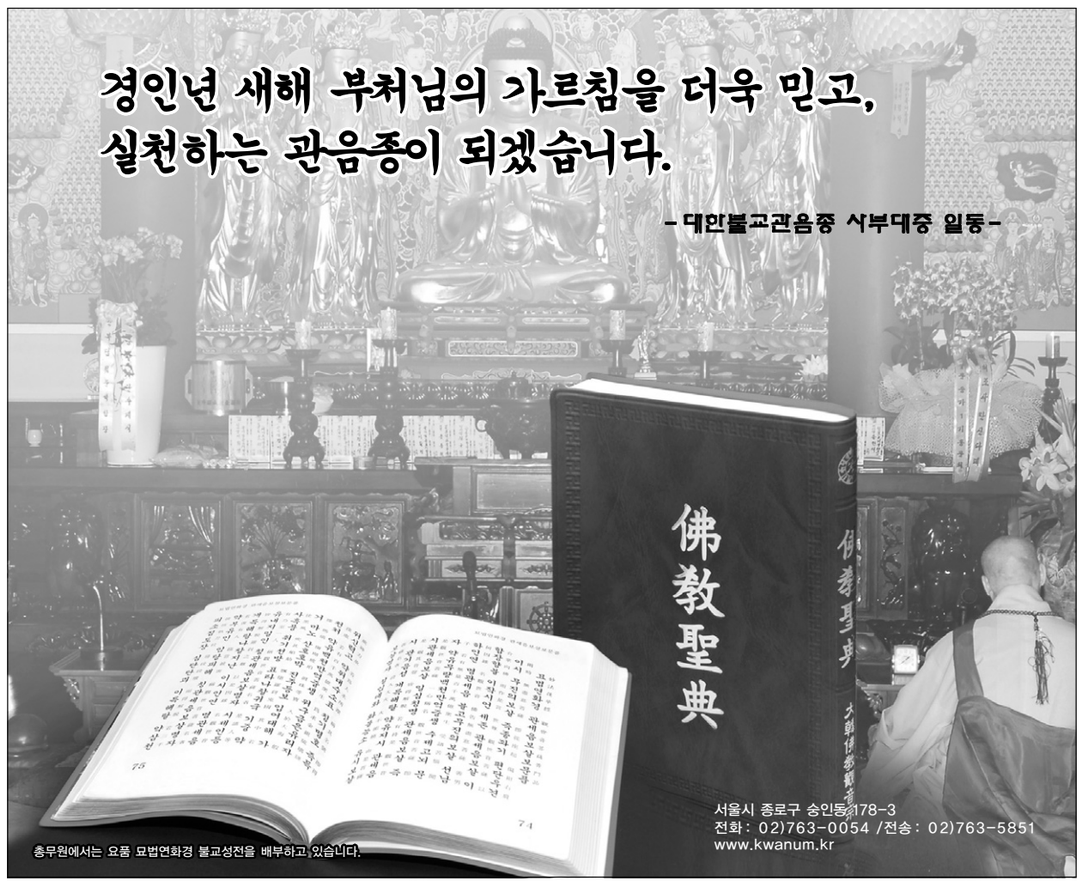
종 의 회 의 장 성 초
부 의 장 진 성
부 의 장 대원심

사 감 원 장 효 운
사 감 부 장 정 훈
사 무 국 장 청 효

진각대학원장 수 성
교 학 처 장 혜 언

대한불교 진각종 JIN-GAK BUDDHIST ORDER 136-865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2동 22번지 전화 : (02)913-0751~4 팩스 : (02)913-0755 http://www.jingak.or.kr

---



생활불교 실천불교의 대도

불교총지종

종령 효 강 대종사

통 리 원 장 원송
중앙종의회 의 장 대원
사 감 원 장 지성
중 앙 교 육 원 장 화령
동해중학교 이사장 의강

총무부장 경 원
재무부장 시 정
교정부장 선도원
사회부장 인 선
법장원 일동
밀교연구소 일동
사회복지재단 일동
통리원 임직원 일동

서울경인교구 교구장 시정
부산경남구교 교구장 지광
대구경북교구 교구장 지공
충청전라교구 교구장 지성
각 사원주교 일동

서울경인교구 신정회 지회장 만덕장
부산경남교구 신정회 지회장 신인록
대구경북교구 신정회 지회장 권오남
충청전라교구 신정회 지회장 민순분
각 사원 신정회 회장과 임원 일동

총 지 종 보
종보 통신원
미 타 회
장기요양센타
바라밀공부방
효사랑상조회

謹賀新年

서울 강남구 역삼 2동 776-2 전화 02)552-1080-3 전송 02) 552-1082 홈페이지 www.chongji.or.kr

새해 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법신비로자나부처님의 가지력이 충만하시기를 서원합니다.
총지종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상임이사. 불교텔레비젼 이사. 불교방송 이사. 한일 불교문화교류협의회 상임이사.
한중일 불교문화교류협의회 상임이사 종단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새해 경인년에도 교도 여러분들과 함께 더욱 발전하는 종단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원(종)

宗正 靈山 一空

總務院長 원정 성관
부 종 정 유념 법신. 천호 천호

원 로 원 성인 선명 신수 평신 정각 법성

승정원원장 체운

중앙종의회
종의회 의장 체의
종의회 의원 송운 체각 보각 보운 체선 체명 해명 혜철

교육원장 해안 문화원장 혜광 중앙비구니회장 선덕 중앙비구니회부회장 체명
총무부장 진호 포교부장 보정 사회부장 정안 중앙비구니회총무 선효

종무원장 혜민 각우 보정 우담 도경 정안

■ 총무원 152-052 서울시 구로구 구로 2동 704-39호 전화 02)853-0531~2 / 팩스 02)853-0533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종정 현붕해 총무원장 김화엄

재단이사장 경원

명예이사장 붕해
상임이사 혜광
이사 화엄
이사 도기
이사 일명
이사 경담
이사 자명
감사 혜천
감사 혜원

원로의장 금봉
원로부의장 명종
원로위원 무찰
수암
청송
송은
원각
원경

사서실장 혜천

종회의장 경원
사무처장 삼주
종회의원 덕봉
재성 정일
자명 무상
도정 만성
지공 자견
지연 지허
도허 경담
승원 법안
법경 일운
경담 해월
현암 상원

호계원장 용암
포교원장 도안
감사원장 석성

선거관리위원장 해동

총무원부원장 법성
총무부장 용운
교무부장 지언
재무부장 보월
규정부장 진송
교육부장 법해
포교부장 지현
홍보국장 지현

서울교구 직할
부산교구 삼주
대전교구 용주
대구교구 고봉
울산교구 지운
인천교구 용운
강원동북 보해
강원서북 동청
경기남부 광은
경기북부 도혜
경남교구 승원
경북교구 해동
전남교구 혜성
전북교구 석성
충남교구 지우
제주 경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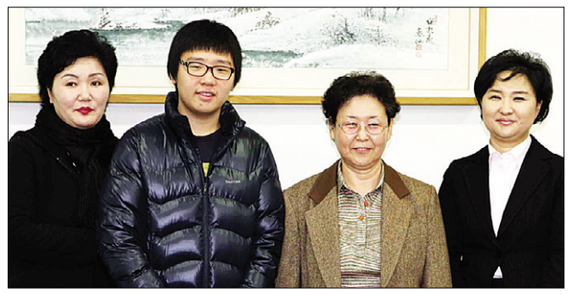
■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www.Ilbung.org

총무원 : 서울시 강북구 인수동 440-27 엄지빌딩 4층
TEL 02)998-8161,2 FAX 02)998-8384

"엄마와 함께 대학생이 됐어요"

불교문화학과 이색신입생 주수자·정혜선씨, 여동화·김영목씨

부산 · 경남권역에서 최초로 신설된 부산 동명대(총장 이무근) 불교문화학과에 모녀와 모자가 각각 동반 합격해 오는 3월 캠퍼스에 입성한다. 주인공은 모녀지간인 주수자(67)씨와 정혜선(40)씨, 모자지간인 여동화(46)씨와 김영목(18)군이다.


왼쪽부터 여동화(46)씨와 아들 김영목(18)군, 주수자(67)씨와 딸 정혜선(40)씨

40대 평범한 주부로 살아가던 딸 정혜선씨가 일흔을 바라보는 어머니와 동반 입학을 선택한 것은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해 온 어머니의 삶에 대한 보답과 늘 숨겨왔던 못다 이룬 배움의 한 때문이다.

정씨는 "오남매 중 첫째 딸로 동아대를 졸업하고 세월이 흘러 가업을 일으키기 위해 경남정보대학에서 신발공학과를 수료했다. 대학원에 진학해 좀 더 깊이 공부하고자 했지만 당시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의 위기를 맞아 그 꿈은 좌절됐고, 어린 나이에 또 다른 사업으로 재기하려 했으나 그 역시 만만치 않았다"고 회상했다.

이제 20여 년의 세월이 흘러 오남매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해 잘 살고 있다. 하지만 자식들은 어머니 주수자씨에게 잘 해주지 못한 미안함이 짐으로 남아 있었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드리기 위해 딸 정혜선씨는 어머니와 함께 동명대 불교문화학과에 입학해, 어머니가 남은 생을 불교공부를 하며 행복하고 편안하시길 발원했다.

"저와 어머니 모두 너무 삶에 치여 살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늘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다고 허망해 하셨는데, 다섯 남매가 모두 장성해서 대학졸업하고 결혼해 분가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유산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제가 열심히 어머니의 공부 뒷바라지를 해 학사모를 반드시 씌워드릴 거예요."

또 다른 주인공인 어머니 여동화씨는 항상 아들 김영목군에게 "불교공부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지침"이라고 가르쳐 왔다. 그래서 엄마의 뜻대로 불교문화학과를 선택해준 것이 너무 고맙고 기특하다.

"저도 엄마인데 왜 SKY대학에 보내고 싶지 않았겠어요? 살아보니까 재물은 욕심을 낼수록 빠져나간다는 걸 알았고, 다른 전문지식을 배우기 전에 마음을 비우는 공부가 먼저 이뤄져야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동화씨는 "나 역시 이번이 공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불교문화와 함께 사회복지 공부를 병행해, 나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회향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여씨는 "절에 갈 때 아이들은 데리고 다녀도, 가기 싫어하는 남편은 차마 데리고 가질 못한다. 그런데 이웃종교의 경우 온가족이 함께 다니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웠다"며 "나 같은 만학도도 좋겠지만, 우리 아들보다 훨씬 뛰어난 젊은 인재들이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박지원 기자

자갈치 시장서 나눈 따끈따끈 팥죽

대한불교진여원 · 원오사 동지 행사 다채… 야구 선수 사인회도

동지를 하루 앞둔 구랍 21일 대한불교진여원(원장 남보타월)은 자갈치시장에서 동지팥죽나누기 행사를 마련했다.


진여원 진여봉사회에서 자갈치시장 한가운데서 상인과 시장을 찾은 모든 이에게 따뜻한 팥죽을 나누는 모습.

'따뜻한 팥죽, 나누는 한 끼로 세상과 소통을'이란 주제와 함께 자갈치시장 한가운데에서, 추운 날씨에도 열심히 생활하는 시장상인과 부산시민에게 팥죽 2000여 그릇을 무료로 나누었다.

이에 앞서 20일에는 부산 구포역 광장에서 독거노인 및 광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팥죽 1000그릇을 전하기도 했다.

진여원은 매년 부산시 북구 화명제3그린공원(현충공원)에서 호국영령위령대제와 보훈가족 위안행사를 10년간 봉행해오며, 동지팥죽 나눔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했다.

남보타월 원장은 "경기가 어렵지만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새벽을 열어나가는 자갈치시장의 상인들과 부산시민에게 추위와 삶의 무게를 따뜻하게 녹여주고 싶어 동지팥죽을 나누게 됐다"며 "몸도 마음도 추운 연말에, 달콤한 팥죽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한번쯤 이웃을 돌아보는 자비로운 마음과 삶의 여유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통도사 극락암 분원 반송 원오사(주지 정관)도 동지를 맞아 12월 22일 '동지맞이 팥죽나눔 및 롯데자이언츠 선수 팬사인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오전 10시 동지 불공을 시작으로 11시 30분부터 반야심경 봉독, 회주 명정 스님(통도사 극락선원장) 법문, 장학금 전달식, 롯데 자이언츠 이대호 · 정보명 선수 사인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어려운 가정형편을 이겨내고 있는 초등학생 21명에 6개월간 매월 5만원씩 30만원을 전달하고, 고등학생 1명에 50만원, 보광고등학교 불교동아리 활동비 및 급식비로 100만원, 여중생 위생용품 공급사업 6개월간 420만원 등 1200만원을 전달했다.

원오사장학회는 '꿈과 희망, 그리고 용기'를 이념으로 2008년 5월 뜻을 모아, 지역 내 가정형편이 어려운 어린이와 북한어린이 돕기, 조손가정 여중생 위생용품 후원, 고교 불교동아리 후원, 원오사 꿈나무 공부방 및 어린이법회 등을 후원하고 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원오사 주지 정관 스님과 인연이 깊은 롯데 자이언츠 이대호 선수와 정보명 선수가 참석해 사인볼을 직접 선물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어 오후 1시 30분에는 원오사에서 운영 중인 방과후 아카데미 '든솔학교' 학생들의 핸드벨, 오카리나 연주, 대금 및 플룻 연주, 청공중창단(단장 정성민) 및 합창단 공연 등으로 따뜻한 동지를 보냈다.

원오사 회주 명정 스님은 "원오사에 정관 스님이 주지 소임을 맡은지 2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불교의 미래인 어린이 인재불사까지 열심히 하고 있어서 뿌듯하다"며 "어려운 이웃을 따뜻하게 보듬을 수 있는 시민의 안식처가 되도록 스님과 신도들 모두가 힘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지원 기자

꽃산병·연꽃절편 등 사찰음식 선보여

삼광사 '천태종 사찰음식 문화 한마당' 개최

전통사찰음식이라면 의례 비빔밥, 채식위주 식단 정도로만 생각하게 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전통사찰음식은 어떤 것들이며, 이들은 각각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왼쪽부터 정산 천태종 총무원장,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화산 삼광사 주지, 제종모 부산시의회의장, 정각 부산시불교연합회 상임부회장이 사찰음식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부산 삼광사(주지 화산)는 구랍 19일 경내 지관전에서 '천태종 사찰음식 문화 한마당'을 개최했다.

행사의 1부 개회식은 테이프 컷팅, 삼귀의례, 국민의례, 개회사, 환영사, 치사,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고, 이어 2부 사찰음식전에는 밥 · 국수 · 죽 정식상차림, 곡물 및 양념장, 꽃산병 · 연꽃절편 · 다양한 재료의 다식, 야채유부전골, 인삼튀김, 부각, 젓갈 대신 천연재료로 감칠맛을 낸 다양한 김치류 등 100여 가지 이색 사찰음식이 소개됐다.

특히, 이들 사찰음식의 가장 큰 특징은 오신채(五辛菜)인 파, 마늘, 부추, 달래, 양파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이들 재료는 자극적인 맛과 향으로 마음을 다치게 할 수 있어, 불가에서는 음식도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필요한 약이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기원한다.

주지 화산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소개된 전통사찰음식은 자연을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본연의 빛깔과 향기가 그대로 살아 숨쉬기에,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큰 선물일 것"이라며 "한국불교 역사와 함께해 사찰음식의 대중화와 그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찾아, 자연의 숨결과 정갈함을 느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삼광사 주지 화산 스님 및 허남식 부산시장 등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박지원 기자

통도사 합동소방훈련

자위소방대 역할 중요

구랍 24일, 양산 통도사는 '2009 통도사 초광역민관 합동소방훈련'을 개최했다.

예고 없이 이뤄져 현장감을 더한 이날 훈련은 화기를 취급하는 통도사 공양간에서 실수로 불이 나 국보인 대웅전 등으로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 실시됐다.

이날 현장에서 훈련을 지켜본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찰 화재의 경우 자위소방대의 초기 진압 기능이 아주 중요함을 절실히 느꼈다"며 "자위소방대 시설과 장비, 교육훈련, 투자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훈련에는 통도사 주지 정우스님을 비롯해 박연수 소방방재청장, 경남도 서만근 행정부지사, 안기섭 양산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박지원 기자

"차, 불성 되찾게 하는 매개체"

불교문화컨텐츠연구원, 여연 스님 초청 발표회



불교문화컨텐츠연구원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정산, 동명불원 주지)는 여연 스님(전남 강진 백련사 주지 · 사진)을 초청해 '불교문화컨텐츠로서 차(茶)문화'를 주제로 제2회 월례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여연 스님은 "불교잡지 월간 <해인>을 창간하게 된 계기는 법당에 대중을 모아 법문을 설하면 100~200명에게 불법을 전할 수 있지만, 불서는 동시에 1000~2000명을 포교할 수 있는 효율성 때문"이라며 불교콘텐츠의 무궁무진한 활용가능성을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차문화 속에는 향과 맛, 멋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동안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불성을 되찾을 수 있는 훌륭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며 "사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불교용품점과 같은 작은 공간에 다실을 마련해 차문화를 소개하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급부상 중인 크루즈 관광산업과 관련해 "동명불원은 주요 항구가 인접한 사찰인 만큼 부산시와 연계해 크루즈 관광을 통해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차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봐도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연 스님은 한국차문화학회장, (사)일지암 초의차문화연구원 이사장, (사)대한민국 차품평회 이사장, 부산여대 다도학과 석좌교수, 동국대 불교대학원 문화컨텐츠학과 교수로 차문화의 대중화에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지원 기자

국제불교지도자협회 INTERNATIONAL BUDDHISM LEADER ASSOCIAION
LEADER 국제불교지도자협회 INTERNATIONAL BUDDHISM LEADER ASSOCIATION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사단법인 한국불교 종단 총연합 진흥회

총 재 : 우 꾸마라 큰스님 일공 큰스님
회 장 : 목탁 혜은
부 회 장 : 불원 혜정 금당 법성
포교원장 : 불도 천장
여성분과 : 김정남 조도명화 김명숙 채혜숙
기획실장 : 문 수
법인이사 : 최정아 길민정 김승희 고우종 상영민 최정연



외교법인
한국 미얀마 친선 교류협회
미얀마 연방정부 국제 붓다 사리 박물관

세계 일류 평화와 불교 홍법에 기여하고 인간방생을 통해
중생을 제도하고자 세계 불교 지도자들이 부처님 세상을 열고자 합니다.
마음과 행을 같이할 분이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지도자로서의 보람과 긍지를 느끼시도록 땀을 흘리지 않으시렵니까?
불제자로서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도반이 됩시다.

대표 02)733-5665 팩스 : 02)733-5671

미얀마 연방정부 친선대사 : 선우용녀 님. 김흥국 님. 이의정 님. 조성희 님

C764-101904.2.153:10PM페이지1(1.1)

총동문의 밤 개최

금산사 화엄불교대학

백제불교의 맥을 이으며 지성불교,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지역의 불교인재를 21년째 배출해 온 화엄불교대학 총동문회(회장 이근재)는 구랍 18일 전주 아름다운컨벤션홀에서 총동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금산사 회주 월주 스님,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을 비롯한 지역의 스님들과 김완주 전북도지사, 김백호 전라북도 신도회장, 김희수 전북도의장, 송하진 전주시장, 화엄불교대학 동문 300여 명이 참석했다.

월주 스님은 법어에서 "부처님께서 성도 후 500리 길을 걸어 녹야원에서 다섯 비구를 만나 전법한 사실은 위대한 사건이었다"며 "불법이 세간을 떠나서는 안 되며 불법을 전래하고 포교해 많은 사람들이 불교적 세계관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팥죽나누기 행사

송구영신 한마음

전북 완주 송광사(주지 도영)는 구랍 19일 전주시내 중심가인 전주객사와 코아호텔 앞에서 '동지맞이 팥죽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동지팥죽나누기 행사는 송광사 신도회가 지역 경로당과 전주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며 동지팥죽을 통해 지난해의 액운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의미가 담긴 3000명 분의 팥죽을 준비했다.

도영 스님은 "탐진치 삼독을 떨쳐버리고 모든 장애에서 벗어나 묵은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자는 의미로 이웃과 팥죽을 나눔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5199

"수행 포교공덕 대중에 회향"

광주전남 포교사단 19일, 단장 이·취임 및 포교사의 밤 개최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포교사들의 한마당 잔치가 벌어졌다.

조계종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단장 정영균, 이하 광주전남포교사단)은 구랍 19일 광주불교회관 법당에서 '단장 이·취임식 및 2009 포교사의 밤'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포교원 포교부장 계성 스님, 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성오 스님, 자황 스님(해남 광보사 주지), 포교사단 강호원 중앙단장을 비롯해 정영균 신임단장과 150여 포교사와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는 불교의식에 이어 지난 10여 년간의 포교사들의 활동 경과보고와 우수 회원·팀에 대한 포교원의 표창수여, 단기전달, 이임사(백남용 단장), 공로패 수여, 신임 단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 취임사(정영균 단장), 격려사에 이어 광주전남포교사단 회원들의 축하공연과 송년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강호원 중앙단장(가운데)이 정영균 신임단장(오른쪽)에게 포교사단기를 건네주는 모습.

2009년 한 해 동안 포교현장에서 누구보다 많은 활동을 한 포교사에 대한 시상식에서 임채중 포교사가 포교원장상을 수상했다. 총재상은 장재영, 중앙단장상은 김병중, 지역단장상은 조왕훈·강경자 포교사, 군종교구상은 김경석 포교사가 각각 수상했다.

지난 2년간 광주전남포교사단을 이끌었던 백남용 단장은 이임사에서 "가정과 사회에서 맡은 일을 하면서 수행과 포교를 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많다"며, "지금껏 묵묵히 전법의 사명을 실천해 주신 여러 포교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많은 수행과 포교의 공덕을 여러 대중에게 회향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마지막 말을 전했다.

제6대 단장에 취임한 정영균 단장은 취임사에서 "먼저 지역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남은 여생을 여러 대중들과 포교사단을 위해 봉사하며, 불법을 실천하는데 혼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취임식에 이어 지난 한 해 동안 펼친 포교사단의 활동이 슬라이드를 통해 상영됐다.

이어 진행된 공연에는 재능 있는 단원들의 아코디언, 거문고, 살풀이 춤, 찬불가 공연이 이어져 참여한 포교사 가족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요양보호사 자부심 'UP'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어울림 마당 개최


제2회 요양보호사 어울림마당'에서 무공 스님이 인사말을 하는 모습.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관장 무공)은 구랍 22일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2층 대강당에서 복지관 부설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배출한 요양보호사 10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제2회 요양보호사 어울림 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고창지역 노인복지의 최일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요양보호사간의 정보공유와 정서적 지지체계 확립을 위한 자조 모임을 위한 자리였다.

관장 무공 스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요양보호사의 미래'를 주제로 요양보호사 전문강연이 진행됐다. 이어 요양보호사 한마음 대회가 열려 행사에 참여한 요양보호사들의 노래 및 장기자랑이 이어져 즐거운 화합의 시간이 연출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함께 진행된 요양보호사 체험 수기공모전에서는 고창군자활지원센터의 노소희씨, 고창군노인복지센터의 김경희·장국옥·김화자씨, 크로버실버빌 소규모요양시설 정은영씨 등 5명이 선정돼 표창장과 선물을 받았다.

요양보호사 체험 수기 수상작은 이날 행사장에 비치되어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면서 몸소 느꼈던 기쁨과 감동을 행사 참여자에게 전달하는 자리가 됐다.

이날 행사를 준비한 복지관 관장 무공 스님은 "고창지역 노인복지의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에는 요양보호사들의 역할이 컸음을 강조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요양보호사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거룩한 불교인이 되도록…"

현공 윤주일 선생 열반 40주기 기념학술대회

재가불자로서 호남불교의 대중화에 큰 업적을 남긴 현공 윤주일 선생에 대한 추모세미나가 열렸다.


현공 윤주일 선생 열반 40주기 기념학술대회에서 이순규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호남불교문화연구소(소장 이중표)는 구랍 18일 현림회(현공 윤주일 선생 기념사업회, 회장 이순규)와 같이 '현공 윤주일 선생 열반 40주기 기념학술대회'를 전남대학교 인문대 강당에서 개최했다.

'현공 윤주일 선생의 삶과 불교사상'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현공 윤주일 선생의 제자들과 암도 스님(前 포교원장), 성오 스님(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2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행사는 현공 윤주일 선생에 대한 전시회와 '내가 본 현공 윤주일 선생'(이순규 서남대 의과대학 교수), '현공 윤주일 선생과 호남불교'(이중표 전남대 철학과 교수), '현공 윤주일 선생의 불교사상'(조윤호 전남대 철학과 교수)이 발표됐다.

현공 윤주일 선생은 일제치하와 해방 이후 혼란한 정국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고자 조선불교청년회와 조선불교유신회 창립에 나서, 호남민들을 위한 불교학생회 결성에 기여했다. 이후 전남대 철학과 교수로 국립대학에 불교철학을 개설해 수많은 불교학자를 양성했다. 저서로는 <대중불교 입교문답> <불교강연집> <불교대성전> 등이 있다. 이순규 회장은 "현공 선생의 뜻을 받들어 거룩한 불교인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자비·사랑 나누는 음성공양

원각사 6번째 작은 음악회 개최

빛고을 광주의 도심 속 포교당 원각사(주지 현고)는 구랍 24일 성탄전야를 맞아 '제6회 자비와 사랑이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채규옥의 사회로 진행된 음악회는 원각사 어린이 합창단의 '크리스마스 캐롤', 원불교 합창단의 '캐롤 및 찬불가', 원각사 합창단의 '겨울가곡' 등으로 크리스마스이브 분위기를 북돋았다.

이어 원각사 부주지 도요 스님의 인사말, 그룹사운드 카운카크의 '추억의 7080', 국악인 김창규, 김미연의 '국악한마당', 사회자 채규옥의 '흥겨운 대중가요', 외국인 이주여성들의 '외국인 무대', 정광아 등 4인의 '부채춤' 등 한국전통무용으로 이어졌다.

행사의 마지막은 광주의 제일가는 가객 정용주의 '모두 하나되는 무대' 공연으로 음악회를 마무리됐다. 도요 스님은 인사말에서 "이웃종교에 대한 이해는 오늘날 종교인들의 사명"이라며 "원각사의 음악회가 모두를 상생케 하는 작은 지름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원각사에서는 2004년 '제1회 자비와 사랑이 함께 하는 작은 음악회'를 시작으로 매년 12월 24일 밤 아기 예수탄생을 축하하는 음악회를 열어 종교간 화합과 교류를 다지는 행사를 진행해왔다.

김창규 기획국장은 "일반인을 위한 포교 방법으로 문화적인 접근은, 종교를 떠나 모든 시민들에게 부담없이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다. 종교적 편향 문제가 되는 요즈음, 이러한 행사를 통해 종교의 화합과 교류를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계율 지켜 불자다운 삶 발원

정광학원 대승원 법당서 수계 법회 봉행

종립 정광학원(이사장 정각)은 구랍 21일 대승원 법당에서 정광중·고교 학생 210명과 교직원, 학부모에 대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구랍 21일 정광학원 수계식에서 정광 스님이 계를 설하는 모습.

명종으로 시작된 수계식은 불교의식에 이어 청성, 청사, 계도, 참회, 연비, 선계상, 계청수여, 발원으로 진행되었다.

첫 수계법회에 참여한 어린 학생들은 삼귀의에 이어 수계를 수지 받고 연비대신 단주를 손에 찼다. 같이 동참한 교직원과 학부모는 연비를 했다.

평소 다른 아이들과 떠들고 장난칠 학생들이지만 이 날만은 계사 스님의 법문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수계식의 경건함을 잘 따랐다.

정각 스님은 수계의 의미를 설하면서 "부처님의 계율을 받아 부처님의 삶처럼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배우고 실천하자"고 당부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佛紀 2554年 庚寅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 조계종 제11교구 본사

불 국 사



주지 성타
관장 종상
학장 덕민
선원장 종우
부주지 장주
총무 종천
기획 정문
교무 정수
재무 종천
사회 각천
포교 성요
호법 종민
신도회장 변영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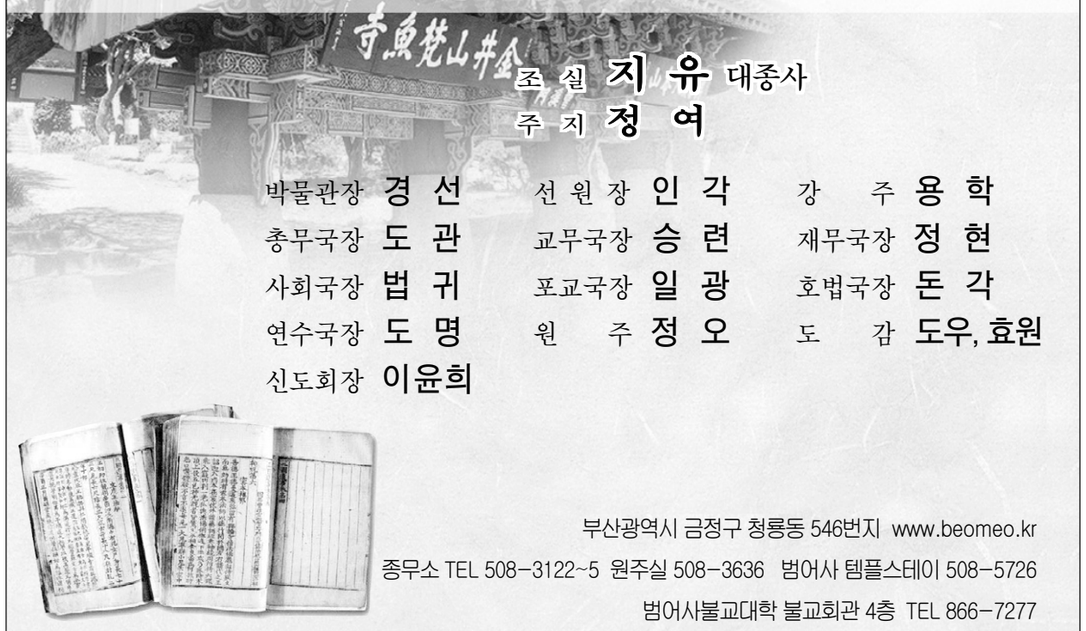
부설기관
- 분당포교당 석가사
- 불국성림원 (불국사부설 노인요양시설)
- 불국사 문화회관
- 불국사유치원
- 성림어린이집
- 경주장애인종합복지관

대 중 일 동

■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 15 전화 054)746-9912~4 / 팩스 054)746-1476

佛紀 2554年 庚寅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선찰대본산 금정산 범 어 사



조실 지유 대종사
주지 정여

박물관장 경선
선원장 인각
강주 용학
총무국장 도관
교무국장 승련
재무국장 정현
사회국장 법귀
포교국장 일광
호법국장 돈각
연수국장 도명
원주 정오
도감 도우, 효원
신도회장 이윤희

범어사에는 삼국유사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546번지 www.beomeo.kr
종무소 TEL 508-3122~5 원주실 508-3636 범어사 템플스테이 508-5726
범어사불교대학 불교회관 4층 TEL 866-7277
(사복) 범어사·(재)범어청소년동네 TEL 508-8822 성보박물관 TEL 508-6139

佛紀 2554年 庚寅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불기 2554(2010)년 새해를 맞이하여
부처님의 가피가 온누리에 가득하시길 발원합니다

大韓佛教 佛入宗

宗 正 **勉哲**

元老院長 正 觀
總務院長 鏡 岩

호법원장 **인수** 교육원장 **지학** 종회부의장 **상운** 포교원장 **혜련**
총무부장 **법진** 역경부장 **혜광** 재무부장 **묘훈** 사회부장 **봉산**
감찰부장 **송광** 호법부장 **대원** 포교부장 **관음**
서울경기종무원장 **지철** 부산경남종무원장 **법륜**

■ 總本山 : 忠北 堤川市 鳳陽邑 玉田里 二七一의 三 松華寺 전화 043)653-4800 / 팩스 043)653-5858
■ 總務院 : 忠北 堤川市 靑田洞 八六의 四 전화 043)653-4848 / 팩스 043)642-6660

대한불교 총화종

종 정 **이동광**
부종정 **이정송**
총무원장 **전남정**

종회의장 **최만재** 종회부의장 **기혜성. 김운산**

교육원장 이남은 포교원장 정일광 호계원장 김혜각 감찰원장 김혜암
문화원장 백만우 선 원 장 황혜광 상벌위원장 이만오 선거관리위원장 조고담

총무부장 **김지산** 재무부장 **이지혜** 사회부장 **윤대암** 호법부장 **박정덕**
조직부장 **이지우** 교무부장 **이해오** 감찰부장 **김일봉** 조사부장 **이원일**
교육부장 **최일광** 포교부장 **박지혁** 포교기획부장 **전신오** 문화관리부장 **문보현**
문화부장 **박보광** 호계부장 **박지광**

서울(북)제1교구종무원장 이혜인 서울(북)제2교구종무원장 박현오 서울(남)제3교구종무원장 김범능
경기(성남)종무원장 정법연 경기(서부)종무원장 김혜암 대전종무원장 윤법전
충청종무원장 김법현 경북종무원장 정일광 울산교구종무원장 백만우
경남서부교구종무원장 김만월 경남중부교구종무원장 박심공 부산종무원장 최만재
강원제1교구종무원장 정혜산 강원제2교구종무원장 허승효 광주,전남종무원장 김현산
제주종무원장 김청해 전북종무원장 이기종

■ 총무원 ;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342-1호 전화 031)592-8891 / 팩스 031)592-8892

대한불교 삼론종

종 정 **이혜공** 사서실장 **지영**
부종정 **혜승**
승 정 **향운. 은곡. 인봉**

총무원장 **진봉** 부원장 **지민**
종회의장 **지경** 부원장 **지민**
사정원장 **지운** 부원장 **지법**

교육원장 **명산** 포교원장 **명재** 문화원장 **지향** 수선원장 **지심**
부원장 **혜암** 부원장 **지화** 부원장 **도희** 부원장 **성희**

총무원장 **보명** 재무부장 **일선** 교무부장 **혜송** 규정부장 **혜산** 사회부장 **지허**
총무국장 **자원** 재무국장 **성우** 교무국장 **혜암** 규정국장 **혜관** 사회국장 **도일**

종도일동

■ 총무원 : 서울시 노원구 상계5동 169-539번지 인광빌딩 5층 전화 0502)321-3333 / 팩스 02)937-0344

대한불교 무량종

종 정 **정혜안**
원로원장 **양지은**

종정사서실장 **보인**
기획실장 **종성**

총무원장 **보경** 감찰원장 **오현** 교육원장 **보산** 포교원장 **다정**
총무부장 **보아** 재무부장 **보광** 교무부장 **보성** 사회부장 **원정**
총무국장 **정향** 재무국장 **보혜** 포교국장 **명운** 교무국장 **보정**
조직국장 **정운**

종회의장 **법우** 부의장 **법장. 보월** 사무총장 **보성**
고시위원장 **현장** 상벌위원장 **보각**

■ 총본산 : 경남 하동군 적량면 서리 550 칠보정사 055)883-7771.7790 / 팩스 883-7796
■ 총 림 : 부산시 사하구 괴정2동 314-7 은암천불정사 051)292-4586 / 팩스 292-4586
■ 총무원 : 경남 하동군 옥종면 병천리 442-3 보경사 055)882-1599. 010-3050-1599 / 팩스 883-7796

非營利宗教法人 대한불교 대원종

종정(총무원장) 정허당 신풍

원로원장 달오 부원장 청량범왕
원로위원 대월 지성 수인
연수원장 정봉 부원장 도언
감찰원장 도명 부원장 수안
포교원장 혜조 부원장 경덕
호법원장 법경 부원장 법승
중앙종회의장 정법 부의장 도각 법경
불교예술원원장 박종도 위 원 도영 소현 도이
비구니회장 대광 비구니부회장 연아 성화
사무처장 대광 종정사서실장 소원 종정큰스님시봉 연아
대원신풍불교(승가)대학학장 신풍 부학장 정법

총무원장 대광 총무부장 정법 재무부장 대광
교육부장 연아 포교부장 혜정 기획실장 대각
홍보부장 법경

중앙종회의원 정법 대광 연아 혜정 도언 혜연 조향
각오 혜성 범수 수안 법경

서울교구종무원장 능혜 경북교구종무원장 혜정
대구교구종무원장 대각 부산교구종무원장 정법
경남동부종무원장 보각 목포교구종무원장 법주
포항교구종무원장 조향 경기교구종무원장 일연
전남광주교구종무원장 법정 통영교구종무원장 도언
김해교구종무원장 대광 경기교구종무원장 일연
강원교구종무원장 각오
부산법사단장 수안

신규사암 등록하실 스님 환영합니다. 행자승 모집합니다.
납골당 양로원 역학(철학) 대원승가(불교)대학 및
불교의식 교육생 모집함
지역교구 종무원장 하실 분 초빙 환영합니다.
역학 철학 풍수지리 속성 개인지도신규사찰 등록 환영 사찰이나
포교당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총무원 : 경남 김해시 한림면 병동 20번지 대한불교대원종 총무원 신풍사 / 기도원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931번지 오세암 055)521-1878
한국역술철학 협회 회장 시인 철학박사 종정(총무원장) 정허당 신풍 / 총무원 055)346-2909 무료전화 080-3030-5959 팩스 055)346-2909 / 큰스님 直 055)346-2908 휴대폰 011-869-8608 총무실 010-8548-8608 평생전화 1577-0408 / 한글홈페이지 네이버 대원종 또는 http://cbc108.tv:9004 / E메일 asp8990@hanmail.net

대한불교 연합조계종

총무원장 **혜일**

원로의장 **만월** 원로위원 **도명 오성 진관 각성**
종회의장 **덕산**

포교원장 **무제** 행정원장 **청명** 대외협력원장 **지운** 복지원장 **혜득**
기획원장 **도도** 특임원장 **무심** 무술원장 **풍운** 의전원장 **혜도**
총무원부원장 **정호** 총무원부원장 **명진** 교육원부원장 **무변** 문화원부원장 **혜인**

서울종무원장 **무광** 경기종무원장 **도법** 대구종무원장 **성현** 경남종무원장 **보명**
강원종무원장 **삼광** 충청종무원장 **정화** 전남종무원장 **문정**

규정부장 **도천** 사회부장 **홍일** 공보부장 **보혜** 복지부장 **행적**
기록부장 **정연** 행사부장 **대도** 이외 종도일동

법사 **법안,무계** 사무국장 **문광** 고문 **양태창(KNB방송사장)**
자문위원 **추당(화가) 구한경 권종현 손은주 만송(기자)**

■ 총무원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 2동 1928-13 (1층) 전화 (直) 0502-666-5000 / 팩스 053) 655-3222

앉고 싶고 앉아서 편하면 그곳이 '자기 자리'



봉갑사 회주 도륜 스님

미수 가까워도 치열하게 수행… 후학에 부끄럽지 않으려

부설 거사 창건한 월명암서 '참나' 찾아 정진 또 정진

누구에게나 시간은 똑같이 흘러간다. 같은 시간을 흘려보내지만 사람마다 희비는 다르다. 자식이 태어나 저절로 큰 웃음이 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다른 한 쪽에서는 부모를 잃어 눈물을 훔친다. 나그네가 떠나기 전 서울의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말갛게 개어있었다. 이른 아침부터 달려 도착했던 진주에서의 용무를 마치고 늦은 오후에서야 남해를 돌기 시작했던 나그네. 먹구름 가득한 하늘 사이로 쏟아져 내리는 눈길을 헤치며 한밤중에야 도착한 변산반도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이튿날, 날이 바뀌고 하늘은 개었지만 전날까지 내린 눈으로 여전히 세상은 온통 하얗다. 나그네는 호남 3대 명지로 꼽히는 봉래산 월명암을 찾기 위해 길을 나섰다. 밤새 제설된 덕분에 월명암 입구인 남여치까지 수월하게 차를 몰 수 있었다. 남여치부터 월명암까지는 40분 거리. 그나마 인근 실상사지 등 다른 등산로와 비교하면 가장 가까운 거리의 출발지가 남여치이다. 하지만 눈이 내린 터라 얼마나 더 걸릴지는 알 수 없었다. 나그네는 등산용 스틱과 아이젠을 차고, 짐을 주섬주섬 챙겨 겨울 산행을 시작했다.

무릎까지 쌓인 눈 사이로 고맙게도 사람이 하나 지날 만큼 길이 보였다. 누군가 산을 오르면서 지나간 자리였다. 가파른 언덕에선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그러다 잠시지만 평지를 만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숨쉬기도 몸도 편안해졌다.

"사람 사는 것도 이렇지 않을까?"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월명암에 이르는 길일뿐인데 길의 높낮이에 따라 희비가 교차하는 나그네의 마음이 간사했다. 설산을 오르는 동안 나뭇가지가 휘도록 듬성듬성 얹어진 눈덩이며, 가지 끝마다 맺힌 눈꽃이며 눈이 시리도록 볼 수 있었다. 길을 걸은 지 1시간 여가 지났다. 맞은편에서 미끄러지듯 달려오는 스님을 만났다.

"스님, 월명암은 얼마나 더 가야하나요?" 나그네가 물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저 고개를 돌면 바로에요." 꼴딱 넘어갈 것 같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고개를 넘었지만 월명암에 도착한 것은 아니었다. 그저 나뭇가지 사이로 멀리 보이기 시작했을 뿐이었다.

"아, 속았다!" 하지만 나그네가 스님을 원망할 것은 없었다. "거의 다 왔다"는 말은 그 스님의 기준에 따른 표현이었을 뿐, 같은 거리임에도 월명암을 본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도착하지 못했다고 투덜대는 것은 나그네의 탓 아니던가?

조금 더 능선을 따라 돌아 월명암에 발을 내딛었다. 도량은 온통 눈으로 장엄돼 있었다. 법당에 들어 삼배를 올리고 주지 천곡 스님을 찾았다. "공양부터 하자"는 스님의 말에 산에 오르며 가쁜 숨을 몰아쉬느라 잊고 있었던 허기가 밀려왔다.

때 지나 찾아온 나그네에게 군상을 내면서도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고 미소마저 띄던 공양주 보살이 그리 고마울 수가 없었다. "늘 웃으며 세상을 대하는 자세가 바로 보시(和顔布施)'라 하지 않았던가?

공양을 마치고 나와 대웅전 뒤편 사성선원(四聖禪院)에 오르는 길에서 만난 종각의 종에는 시가 한 수 적혀 있었다.

눈으로 보는 바가 없으니 분별할 것이 없고(目無所見無分別)/ 귀에 소리 없는 소식 들으니 시비가 끊인다(耳聽無聲絶是非)/ 사량, 분별, 시비를 모두 놓아버리고(分別是非都放下)/ 단지 마음의 부처를 보면서 귀의를 하소(但看心佛自歸依)

월명암을 창건한 부설 거사의 게송이었다. 월명암은 불가에서 가장 이상적인 곳으로 여긴다는 산상무쟁처(山上無諍處)이다. 네 성인과 여덟 현인, 열두 법사가 날 것이라는 전설이 전해지는 곳. 동해 낙산사 일출과 비견되는 운해가 어우러진 월명 일출과 낙조로 변산반도 최고의 절경을 자랑하는 월명암을 부설 거사는 신라 신문왕 12년(692)에 창건했다.

일제강점기에는 의병근거지로 활용되다 전소되고 한국전쟁 직전에는 방화로 소실되며 민족의 아픔을 같이 했다. 1954년 재건됐으나 노화된 것을 1999년 주지로 부임한 천곡 스님이 상수도시설 및 석축, 범종불사에 이어 사성선원 불사까지 원만하게 회향시켰다.

원효, 의상과 7세기 신라불교의 대표적인 인물인 부설 거사는 본래 스님이었다. 선묘의 사랑을 영주 부석사의 신장으로 승화시킨 의상은 청정비구의 삶을 살았고, 원효는 요석 공주와 잠시 살면서 아들 설총을 낳고 다시 승려생활로 돌아갔지만, 부설은 달랐다.

도반인 영조 · 영희 스님과 수행하던 부설은 만경부근을 지나다 묘화 여인의 간곡한 청혼을 받았다. 묘화는 부처님 곁에 피어 있는 연꽃 한 송이를 꺾은 죄로 벙어리가 돼 이승으로 추방된 절세미인. 20년 동안 입을 열지 않던 묘화가 부설을 보더니, 부설 스님과 자기는 삼생에 걸친 인연이 있는 천생배필이라며 결혼해 줄 것을 간청했다.

이를 무시하고 떠나려는 부설에게 묘화는 칼을 들고 "불도를 닦아 중생을 구제하려 하는 분이 제 한목숨 구하지 못한다면 장차 큰 뜻을 편다 해도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하며 죽기로써 매달렸다. 묘화와의 인연을 거스를 수 없음을 깨달은 부설은 두 도반에게 도를 이뤄 자신을 가르쳐 줄 것을 당부하면서 헤어졌다.

부설 거사는 묘화와 결혼해 등운(登雲)과 월명(月明) 남매를 낳고 살면서도 수행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부설이 사는 마을 하늘엔 언제나 하얀 눈이 흩날렸다 해서 두능리를 부설촌(浮雪村)이라 부르게 됐다. 부설 거사의 법명도 여기에서 유래 됐다.

어느 날, 오대산으로 공부하러 떠났던 영조 · 영희 스님이 부설 거사를 찾아왔다.

"우리는 목표한 공부를 마치고 왔네만 자네는 여자에게 빠져 낙오자가 됐으니 참 딱한 일이네." 부설은 "세 개의 병에 물을 담아오너라. 서로의 공부가 얼마나 익었는지를 시험해 보리라" 하고는 들보 위에 병을 매달아 놓고 각기 병 하나씩을 치게 했다.

영조 · 영희 스님이 친 병은 깨지면서 병 속의 물이 쏟아졌다. 부설 거사가 내리친 병은 깨졌지만 물은 병 모양을 한 채 그대로 공중에 남아있었다.

692년 부설 거사 내외는 남매를 데리고 지난날 공부하였던 변산으로 들어가 월명암 근처에 부설암을 지었다. 묘화 부인을 위해서는 묘적암을 세웠다. 아들 등운(登雲)을 위해서는 월명암 뒤편의 등운사를, 딸 월명(月明)을 위해서는 지금의 월명암(月明庵) 자리에 월명암을 창건했다. 이름처럼 무명 속의 중생에게 길을 비춰주는 달빛인 곳, 봉래산 월명암이다.

월명암 사성선원은 부설 거사를 비롯해 묘화 부인과 등운, 월명 남매 온가족이 도통해 네 성인이 됐다는 돼서 유래했다. 가족이 함께 도통한 것은 부설 거사 일가가 유일하지 않을까?

월명암에 도착한 후에도 사성선원에 발을 들이기는 산길을 걸어온 만큼이나 오래 걸리는 듯했다. 더욱이 안거중이라 나그네의 행동은 더더욱 조심스러웠다.

다실에 들어서 어디 앉을지를 고민하는 나그네에게 대중스님들이 저마다 이구동성 말을 건넸다. "거, 윗목도 아랫목도 없응께. 아무데나 앉으소."

그래서 앉은 자리가 방 한가운데였다. 방문이 열리고 노스님 한분이 걸어 들어왔다. 미수(米壽)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정한 모습. 도륜 스님이었다.

삼배를 올린 후에도 앉을 자리를 찾지 못하고 또 다시 머뭇거리는 나그네에게 스님은 "자기가 앉고 싶고, 앉아서 편하면 그곳이 자기 자리"라고 말했다.

도륜 스님의 말에 나그네는 용기를 내어 스님을 마주하는 한 편으로 엉덩이를 잠시 걸쳤지만 영 불편한 것이 제 자리가 아닌 듯 했다. 무엇보다 절절 끓는 온돌에 엉덩이가 뜨거워 스님의 말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큰스님, 선방으로 가십시다." 한 스님의 말에 도륜 스님을 비롯해 대중스님 모두 그러자고 동의했다. 자리를 옮겼다. 안거중인 선방에 들어와 앉았다는 경험만큼이나 엉덩이가 뜨겁지 않아 살 것 같았다.

사성선원에는 일곱 스님이 안거 중이다. 선원 용상방에는 선덕인 도륜 스님을 비롯해 대원 스님(前 내장사 주지)이 입승을, 지안 스님(前 실상사 주지)이 원주를, 각일 · 정허 · 성락 스님 등이 한주로 적혀 있다. 안거중인 대중이 대부분 전 · 현직 주지로 중진스님들이었다. 사판승인 스님들이 이판을 벌인 까닭은 무엇일까?

나그네가 도륜 스님에게 물으려던 찰나, 대원 스님이 말을 꺼냈다. "그동안 소임살이에 정진을 등한시 하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들어 후학에게 부끄럽



도륜 스님은 …

법명은 도륜(道輪), 성암(誠菴), 법호는 백은(栢隱)이다. 1927년 전남 보성에서 출생해 30대에 청화 스님을 만나 불연(佛緣)을 맺었다. 은사인 청우 스님을 모시고 대흥사 총무 · 재무를 지내면서 대흥사 불사를 견인했다. 강진 무위사와 보성 천봉사 주지 등을 역임하고, 현재 보성 봉갑사 회주로 있다.





행복의 전제조건 '자기완성'



지 않은 수행인이 되고자 모인 자리입니다."

도륜 스님은 "내 나이가 많지만 내게는 아직도 무엇인가 이루겠다는 마음이 있다"며 "세월이 갈수록 남에게 내놓을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나 혼자서는 공부가 안 되다 보니 같이 해보자고 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라 설명했다.

50여 년 수행의 길을 걸어온 노장으로서는 참으로 겸손한 말이었다. 스님의 젊은 시절도 열정으로 가득 찼었다. 진실로 사는 방법을 고민하던 때였다. 천하가 내 것 인양 자부심으로 가득 찼던 그 때 우연히 절을 찾았던 도륜 스님은 청화 스님에게 "부처님께 참배 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물은 것을 인연으로 수행자가 됐다.

부처님 전에 처음 절을 올린 그날 밤부터 수일간 청화 스님은 아직 출가전인 도륜 스님에게 불교와 인간이 가야할 길을 설명했다. 도륜 스님은 출가를 결심했다. 위대한 성인인 부처님을 본받고 싶어 수행을 했고, "내가 완성되고 충분하면 그곳이 평온하다"는 생각에 무소유를 실천하는 탁발의 길을 걸었다. 스님이 대중생활을 하지 못하고 탁발에 나선 것은 말을 더듬던 습관 탓도 있었다. 나그네가 만난 스님은 오랜 수행 끝에 말을 더듬지 않고 있었다.

당시 청화 스님이 자기 공부가 되기 전이라 해서 상좌를 두지 않았던 까닭에 스님은 탁발만 계속하다가 은사인 청우 스님을 만나 정식으로 스님이 됐다.

도륜 스님은 "인간이면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내 주관"이라며 "행복의 전제조건인 자기완성을 완벽히 이룬 존재가 부처"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하나가 전체인 것을 알고, 전체가 하나되는 길만 알면 생명의 본질을 꿰뚫고 생사를 초월하게 된다.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 오직 지금에 충실하며 꾸준히 할 도리를 다하는 것이 바로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 말했다.

"33조사의 모든 말씀은 조사가 믿음을 바탕으로 직접 체험한 견성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지 머리로, 말로만 아는 해오(解悟, 알음알이)의 단계에 지나지 않아요. 이것이 깨달음이라 착각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유한된 것은 상대에 머무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 그것만이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거꾸로 믿음은 곧 절대인 것이 됩니다."

도륜 스님은 "진정한 행복에 이르려면 인생의 목표를 절대적인 것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님이 말하는 절대적인 인생의 목표란 성불이다.

"인생의 성공이 무엇인가요? 돈 버는 것, 명예를 얻는 것 모두 부질없습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역사를 살펴보세요. 돈과 명예 등 세속적이라 불리는 것들은 모두 유한한 겁니다. 상대적이에요. 변치 않는 길을 생각하고 그 길을 걷고자 노력합시다."

출가를 권유하는 도륜 스님에게 나그네는 흔쾌히 대답할 수 없었다. 처자식 핑계와 함께 "그저 사는 것이 괴롭다"는 뻔한 말을 하는 나그네에게 스님은 "오온이 모두 공해야 일체 고액을 넘어선다"는 법문을 설했다.

"오온이 '나'라는 착각에 빠져 생로병사의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 스님 법문의 요지다. 오온을 두고 잠시 법거량과 같은 문답이 오갔다.

스님은 "부처님을 아무리 대상으로 의지해도 내가 성불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며 "내 밖에 대상을 두지 말고 자기 자신(法身)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하나, 둘씩 깨달은 사람들이 늘어갈 때 세상이 맑아지고 밝아진다는 것이 도륜 스님의 지론이다.

"촛불처럼 자기를 태워 세상을 비추는, 내가 아닌 남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실로 전체를 아우르는 삶을 살았을 때 참다운 자기를 발견하게 돼요. 이렇게 이타행으로 사는 사람, 자기 완성된 사람이 모두 모인 곳 그곳이 불국토입니다."

스님은 '꾸준함'도 강조했다. "대학이 4년 과정이죠? 대학을 나왔다고 하려면 졸업장을 받아야 하는데, 이 졸업장을 받는 것은 순간입니다. 공부도 똑같아요."

또, 도륜 스님은 "인천의 스승이 되려면 스님들은 밀 · 현교 등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모두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행이 본래 하나이기도 하지만 참선, 진언, 간경, 주력, 염불 등 무엇이라 할 것 없이 모두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스님은 "오욕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현상에 치우쳐 판단하지 말고, 부처님 말씀 하나만 믿고 따라가자"고 당부했다.

"일렁이는 파도의 끝이 '나'인줄 착각하지만 내 본마음은 흰 거품 이는 성난 파도가 아니라 큰 바다입니다."

진아(眞我)와 본성 찾기를 강조한 스님은 2010년 새해를 맞은 불자들에게 "인생의 뚜렷한 목적을 갖고 살자"고 당부했다. "길을 나설 때 갈 곳을 정하고 가면 언제라도 그 목적지에 다다르지만, 목적 없이 가다보면 중간에 아무 곳에서나 주저앉게 됩니다. 나는 비록 촌부이지만 우리 민족의 저력을 믿습니다. '참나'를 찾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월명암을 내려오는 길, '흩날리는 눈(浮雪)'이 대밭을 덮었다. 바람에 댓잎이 부대끼는 소리에서 나그네는 부설 거사의 '팔죽시(八竹詩)'를 들었다.

이런 대로 저런 대로 되어가는 대로(此竹彼竹化去竹)/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風打之竹浪打竹)/ 죽이면 죽, 밥이면 밥, 이런 대로 살고(粥粥飯飯生此竹)/ 옳으면 옳고 그르면 그르고, 저런 대로 보고(是是非非看彼竹)/ 손님 접대는 집안 형편대로(賓客接待家勢竹)/ 시장 물건 사고 파는 것은 세월대로(市井賣買歲月竹)/ 세상만사 내 맘대로 되지 않아도(萬事不如吾心竹)/ 그렇고 그런 세상 그런대로 보내네.(然然然世過然竹)

글=조동섭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75. 원담 대선사

덕숭문중에서 경허 · 만공 선사가 나타나자 캄캄했던 한국불교가 새 빛을 발하게 되었다. 일본 총독을 '지옥종자'라 꾸짖을 정도로 대담한 스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고 데라우치 마사요시(寺內正毅) 총독은 "30본산 주지는 다 썩은 송장이고 오직 한 분만이 살아있는 부처니, 이리 모시고 오너라"하여 부처님처럼 떠받든 일이 있다.

경허 · 만공 스님, 두 분 선사를 직접 옆에서 시중 든 분이 원담(圓潭, 1926~2008) 스님이다. 1926에 태어나 27년 서천으로 이사, 33년 이모인 비구니스님을 따라 열 살에 벽초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여 만공 스님께 계를 받았다. 그리고 벽초 스님을 따라 일생을 선농일치(禪農一致)사상으로 덕숭문중의 가풍을 형성하였다. 동자스님 때부터 만공 스님의 일거수 일투족을 보며 무언(無言)의 가르침을 전수받은 원담 스님은 덕숭문중의 어른으로서 경허-만공으로 이어진 선풍을 드날렸다.

1970 년대 초반까지 덕숭산 인삼밭에서 농사를 지은 스님은 "신도의 시주에 의지하는 것은 무위도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직접 농사를 지으며 참선하는 백장 가풍을 솔선수범했다. 어려서부터 덕숭산 꼭대기의 전월사로 쌀과 물을 지어 나르던 스님은 "그 무거운 걸 짊어지고 다녀서 그런지 키가 크지 않았다"고 농담처럼 말할 정도로 아무 것도 거리낄 것 없는 천진한 도인의 풍모를 보였다.

자그마한 키에 당차게 생긴 스님은 83세의 나이에도 항상 천진동자와 같았다.

"올 때에도 한 물건 가지고 온 것이 없고/ 갈 때에도 한 물건 가지고 가는 것이 없다/ 가고 오는 것이 본래 일이 없어/ 청산과 풀은 스스로 푸르도다."

그러므로 만공 스님이 그 마음을 인정하고,

"참 성품에는 본래 성품이 없고/ 참나는 원래 내가 아니다/ 성품도 나도 아닌 법이/ 일체의 행을 총섭하고 있다."

하고 '진성(眞性)'이란 이름을



소문난 스님의 글씨는 유명했다. 일본 선면예술협회 회원으로 세 번이나 장려상을 받았고, 국제서도전에 입선하였으며, 86년에는 일본산업경제신문이 주최한 국제서도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서래(西來)의 가풍을 진작하시면서도 조국에 대한 사랑 또한 적지 않았다.

槿花滿開三千里(근화만개삼천리)
檀木淸香半萬年(단목청향반만년)
무궁화 꽃이 3천리 가득히 피고
박달나무 맑은 향기 반만년을 이어 오네.

참으로 멋있는 말씀이다.

필자는 서울 기원정사에서 원담 스님을 처음 뵈었고, 다시 수덕사에 가서 친견하고 하룻밤을 묵었으며, 또 숭산 스님의 <천강에 비친 달>을 내고 크게 칭찬을 받았다.

"나는 세상 일이 알쏭달쏭 도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 알쏭달쏭한 것이 불법 아니겠습니까!"

"그랴. 자네는 좋겠네. 세계 각국을 날아다니며 마음대로 포교하고 있으니. 내 숭산 스님께 자네 말 많이 들었거던. 나도 좀 구경시켜 달라고!"

하시던 말씀이 아직도 귀에 쟁쟁한데, 벌써 스님 떠나신지 2주년이 다가오고 있으니 진실로 세상은 무상한 것인가 보다.

스님은 땅땅한 키에 호박처럼 둥글둥글, 한 곳도 어그러진 곳이 없다. 거기에 항상 만담, 대소(大笑)가 그치지 않으니 햇님 처럼 밝은 모습이 늘 그늘진 세상을 밝혀주셨다. 원담 스님은2008년 3월 18일 오후 9시 세수 82, 법랍 75세로 수덕사 염화실에서 입적하셨다.

선농일치로 덕숭문중 가풍 형성… 당대 최고의 선필 휘날려

佛紀 2554年 庚寅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수행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 운 사

조 실 현봉 근일
회 주 송암 혜승
주 지 남전 호성

총 무 등운 기획 지현
교 무 성공 재무 도륜
사 회 등목 호법 정우
포 교 용담 연수 지견(尼)

고운사 고운노인요양원 원장 성민
영주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도륜
의성노인종합복지관 관장 탄하

경북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 116번지 ☎ 054)833-2324 www.gounsa.net

佛紀 2554年 庚寅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본사

도솔산 선운사

주지법만

사부대중 일동

선운사 승가대학 063)561-1419
선운사 성보박물관 063)561-1421
선운사 승려노후수행관 건립추진위원회 063)561-1422
백파사상연구소(준) 063)561-1418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 063)563-1111

도솔산 선운사 석상마을에 스님들의 노후와 평생 수행을 위한
승려노후수행관 건립을 위한 만등불사에 동참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500번지 / 063)561-1422 http://www.seonunsa.org

佛紀 2554年 庚寅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사단법인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 석정관

승정원장 벽봉 원로원장 도원

원 로 법령 지관 월타 일장 무송 혜암 원해 일우

◇각원원장

호법원장 대원 의전원장 원담
교육원장 남산 포교원장 보광
기획원장 일두 총무원장 도선
비구니회장 혜담 문화원장 대공

◇총무원각부장

총무부장 도흥
교육부장 정봉
사회부장 청암
연수부장 지공
포교부장 도명

◇총무원각국장

문화국장 보성
포교국장 용정
수행국장 보각
사서국장 성덕
포교국장 원각

◇각시 도 종무원 원장

경북서부종무원장 석문
경북중앙종무원장 태룡
경북예천종무원장 명허
경남중앙종무원장 청강
경북성주종무원장 홍재
제주중앙종무원장 의공
전남중앙종무원장 원행
충북중앙종무원장 선학
포항중앙종무원장 체법
광주중앙종무원장 아도
강원강릉종무원장 원응
경기서부종무원장 도문

◇종립미래로 봉사단

회 장 학산(이종길)
부회장 대도심(어월순)
총 무 무생심(예옥자)
감 사 진불심(이순임)
법화심(김막두)

◇지역 각 포교국장

경남포교국장 충효
인천포교국장 무현
서울포교국장 보현
경기포교국장 효성
전통예술국장 승원

◇법사승각원장

경남원장 도혜 충남원장 명보 대전원장 정대
울산원장 법광 포항원장 명성 부산원장 용성

총무부장 혜명 재무부장 자운 대구국장 금강
국제국장 지원 경산국장 송정 부산국장 혜성
중앙국장 원명 경기국장 덕산

■ 총본산 : 경북 영양군 수비면 계2리 58-1번지
대표전화 054)682-5808 / 팩스 682-9848

■ 총무원 : 서울 서대문구 홍제 3동 279-26 2층
대표전화 02)3217-4611 / 팩스 391-8583

사단법인 대승불교 본원종

종 정 범해당 대화

부종정 동광. 법용

총무원장 만혁
원로원장 대원
원 로 원 관곤. 보명. 대봉. 대심. 대월

교육원장 무공 감찰원장 대능 연수원장 현담 포교원장 대련
문화원장 송담 복지원장 대천 염불원장 대황

종회의장 대운 종회부의장 혜공. 지명
종회의원 대월. 법훈. 자광. 원각. 감로. 용담. 월광. 광덕. 부용. 지선. 진묘. 혜광. 혜련. 혜은. 지호. 성각. 중정. 지명. 혜원. 용우. 법천. 원광. 지혜장

전국신도회장 대광 부회장 성덕화. 청연행

기 획 실 장 법성 재 무 부 장 성문 교 무 부 장 혜원 규 정 부 장 현공 조 직 부 장 도광
사 회 부 장 정오 포 교 부 장 자관 복 지 부 장 지연 총 무 부 장 경산

부산경남종무원장 동광 경북종무원장 자광 충남대전종무원장 지천 충북종무원장 대월 강원종무원장 진묘

종 도 일 동

■ 총무원 :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417-3 전화 02)391-4376 / 팩스 02)379-2746

경인년 새해 부처님 가피 누리소서

대한불교 위 앙 종

종 정 위 산

총무원장 법 담

사무국장 **박찬혁**

우리 민족 다문화 포럼

상임대표 **위 산** · 사무국장 **박찬혁**

종 도 일 동

■ 주 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학생회관 1길 29호
총본산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백자리 산 50번지
전 화 : 총무원 041)551-5537 FAX 041)621-5537 / 총본산 041)522-3895

해동불교 임 제 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석지암**

부 종 정 **김혜정** 종정 사서실장 **혜관**

원로원장 **석보현** 원로위원 **지륜 법성 법공 제후**
종회의장 **경우**

총무부장 **무오** 문화부장 **혜룡** 호법부장 **혜인** 사회부장 **혜주**
조직부장 **묘화** 외교부장 **정행** 사정부장 **제화** 포교부장 **혜전**
교무부장 **지웅**

서울북부종무원장 혜광 부산중부종무원장 법연 강 원 종 무 원 장 금화
서울중부종무원장 제현 부산동부종무원장 혜일 충 북 종 무 원 장 지명
경기북부종무원장 지공 대구동부종무원장 혜인 충 남 종 무 원 장 혜명
경기중부종무원장 보우 대구남부종무원장 법인 전 남 종 무 원 장 보경
경기남부종무원장 지우 경 북 종 무 원 장 지명 전 북 종 무 원 장 법원
대 전 종 무 원 장 제호 경 남 종 무 원 장 자범 광 주 종 무 원 장 제인

■ 총본산 :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1033-4번지 (청암사)
전화 061)644-7273 / 팩스 061)644-7274 / 휴대폰 010-3807-8428

대한불교 대승종

종 정 약왕사 법청천광

부종정 홍은정사 법일지신

원로원장 미타암 법호서호

총무원장 불암산 상원사 법진도일

종 회 의 장 안정사 법암혜심 종회부의장 천연암 법인운남
감 찰 원 장 백마사 법성정산 교 육 원 장 천룡사 도관지법
포 교 원 장 향용사 법현법전 연 수 원 장 원융원 법신노정

서 울 종 무 원 장 약사암 지공 경 기 종 무 원 장 대성사 무상
충 청 종 무 원 장 일천지원 혜능 전 북 종 무 원 장 향용사 덕운
군 산 종 무 원 장 덕춘사 덕일 전 남 종 무 원 장 화심사 진덕
경남동부종무원장 법청사 진각 경남서부종무원장 천지암 일봉 경북종무원장 용문사 원도

종 도 일 동

■ 총무원 :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산 140 불암산 상원사
전화 02)952-1074 / 팩스 952-1079 / H.P 010-7273-1074

대한불교 선 각 종

종 정 영담

총무원장 정암

원로원장 **법경**
종회의장 **동명** 종회부의장 **보안** 종책연구실장 **자공**

◆총무원

총무부장 **진목** 기획부장 **행진** 교무부장 **법인** 재무부장 **명일**
사회부장 **원주** 문화예술부장 **목언** 조직부장 **은광** 감사부장 **진하** 규정부장 **태송**

기획국장 **혜현** 교무국장 **형진** 재무국장 **선지** 사회국장 **혜인**
문화예술국장 **선주** 조직국장 **진오** 감사국장 **선정** 규정국장 **서진**

◆교육원
교육원장 **혜명**
연수부장 **법혜**

◆보건원 복지원 환경원
보건원장 **다행**
보건부장 **무령**
복지원장 **경봉**
복지부장 **진송**
복지국장 **덕성**
환경원장 **정각**
환경부장 **무공**

◆중앙포교원
포교원장 **벽해**
포교부장 **각림**
포교국장 **정진**

◆국제불교문화원 및 국제포교원
문화원장 **진환**
문화국장 **혜룡**
국제포교원장 **진덕**
국제포교부장 **진제**

◆사정원
사정원장 **진원** 사정부장 **서원**
호법국장 **혜광** 감찰국장 **진철**

◆중앙위원회
법규위원장 **혜원**
법계고시위원장 **원명**

◆중앙선원
선 원 장 **도륜**
선원부장 **진안**

◆교구종무원
경주교구원장 **진봉**
광주교구원장 **혜관**
부산교구원장 **원정**
서울교구원장 **진보**
인천교구원장 **정각**
포항교구원장 **성법**
강원교구원장 **혜국**

■ 총무원 : 전남 강진군 옴천면 개산리 391번지 옴천사 전화 061)433-2233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46

'몸 · 마음' 평온하게 비워라

[원문]
청련좌상월여생(靑蓮座上月如生)
삼천계주석가존(三千界主釋迦尊)
자감궁중성약렬(紫紺宮中星若列)
십육대아라한중(十六大阿羅漢衆)
–서울 수도산 봉은사 영산전

[번역]
푸른 연좌 위에 달처럼 앉으신 분은
삼천계의 주인이신 석가세존일세
자감궁 한가운데 별들이 벌려선 듯
열여섯 큰 제자들이 모여 있구나.

[선해(禪解)]

달하면 불가(佛家)에서는 마음에 많이 비유한다. 그런데 달을 호떡에 비유하신 분이 있다. 그가 바로 운문 선사이다. 어느 날 운문 스님은 상당법문을 마치면서 대중에게 부처와 조사의 의지를 극복하고 한마디 일러 보라고 다그쳤다. 이 때 한 스님이 운문 스님에게 물었다.

"무엇이 부처를 초월하고 조사를 뛰어 넘는 이야기 입니까? (如何是超佛越祖之談)"

"호떡이니라 (胡餠)."

이는 <벽암록(碧巖錄)>100칙 중 77번째 칙인 '운문의 호떡'이라는 화두이다. 운문 문언(雲門文偃, 864~946) 스님은 중국 당나라 때 17세에 출가하여 교학을 공부하시다가 자신의 본분사(本分事)를 밝히기에 부족함을 느끼고 선문(禪門)의 길에 접어드신 분이다. 그는 목주 스님을 참방하여 안목(眼目)이 열린 후, 당시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설봉의존(雪峰義存, 822~908) 스님 문하에 들어가 공부를 하다가 깨달음을 얻었다. 그 후 광동성 운문산에서 광태선원을 열고 선풍을 드날리며 선종 오가 중 하나인 운문종을 개창한 대선지식이다. 운문 스님이 납자들을 제접 하고 남긴 법거량은 오늘날에도 많은 공부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조계종은 중국선종의 실질적 개종조라 할 수 있는 혜능 스님이 조계산에서 법을 펴신 것에서 기원한다고 볼 수 있다.

화두는 운문 스님이 후학들과 나눈 문답과 같이 선가의 종장(宗匠)들이 제자들에게 불법의 정수를 가르치며 한 법문 말미에 나오는 질문이다. 당시 유행(遊行)하며 제방의 선지식들을 찾아 법을 묻는 선객(禪客)들의 기백이나 때론 간절한 물음에 대해 조사스님들이 제시한 답이나 행동을 주로 말한다. 또한 조사어록에는 당대 일가(一家)를 이룬 눈 맑은 스승들의 게송, 그들 사이에 오고간 용과 호랑이가 여의주를 다투고 진검의 불꽃이 튀는 살활자재(殺活自在)하며 활발발(活潑發)한 법거량과 문답 그리고 게송에 대한 평창(平唱)등이 더해져 있다.

화두는 흔히 공안(公案)이라고도 한다. 관청의 문서처럼 공의(公議)에 의해 결정된 안건이며 판결인 만큼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여 깨달음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다. 아무튼, 이 화두는 '참선수행자에게 부처님의 안목을 열리게 하는 문제'의 정의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내려오는 공안 중 대표적인 것을 몇 개 들어보면 조주(趙州) 선사의 '무자(無字)'와 '뜰 앞의 잣나무'가 있으며 남전(南泉) 선사의 '평상심이 도다[平常心是道]', 동산(洞山) 스님의 "삼서근(麻三斤)"등이 있다.

어떤 스님이 운문(雲門)스님께 물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마른 똥 막대기(乾屎橛)이니라."

간시궐(乾屎橛), 마른 똥 막대기란, 옛날에는 휴지가 없었기 때문에 대변 본 뒤에 뒤처리하는 막대기를 말한다. '무엇이 부처냐'고 물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기상천외한 대답을 운문 스님께서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운문 스님의 '달은 호떡이며 부처는 똥 막대기'라는 대답은 보통의 대답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일반적인 사고나 논리로서 이해할 수도 없으며 또한 거부할 수도 없는 일상적인 격을 벗어난 절대적인 '격외어(格外語)'라고 할 수 있다.

몸과 마음이 무상하고 덧없음 아는 것이 마음공부
푸른 연좌 위 달처럼 앉아 부처님은 중생을 보살핀다

그러므로 참선을 하는 사람은 항상 마음과 몸을 평온하게 해야 하고 비워야 한다. 모든 사랑과 증오 모든 기쁨과 슬픔, 모든 욕망과 근심조차 모조리 버려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여법하게 참구해야만 한다. 불교란 딴 것이 아니라 '마음공부'를 하는 것인데 이 몸과 마음이 무상하고 덧없음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을 해치는 산란심이나 안팎의 경계에 휘둘리지 말고 항상 화두를 참구 하듯 살아야 한다.

오늘의 주련여행은 서울 도심에 자리 잡은 봉은사 영산전이다. 봉은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三成洞) 수도산(修道山)에 있는 절로서 한국 제일의 포교당이라 할 수 있다. 794년(원성왕 10) 연희국사(緣會國師)가 창건하여 견성사(見性寺)라고 하였다. 1498년(연산군 4)에 정현왕후(貞顯王后)가 선릉(成宗)을 위하여 중창하고 봉은사로 개칭하였으며, 1562년(명종 17) 현 위치로 옮겼다. 중종 때는 이곳에서 승과시(僧科試)를 치르기도 했는데 서산(西山) · 사명(泗溟) 두 대사도 여기서 등과하였다고 한다.

병자호란 때 불탄 것을 숙종 때 중건하고 1825년(순조 25)에 다시 중수하였다.

하지만 1950년 한국전쟁으로 다시 대부분의 전각들이 파괴되었으며 이후에 재건하였다. 경내에는 대웅전을 비롯하여 법왕루(法王樓) · 북극보전(北極寶殿) · 선불당(禪佛堂) · 천왕문(天王門) · 일주문(一柱門) 등의 당우(堂宇)가 있으며,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가 쓴 현판, 철종 때 승려 영기(永奇)가 조각한 <화엄경(華嚴經)>(81권) <금강경(金剛經)> <유마경(維摩經)> 등 불경판(佛經板) 13종, 3,479장이 보존되어 있다. 이 밖에 보물 제321호로 지정된 고려청동루은향로(高麗靑銅縷銀香爐)는 동국대학교 박물관에서 보존하고 있다. 그럼 영산전 주련의 내용 속을 들려다 보자.

'청련좌상월여생(靑蓮座上月如生) 삼천계주석가존(三千界主釋迦尊): 푸른 연좌위에 달처럼 앉으신 삼천계의 주인이신 석가세존일세.'

부처님은 우리가 사는 이 대지라는 푸른 연좌위에 항상 달처럼 앉아 계시면서 어리석은 중생들을 보살피고 있다는 뜻이다. 부처님의 연호는 석가모니 · 석가문 · 능인적묵 · 석존 · 부처 · 붓다 · 여래 · 세존 등 셀 수 없이 많지만 어쩌면 저 하늘에 뜬 달도 부처님이 될 수 있다.

이렇듯 부처님은 해와 달 바람으로 화현하신다. 삼천계는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의 준말. 고대 인도인이 생각한 전 우주를 가리키는데 이른바 이를 일불국토(一佛國土)라 하기도 한다

'자감궁중성약렬(紫紺宮中星若列) 십육대아라한중(十六大阿羅漢衆): 자감궁 한가운데 별들이 벌려선 듯 열여섯 큰 제자들이 모여 있구나.'

자감궁은 삼천계에 있는 부처님이 거처하는 곳으로서 16아라한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아 계실 때 가장 아끼던 열 여섯 명의 나한을 말한다. 빈진두로파라타 존자, 갈낙가박차 존자, 가낙가바리타사 존자 등인데 이 제자들이 별빛처럼 부처님을 호위하고 있다는 말씀이다. 아라한은 존재의 본질에 대한 통찰을 얻어 열반 또는 깨달음에 이른 사람을 일컫는다. 욕망의 사슬에서 벗어나 다시는 생(生)을 받아 태어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봉은사 영산전의 주련은 삼천계의 주인이신 부처님이 항상 위대한 열 여섯 명의 아라한들의 보좌를 받으며 해와 달과 비추이며 항상 우리 중생들을 보살피고 있다는 내용이다.

■ 조계종 원로의원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관심론 1

마음을 관함이 수행의 요체

[원문]

惠可問曰 若有人 志求佛道 當修何法 最爲省要. 師答曰 唯觀心一法 摠攝諸行 名爲省要. 問曰 云何一法 摠攝諸行. 師答曰 心者萬法之根本也 一切諸法 唯心所生 若能了心 萬行俱備 猶如大樹 所有枝條 及諸花菓 皆悉因根 栽樹者 存根而始生 伐樹者 去根而必死 若了心修道則 省功而易成 若不了心而修道 乃費功而無益 故知一切善惡 皆由自心 心外別求 終無是處.

혜가가 물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불도를 얻고자 한다면 어떤 법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긴요합니까?" 이에 달마 대사께서는 "마음을 관(觀)하는 한 가지 법이 모든 수행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념적 사고로 사려, 분별하지 않고 곧바로 궁극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가르침이니라."하신 후 다시 말씀하셨다. "마음이라는 것은 만법(만유일체, 모든 법, 모든 존재)의 근본이니라. 일체의 법이 오직 마음에서 생기므로 마음을 깨달으면 모든 수행을 다 갖춘 것이 되느니라. 비유하자면 큰 나무의 가지와 꽃과 열매가 모두 뿌리로 인하여 있으므로 나무를 키우려는 사람은 뿌리를 두어야 살릴 수 있고 나무를 베어버리려는 사람은 뿌리를 없애어야 반드시 죽일 수 있듯이 마음을 깨닫고 도를 닦으면 공을 적게 들여도 쉽게 이룰 것이고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도를 닦으면 헛수고만 할 뿐 이익이 없으리라. 그러므로 알아라. 일체의 선과 악은 모두 자기의 마음으로 생겨나니 마음 밖에서 달리 구하는 것은 결국 옳지 못한 것이니라."



범주 스님 作, 달마도.

[해설]

달마 대사께서는 수행법을 묻는 제자 혜가의 물음에 "마음을 관(觀)하는 한 가지 법이 모든 수행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념적 사고로 사려, 분별하지 않고 곧바로 궁극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가르침"이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달마 스님께서는 오직 마음을 관하는 그 한 가지 법이 모든 수행을 포함하고 우주의 근본실상 즉, 진리를 깨닫게 하는 가르침이라 설하십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만법(만유일체, 모든 존재)의 근본이니라.'

모든 법의 근본이 마음이라는 얘깁니다. 이 마음은 우리가 쓰는 마음이 아니고 우주 근본실상, 즉 문자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의 마음자리를 말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모양이 아닌 진여당체(眞如當體)에서 나온 겁니다. 달마 스님께서 혜가 스님에게 말씀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은 변덕스러운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 깨닫게 되는 우주의 근본실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체의 모든 존재는 하나의 마음에서 지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안으로 보며 살기 때문에, 보이는 현상을 사실인 줄 착각하며 살지만 하나의 마음자리에서 보면 모양이 없는 것에서 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계도 사실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이러한 실상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중생놀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입니다. 따라서, 일체의 법이 오직 마음에서 생긴다는 도리를 알게 되면 집착에서 벗어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얘깁니다.

나무의 꽃과 열매가 뿌리에서 올라온 것과 마찬가지로 육신을 포함한 모든 물질은 모양이 없는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나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뿌리에 영양 공급을 잘 해주어야 하듯이 모든 것이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니 마음을 잘 써야 된다는 얘깁니다. 복을 받으려면 복을 지어야 되겠죠? 복을 지을 생각도 없이 복을 받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진리를 배반하는 겁니다. 반대로 악한 마음을 쓴다면 악한 일이 반드시 옵니다. 지금 여유롭게 산다면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것이고 만약 금생에 복을 짓지 않는다면 다음 생에 박복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뿌리를 없애면 나무가 죽듯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망만 제거하면 욕심이 없어지니까 바로 모든 번민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얘깁니다.

'마음을 깨닫고 도를 닦으면 공을 적게 들여도 쉽게 이룰 것이고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도를 닦으면 헛수고만 할 뿐 이익이 없으리라.'

우주 근본실상이 하나인 도리를 알고 정진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본실상의 도리를 알고 정진한다면, 단 십분이라 할지라도 우주를 상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씨앗이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발심한 그 마음이 깨달음이다"(初發心時便正覺)라는 말이 있잖아요. 마음을 깨닫고 수행을 하면 큰 이익이 된다는 말은 우주를 하나로 보고 행한다면 그 공덕도 새지 않는 무루복(無漏福)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도리를 모르고 대상만 보고 수행한다면 깨달음도 이룰 수 없지만 아무런 이익도 없는 겁니다.

선하고 악한 모든 것은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오는 것이니, 먼저 마음의 도리를 깨닫고 행(行)해야 됩니다. 염불을 할 때도 염불하는 그 놈이 우주와 하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佛紀 2554年 庚寅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등록번호 206-82-65359)

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

대 표 회 장 회 암 (정토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부 회 장 현 산 (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운영위원장 산 수 (대한불교사암종 총무원장)
사 무 총 장 혜 성 (대한불교구화종 총무원장)

이 사 윤호(대한불교인왕종 총무원장) 동선(대한불교법왕종 총무원장) 법광(세계불교법륜종 총무원장)
운공(대한불교홍제종 총무원장) 향운(세계불교법사종 총무원장) 일원(대한불교법화여래종 총무원장)
혜일(대한불교미륵선종 총무원장) 법장(대한불교선조계종 총무원장) 정산(세계불교해동원효종 총무원장)
법열(세계불교대각총연합) 법달(대한불교용화종 총무원장) 법우(조계종정토불교 총무원장)
탄공(한국불교법륜종 총무원장) 회법(대한불교선종 총무원장) 도선(한국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청원(대한불교불광종 총무원장) 청호(대한불교연화종 총무원장) 상일(불교임제종 총무원장)
혜공(대한불교대승연화종 총무원장) 무도(불교정토종 총무원장) 화암(호국불교정토종 총무원장)
성우(대한미타조계종 총무원장)

감 사 고산 (한국불교조계선종 총무원장) 성수 (한국종교예술방송 대표)

종단고문변호사 김진태

■ 사무실 : 서울시 종로구 무악동 산 2-13 종단진흥총연합회
전화 02)3436-0797 / 팩스 02)2201-1163

佛紀 2554年 庚寅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천태종
동해 관음성지

울릉 해도사

주 지 정비룡

남양성인사 신도회장 도영국 外
태하삼도사 신도회장 김도근 外

신도일동



■ 경북 울릉읍 도동 584-6 TEL 054)791-2471

佛紀 2554年 庚寅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각교단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종 정 **가산 대종사**
명예종정 각암 사서실장 **마조**

원로최고의장 **원당** 원로최고의원 **각성. 현블**
원 로 의 원 **월우. 범아. 응관. 무량. 보각**

승정원장 **운암** 중앙종회의장 **묘각** 총무원장 **능인**

교육원장 **초오** 총무부원장 **명석** 호 계 원 장 **현덕** 사정원장 **도안**
문화원장 **법륜** 중앙연수원장 **정음** 중앙선원장 **지공** 율 원 장 **보각**
비구니원장 **다윤** 종회부의장 **청화**

총무부장 **법공** 교육부장 **정명** 사회부장 **진광** 규정부장 **장원**
감찰부장 **보명** 호법부장 **일봉**

인천종무원장 **인묵** 강원종무원장 **담연** 대전종무원장 **보문** 충남종무원장 **청인**
전북종무원장 **덕원** 대구종무원장 **우주** 울산종무원장 **호암** 경남종무원장 **혜천**
예 경 실 장 **진여** 법 사 단 장 **인황**

종회의원 **혜문 홍신 길상 수진 호산 진각 거봉 도천 도율 법운 명선 범일 규봉 도법 혜오 정광 법천 용산 묘법 정진 지심 법운**

■ 종정예하 주석사찰 : 충북 진천군 초평면 신통리 484 원융사
총무원 :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1122번지 대승사 전화 053) 325-5288. 325-0400 / 팩스 053)325-4848

사단법인 한국불교 정 토 종

"경인년 새해에는 많은 여러 종도들이 종단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기 바라며
사부대중을 위하여 기도정진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늘 실천하는 수행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장 **지산** 종 정 **월호** 부종정 **해심. 각호**

원로의장 **법보** 원로의원 **보덕. 만공**

총무원장 **무각** 종회부의장 **초암. 설정** 사 서 실 장 **설정. 세목**
교 육 원 장 **초암** 포 교 원 장 **봉운**

경남교구원장 **설봉** 전남교구원장 **정조**
감 찰 부 장 **학조** 재 무 부 장 **법성** 포 교 부 장 **해조**
법 사 단 장 **도암 법사** 법사부단장 **혜월 법사. 법해 법사**
법사단 총무 **원영 법사**

종 도 일 동

■ 총무원 : 인천 남구 학익동 25-10 석목법조빌딩 701호 전화 032)543-2693, 867-2694 / 팩스 032)868-2694

종교법인 대한불교 三寶조계종

大僧(皇) **멸공 大宗師**(초대종정) 僧正 **태화 大宗師**(2대종정)
宗正직대 **비담 大宗師**(3대종정)

元老院長 **금산 大禪師** 副宗正 **총무원장 代行**
考試院長 **현각宗師** 부원장 **일현宗師**
護法院長 **법천 禪師**

원로위원 **정안. 정공. 정민. 효성. 도문. 홍국. 성훈. 향적. 법천. 용운. 혜공. 법영. 조연. 향관. 문봉. 청안. 오연. 덕성. 대한. 청범**

법조고문 **김인수 변호사. 백경석 변호사** (전직 판, 검사) 법조위원 **주신식 법무사. 박명준 법무사** (전직 법원주사)
호법위원 **덕암. 영운. 법현. 지훈. 법건. 운봉** 고시위원 **일현. 화륜. 광진. 송파. 경호. 정법**

총무원장 **법장** 부원장 **법조** 사무총장 **법경**

종회의장 **청법(5대). 원명(6대).** 부의장 **지우. 정수** 종회의원 30人일동

감찰원장 **법도** 부원장 **성안** 교육원장 **홍인** 부원장 **진묵** 중선원장 **화륜** 부원장 **관정**
문화원장 **정수** 부원장 **자혜** 염불원장 **원명** 부원장 **청산** 복지원장 **원각** 부원장 **경보**
포교원장 **우암** 부원장 **지공** 국제원장 **남산** 부원장 **보성** 무술원장 **청도** 부원장 **보원**
건설원장 **성담** 부원장 **보각**

교구현황

서울교구원장 **석원현** 경기교구원장 **석마조** 광주교구원장 **석관조** 강원교구원장 **석보산** 부산교구원장 **석법호**
대구교구원장 **석각원** 경북교구원장 **석취운** 경남교구원장 **석서암** 울산교구원장 **석도연** 충남교구원장 **석태륜**
충북교구원장 **석지원** 전남교구원장 **공석** 전북교구원장 **석일도** 대전교구원장 **공석** 인천교구원장 **석법영**
중국교구원장 **석정륵** 일본교구원장 **석수원** 일본교구원장 **공석**

종무위원 **청조. 진묵. 보현. 보장. 청파. 평산. 석연. 무해. 지명. 법고. 건록. 이산. 도담. 법운. 법진. 성운. 청봉. 혜찬. 도묵. 도신. 도우. 도문. 성수. 성효** 사무국장 **성무**

전국종도 일동 합장

■ 종단총림 : 천년고찰 (천명대중 수행도량) 유학산 위봉사 ■ 총무원 : ☎ 055) 338-0089 경남 김해시 삼정동 17-10 삼보사
■ 승가대학 : 제3기 학인모집 – 1년과정 전문교수교육 – 핵심. 단기. 실전 / 국제 칭기스칸대학교 한국캠퍼스 4년제 정규대학(편.입학)
■ 사단법인 : 한국청소년보호회 전국지부. 지회 희망자 상담 접수중

사단법인 대승불교조계종

종 정 **은 파**

원 로 원 장 **대호** 원로부원장 **만송. 경월**

중앙종회의장 **종욱** 부의장 **무애**
중앙종회의원 **현담 혜암 한파 정암 선산 인각 경월 화산 선우 유초 혜광 법광 지운 월봉 법인 법공 혜원 정혜 연지 만송 근파 명현 종파 종원 법승 성각 도일 대전 현불**

총무원장 **한파** 부 원 장 **혜암** 교육원장 **법승** 기획실장 **혜광**

총무부장 **현담** 재무부장 **영각** 교무부장 **무적** 감찰부장 **법인**
규정부장 **인각** 교육부장 **성각** 포교부장 **도일** 사회부장 **혜원**

부산종무원장 **유초** 경남1종무원장 **선우** 경남2종무원장 **근파** 중부 종무원장 **정암**

◆ **입종을 환영합니다.**
본 종단은 사단법인 등록 제184721-0000861호로 등록되어 있는 종단입니다. 유사 종단에 유의하십시오.

■ **입종 구비서류**
· 본종 입종 신청서(총무원 비치, 홈페이지 출력가능) 요청시 우편 발송
· 주민등록등본 1부 · 타 종단 승려증 사본 1부 · 사진 1장
· 사찰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대장등본, 임대차 계약서 1부 · 사찰 전경사진(내,외부)

■ 문의 및 접수처 : **(사)대승불교 조계종 총무원**
주소 : 부산시 동구 초량2동 448-6번지 동신빌딩 302호 전화 051)527-7733, 5431 / 팩스 051)527-5432

부산 종무원 051)527-7733 휴대폰 010-4133-0333 경남1종무원 055)853-0479 휴대폰 011-583-0479
경남2종무원 055)291-4218 휴대폰 011-572-4218 중부 종무원 043)648-8942 휴대폰 010-8849-9573

사단법인 대한불교 해동종

원로원장 **석봉** 대종사 부 원 장 **백담**
위 원 **법준. 정화. 동원. 고산**
종 정 **혜봉** 대종사 총무원장 **송 산**

총무원부원장 **도현**

중앙종회의장 **보장** 부의장 **수운**
종 회 위 원 **이타. 지선. 백파. 청산. 연각. 수진. 광호. 혜언**

중앙사정원장 **대원** 부원장 **옥용** 중 앙 포 교 원 장 **정화** 부원장 **보담**
중앙교육원장 **공덕** 부원장 **현법** 중앙복지봉사원장 **무량** 부원장 **무봉**

총무부장 **덕광** 교무부장 **무연** 재무부장 **도은** 포교부장 **진아**
교육부장 **성암** 복지봉사부장 **지연**

서 울 교 구 종 무 원 장 **청산** 부 산 교 구 종 무 원 장 **삼자** 경 기 교 구 종 무 원 장 **덕광**
경남동교구종무원장 **지성** 경남서교구종무원장 **혜광** 경북(대구)교구종무원장 **혜호**
전남(광주)교구종무원장 **정암** 전 북 교 구 종 무 원 장 **청림** 충남(북)교구종무원장 **무기**
사단법인해동자비원원장 **덕광** 국제교화원대학원장 **공덕** 중 앙 법 사 단 장 **혜일**
전 국 비 구 니 회 장 **법인** 용 인 소 년 의 집 원 장 **무봉**

종 도 일 동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392-5 전화 031)262-1577 / 팩스 031)263-1353

재단법인 대한불교 미 타 종

"새해에도 부처님의 자비가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종 정 **청연 월정** 사서실장 **노정혜**

재단이사장, 법인원장 **권성우** 원로원 **엄혜우. 이혜봉. 하청암**

총무원
총 무 원 장
총 무 부 장 하 동 산
재 무 부 장 김 법 제
사 회 부 장 주 만 석
문 화 부 장 최 혜 원

중앙종의회
중앙종의회의장 임 은 주

감찰원
감 찰 원 장 나 석 진
감 찰 부 장 한 지 관
조 사 부 장 전 법 하

법인원
총 무 국 장 양 재 언
재 무 국 장 이 지 법
사 회 국 장 우 해 암
교 무 국 장 김 법 성
문 화 국 장 김 보 광
포 교 국 장 노 연 화
비구니부장 박 혜 명

교육원
교 육 부 장 한 영 각
연 수 부 장 이 혜 견

포교원
포 교 원 장 김 진 표

종무원
부산울산종무원장 전 도 광
광 주 종 무 원 장 허 대 성
대전충남종무원장 최 법 화
경기남부종무원장 허 지 월
강 원 종 무 원 장 허 금 성
충 북 종 무 원 장 고 월 공
전 북 종 무 원 장 김 태 산
전 남 종 무 원 장 유 진 법
경 북 종 무 원 장 문 도 성
경남동부종무원장 김 신 진
비 구 니 회 장 강 지 명
벽 암 문 도 회 장 나 석 진
월 공 문 도 회 장 김 대 운
자 비 회 회 장 이 혜 봉
경기북부지부장 최 병 익
경기중부지부장 전 민 근
경 북 지 부 장 주 한 성

연합종교신문사
편집국장 장 정 택
편집부국장 이 해 균

미타종 종도일동

■ 총무원 : 서울 동대문구 휘경1동 112-39 진영빌딩 305호 전화 02)2242-1049

“수좌는 죽기로 결정한 사람… 공부와 목숨 바꿔야”





갓 스님이 된 학인들이 지대방에 모여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는 늘 정해져 있었다. 누가 가장 큰스님이고, 누가 도인인지 입담 좋은 학인이 다담(茶談)을 이끌어가기 일쑤였다. 어떤 학인은 현재 큰스님은 자기 은사스님이라고 자랑하기 바쁘고, 또 어떤 학인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경허와 만공의 파격적인 무애행을 이야기하며 그분들이야말로 진짜 도인이라고 주장했다.

젊은 학인들이 큰스님을 흠모하는 것은 당연했다. 자신들도 수행을 잘하여 도인이 되고 싶고, 거칠 것 없는 대장부가 되어 상대가 설령 조실스님이라 하더라도 할을 하고 주장자를 내리치며 바랑 하나 매고 구도의 길을 활달자제하게 걷는 것이 그들의 꿈이기 때문이었다.

학인들에게 도인들의 모습은 머릿속에 그려져 있게 마련이었다. 우람한 체격에다 음성이 우렁우렁하고, 두 눈이 부리부리한 호랑이 모습을 연상하고 있었다. 실제로 경봉, 향곡, 성철 등이 모두 장수와 같은 영웅 호걸형에 속했다.

그런데 혜암은 달랐다. 평생 일종식을 하여 깡마른 체구에다 키는 아담했다. 그해, 그러니까 1991년 72세가 되어 지리산 도솔암에서 겨울을 나고 온 혜암의 눈빛은 더 없이 맑았고 피부는 어린아이처럼 깨끗했다. 해인사 선방에 방부를 들인 젊은 학인들은 혜암의 그런 모습을 보고 놀랐다.

‘저 분이 바로 한국 수좌계를 대표하는 큰스님이신가!’

해인사 해인지(海印誌)를 만드는 학인들은 신년이 되면 혜암을 찾아가 법문을 듣고는 사보에 실곤 했다. 혜암은 학인들의 청을 거절한 적이 없었다. 학인들이 법문을 청하면 한두 마디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수행은 목숨을 걸어야 한다’며 다관의 찻물이 마를 때까지 간절하게 설했다.

<내가 처음에 ‘육조단경’을 강의하면서 외람되게 ‘육조단경’을 버릴 때 견성하는 것이요, 육조스님의 종노릇만 한다면 언제 견성 성불할 수 있는가,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비법(秘法)이라는 것이 육조스님이나 부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몰라 무슨 공부를 하겠습니까. 개개인에게 비밀법이 있습니다. 할 수 없어 화두 공부하는 것이지 화두가 무슨 도입니까. 비밀법입니다. 도이면서 도가 아닙니다. 도는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수행자가 되어 머리 깎고 목욕하고 옷 벗고 입고, 해제하고 결제만 하면 누가 공부시켜준다고 했습니까. 신실히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는 처소가 없고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할 줄 몰라도 딱 결정한 마음을 세워야 합니다. 할 줄도 모르고 밤낮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서야 되겠습니까. 부처도 내 공부를 해주지 않습니다.

죽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수좌입니다. 생명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출가해서 나올 때 벌써 조사입니다. 죽기로 결사해 모든 난행, 고행을 이겨내는 군인과 같습니다. 되는대로, 닥치는 대로 해서 성취한 사람 있습니까. 수월하게 한 사람도 있고, 뼈가 저리게 한 사람도 있듯 차별이 있기는 하나 이 공부는 내 목숨과 바꾸는 공부입니다. 죽기로 결정해 강직한 마음으로 본래 마음을 찾는 것이 운수객입니다. 수좌의 생명은 도입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집에서, 학교에서, 군대에서, 사회에서 배운 더러운 시비를 여기서도 합니다. 그것은 수좌가 아니고 선객이 아닙니다. 나는 시비를 꿈에서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어느 절이든 죽을 주든지, 썩은 콩을 주든지 시비하지 않습니다.>

법문을 듣는 학인들은 ‘수좌는 죽기로 결정한 사람이다’라는 혜암의 단언에 모골이 송연함을 느꼈다. 무릎이 아팠지만 감히 꿈적할 수 없었다. 혜암의 한 마디 한 마디를 놓칠세라 귀 기울여 들었다. 혜암은 법문 중간에 일본의 일휴선사 얘기를 예로 들어 설했다. 일휴선사가 시자에게 경책하는 얘기였다.

일휴선사가 시자를 데리고 빵집 앞을 지나다가 입맛을 다시며 한 마디 했다.

“야, 저 빵 참 맛있겠다. 냄새가 고소하구나. 우리도 먹고 가자.”

시자가 빵집 앞에 모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나직하게 말했다. 일휴선사의 언행이 점잖지 못했던 것이다.

“큰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사람들이 듣겠습니다. 빨리 지나갑시다.”

일휴선사는 시자를 앞세우고 그냥 빵집을 지나쳤다. 시자가 빵집을 멀리 벗어나서야 안심하며 말했다.

“큰스님께서는 빵 드시고 싶은 것 하나 참지 못합니까. 어찌 맛있겠다, 냄새가 좋다고 사람들이 있는데서 큰소리로 말씀하십니까.”

일휴선사가 시자를 나무랐다.

“이놈아, 너는 빵을 무겁게 십리나 짊어지고 다니느냐.”

그제야 시자는 자신이 빵에 집착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일휴선사는 빵을 보는 순간에만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 이미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혜암은 학인들에게 일휴선사의 일화를 들려주면서 법문을 계속했다.

<도인들은 그때그때 집착하는 것이 없습니다. 중생들은 대나무를 보면 대나무에 집착하고 소나무를 보면 소나무에 집착하고 단풍나무를 보면 단풍나무에 집착합니다. 집착이 중생의 병입니다. 깨달음에 이르기 전 경계에 집착합니다. 경계에 집착하기 때문에 구경각에 대한 병통이 일어납니다. 어느 오뉴월 장마가 져 산골에 큰물이 나 처녀가 울고 있자, 일휴선사가 묻습니다. “어째 울고 있느냐.” “냇가를 건너가 볼 일이 있는데 건너지 못해 울고 있습니다.” 그때 일휴선사가 처녀를 업고 냇가를 건너가니 뒤에 오던 비구가 말합니다. “큰스님이 되어 어떻게 처녀의 궁둥이를 잡고 내를 건넙니까.” 이에 일휴선가가 호통을 칩니다. “이놈들아, 너희들은 아직도 무겁게 처녀를 업고 다니느냐.” 도인들은 업어도 업은 것이 없습니다.

무슨 법이든지 사람에게 있습니다. 부처님보다 내가 제일입니다. 부처님이라고 하면 부처님이 아닙니다. 똥부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일 년도 아니고 십 년도 아니고 어찌 오래도록 속고 있다는 말입니까. 황벽스님 회상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중이 물었습니다. “해탈하신 스님께서 무엇 하려고 부처님에게 절을 합니까.” “내가 이와 같고 이와 같을 뿐이다. 부처님에게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해도 하는 것이 없다. 중생을 구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당나라 어느 선사는 산에 들어가 채근목피로 연명하며 오 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눕지도 않고 좀 쉴 때에도 나무에 기댔다고 합니다. 하루는 주장자로 흙덩이를 깼는데 흙덩이가 부서지는 순간 깨쳤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비법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공부하면 시절인연이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서울 가는데 서울이 안 나올 턱이 있습니까. 글을 읽다 깨칠지 바람이 불 때 깨칠지 모릅니다. 신짝이 벗겨지는 것에 놀라 깨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화두 하나만 놓치지 않고 공부하면 됩니다. 비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재미없다고, 해보니 별 수 없더라 하면 안 됩니다. 꼭 믿고 해나가면 천상천하 보물이 내게 있는데 남부러울 게 뭐 있습니까. 속세에 사는 어느 처사가 행주좌와 어묵동정으로 애를 쓰면서 공부했습니다. 어느 날 화장실에서 간절히 ‘이뭣고’ 하던 중 개구리가 개골개골 하는 소리에 탁 깨쳐버렸습니다. 깨달아 오도송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봄 하늘 달 밝은 밤에 개구리 우는 소리가 온 누리에 꿰뚫으니 한 집안이 되더라.

나는 예전에 공부할 때 산중에 노스님이 산다고 하면 꼭 찾아다니며 공부하는 법을 물었습니다. 글을 배우는 것은 좋아하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기역자밖에 모른 스님들에게도 배울 것은 있었습니다. 경험담을 들으면 반드시 배울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공부도 못한 죄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인과에 대한 신심이 없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전에 공부할 때 보면 비구니 스님들이 인과에 대한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인과를 그렇게 믿을 수가 없고 절 물건을 아끼고 대중공양을 그렇게 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에 도를 배우지 않으면 캄캄한 밤에 나서는 격이요,
사람이 성인의 이치를 통하지 못하면 금수들에게 옷을 입히는 것과 같더라.

사람의 옷을 입었다고 다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들에게 옷을 하나 입혀놓은 것입니다. 수행자들도 공부를 안 하면 짐승 몸에 법복을 입혀놓은 것과 같습니다. 정진하지 않으면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꽃나무를 끊어다가 대낮에 놓아두면 얼마나 성성할 것 같습니까. 사람의 목숨도 이와 같아서 죽음은 잠시간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세도 이와 같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멀리 보고 살아야 합니다.>

학인 중에는 감격하여 이를 악물고 눈물을 훔치는 사람도 있었다. 혜암의 긴 법문이 끝났을 때 학인 모두가 일어나 삼배의 예를 올렸다.

“큰스님, 장군죽비와 같은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목숨을 걸고 공부하라는 얘기요. 공부하지 않으면 법복 입은 짐승이지 뭐 있겠소.”

“신년 초부터 큰스님 법문을 듣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어서 가보시오. 난 선방에 들 시간이오.”

혜암은 선방으로 내려갈 시간이 되어 학인들을 물리쳤다. 더구나 요즘 혜암은 선방대중과 함께 스물네 시간 잠을 자지 않고 정진만 하는 용맹정진 중이었다. <계속>

사람의 옷 입었다고 다 사람이 아니다
수행자도 공부 안하면 옷입은 짐승에 불과
눈 앞에 보이는 것만 보지말고 멀리 보며 살자

공부하다 죽어라

조계종 제10대 종정 혜암 대종사의 선기가 살아 있는 수행 도량 원당암에서 ‘성불’의 길을 닦아 보십시오. 재가자 선수행의 중심도량 원당암은 영가단에 만년위패를 모심으로써 생사가 둘 아닌 도리 속에서 열반적정을 이루는 수승한 원력의 도량입니다.

정진안내

- 철야 용맹정진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 동 안 거 결 제 음력 10월 15일 ~ 1월 15일
- 만년위패봉안대불사 합동천도재
  매년 설날, 중양절 (음력 9월 9일), 백중, 추석, 매월 음력 15일 (아미타재일)

해인사 원당암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www.wondangam.org
감원 벽산 원각 | 전화 055)932-7308 / 팩스 055)931-7515



佛紀 2554年 庚寅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사)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종 정 정화 총무원장 혜 봉

원로원장 **구담** 원로위원 **덕운**
교육부원장 **월암** 사정원장 **법안** 비구니원장 **아산** 비구니위원 **자인**

총무부장 법륜 문화부장 근홍 사회부장 혜통 규정부장 호산
포교부장 법보 홍보부장 능현 감찰부장 봉정 호법부장 혜원

문화국장 법봉 호법국장 현오 감찰국장 벽송 포교국장 원공
홍보국장 정오 기획국장 도경 교임단장 도견

제10교구종무원장 해 광 제6교구동부종무원장 운 오 제3교구종무원장 상 원
제28교구종무원장 지 광 제26교구종무원장 묘 진 제13교구종무원장 지 광
제6교구서부종무원장 지 웅

종 도 혜원 선허 법산 적광 보현 명광 법광 해담 도광 법련 법담 원영 해안 상화
포 교 원 인덕화 연화행 혜명심 교임단장포교원 대법행
법 사
보광 향원 자비행 보광 염상 도일 대운 정법 능오 성문 백상 백연화 원통 보현 정연화 해룡
중앙종회의원 해청 교구종회의원 법조

종 도 일 동

■ 총본산 총무원 : 경북 포항시 흥해읍 매산리 556-1번지 연봉사 전화 054)262-5060 / 팩스 054)262-0067

사단법인 대한불교 금강종

종 정 무학 송천
총무원장 법산 영봉

대 승 정 **덕인**
승정원장 **무중** 승정원부원장 **무상** 원로원장 **월서** 원로원부원장 **법진**
중앙종회의장 **법화** 부의장 **학성. 학철** 중앙종회사무총장 **현우**
사정원장 **법천**
포교원장 **학산** 부원장 **학동** 교육원장 **법성** 부원장 **동일. 동명**
문화원장 **덕일** 부원장 **보성** 고시원장 **법일** 복지원장 **법영**
수선원장 **도공** 부원장 **동진** 비구니원장 **지명** 부원장 **정명. 정연**

종정예하 예경실장 **학림** 총무원장 사서실장 **정행**

서울교구원장 **반야지(서원암)** 부산교구원장 **일도(반야사)** 대구교구원장 **정산(범룡사)**
울산교구원장 **덕일(도성암)** 대전교구원장 **정인(원광사)** 강원교구원장 **지명(지명정사)**
경기교구원장 **정호(금강정사)** 충북교구원장 **정명(관음사)** 충남교구원장 **무중(구암사)**
전북교구원장 **정안(삼불사)** 경북교구원장 **정암(정암사)** 경남교구원장 **정행(금강암)**

총무부장 **정행** 포교부장 **정견** 문화부장 **도현** 사회부장 **서봉**
규정부장 **혜산** 국제부장 **정안** 비구니부장 **정음**

■ 총본산(총무원) :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강동 294-4 일성사 전화 042)524-2149, 935-2279 / 팩스 042)526-2149

"生命의 雄飛, 그 위대한 법계 平和를 위하여"

화쟁평화중앙교원
현대불교조계종

종 정 **벽운 덕현**

총무원장 **동화 칠통**

전종도 사부대중 일동

*** 본 종단의 회원가입을 적극 환영합니다.**

■ 총무원 보광사 : 대전 동구 가오동 293-1 전화 042)283-5896 / 011-769-0300

대한불교 원효종

총 무 원 장 **향운**

원 로 원 장 **대운**
종 회 의 장 **인담**
규 정 원 장 **도천**
총무부원장 **보원**
감 사 원 장 **운오**

원로위원 **고산, 법산, 창해, 혜담, 호성**
종회의원 **성은, 지호, 진산, 명관, 도봉, 옥운, 도명, 운영, 상경, 운학, 원봉, 원각, 성원, 혜인, 운오, 지상, 천수, 진혁, 선인**

서울종무원장 **진산** 인천경기종무원장 **인담** 광주종무원장 **원각**
부산종무원장 **심상** 강원종무원장 **청암** 경북종무원장 **도봉** 제주종무원장 **강설**
충남대전종무원장 **일륜** 충북종무원장 **석암** 경북남종무원장 **태일** 전국비구니회장 **명관**
울산종무원장 **운오** 전북종무원장 **운학** 경남종무원장 **도암** 전국비구니부회장 **자성**
대구종무원장 **법웅** 전남종무원장 **마명** 서부경남종무원장 **성원**

포상위원장 **태운** 교육원장 **수혜** 포교원장 **불인** 문화원장 **효산** 의전실장 **대련**
사서실장 **혜공** 총무부장 **우석** 규정부장 **성암** 사회부장 **법광** 포교부장 **시현**
교육부장 **대각** 재무부장 **상기** 문화부장 **법경** 복지부장 **범일** 조사국장 **행길**
규정국장 **정행**

종 도 일 동

■ 총무원 : 울산 울주군 두서면 인보리 565-3번지 목련암 전화 052)262-6857 / 팩스 052)263-0501
■ 서울총무원 : 서울 종로구 청진동 11-6번지 삼선빌딩 601호 전화 02)735-0501~2 / 팩스 02)736-3509

한국불교 법안조계종

명예종정 **상봉** 종 정 **운봉** 부종정 **송봉**
승정원장 **영암** 승정부원장 **성암** 총무원장 **대현**

종회의장 **본자** 종회부의장 **홍운** 종회부의장 **법신**
교육원장 **승법** 호법원장 **원광** 포교원장 **정도** 수선원장 **서연**
문화원장 **무공** 의전원장 **동선** 감사원장 **법안** 비구니원장 **효상**

총무부원장 **도명** 호법부원장 **광월** 문화부원장 **설운** 감사부원장 **현공**
비구니회장 **관욱** 충북교구원장 **지호** 경북교구원장 **제법** 서울교구원장 **운산**
강원교구원장 **도현** 경남교구원장 **갑태** 호남교구원장 **도암**

총무부장 **불현** 재무부장 **혜진** 사회부장 **혜명** 규정부장 **도영**
호법부장 **무성** 사업부장 **혜명** 비구니원고문 **도하** 종정사서실장 **지성**

- **입종안내 : 가족 같은 종단에 오셔서 같이 포교해 나가실 스님을 모십니다.**
- **입종서류 : 소정양식 2부, 등본1통, 사진 4장**

■ 총무원(화남정사)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44-7 전화 031)217-2633, 222-2265

사단법인 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

총 재 **혜 정** (사단법인 대한불교일승종 총무원장)
부 총 재 **무 송** (사단법인 대한불교화엄선종 총무원장)
우 담 (사단법인 중앙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회 장 **송 산** (사단법인 대한불교해동종 총무원장)
부 회 장 **마 정** (한국불교임제종 총무원장)
정 림 (사단법인 수미산문조동정종 총무원장)
사무총장 **법 봉** (사단법인 대한불교승가종 총무원장)

기획원장 **대현** (한국불교법안조계종 총무원장)
포교원장 **법인** (대선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문화원장 **향운** (세계불교법사종 총무원장)
복지원장 **법천** (대한정토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의전원장 **일초** (사단법인 대한불교삼계종 총무원장)
재무원장 **대명** (대한불교천지종 총무원장)
호법원장 **덕진** (한국불교원각종 종회의장)

이 사 **무각** (사단법인 한국불교정토종 총무원장)
정일 (한국불교근본해동종 총무원장)
법성 (국제불교선덕종 총무원장)
대일 (대한불교법륜종 총무원장)
보경 (대한불교무량종 총무원장)
봉암 (대한불교연화종 총무원장)
간 사 **지고** (세계불교법사종 종회의장)

회 원 일 동

■ 총무원 : 경기도 안산시 보개면 신장리 산 44 전화 : 사무실 031)676-3960. 회장 031)262-0606
사무총장 051)335-2210 / 011-9330-6210

佛紀 2554年 庚寅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생활불교 실천불교"

대한불교진각종 대구교구청

교구청장 혜명

대한불교 진각종
jin-gak buddhist order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 3동 584-1
TEL 053)255-1450,1411
FAX 053)252-9703
홈페이지 www.jingak.or.kr

대한불교천태종

대 성 사

주 지 김도산
총 무 김정도
신도회장 김우영

• 부설
동해유치원 053)652-5760
대구금강불교대학 053)624-0133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520-3
TEL 053)624-0542
FAX 053)623-0265
홈페이지 www.daesungsa.or.kr

대한불교조계종

보 리 사
보리불교대학

학 장 증 악
대중일동

※매주 목요일 오후2시
신묘장군대다라니독송법회

(문화강좌안내)
선체조/다도/어린이 천자문 교실

■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958-10
TEL 053)522-7611 FAX 053)522-7612

한국호국불교조계종

법 전 사

국내법왕 이혜륜
종 정

■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 423
TEL 054)972-5545 FAX 054)972-5546

대한불교조계종

보 경 사

대중일동

■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622
TEL 054)262-1117 FAX054)262-0149

(사)생명나눔실천본부 대구지역본부

'자원봉사자,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본부장 박종명

건강한 삶!
편안한 삶!
행복한 삶!
나눔의 삶!

장기기증, 헌혈지원사업,
환우지원사업, 결연사업

■ 후원계좌안내
대구은행 188-13-073651
농 협 301-0031-1553-61
국민은행 805501-01-375024
예금주:생명나눔실천본부 대구지역본부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북로 522(구. 신암동)
TEL 053)945-0007 / FAX053)945-0008

경인년 청소년포교! 선두에서 뛰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능인학원

능인중·고등학교

이 사 장 종 광
중교장 김영현 고교장 양근석
법인사무국장 일릉

■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85 (지산동 800)
TEL 053)764-0807

향 전문 제조업체

朝 陽 香 堂

대 표 조숙자

■ 경북 영천시 청통면 신원리 319
TEL 054)336-3071 / FAX 054)336-2565

'청백원의 눈으로 찾아낸 고품격의 작품'

청 백 원

전시장 :
대구광역시 중구 종로2가 46-1

■ TEL 053)253-1121, 256-7484

다기류 일절

홍 백 원

"진솔한 향기가 있는 곳"

대표 이화숙(법률행)

전시장 :
대구광역시 중구 종로 2가 76-1

■ TEL 053)256-5847 / FAX 053)254-8183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산 **통 천 사**

주 지 선 지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1동 3-1(아양교옆)
TEL 053)941-3503, 053)953-4481

(사) 대한불교 화엄선종

자 은 사

주 지 도철

■ 경북 성주군 용암면 문명1리 438-2
TEL 054)933-6705

天明寺 **혜 정 원**

주 지 혜정

■ 대구광역시 동구 진인동 508
TEL 053)986-8090, 0111

대한불교조계종

옥 천 사

주 지 혜 주

부설 : 울릉도 성불사 / 연화유치원

■ 경북 포항시 북구 득량동 98번지
TEL 054)272-4633 / FAX 054)274-1633

대한불교조계종

매봉산 **고 성 사**

주 지 고 성

■ 경북 칠곡군 동명면 봉암리 755
TEL 054)977-0962

청도불교사암연합회

회 장 정광
부회장 법춘

회원일동

■ 경북 청도군 금천면 박곡리 794
TEL 054)372-3876 / FAX 054)373-8505

대한불교조계종

팔공산 **구 룡 사**

주 지 효 재

■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 2리 328
TEL 054)975-9045, H•P 011에9045또9045

대한불교조계종

관 음 사

주 지 임 대

■ 경북 포항시 북구 덕수동 939-1
TEL 054)247-2729 (팩스 겸용)

대한불교조계종

청 수 사

[부설] 청수어린이집
※2010년 유치원 개원 예정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 4동 117-36
TEL 053)741-2562
[청수어린이집] 053)753-2561

대한불교조계종

원 만 사

원만사 부설 유치원

주 지 법 홍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708
TEL 053)257-1914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성불산 **안 일 사**

주 지 선 광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6동 산225
TEL 053) 655-0225
부설 반야유치원 TEL 053) 655-0223

대한불교조계종

대방산 **보 림 사**

주 지 선 주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본리 산 67
TEL 053)614-4526, 7169

대한불교조계종

청 계 사

주 지 설 정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흥동 626
(월드컵 경기장 안쪽)
TEL 053)793-1551

대한불교조계종

감 천 사

■ 대구광역시 동구 진안동 151-1
TEL 053)982-0562 / FAX 053)983-6668

사회복지법인 감천복지재단

후원계좌 : 대구은행 179-04-153377-001
(예금주: 감천복지재단)
TEL 053)986-5522~3 / FAX 053)986-5524
www.gamchun.com

佛紀 2554年 庚寅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생활불교 실천불교"

대한불교진각종 대구교구청

교구청장 혜명

대한불교 진각종
jin-gak buddhist order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 3동 584-1
TEL 053)255-1450,1411
FAX 053)252-9703
홈페이지 www.jingak.or.kr

대한불교천태종

대 성 사

주 지 김도산
총 무 김정도
신도회장 김우영

• 부설
동해유치원 053)652-5760
대구금강불교대학 053)624-0133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520-3
TEL 053)624-0542
FAX 053)623-0265
홈페이지 www.daesungsa.or.kr

대한불교조계종

보 리 사
보리불교대학

학 장 증 악
대중일동

※매주 목요일 오후2시
신묘장군대다라니독송법회

(문화강좌안내)
선체조/다도/어린이 천자문 교실

■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958-10
TEL 053)522-7611 FAX 053)522-7612

한국호국불교조계종

법 전 사

국내법왕 이혜륜
종 정

■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 423
TEL 054)972-5545 FAX 054)972-5546

대한불교조계종

보 경 사

대중일동

■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622
TEL 054)262-1117 FAX054)262-0149

(사)생명나눔실천본부 대구지역본부

'자원봉사자,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본부장 박종명

건강한 삶!
편안한 삶!
행복한 삶!
나눔의 삶!

장기기증, 헌혈지원사업,
환우지원사업, 결연사업

■ 후원계좌안내
대구은행 188-13-073651
농 협 301-0031-1553-61
국민은행 805501-01-375024
예금주:생명나눔실천본부 대구지역본부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북로 522(구. 신암동)
TEL 053)945-0007 / FAX053)945-0008

경인년 청소년포교! 선두에서 뛰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능인학원

능인중·고등학교

이 사 장 종 광
중교장 김영현 고교장 양근석
법인사무국장 일릉

■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85 (지산동 800)
TEL 053)764-0807

향 전문 제조업체

朝 陽 香 堂

대 표 조숙자

■ 경북 영천시 청통면 신원리 319
TEL 054)336-3071 / FAX 054)336-2565

'청백원의 눈으로 찾아낸 고품격의 작품'

청 백 원

전시장 :
대구광역시 중구 종로2가 46-1

■ TEL 053)253-1121, 256-7484

다기류 일절

홍 백 원

"진솔한 향기가 있는 곳"

대표 이화숙(법률행)

전시장 :
대구광역시 중구 종로 2가 76-1

■ TEL 053)256-5847 / FAX 053)254-8183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산 **통 천 사**

주 지 선 지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1동 3-1(아양교옆)
TEL 053)941-3503, 053)953-4481

(사) 대한불교 화엄선종

자 은 사

주 지 도철

■ 경북 성주군 용암면 문명1리 438-2
TEL 054)933-6705

天明寺 **혜 정 원**

주 지 혜정

■ 대구광역시 동구 진인동 508
TEL 053)986-8090, 0111

대한불교조계종

옥 천 사

주 지 혜 주

부설 : 울릉도 성불사 / 연화유치원

■ 경북 포항시 북구 득량동 98번지
TEL 054)272-4633 / FAX 054)274-1633

대한불교조계종

매봉산 **고 성 사**

주 지 고 성

■ 경북 칠곡군 동명면 봉암리 755
TEL 054)977-0962

청도불교사암연합회

회 장 정광
부회장 법춘

회원일동

■ 경북 청도군 금천면 박곡리 794
TEL 054)372-3876 / FAX 054)373-8505

대한불교조계종

팔공산 **구 룡 사**

주 지 효 재

■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 2리 328
TEL 054)975-9045, H•P 011에9045또9045

대한불교조계종

관 음 사

주 지 임 대

■ 경북 포항시 북구 덕수동 939-1
TEL 054)247-2729 (팩스 겸용)

대한불교조계종

청 수 사

[부설] 청수어린이집
※2010년 유치원 개원 예정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 4동 117-36
TEL 053)741-2562
[청수어린이집] 053)753-2561

대한불교조계종

원 만 사

원만사 부설 유치원

주 지 법 홍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708
TEL 053)257-1914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성불산 **안 일 사**

주 지 선 광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6동 산225
TEL 053) 655-0225
부설 반야유치원 TEL 053) 655-0223

대한불교조계종

대방산 **보 림 사**

주 지 선 주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본리 산 67
TEL 053)614-4526, 7169

대한불교조계종

청 계 사

주 지 설 정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흥동 626
(월드컵 경기장 안쪽)
TEL 053)793-1551

대한불교조계종

감 천 사

■ 대구광역시 동구 진안동 151-1
TEL 053)982-0562 / FAX 053)983-6668

사회복지법인 감천복지재단

후원계좌 : 대구은행 179-04-153377-001
(예금주: 감천복지재단)
TEL 053)986-5522~3 / FAX 053)986-5524
www.gamchun.com



대행 스님

오직 몽둥이 하나 들고 그것만 가지고 살아라

인과의 도리를 몰라서 그럴까요?

문 요즘은 세상이 참 각박하고 무섭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고 감정의 노예가 되어 인간의 생명이 너무나 가볍게 무너지게 되는 걸 보면 살기가 싫어집니다. 인과의 도리를 몰라서 그럴까요? 모두가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다는 도리를 안다면 좀더 따뜻한 세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 다시 한 번 그러한 도리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옛날 얘기 잠깐 해 볼까요? 옛날에 어느 부부가 외아들을 지극히 잘 길렀습니다. 근데 며느리를 얻고부터 부부를 적대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는 어쩔 수 없이 아들이나 며느리가 하는 대로 그냥 따라야만 하고 그랬는데 어느 때 그 아들 내외가 부부만 농촌에 남기곤 그냥 달아나갔습니다. 달아나가서 살았죠.

그런데 그 부부는 어찌 할 수가 없으니까 고만 절로 올라가서 한 분은 부목을 하고 한 분은 공양주를 하면서 그렇게 일생을 보내다가 절에서 죽었습니다. 죽어서 어느 집에 바로 형제로 태어났는데 그 부모가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또 절로 갔습니다. 절에 가서 승려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 아들 며느리는 어떻게 됐느냐? 자식은 다 죽고 늙어서 아주 그냥 그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영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고생을 하게 됐더랍니다. 그걸 움막이라 그러나요? 움막 속에 들어가서 밥을 얻으러 나가려면 하나는 포대를 이렇게 두르고 하나만 옷을 입고 가고, 이쪽 사람이 밥을 얻으러 갈 때는 이쪽 사람이 그 옷을 입고 저쪽 사람은 이렇게 포대를 두르고, 이런 지경에 이르렀답니다.

그랬는데도 하나 돌보는 사람이 없었는데 어느 날 그 젊은 스님 둘이서 그 옆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늙은 부부가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바로 자기 은사 스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 데 가다가 보니까 이러이러합디다 하고요. 그러니까 "가서 시주를 하라고 그래라." "시주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옷 한 벌 있는 거 마저 시주를 하라고 그래라. 만약에 그 옷을 시주하걸랑 새끼오락지에다 묶어서 이렇게 해서 들고 와서 그냥 전부 뜯어서 잿물을 넣고 삶아서 웃도리는 법당을 닦고 아랫도리는 요사채를 닦되 동생은 요사채를 맡고 형은 법당을 맡아라."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가서 시주를 해 달라니까 "옷이 딱 한 벌뿐인데 어떻게 시주를 해 줍니까?" 하면서 그 남자가 있다 하는 소리가 "에이고, 이제는 비를 맞아서 더 떨어질 옷도 없고 그러니 비를 더 맞으면 어떻고 덜 맞으면 어떻겠느냐." 하면서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으니까 옷 한 벌을 마저 벗어서 새끼오락지로 메서 바깥으로 이렇게 내주더랍니다. 포대쪼가리도 둘이 갈라서 앞만 가리고선 그냥 죽을 때나 인제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 사람도 부모를 그렇게 버리고서 그래도 무슨 생각인가 했기에 그거나마 이렇게 벗어줬겠죠.

그래서 스님이 시키는 대로 가서 그렇게 양잿물에다 삶아서 옥사슬같이 빨아서 요사채와 법당 마루를 그게 다 닳도록 그냥 그렇게 닦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은사 스님이 있다 하는 소리가 "얘야, 그 움막에 좀 가 봐라. 이제는 너희가 그렇게 아래 위서 닦고 닦아서 죄업이 벗어졌어. 그러니 가서 보아라." 그랬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이 노인네가 밥을 얻으러 다니다가 안 오니까 움막에서 죽은 줄 알고 와 보니깐 다 죽게 됐거든요. 그래서 옷을 전부 거둬서 갖다 입히고 마을로 데리고 가서 참, 농사를 짓게 하고 그러다 너무 연세가 많아서 고만 돌아가시게 되니깐 동네서 다 치워 주게 됐더랍니다.

그랬는데 말입니다, 그 부부가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그 얘길 스님들을 앉혀 놓고 합니다. "이 노인들은, 부부는 바로 너희들의, 즉 말하자면 아들이었고 며느리였고 너희들은 바로 이 사람들의 부모였다. 너희 부모는 아무리 아들과 며느리가 도망을 가서 그렇게 부모를 돌보지 않았어도 그 부모는 지극하게 너희가 잘되라고 애를 썼고 착한 마음으로 지극하게 공양주와 불목을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승려가 됐느니라. 그러니 너희 자식이니라." 하니까 고만 거기서 엎드려서 울죠. 아무리 나쁜 자식이라도 그렇게 아래 위서 닦아 주니까 그 부모가 또 딴 집의 자식이 돼 가지고도 그렇게 전생의 그 자식의 죄를 또 닦아 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모두가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내 형제 아님이 없고 내 부모 아님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해골바가지에다 큰절을 하셨다는 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왜 큰절을 하셨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사생의 자부이신 어버이신데 왜 해골바가지에다 절을 하십니까?" 하니까 "수억겁 광년 전으로부터 수없는 나날을 자식이 됐다가 부모가 됐다 형제가 됐다가 이렇게 진화돼서 이렇게 나왔으니 그 해골은 내 형제일 수도 있고 내 할머니일 수도 있고 내 부모일 수도 있느니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가 "미처 그런 거를 몰랐습니다." 하고 통곡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지금 현실에도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억겁 전으로부터 지수화풍의, 즉 말하자면 바람과 흙과 물과 한데 혼합이 돼서 그렇게 돌아가니까 온기가 생겨서 이 생명이 생긴 거죠. 일체 만물이 다 생기고 난 뒤에 사람이 맨 마지막에 생겼다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바로 그렇게 쫓고 쫓기면서 돌아가면서 진화돼서 이날까지 인간이 맨 나중에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 얼마큼 쫓고 쫓기면서 돌아치고 얼마나 진화돼서 이날까지, 인간까지 왔을까 하는 얘기죠.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부모가 됐고 자식이 됐고 형제가 됐고 얼마나 많은 세월을 그렇게 됐을까요?

그러니 공부하는 학생이 "학자금을 내지 못해서 학교를 고만 둘까요, 스님?" 하고 눈물이 뚝 떨어질 때 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남의 자식 같질 않고 꼭 내 자식 같거든요. 남의 자식이 아니에요. 남의 부모가 아닙니다. 가난하고 외로운 노인 분들을 보면 "때에 따라서는 허전하고 그럴 테니까 입에 넣으세요." 하고 또 사탕 한 움큼씩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드리곤 하죠.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그건 이 도리를 알아야만이 스스로서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 이겁니다.

이 공부를 안 하고 내가 지어서, 요거 남이 이러니까 나도 이래야지 하는 거는 삼 일도 못 가요. 그러니까 어떤 게 사랑인지, 어떻게 살아나가야 모든 자식들이 이탈되게 안 하고 살 수 있을는지, 또 병고와 가난과 우환,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만이 커버해서 나갈 수 있을는지, 또는 유전성이나 영계성이나 업보성, 인과성, 세균성 이런 것을 어떻게 커버하고 나가야만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거는 전부 여러분의 마음의 핵심에 있다는 얘깁니다.

죄가 있다 없다, 무슨 내가 운명이 이래서 이렇다 이런 거는 붙을 자리가 없습니다. 병도 붙을 자리가 없고요. 오직 한마음 주인공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건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자꾸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바로 입력한 데다 다시 맡겨 놓으십시오. 그러면 앞서 팔자 운명이 입력이 됐던 거는 다 없어질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로 실험을 해 보세요. 지금부터라도 모든 일체 나를 끌고 다니는 게 바로 내 마음내기 이전 즉, 운전수구나. 마음을 내면 운전수가 되고 마음내기 이전은 바로 심장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은 그 운전수가 나를 끌고 다니니까 운전수를 믿어야지, 이 운전수가 끌고 다니는 몸뚱이를 믿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모든 것은 거기다 맡기시고, 어떠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용도에 따라서 다 거기다가 '거기서 나온 거니까 거기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거기밖에는 해결할 수 없어.' 하고 맡기세요. 또 '거기서 해 주시오.' 이러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기도

☞A22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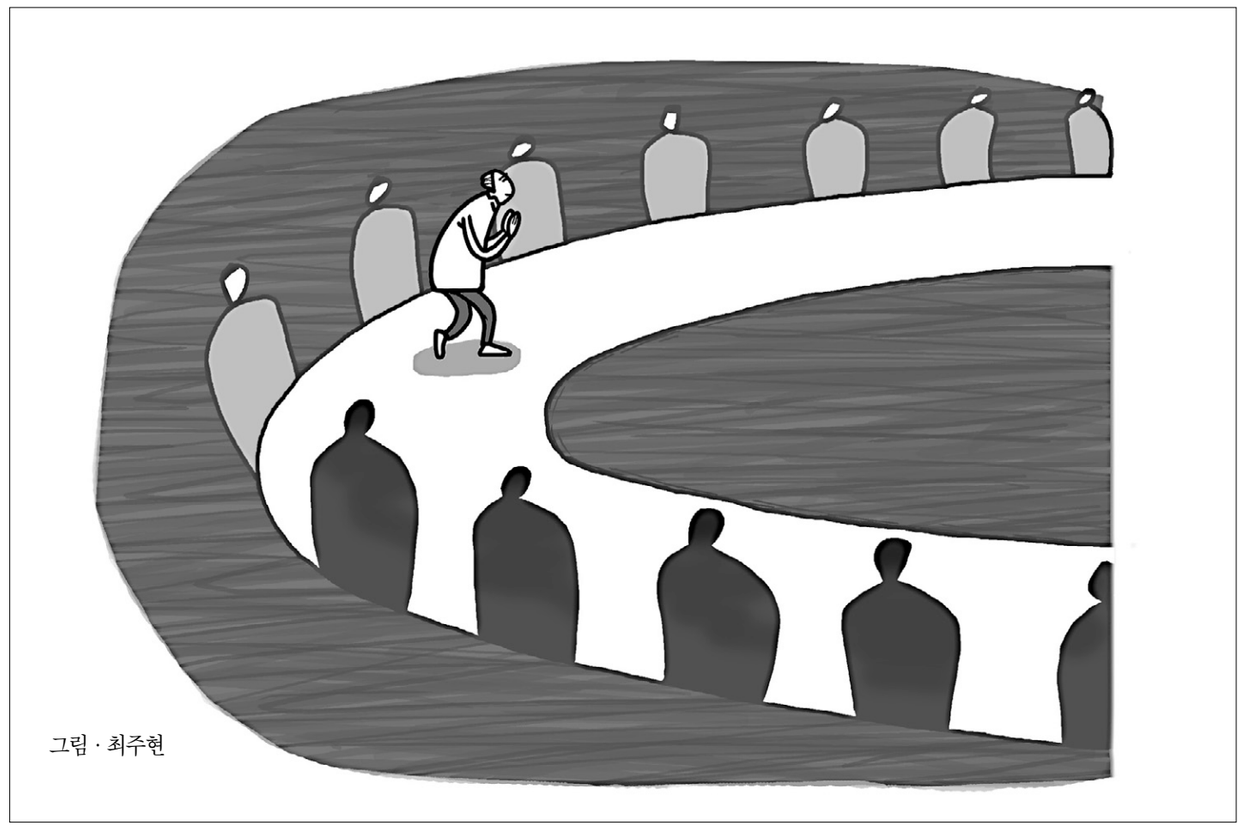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佛紀 2554年 庚寅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재)대한불교조계종

안 국 선 원

선원장 수 불

사부대중일동

■ 부산 :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35-14번지(지하철 1호선 두실역 8번 출구)
TEL(051)583-0993 · 0994 / FAX 051)583-0999

■ 서울 :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10-3(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
TEL 02)732-0772, (744)0772 / FAX 02)744-0779 www.ahnkookzen.org

삼광사의 풍경소리로 세상은 자비로워집니다.

대한불교 천태종

부산 삼 광 사

주 지 류화산

총무 엄행주 교무 김도진 재무 김효성 노전 정원공

고문 김길두 김기성 전무수 김부환 박경순 홍영표 이종화 장석근 김형대
신도회장 김 석 조 신도부회장 홍경표, 조임순 총무위원 김상준 교무위원 정재위 재무위원 이종희, 부학자, 김영숙
사업위원 김석홍 기획위원 송세현 조직위원 김광호 홍보위원 우신길 섭외위원 이봉영 부녀위원 정옥순
사부대중일동 합장

■ 정기법회 - 매월1, 2일 오전 10시
■ 청년회법회 - 매월 1일, 3주 일요일
■ 학생회 법회 - 2~4주 일요일 오전10시30분
■ 철야 관음정진 - 매월 1주일 동안 봉행

경인년(庚寅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빛으로
불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불교 천태종 부산 삼 광 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amkwangsa.or.kr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산 131번지
TEL(051)808-7111~5 FAX(051)803-1332

buddhanews.com

아는 것도 똘똘 한데뭉쳐서 그냥 공에다 놓으세요

☞A21면에서 계속

를 하면은 둘이 되죠? 믿는 거 하나, 즉 말하자면 자기 주처의 영원한 자기의 근본을 믿을 때는 그냥 믿는 거뿐입니다. 믿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자기의 근본을 믿고 맡길 수 있다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따뜻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아픔이 두려워요

문 스님께서도 치병의 도리에 대해 누차 말씀해 주시지만 그걸 완전히 제 것으로 소화해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경을 조금만 썼다 하면 머리가 너무 아파요. 병원에서 특별한 병명이 없이 그냥 신경성이라 그러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공부로 잘 돌리고 싶지만 너무 아프면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스님, 저는 이 아픔이 너무 두렵습니다.

답 우리 인간의 이 모습은 곤충의 집합소라고 볼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백 년 수천 년 내려오면서 진화가 돼서 사람은 됐으나 사람 속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다 자기가 지어 놓은 인연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 자체 속에 있는 게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이 우글우글해도 곤충하고 뭐 다른 게 있으며 벌레하고 뭐 다른 게 있으며 짐승하고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모습만 천차만별로 다를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모두 속에다가 곤충을 넣어 놓고 그것이 제가끔들 돌아서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이러고 사니까 못된 병이 생기고 그러는 거죠. 벌써 곤충들이 싸움이 나서 서로 잡아 죽이면 그냥 굳어지는 겁니다. 모두가 이러한 사태를 알고 이걸 대치를 하고 지내면 사는 것도 좀 유유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복하라. 네 몸속에 있는 중생들도 둘이 아니게 조복하라.' 그런 거죠. 그 모습 속에 있는 곤충들이 이 사람과 둘이 아니어서 하나로 공해야지 이 곤충 몸을 다 벗어버릴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디가 아프다 이런다면 그저 그 아픈 것만 생각하고 야단법석들을 하고 또 어디가 무너졌다 그러면 그 무너진 것만 가지고 법석들을 하는데, 지금 시급한 게 뭡니까. 이 곤충주머니에서 벗어나는 게 시급하지 그것이 문젭니까? 그래서 그런 병 증세나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그거를 방편을 삼아서 공부해라 이런 것이죠.

왜 부처님께서 약사보살이다 관세음보살이다 지장보살이다 이렇게 이름을 내놨겠습니까? 그 관리인들의 이름은 이름일 뿐이지, 여러분이 다 근본에다 한데 합쳐 놓으면 보살이나 중생이나 둘이 아니다 이겁니다. 모든 게 부처로 둘이 아니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둘이 아닌 까닭에 의식들의 그 인과성도 병 증세도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먼저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병부터 생각하니까, 나빠진 것만 생각하니까, 인생은 짧고 벗어나기는 긴데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야 하느냐. 그 처리는 한생각밖에는 없다 이겁니다, 한생각!

모든 걸 자기가 지어 놓고, 인과성이나 유전성이나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니깐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그러곤 다 놓아서 버리라는데도 안 버리고 오히려 그냥 이거 낫게 하는 그것만 가지고 야단이거든요. 하나가 없어지면 둘 셋이 다 없어지는데 말입니다.

그렇듯이 여러분은 태어나기 이전의 자기를 무시한다 이겁니다. 태어나기 이전 자기는 정신계의 자기이고, 지금 현실에 보이는 물질적 세계는 바로 그 정신계의 자기가 형성시켜 놓은 자체거든요. 그러니 자기 나무가 자기 뿌리를 어떻게 무시하겠습니까. 병이 낫고 안 낫고 일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거는 자기한테 그대로 보배로서 있는 건데 말입니다.

그거를 진짜 알아서 '낫게 하든지 낫지 않게 하든지 둘이 아닌 까닭에 너만이 할 수 있잖아. 지켜주는 것도 너고, 이끌어 주는 것도 너고, 해결사도 너고, 죽이는 것도 너고 살리는 것도 너야. 너뿐이야.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지극하게 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먼지처럼 돼서도 남의 속에 들어가서 건지십니다. 그렇게 하게끔 약사보살을 낸 거죠. 지금으로 치면 의사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의사도 있고 다 있어요. 그렇게 찰나찰나 나투면서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넘기가 어려워서 모두 애를 쓰거든요.

그러니깐 넘기가 어렵더라도 좀 실천을 해 보고, 죽고 사는 거 그까짓 거, 아니 그렇다고 해서 누가 굶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어렵게 살라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다 집착을 하고 살지 말라 이거죠. 오직 몽둥이 하나 들고 그것만 가지고 살아라 이거죠. 오직 몽둥이 하나 들고. 이게 바로 주장자며 불성입니다. 자불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무는 자기 뿌리를 믿어야 공덕이 있는 것이지, 자기 뿌리를 믿지 않고 저 큰 나무 이름이나 형상을 찾아 돌아다니는 거는 그거는 공덕이 하나도 될 수 없느니라.' 했거든요.

마음공부 하는 이 도리는요, 한 번 인연을 만나는 게 천 년에 한 번 만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마음공부 하는 게. 이 옷 벗고 옷 속에 그 곤충의 세계를 다 벗어버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을 만났을 때 진짜로 믿고 실천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보기 흉하고 그런 곤충 속에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놓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문 안녕하세요. 저도 불법에 심취해서 나름대로 마음을 비우고자 수행을 하고 있는 불자입니다. 경전 공부도 해 보고 절도 해 보고 주력 염불도 해 보고 화두 참선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방편을 써서 노력을 해 보지만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스님께서는 놓으라고 하시는데 주워 들은 게 많아 아는 게 많은 탓인지 자꾸 따지고 들게 되어 놓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놓아야 하는지요?

답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모두 각자의 물건이 다 있으면서도 공입니다. 공에다가, 아는 거든지 모르는 거든지 머리에서 좀 아는 거는 다 공에다 놨으면 좋겠습니다. 놓는 것도 믿어야 놓을 수 있습니다. 덜 믿기 때문에 못 놓습니다.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오직 들고 나는 것은 한군데밖엔 없습니다. 구멍 없는 구멍. 나고 드는 곳은 오직 그거 한군데밖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군데를 노리고 거기에다, 놓는 것도 거기에다 놓으면 됩니다. 그건 무조건, 그냥 무조건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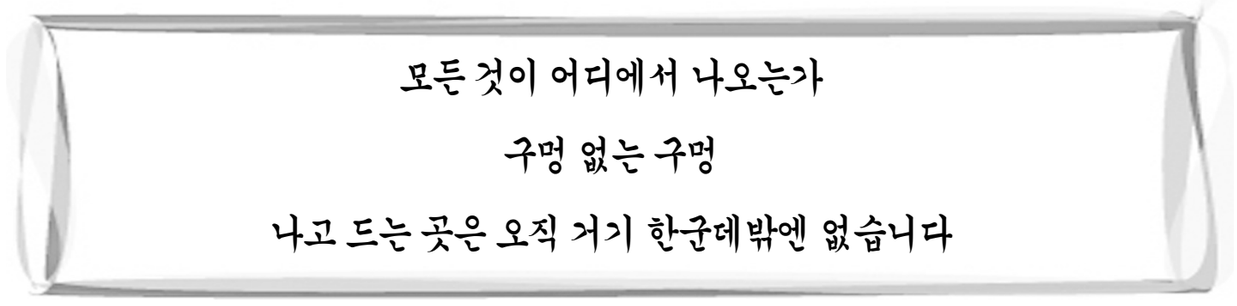
차라리 무지막지하게 모르는 사람 같으면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는 게 머리에 너무 많단 말입니다. 꽉 찼어요. 그러나 그 아는 것도 똘똘한데 뭉쳐서 그냥 공에다 놓으세요. 놔도 그 자리가 그 자리니까요. 머리에서 아는 게 떠올라도 처음에는 놓으셔야 합니다.

그럼 그걸 어디다 놓느냐?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없다면 공도 없다는 거. 바로 내가 공이니깐 나한테 놔야죠. 그것도 이름해서 '당신 주인공에다 놔.' 하거든요. 내가 공인데 거기에 무슨 화두가 또 붙느냐 이겁니다. 내가 공이고 내가 화두인데, 그 화두에다 놔라 이거예요.

놔 버리다 보면 자연적 싹이 트게 됩니다. 그때에 의정이 나게 되죠, 정말 의정이. 그저 생활 속에서 의정이 아닌 게 없어요. 그때 딴 사람은 모르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다 놓을 수 있어서 다 놓게 되면, 그때 싹만 난다면 그때는 그 아는 거를 써먹게 되는 거죠. 저절로, 아니까 저절로 나오는 거지만 그건 이차입니다. 이차로 돌리셔야죠. 자꾸 그게 앞서기 때문에, 앞설 것이 자꾸 뒷서기 때문에 이게 엇갈리고 아리송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발견하는 거는 상당히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좀 미련한 듯해야 쉽다 이겁니다. 그러니 아예 그냥 무조건 놔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머리에는 억만 가지로 이 실이 두리두리 엉켜서 잔뜩 쌓여 있거든요. 그럼 이걸 풀려면 이 인간으로선 보이지 않는 실밥이 뭉친 거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데서 풀어야지, 보이는 데서는 절대로 풀 수가 없어요. 도저히 풀 수가 없습니다.

그냥 놔야 그 실밥은 한순간에도 풀릴 수 있는 거죠. 그 한순간에 풀린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모든 거를 쌓았기 때문에 탑 위에 봉우리가 올라가는 거지, 탑을 쌓지도 않고 그게 올라가나요? 그러니까 그냥 놔 보십시오. 오늘부터 놔지나 안 놔지나. 그 본래 놔져 있다고 놓고 간다 이런 것까지 아시는 분이 그 실천을 하지 못하시면 어떡합니까.



동생도 이 마음공부를 했으면…

문 제가 아는 동생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친하게 지내긴 했지만 어떤 때는 너무 이기적인 면이 보여서 살짝 미워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락을 받으니까 빨리 낫기를 바라는 마음 너머에 너는 고생 좀 해 봐야 된다는 마음도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도 회복되면 한국에 돌아와 산다는데 빨리 회복돼서 돌아 왔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이 기회에 그 동생도 마음공부를 하면서 살면 좋겠어요. 제가 마음을 내면 될 수 있을까요?

답 우리가 반가워서 악수를 할 때에 마음이 가니깐 손이 덩달아 따라가는 거지 마음이 안 가는데 손이 악수를 하려고 덩달아 따라갑니까? 그래서 마음이 움죽거리는 것이 여러분이 움죽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따라서 몸이 매여 있다 이겁니다. 그 매인 몸은 공했다. 매인 몸이기 때문에 공했다 이겁니다. 찰나찰나 물을 마셔도 내가 마셨단 말을 못합니다. 왜? 이 지구와 같은 이 몸속에 이 생명체들이 수없이 얽히고설켜 있음으로써 어떤 것이 먹는다고 할 수 없으니깐 '내가 먹은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냉정히 따지고 보면 그 중생들이 달라 해서 나는 심부름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래로는 중생들의 심부름, 위로는 그 부처님의 시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의 중생들을 모두 흡수해야 된다.' 이러는 거는 조복을 해야 된다. 한마음으로 조복이 돼야 내가 마음먹는 대로 한마음으로 따라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의식들이 다 보살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자기 마음을 그대로 천차만별로 보살행을 하게끔 자유권을 줬습니다. 자유권을 준 게 아니라 자기가 자유권을 가졌기 때문에 자유권이 있게끔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휴! 내가 이거 뭐 중생인데 이것을 이렇게 허공에 발을 떼어 놓을 수가 있나?' 이러지만 우리는 그냥 거기다가 맡기고 관하고 이러는 게 그대로 내가 죽는 방법이요, 내가 함이 없이 하는 방법이요, 둘 아닌 도리를 아는 방법이요, 구경계에 이르는 방법이요, 전부가 아니 되는 게, 아니 하는 게 없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기별이 왔는데 "지금 하혈이 심합니다. 급하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쪽의 마음도 이쪽의 마음도 둘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길다 짧다, 악이다 선이다 이거를 전제하고 무조건이었습니다. 무조건이십니다. 우리도 무조건입니다. 이유를 붙이지 않아야 됩니다. '너는 고렇게 얄밉게 했으니깐 넌 그렇게 해도 싸.'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는 도저히 부처님의 그림자도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에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직껏 수차에 걸쳐서 여러분한테 말씀해 드리고 실천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떠한 것도 자기가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고 주인공에다가 그냥 '둘 아닌데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관하면 그 주인공으로 그냥 나투게 됩니다. 나투게 돼서 그것을 멈추게 합니다. 그 때는 그 사람이 급하니깐 그렇지만, 그러고 나서는 관하는 것도 가르쳐 줘야 자기 발로 걸어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너무 멀리 있거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일단은 무조건 줘야 합니다. 아셨죠?

그게 바로 무심도리요, 바로 공용의 도리요, 공체의 도리요, 공식의 도립니다.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뭐든지 내 줄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근본자리는 내도 내도 줄지 않고 또 넣어도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이 허공을 다 집어넣는다 해도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그건 체가 없는 까닭입니다. 체가 없는 데다가 체가 없는 걸 넣으니까, 이 천차만별의 생명들을 다 집어넣어도 두드러지는 법이 없죠.

그러니깐 인간에게는 다 자유권을 줬는데, 마음을 자유대로 쓰라고 줬는데 자유스럽게 쓰질 못해요. 이게 적다 크다 판단을 하기 때문이죠. 속으로는 이게 적다,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만약에 급한 일에는 판단도 필요 없습니다, 그게.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그렇게 해 보세요.

佛紀 2554年 庚寅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부산불교회관은 도심포교를 위해 계획 설계된 미래 불교 도량입니다

부산불교회관 (부산시청 옆)

여여선원 · 여여정사

(부설) 신행학교 · 여여불교대학 · 수선회

선원장 정여 스님 (범어사 주지)

수선회 선 감 도경스님
김해포교원 주 지 도명스님
여여선원 총 무 효산스님
명예회장 김 경 환
신도회장 이 향 순

신도회, 총동문회, 복지회, 다여림회, 선림회, 여여산악회, 지장회, 관음회, 천일기도회, 어린이회, 여여불교대학, 기초교리반, 선불교대학원, 금강경반, 원각경반, 화엄경반, 법화경반, 참선반

■ 여 여 선 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동 157-1 부산불교회관 TEL 051)853-5486~7 / FAX 051)863-6422
■ 여 여 정 사 :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행곡리 1058 TEL 055)355-9290~1
■ 김해포교원 :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 1416-1 TEL 055)311-2911~1

佛紀 2554年 庚寅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불암산 불 암 사

주 지 일 관
신도회장 허일심화
거사림회장 조 철 호

송산노인복지관 운영위원장 일 면

사 부 대 중 일 동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797번지 ☎ 031)527-8345 / www.bulamsa.com
■ 송산노인복지관 : ☎ 031)852-2595

20여 년 전 지리산 쌍계사 계곡 어디쯤이었다. 여름 밤 하늘의 별들은 말 그대로 찬란했다. 드넓은 하늘을 빼곡하게 수놓은 별들은 초롱초롱 반짝이며 마치 한바탕 신비의 축제라도 벌이는 듯했다. 지금도 그 광경을 머리 속에 떠올리면 가슴 속에 아련한 울림의 잔물결이 인다. 그때 나는 우주에 관한 얄팍한 상식을 밤하늘이 연출하는 장관에 대입시키며 신비감을 증폭시켰던 것 같다.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는 빛의 속도로 약 1.3초이고 태양까지는 약 8분 20초, 북극성까지는 400광년이며, 가을철 북쪽 밤하늘에 나타나는, 북반구 사람들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단 하나의 외부은하인 안드로메다 성운까지는 210만 광년…' 하는 식으로. 따라서 내가 바라보는 별빛이 실은 수백, 수천 년 전에 별들을 출발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새삼 우주의 '광활함'에 경외감을 느꼈던 것 같다.

우주는 참으로 광대무변하다. 현재까지 추정하고 있는 바로는 우주에는 약 1000억 개의 은하가 있고 각 은하에는 또 1000억 내지 2000억 개의 별들이 있다고 하니 놀라울 뿐이다. 그런데도 이 광활한 우주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행성은 확률적으로 20만에서 30만 정도라고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생명체가 확인된 것은 오직 우리의 '지구'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로 '생명의 꽃'은 신비하기 그지없다. 더욱이 그 수많은 생명체 가운데 우리들 인간의 생명은 더더욱 불가사의한 존재임에 틀림없다.

그래서일까, 불교의 한 문헌에는 '바늘 구멍(針孔)'이라는 매우 흥미 있는 비유가 나온다. 이 비유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수미산 꼭대기에 한 올의 실을 가지고 오른다. 산 아래 평지에는 다른 한 사람이 바늘 하나를 들고 서 있다. 마침 그 수미산에는 허리케인보다 더 거센 폭풍이 불고 있다. 이 때 수미산 꼭대기에 오른 사람이 그 한 오라기의 실을 던져 평지에 서 있는 사람이 들고 있는 바늘구멍에 꽂으려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올의 실이 바늘구멍에 꽂힐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것처럼 보인다. '바늘구멍'의 비유는 우리가 인간의 몸을 받아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이처럼 어렵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명은, 특히 우리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 온 힘을 다한다. 생존을 위한 다툼과 싸움은 피 튀기도록 치열할 수밖에 없다. 또한 살아남은 사람들은 가능한 한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희망한다. 우리 인류는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종교와 철학과 과학을 통해 줄곧 행복을 추구하고 탐색해 왔다.

근래에 들어 우리는 한국 전쟁으로 인한 절대 가난에 허덕이며 '잘 살아보세'를 외치면서 허리를 졸라매고 한강의 기적을 일궈왔다. 추위와 배고픔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우리들은 이제 정신적으로도 좀 더 여유 있고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웰빙' 바람이다. 이 웰빙 바람은 '속도'와 '성장'을 향해 숨 가쁘게 달려오면서 지나쳤던 '건강, 휴식, 자연, 행복'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게 되면서부터 일기 시작했다. 웰빙 바람은 21세기에 접어든 이래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에 깊숙이 스며들어 이른바 '웰빙 문화'를 낳고 있다. 지난 2004년에는 '웰빙족'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되기도 했다.

'웰빙(well-being)'은 말 그대로 복지, 안녕, 행복 등의 의미로서 물질적 풍요나 가치보다는 삶의 질을 더 중요시한다. 웰빙을 추구하는 웰빙족은 스트레스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정신적인 여유를 누리고자 한다. 육체적인 건강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리하여 그들은 가급적 인스턴트식품을 삼가고 생식, 허브차, 유기농 등의 자연식을 선호하며, 요가와 명상, 스파와 헬스 등을 통한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위해 노력한다.

원래 웰빙은 미국에서 반전운동과 민권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시민들이 물질지향적인 첨단과학문명에 대항해 자연주의, 뉴에이지 문화 등을 수용하면서 파생된 삶의 방식에 가까웠다. 웰빙의 대표적 문화 코드인 요가나 명상은 1960~1970년대 초, 미국의 히피들에 의해 크게 유행했다. 1980년대 여피족과 1990년대 보보스족의 삶의 방식에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 이처럼 웰빙은 물질주의적 가치관에 집착하던 이전 세대와는 달리 개인주의적 가치관에 기초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안락하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데서 비롯됐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웰빙 바람은 웰빙족을 겨냥한 천박한 상업주의에 의해 본래의 의미를 상실해 가면서, 하나의 과소비 패턴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웰빙은 최근 핵심적인 마케팅 주제가 되면서 '잘 먹고 잘 살자'는 의미로 왜곡됐고, 명품족과 고급 헬스클럽 회원을 늘려가고 있으며, 건강과 외모에 대한 지나친 집착 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한 여대생의 '루저' 발언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이렇게 나아간다면 웰빙 문화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보다 사치스러운 소비 풍조를 부추길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진정한 웰빙의 의미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마치 '오래된 미래'처럼 우리의 전통적인 절에서 찾게 된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웰빙은 결국 '참다운 행복'에 다름 아닌데, 우리의 절은 오래전부터 우리들 어리석은 중생에게 '참다운 행복'을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이다.

<대장엄론>에는 다음과 같은 가르침이 설해져 있다.

병이 없음은 제일의 이익이요
만족함을 아는 것은 제일의 부(富)라네.
좋은 친구는 제일의 친척이요
열반은 제일의 즐거움이라네.



신년 칼럼

박경준
동국대 불교학과

진정한 웰빙, 절에서 찾자

열반은 불교의 궁극적 목표요 최고선이다. 위의 가르침은 이러한 열반이 최고의 즐거움(安樂)이라고 말하고 있다. 최고의 즐거움이란 다름아닌 '최고의 행복'이요 '참다운 행복'이다. 우리의 절은 결국 이 참다운 행복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곳이다. 열반은 고통의 불길이 꺼진 상태이고, 번뇌의 불길이 꺼진 상태이며, 탐·진·치 삼독의 불길이 꺼진 상태이다. 우리의 삶을 하나의 연소과정으로 본다면 열반은 고통의 연기도 없이 번뇌의 그을음도 없이 타오르는 '삶의 완전연소'이다. 절은 '삶의 완전연소'를 돕는 것들로 가득하다.

절에 가면 우선 우리는 일주문과 마주친다. 그 일주문 안으로 들어서면 우리는 모든 분별심을 버려야 한다. 분별심을 버리면 '비교하는 마음'도 버리게 되고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고 넉넉해진다. 부드럽고 넉넉한 마음, 이것이 바로 행복이다. 절에 가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목탁소리, 풍경소리를 만나게 된다. 목탁소리와 풍경소리는 우리의 나태한 마음을 깨우쳐 주고, 혼탁한 마음을 맑혀 주며 여유롭게 한다. 맑고 여유롭고 깨어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행복이다. 절에 가면 범종소리와 만난다. 범종소리는 존재의 심연에서 울려나오는 소리다. 그 소리는 우리를 우리의 고향으로 인도해 '참나'와 해후하게 한다. 고향에 이르는 것, 참나와 대면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이다. 절에 가면 우리는 향불을 켜고 촛불을 밝힌다. 내 마음 속에 있는 악취와 어둠을 향불과 촛불로 몰아내면 내 마음은 향기와 빛으로 채워지게 된다. 이 향기와 빛은 바로 행복이다. 절에 가면 우리는 깊은 '선정(禪定)'에 든다. 선정에 들면 그야말로 모든 번뇌망상이 사라지며, 번뇌망상이 사라진 자리에는 선열(禪悅)과 법열(法悅)이 그윽해 우리를 엑스타시로 이끈다. 우리가 엑스타시를 경험할 때 우리의 몸에는 다이돌핀이 분비된다. 다이돌핀은 엔돌핀보다 수천 배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최근에야 밝혀진 물질이다. 다이돌핀이 우리 몸의 모든 질병과 병균을 없애 우리를 건강하게 해 주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또한 절에 가면 우리는 거룩한 부처님의 가르침과 만나게 된다. 부처님 가르침은 언제나 우리에게 위안과 용기를 주고 지혜와 자비를 일깨운다.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병고로써 양약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세상살이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마라.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업신여기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생기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근심과 곤란으로써 세상을 살아가라' 하셨느니라.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고 하지 마라. 억울함을 밝히려 하면 원망하는 마음을 돕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 수행하는 문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우리는 절에 가서 부처님께 참배하고 108배를 올리기도 한다. 108배의 효능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 우리는 절에서 맑은 공기를 만나고 맑은 물을 먹으며, 숲에서 나오는 피톤치드와 같은 유익한 물질을 들이마시게 된다. 또한 절에서 먹는 음식은 대개가 청정하고, 채식은 우리를 비만 등으로부터 보호해 주기도 한다. 더욱이 절은 우리의 전통문화가 살아 숨 쉬는 보고이기도 하다.

절의 여러 건물 자체가 예술품이고 문화유산이다. 탑은 말할 것도 없고 벽화나 탱화, 심오한 범패, 바라춤과 작법무, 그리고 지난해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영산재 등과도 만날 수 있다.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에게도 '템플 스테이'가 각광받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리라.

웰빙은 결코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웰빙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이다. 웰빙은 육체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풍요로운 질 높은 삶을 의미한다. 웰빙을 추구하는 수단과 방법 또한 건강하고 건전해야 한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절에서 해결된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우리 모두 진정한 웰빙을 절에서 찾도록 하고, 절은 웰빙을 업그레이드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新年 社說

지혜와 자비의 세상을 열자

"모든 번뇌(煩惱)를 깨달음으로 다듬어 내고 우리들의 욕망을 나눔의 선행(善行)으로 바꿉시다."

조계종 종정 법전스님이 내리신 신년법어의 핵심이다. 번뇌를 깨달음으로 승화시키고 욕망을 나눔으로 향상시키자는 메시지가 경인년 새아침에 가슴을 서늘하게 한다. 그렇다. 이 한마디 밖에 다시 어디서 불교를 찾을 것인가?

모든 인간이 종교와 국가 민족을 초월해 희구하는 것은 행복이다.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행복 보다는 불행에 더 많이 갇혀 사는 것이 인간군상이다. 그 까닭은 복잡하지 않다. 한 마디로 번뇌 때문이라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출발이다. 번뇌를 내려놓지 못하는데서 온갖 불행이 시작된다. 번뇌를 깨달음으로 다듬어 내는 일, 그것이 바로 수행이고 신행이다.

자기 안의 번뇌란 다름 아닌 욕망의 덩어리다. 그 욕망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 역시 집착이요 무명이다. 번뇌와 욕망은 둘 아니게 자성을 가리는 구름인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깨달음과 나눔도 둘이 아니다. 혼자 깨닫고 즐거워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자신의 깨달음을 중생 속에 승화시킬 때 진정한 깨달음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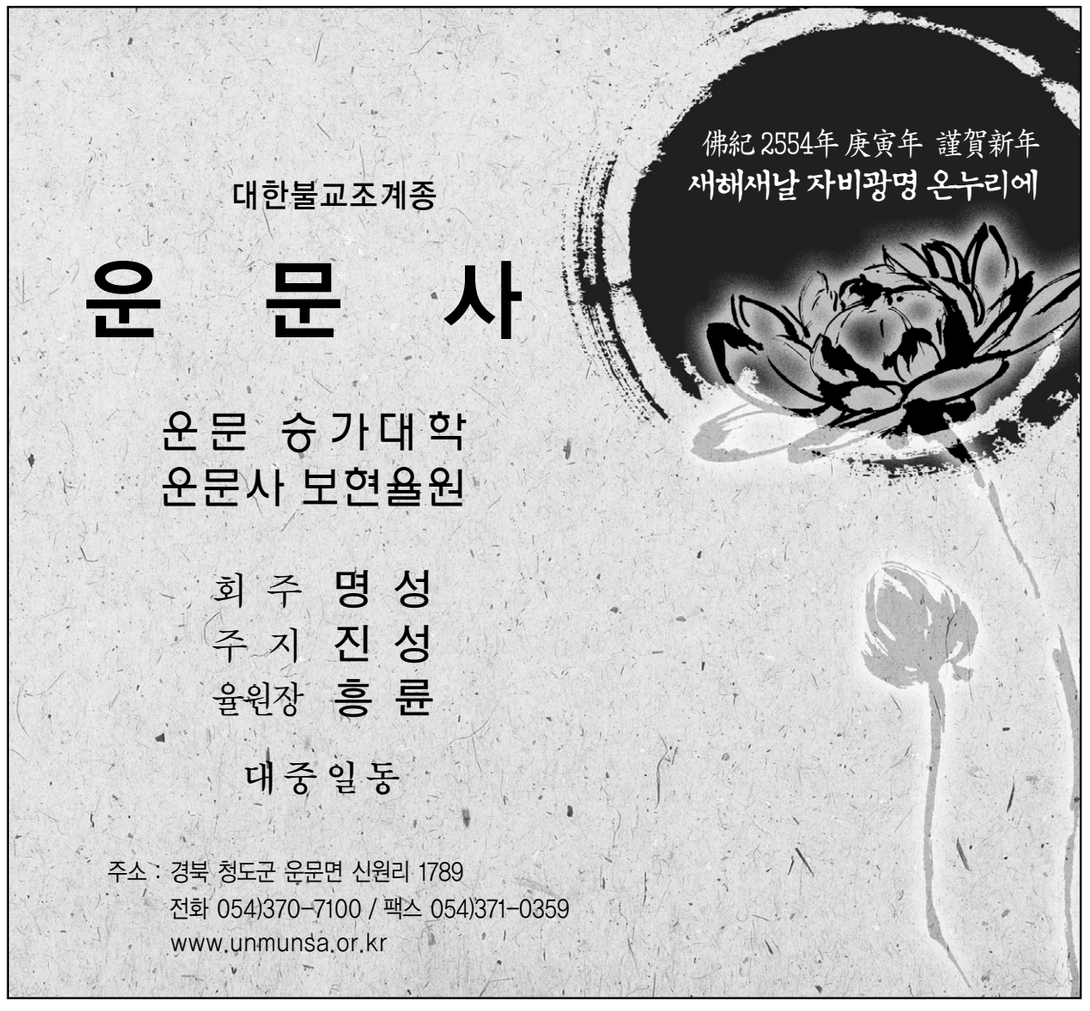
한국 불교도 어느 때보다 활발한 움직임 속에 발전일로를 걷고 있다. 승가공동체가 현대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재가자들은 신행과 수행의 양 날개를 넓게 펼치고 있다. 수많은 불서들이 출판되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법석들이 전국에서 그침 없이 열리고 있다. 수행자들 중심의 불교에서 4부대중 중심의 불교로 전화되는 단계를 넘어 선 것이다. 거기에 각종 문화 예술 분야에서도 불교를 주제로 다양한 작품을 생산해 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4부대중에게 공통적으로 절실한 과제가 바로 깨달음과 나눔이다. 어느 순간부터 불교를 깨달음의 종교라고 정의해 왔지만 이제 그 정의는 수정되어야 한다. 깨달음으로만 불교가 완전해 질 수 없다. 깨달음과 나눔, 다시 말해 지혜와 자비가 동시에 발현되고 현실화 되어야 하는 것이다.

오늘의 불교는 바로 지혜와 자비의 종교다. 번뇌를 깨달음으로 다듬으라는 것은 무명을 걷어내고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다. 욕망을 나눔으로 바꾸라는 것은 초월적 자아인 만중생과 함께 사는 자비심으로 살라는 것이다.

경인년 새해는 더 많은 불자들이 자비와 지혜의 날개를 달고 행복한 삶의 둥지를 가꾸는 해가 되길 기원한다. 현대불교도 언론으로서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독자제현께 약속드린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강원지사 : (033)744-3618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佛紀 2554年 庚寅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65세이상 승려
연금지급 종단

불교조계종 삼화불교

◆ 종정대행 총무원장 : **혜인**
◆ 부 원 장 : **동안**
◆ 중앙율원장 : **성민**
◆ 방 장 : **혜일**
◆ 종 회 의 장 : **백공**
◆ 원로원장 : **법종, 성민, 혜일, 혜정, 백공, 일봉, 해남, 혜경, 천불, 수원, 혜원**
◆ 역경원장 : **혜산법종**
◆ 중앙선원장 : **도일**

▣ 총무부

총무부장 : **성산**
재무부장 : **도불**
교무부장 : **정덕**
사회부장 : **원광**
문화부장 : **지운**

총무국장 : **남산**
재무국장 : **묘현**
교무국장 : **지성**
사회국장 : **법천**
문화국장 : **혜일**
문화재관리국장 : **도견**

기획원장 : **진 성**
기획실장 : **노사나**
총무과장 : **법 산**
총 무 : **조덕연**

교육원장 : **혜만**
교육부원장 : **청호**
교육부장 : **덕산**
교육국장 : **지원**
호계원장 : **정호**
호계부장 : **지오**

포교원장 : **정산**
포교부장 : **보운**
포교국장 : **서산**
국제포교국장 : **청목**

감찰원장 : **정산**
감찰부장 : **도명**
감찰1국장 : **인산**
감찰2국장 : **운산**

규정부장 : **월성**
규정1국장 : **영암**
규정2국장 : **영산**
호법부장 : **태산**
호법국장 : **법진**

▣ 지방교구 종무원장

서울교구종무원장 : **상산**
경기교구종무원장 : **도불**
인천교구종무원장 : **혜정**
강원교구종무원장 : **광덕**
충남교구종무원장 : **무광**
충북교구종무원장 : **백공**
대구교구종무원장 : **원명**
경북교구종무원장 : **원광**
경남교구종무원장 : **도홍**

경남서부종무원장 : **지원**
부산중부교구종무원장 : **정오**
전북교구종무원장 : **정산**
광주전남교구종무원장 : **지각**
제주교구종무원장 : **덕산**
일본동경종무원장 : **정대**
미국뉴욕종무원장 : **성산**
중국남경종무원장 : **해산**
중국청도종무원장 : **청목**
일본오사카종무원장 : **인해**

▣ 총림

서울총림 해인사
삼화총림 백화사
부산총림 흥국사
경남총림 백천사
강원총림 조주선관
충북총림 청룡사

▣ 종단법인

학교법인 **삼화학원**
사단법인 **본국검도협회**
사단법인 **천지무예도협회**
사단법인 **행복한사회**
의료법인 **효성**
재단법인 **가평 그린 공원**
사회복지법인 **정향**
사회복지법인 **인주**

▣ 일간동국일보신문사
▣ 조계종삼화불교신문사

발 행 인 : **혜인**
논설위원 : **정노사나**
편집국장 : **김상범**
사회부기자 : **이근진**
이 사 : **혜원, 정산, 보운, 각원, 덕산, 관불, 해인, 중비, 묘원, 지성, 보현, 수옥, 서호, 성화**

▣ 총무원 사업부

대표이사 : **노사나**

▣ 전국신도회

고 문 : **김윤주**
회 장 : **인권식**
사 무 처 장 : **이상훈**
부산신도회장 : **허 민**
강원신도회장 : **김현재**

▣ 청년신도회

회 장 : 손영진
홍보처장 : 박영실
사무차장 : 일산
기획실장 : 조일

◇ 학교법인 삼화학원 ◇

▣ 학교법인 삼화학원

학 장 : 법종 부학장 : 혜원
교 수 : 법종, 백공, 해운, 월곡, 봉선, 혜정, 정산, 박수구, 김수정, 김동균
조 교 : 손정, 최정화
운영이사 : 성산, 원명, 본각, 도우, 일현, 정현, 지각, 탄공, 해남, 청호, 현덕, 현봉, 일행, 동명, 무진, 만공, 무공, 가산, 법해, 진법, 용산, 여연, 도원, 대각, 법신, 혜능, 대산, 원광, 묘현, 지성

▣ 삼화불교대학림

학 장 : 혜인
교 수 : 법종, 정수, 송암, 성민
운영이사 : 광운, 도의, 영봉, 도홍, 성해, 성하, 지원, 혜법, 성공, 수원, 법우, 혜현, 지운, 지해, 도각, 동덕, 무량, 혜철, 정현, 철산, 덕산, 덕송, 진평, 동안, 진제, 연각, 성묵, 청산

▣ 중국남경중의약대학

총 장 : 오멘화 부학장 : 가 산
한국총장 : 혜 인 중고등학교장 : 손영진
학생처장 : 정 노사나 조교 : 심미, 유위, 손정
국제부교무과장 : 김태곤
운영이사 : 혜담, 보현, 본각, 수옥, 관불, 향인, 수정, 현조, 보경, 지해, 지홍, 원산, 혜월, 성담, 법정, 명수, 정혜, 해인, 덕산, 원오, 정연, 여법

총무원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총무국 02)511-2026~7 / 팩스 02)511-2028
종단사업부 : 02)549-1918

총무원장실 (02)511-1080
조계종삼화불교신문 (02)3445-7375~6
일간동국일보신문사 (02)511-1080

인터넷 주소
삼화불교 삼화불교종단 : www.shbuddhism.or.kr
삼화불교신문 : www.jogaejong.or.kr
삼화불교학림 : www.njtucm.co.kr
남경중의약대학 : www.njutcm.co.kr
E-mail주소 : samhwade@hanmail.net
E-mail주소 : samhwade@naver.com

아름다운 등

'동해 독도는 한국 땅'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여래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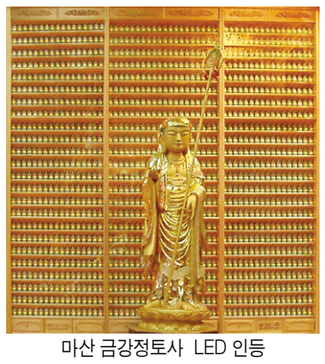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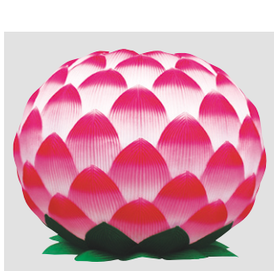
천안 동심사


마산 금강정토사 LED 인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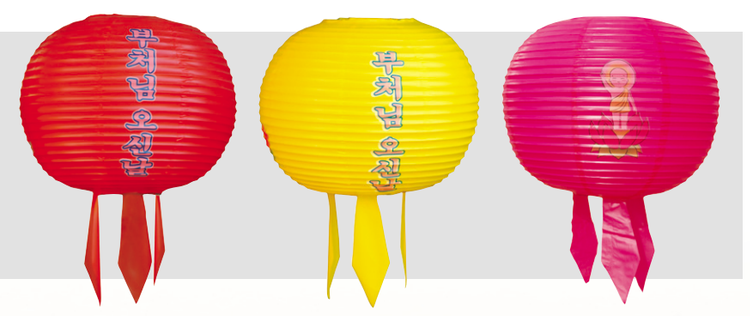

오색공단등

팔각 봉축 접등




칼라(보카시)연등

주름등




공 단 등


영 가 등

종 등



※ 주름등 · 종등 주문 받습니다(사찰명 인쇄)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현대불교
buddhanews.com
2010년 1월 1일 금요일 / 불기 2554년 제 764 호
B01

뭐가 그리 힘들어 내가 지켜줄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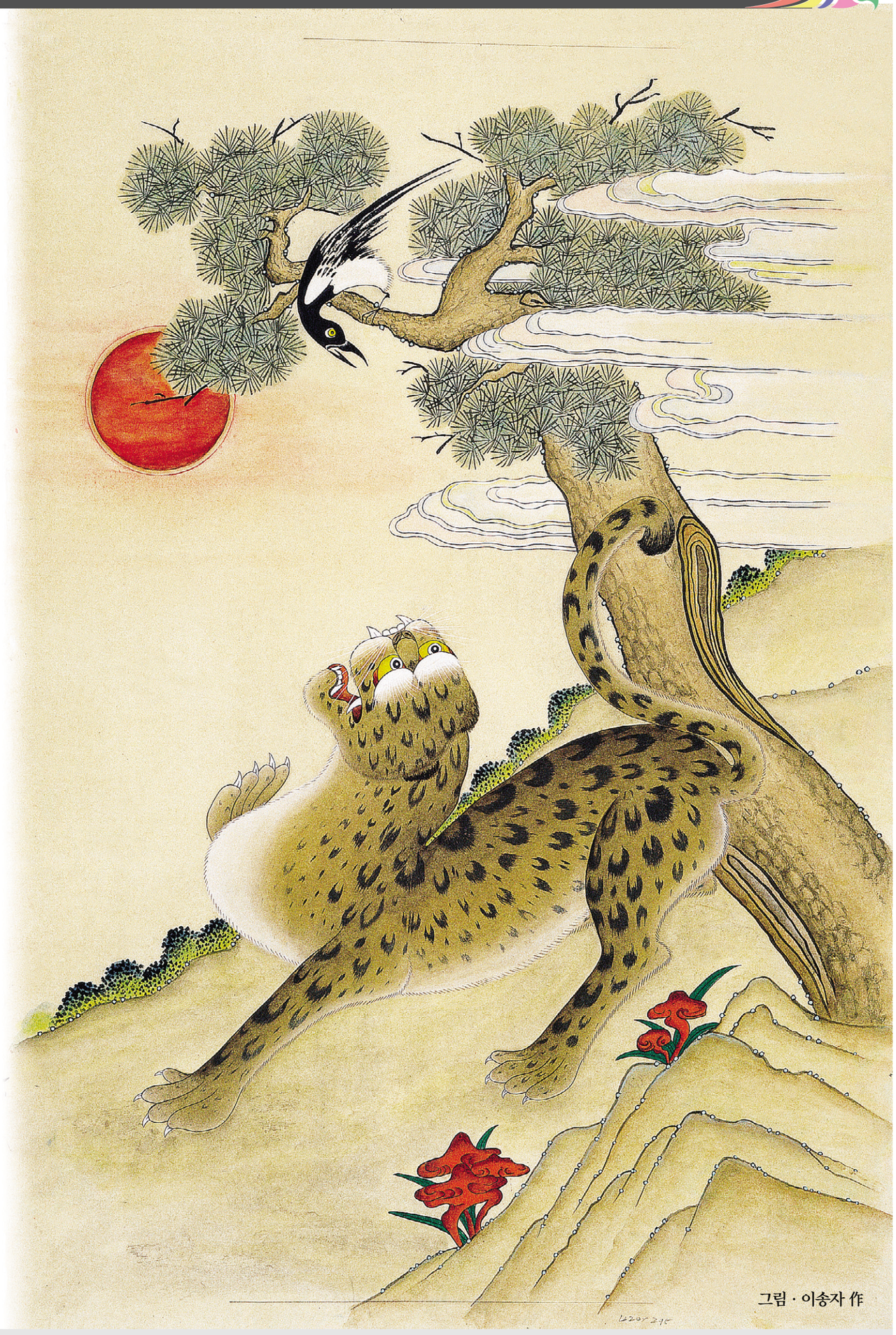


그림 · 이송자 作

호랑이의 해가 밝았다.

12간지의 세 번째 동물인 호랑이는 백수(百獸)의 제왕으로 인간에게는 공포의 대상이기도 하다. 하지만 호랑이는 민간에서 어느 동물 못지않게 친근한 모습으로 문헌 및 그림, 설화 등을 통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중국문헌 〈후한서〉의 동이전에 호담지국(虎談之國)이라 소개될 정도로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호랑이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문헌상으로는 〈삼국사기〉에 신라 헌가왕조에 호랑이가 궁궐에 나타났다는 것으로 호랑이가 처음 등장하게 된다. 단군신화에서 호랑이는 사람이 되기 위해 곰과 함께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고 환웅이 내린 계율을 지키지만 결국 실패하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호랑이는 공격적인 특성을 보이는 동물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예부터 단군 조선을 비롯해 가야, 신라, 고구려 등의 개국신화 등 산악숭배 사상과 융합돼 산신 또는 사신의 사자를 상징하게 된다.

호랑이는 용맹함, 조절자, 종교적 상징, 신령, 희생과 헌신의 아니마, 신성한 인도자 같은 이미지로 인식되기도 하는 반면 강력한 지배욕, 탐욕, 파괴적 등의 부정적 아니무스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

호랑이는 사람을 해치는 위협적인 존재로 묘사되기도 했지만 풍요를 기원하는 벽사사상과 관계가 깊어 교훈적이고 친근감 있는 풍자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했다. 또한 호랑이는 예부터 병귀나 사귀를 물리치는 힘이 있는 것으로 믿어져, 민간신앙에 뿌리깊이 파고들었다.

그럼 불교에서 호랑이는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불교에서 호랑이는 대체적으로 스님, 나한의 사자이거나 인과응보 관계의 모습으로 자주 등장한다. 호랑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절 이름이나, 전설, 설화, 인과응보 관계를 비유한 경전은 물론, 벽화, 탱화 등 그 소재도 다양하다.

특히 불교에서 호랑이는 산신의 사자나 산신으로 모셔지는데, 본지와는 어긋나는 신앙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신도들에게 수호신 또는 산중 생활의 외호신(外護神)으로 받들어 지게 된다.

때로는 포악스럽게, 때로는 열정적인 모습으로 우리 민족과 함께한 호랑이.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부터 내려오는 불교속의 호랑이들을 만나 2010년 경인년을 힘차게 열어 보자.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대한불교조계종
한 마 음 선 원
The Jogye Order 0f korean Buddhism Hanmaum Seon Center

본원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62
TEL 종무소 031)470-3100 / FAX 031)470-3116
Hompage : http://www.hanmaum.org

◈ 국내지원 ◈

• 광명선원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 4구 산 5-2
TEL : 043)877-5000 FAX : 043)877-2900
• 제주지원 제주도제주시 영평동 1500
TEL : 064)727-3100 FAX : 064)727-0302
•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522-1
TEL : 051)403-7077 FAX : 051)403-1077
•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201-5
TEL : 062)373-8801 FAX : 062)373-0174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927-7
TEL : 052)295-2335 FAX : 052)295-2336
•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32-274
TEL : 053)767-3100 FAX : 053)765-1600
• 충부경남지원 경남 김해시 진영읍 방동리 321-1
TEL : 055)345-9900 FAX : 055)346-2179
• 진주지원 경남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50
TEL : 055)744-1321 FAX : 055)746-7825
• 공주지원 충남 공주시 사곡면 신영3리 152-3
TEL : 041)852-9100, 9102 FAX : 041)852-9105
• 포항지원 경북 포항시 북구 우현동 13-1
TEL : 054)232-3163 FAX : 054)241-3503
• 청주지원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동 53-1
TEL : 043)259-5599 FAX : 043)255-5599
• 강릉지원 강원도강릉시 포남 2동 1304
TEL : 033)651-3003 FAX : 033)652-0281
• 통영지원 경남 통영시 도천동 113-3
TEL : 055)643-0643 FAX : 055)643-0642
• 목포지원 전남 목포시 상동 952-19
TEL : 061)284-1771 FAX : 061)284-1770
• 문경지원 경북 문경시 흥덕동 592
TEL : 054)555-8871 FAX : 054)556-1989

◈ 해외지원 Overseas Branch ◈

• New York (뉴욕플러싱 지원)
144-39,32 Ave. Flushing, NY 11354, USA
TEL : (1-718)460-2019 / FAX : (1-718)939-3974
• Washington D.C. (워싱턴 지원)
7807 Trammel Rd, Annandale, VA 22003, USA
TEL : (1-703)560-5166 / FAX : (1-703)560-5166
• Los Angeles (LA 지원)
1905, S. Victoria Ave, L.A. CA 90016, USA
TEL : (1-323)766-1316 / FAX : (1-323)766-1916
• Chicago (시카고 지원)
7852 N. Lincoln Ave, Skokie, IL 60077, USA
TEL : (1-847)674-0811 / FAX : (1-847)674-0811
• CANADA (캐나다 지원)
20 Mobile Drive North York, Ontario M4H 1H9, Canada
TEL : (1-416)750-7943 / FAX : (1-416)701-1359
- Vancouver (벤쿠버 지원)
14069 104 Avenue Surrey B.C.V3T1X4 CANADA TEL : 604-582-8234
• ARGENTINA (아르헨티나)
- Buenos Aires (부에노스 아이레스 지원)
Miro 1575, cp(1406) Cap. Fed. Rep. Argentina
TEL : (54-11)4921-9286 / FAX : (54-11)4921-9286
- Tucuman (뚜꾸만 지원)
Av. Aconquija 5250, El Corte,Yerba Buena,
cp(4107) Tucuman, Rep. Argentina TEL : (54-381)425-1400
• GERMANY (독일 지원)
Broicherdorf Str. 102, 41564 Kaarst, Germany
TEL : (49-(0)2131)969551 / FAX : (49-(0)2131)969552
• THAILAND (태국 지원)
86-1 soi 4 Sukhumvit 63, Bangkok, Thailand TEL : (66-2)391-0091
• Brasil (브라질 상파울로지원 지원)
R. Newton Prado, 540-Bom Retiro-Sao Paulo-CEP:01127-000-Brasil
TEL : (55-11)3337-5291

庚寅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원 장 대 행
주 지 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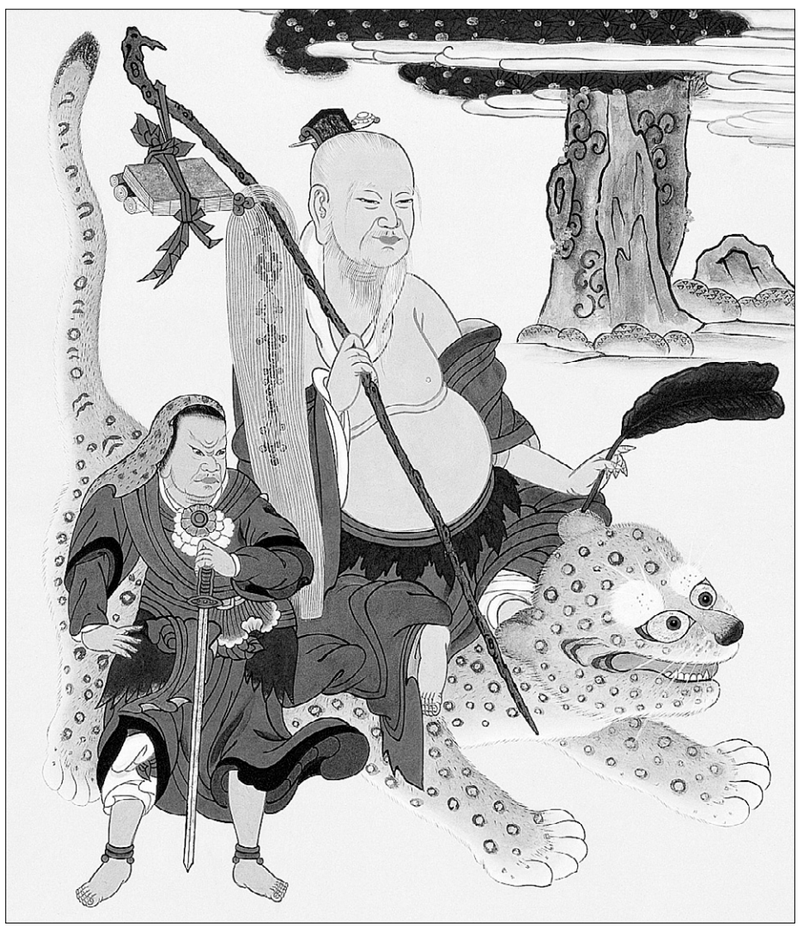
사부대중일동

한마음선원은 모든 중생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불성을 밝혀 생활 속에서
진리를 실천하며 마음 공부를 하여 성불하도록 인도하고 있는 참선수행 도량입니다.



불교 속의 호랑이

호법신장 역할 톡톡… 성스러운 백호는 탱화 단골


호랑이는 산신신앙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산신도에 산신과 우주목인 나무와 함께 등장한다. 그림=이송자 作.

 # 벽화에 담긴 호랑이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단군 신화에서 보듯이 산신은 우리나라 고유 신앙 체계와 관련이 깊다. 산신은 원래 불교의 신중이 아닌 우리나라 고유의 토착신으로 자연스레 산신 신앙은 호랑이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됐다. 이러한 점은 불교와 함께 습화되면서 호랑이는 산신각의 산신이나, 탱화로 구체화돼 표현됐다. 산신각은 우리나라 사원에만 있는 특유한 전각으로서 불교의 토착화 과정을 말해주는 좋은 예이다.

양산 통도사 응진전 · 명부전, 부산 범어사 대웅전, 파주 보광사 대웅전, 울진 불영사 대웅보전 등에서 호랑이의 그림 및 벽화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보통 호랑이가 정면을 응시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은 벽사와 수호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벽사 기능을 한 그림들은 많은 사찰의 전각에서 종종 볼 수 있다.

호랑이 그림은 조선시대에 접어들면서 숭유억불정책으로 인해 유교나 도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게 됐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호랑이는 좀 더 친근하고 풍자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조선시대에는 호랑이가 정통회화, 조각, 공예품 등 일상생활에서 깊게 관련맺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산신 탱화, 벽화 등에 호랑이 모습이 더욱 눈에 띄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고스란히 사찰벽화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원래 벽화는 불교의 경전이나 예배, 교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조선시대 벽화는 이를 좀 더 풍자적으로 담고 있다. 조선시대 벽화에 그려진 호랑이 모습은 담배를 피는 모습, 날개 달린 비호 등 해학적인 모습이 눈에 띈다. 우리나라에서 길조인 까치는 호랑이를 골탕 먹이는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주로 민간에서 많이 그려지던 호랑이 그림이 사찰의 장식으로 활용됐다는 것은 충분히 흥미로운 일이다. 이러한 그림들은 현재 수원 팔달사와 화계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불교회화속의 호랑이

산신탱화는 아직까지 불교회화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조선시대 양반 중심의 사회에서 소박한 시민들의 삶을 표현하기 위한 것 일 수도 있다. 이렇게 민간인이 즐겨 그리던 호작도, 산신도 등을 산신각에 봉안한 것은 한국불교의 포용력을 보여주는 면모이기도 하다. 회화건 민화이건 간에 예부터 한국은 그림을 풍자의 도구로 활용하지 않았다. 그만큼 영악하거나 투쟁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 그들이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 장식을 했다는 것은 정말 순수한 그들의 삶을 나타내주는 증거이다.

산악숭배 사상이 강했던 우리 민족은 지금도 전국 사찰이나, 명산에 산신각을 짓고 산신령을 모신다. 산신각에 있는 호랑이의 모습은 대개 산신을 보좌하며, 인간의 길흉화복 관장에 대한 사려 깊은 모습을 하고 있다. 때로는 심부름꾼으로, 때로는 자신이 산신이 돼 사람들에게 비춰졌다.

언제부터 호랑이가 산신으로 등장했는지는 어디에도 기록이 나와 있지 않다. 다만 불교가 우리나라에 토착화되는 과정과 본래의 토착 종교였던 산악숭배가 호랑이를 숭배하는 사상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경인년은 60년 만에 돌아온다는 백호의 해이다. 백호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더욱 신성시돼 탱화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단골손님이다. 불교에서 호랑이는 이승과 저승 세계를 왕래하며 염라대왕을 수호하는 모습이다. 불교회화에서 16나한도나 8금강도 · 십이지신도 · 경변상도 등 호랑이는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특히 감로탱화에서 호랑이가 많이 등장한다. 또한 지장탱화, 지장시왕도 등에서 나찰의 자격으로 우두 · 마두나찰과 같이 등장하기도 한다.

#불교설화속의 호랑이

호랑이는 절 이름 등 설화에도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불교 속에 나오는 호랑이는 어리석음과 탐욕의 상징이 되기도 했다가, 열정과 성스러움을 지닌 이미지로도 보여진다. 또한 심판자나, 고독하고 때론 굳센 이미지로 등장하기도 한다.

일본 나라현의 법륭사 벽화인 사신사호도는 부처님 전생담을 담고 있는 호랑이 그림이다. 옛날 어떤 나라에 아들 셋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 이름이 마하살다였다. 어느날 세명의 왕자는 숲으로 놀러를 갔다가 굶주린 어미 호랑이와 일곱 마리의 새끼를 발견하게 된다. 이때 막내 마하살다 왕자는 호랑이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져 호랑이를 살린다. 결국 마하살다 왕자는 죽고, 그 후 마하살다 왕자는 부처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내용이다.

사찰연기설화에 나오는 호랑이는 자유자재로 인간으로 변신해 인간과 교류하거나 스님의 도움을 받고 그 은혜를 갚은 인과응보 관계를 보여준다.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설화중에는 신라시대에 호랑이를 사랑하고 호원사를 창건한 김현의 이야기가 있다. 원성왕 때 흥륜사의 복회에 참가해 복을 빌기 위해 탑을 돌던 김현은 자신을 뒤따르는 어여쁜 처녀와 만나 정을 나누게 된다. 그는 결국 그녀에게 호감을 느껴 그녀의 거처로 갔으나 뜻밖에 처녀가 호랑이 일족으로서 사람으로 화신한 것을 알게 됐다. 소녀를 따라 호랑이 굴에 들어간 김현은 형제호랑이에게 잡혀 먹힐 뻔 했으나, 소녀의 도움으로 탈출하게 된다. 어느 날 성안에 맹호가 나타나 많은 피해를 입히게 돼자, 소녀는 김현에게 자신을 죽여 공을 세우라고 부탁한다. 약속대로 김현은 소녀의 유언에 따라 소녀를 죽이고, 그 공으로 작위를 받게 된다. 김현은 서천가에 호원사를 지어 죽은 소녀 호랑이의 명복을 추도했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다.

희방사의 오누이탑에 얽힌 이야기도 있다. 한 스님이 호랑이 목에 걸린 가시를 꺼내 준 보답으로 미녀를 얻었지만 흔들림 없이 계속 정진하자, 이에 감동한 여인이 스님과 함께 불도에 정진한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다.

동진 융안 2년에 개달 스님은 감초를 캐러 갔다가 오랑캐에게 잡히게 된다. 그 해는 흉년이 들어 사람까지 잡아 먹던 때라 개달 스님은 밤새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을 외웠다. 그 순간 어디선가 큰 호랑이가 뛰어들어 개달 스님을 구하고 사라져 버린다. 자유자재로 변해 대중을 구하는 관음보살이 호랑이로 화해 개달 스님을 구한 것이다.

반대로 호랑이가 어리석고, 포악한 존재로 비춰지기도 한다. 가야산 백련암에 관련된 설화로, 몹시 추운 어느 겨울날 한 스님이 백련암을 향해 오르고 있었다. 그러던 중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계속 울부짖으며 길을 가로막았다. 결국 호랑이는 스님을 자신의 등에 태워 백련암에 데려다 줬다. 그 다음날 호랑이는 스님에게 다시 찾아와 같이 살기를 간청한다. 스님은 한사코 반대했지만 동자가 하도 졸라 호랑이를 절에 들이게 된다. 호랑이는 비록 짐승이었지만 예불에도 꼭꼭 참석하고 살생도 금했으며, 동자와는 친형제처럼 지내게 된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스님이 마을에 잠시 내려가고 호랑이는 산으로 나무를 하러갔다. 저녁밥을 짓던 동자는 실수로 칼에 손을 베이고 만다. 동자는 붉은 피가 아깝다는 생각에 호랑이에게 주기로 마음을 먹고 호랑이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피를 빨아 먹으라고 권유한다. 호랑이는 동자의 권유에 선뜻 먹을 수가 없었지만 할 수 없이 피를 빨아 먹게 된다. 그러다 결국 호랑이는 본색을 드러내 동자를 아예 잡아먹고 말았다. 그날 밤 돌아온 스님은 이 일에 대노해 도끼로 호랑이 한쪽 발을 잘라내고 쫓아냈다. 호랑이는 결국 슬피 울며 백련암을 떠나 자취를 감추게 된다. 다시는 사람 눈에 뜨지 말라는 스님의 말에 따라 지금도 호랑이는 산 속 깊이 살며 외발자국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통도사에 한 젊은 학인이 장차 유명한 강사가 되려고 결심하고 백운암 중턱에 혼자 공부를 하고 있었다. 하루는 해가 지고 어둠이 깔렸는데 산나물을 캐던 한 처녀가 그만 길을 잃고 헤매다 백운암을 발견하곤 도움을 청했다. 어두운 산길을 처녀 혼자 돌려보낼 수 없어 학인은 난처했지만 처녀를 들이고 자신은 밤새 경전을 읽었다. 수려한 이목구비에다 청아하고 낭랑한 독경소리에 빠진 처녀는 젊은 학승에게 연정을 품게 됐다. 집으로 다시 돌아온 처녀는 결국 학인을 연모해 상사병에 걸리게 됐다. 처녀는 자기의 이루지 못할 사랑의 고백을 부모님에게 말씀드리고 학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부모는 딸의 깊은 병을 고치기 위해 젊은 학승을 찾아가 애걸을 했다. 그러나 대강사가 되기 위해 그 부탁을 거절했고, 처녀는 결국 시름시름 앓다 죽게 됐다. 그 후 학인은 강사의 영광을 누리게 됐고, 산중의 전 승려가 모인 가운데 축연을 열었다. 연회가 한창 무르익었을 무렵 갑자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사납게 울부짖었다. 대중들은 누구인가가 호식을 당할 사람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각자 저고리를 벗어서 밖으로 던지기 시작했다. 맨 마지막 새로 취임한 강백의 저고리를 받은 호랑이는 저고리를 갈기갈기 마구 찢으면서 더욱 사납게 울부짖었다. 결국 호랑이는 강백을 낚아채 갔고, 다음날 강백은 백운암 옆 등성이에 아무런 상처하나 없이 엎드려져 있는 시체로 발견됐다. 자세히 살펴보니 남근이 없어졌다고 한다. 이러한 전설이 전해지는 통도사에는 아직도 호석이 남아 있다.

이처럼 불교속의 호랑이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민족과 함께 하고 있다. 가야산 호랑이는 아직도 한국불교의 정신적 지주라 불리며, 한국불교의 수행과 선풍의 기틀을 다지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한다. 호랑이의 울음소리에 따라 한국불교가 달라진다고 믿는 것처럼, 불자들이 2010년 경인년에도 호랑이의 포효처럼 부처님 법에 따라 한해를 우렁차고 힘차게 살아가길 바란다.

이은정 기자

정면 응시하는 호랑이 그림은 벽사와 수호 의미

토착종교였던 산악숭배가 호랑이 숭배로 변화해

佛紀 2554年 庚寅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지장선원
안양불교대학
월간 안양불교신문
회 주 세 민
주 지 현 호
신도회장 심정구
고 문 이필상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88-3번지
전화 031) 444-5935 팩스 031)444-5655

경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한불교 조계종
정 각 사
화엄불교대학
소원이 꼭 성취 되는 절
주지 정 엄
사부대중 일동
■ 일요법회 : 가족 · 어린이 · 청소년(중고생)
■ 명문 화엄불교대학개강 봄학기 3월초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38-1 거성3차
귀 홈페이지 : www.junggaksa.com
(검색어 : 정각사)
귀 전 화 : 031)398-8001
귀 지 하 철 : 4호선 산본역(3번출구)

대한불교삼론종
지 장 사
충북도 황령지간(구 대각사)
원로원장 석초원(성진)
주 지 석청용
계획실장 석대우
의전실장 석대목
신도고문 정헌돈
회 장 신순옥
총 무 정순옥
사회부장 윤상필
지장사 대중일동
전화 043)745-5738

公益法人 大韓佛教華嚴宗
大本山 藥師寺
(약사 추모관 운영中)
회 주 화 담
주 지 화 응
부주지 대 휴
신도일동
財團法人 華嚴僧伽奬學財團
公益法人 大韓佛教華嚴宗奬學會
이사장 한상호(화응)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 산 21
☎ 032)422-2066
서울사무소 소장 양 위 찬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11-6번지 삼선빌딩 406호
전화 02)730-0798~9 / 팩스 730-0799

독성기도영험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삼 성 암
회주 수봉 세민
주 지 만월현종
사부대중일동
진실한 기도가
알고싶거나 해보고 싶은분
[매주 토요일 대다라니기도]
나한성지순례기도법회 : 매월음력16일
서울시 강북구 수유1동 488
TEL 02)988-9300,1996
www.samsungam.org

지상 갤러리-그림으로 조각으로 만나는 호랑이

내가 무서워? 난 네가 무서워

때론 친근한 아저씨 같은 모습으로, 때로는 험악한 공포의 대상인 호랑이는 불교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담배 피는 호랑이부터, 산신을 수호하는 호랑이, 행복 바이러스를 안겨다 줄 것 같은 호랑이 모습까지 호랑이는 우리 곁에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사찰의 벽화부터, 호랑이 그림 및 조각 전시회까지 경인년을 맞아 우리 주변의 호랑이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돌조각가 오채현(47)이 파주 헤이리의 갤러리 더 차이에서 화강암으로 만든 호랑이 조각 15점을 1월 10일 까지 선보인다. 오채현作 '함박웃음'.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이라는 대목처럼 수원 팔달사 명부전에는 호랑이가 담배 피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통도사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십이지번(十二支幡).



감로탱의 부분도. 이 작품은 감로탱화에서 수작으로 꼽히는 작품이다. 호랑이는 탱화 중 감로탱화에 가장 많이 등장한다.



경복궁 영추문에 있는 백호도.



동국대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산신도. 이 산신도 다른 산신도와는 달리, 어미와 새끼로 보이는 호랑이 두 마리가 해학적으로 그려져 있다. 이 불화는 관하당 종인이라는 승려화사가 그린 것으로, 1900년을 전후해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인물.



전통불교천지대왕종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의 대통합 선포

○ 卍



이 땅의 모든 종교신앙인들이여! 진리의 문을 활짝 열고 종교의 벽을 헐자.
반만년 민족신앙을 오늘 다시 숭앙하자. 한겨레 한터에서 한 이치로 함께하자.

이 땅의 존귀하신 종교 신앙인 들이여!

국조 단군성조께서 나라를 세우신 이래 수많은 종교가 탄생하여 3생을 오가며 절대적 존재로 때로는 미혹한 모습으로 성현, 도사, 도인, 신주, 만신, 신딸 등으로 불리며 8부중생과 더불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력화된 기성종교에 밀려서 미신이란 이름으로 폄하되고 소외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련의 현실 속에서도 역사와 더불어 종교로서 존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한국불교의 한축을 이끌어 온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이신 석연 대종사께서 전법에 진력하시며 이 땅의 전통(민속)종교인 및 철학인들의 권익과 보장책을 숙고하던 중, 이 세상에 절대적 유일신은 없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을 접목하여 대도를 구성하고 홍익인간 이화세계사상으로 극락정토를 구현하는 새로운 회상을 열고자 전통불교천지대왕종을 창종하여 선포하니 우리모두 이 결사에 동참하여 교화의 대열에서 함께하고 역량과 사명을 다해 새로운 세상을 엽시다.

전통불교천지대왕종과 함께하실 신앙인 여러분을 열린마음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종교의 성직자, 신도, 교도, 법사, 전도사, 교화사, 포교사, 철학인, 도사, 도인, 작명가, 신딸, 만신님들 차별없이 환영합니다.

▣ **입종 및 입회원서 접수 :**
본종 총본산 수련도량 불탑사 외 종단에서 지정한 교구청 및 특설사무처

▣ **동참 특전 (소정의 서류제출 완비하고 등록한 분에게는)**
- 본 종단 의식교전 및 종헌 종법 제공
- 관할관청에 등록하여 재산관리 세무회계를 주선
- 체계화된 교육으로 종교지도자로 양성함
- 사찰, 사암, 포교당등록증, 법위증, 사증 등을 교부
- 종단의 각종 회의에 참석 특전, 중요임원 출마권과 선출권 부여함
- 행정, 교육, 운영 관리에 뜻 있는 분 특별우대함

총본산 수련도장 설악산 불탑사

강원도 양양군 서면 논화리 산 100-1번지 / 전화 033)671-7751 / 핸드폰 019-248-7751

개창주(開創主) 석연 대종사 창종위원 : 지선, 무생, 무풍, 천풍

호랑이 인간에게 외치다 "동물을 사랑하라"

"다양한 불살생법으로 참불자 되세요 어흥!"

어흥~! 불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들 기대하고 있는 2010년의 주인공, 호랑이입니다. 작년 한해 경제난으로 힘들고 슬픈 일, 반대로 즐겁고 기쁜 일들도 많았을 텐데 저의 용맹함 · 민첩함 · 신중함을 나눠 드릴테니 2010년 새해에는 모든 일 원만하게 이루어나가세요.

이에 앞서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불살생계(不殺生戒)만은 지켜달라는 겁니다. 생태파괴, 동물학대, 생명경시 등 파괴적인 행동을 자제해 주세요. 이것 하나만이라도 잘 지켜나간다면 경인년은 복을 짓는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삽화 · 박구원

#불살생계 지키는 한해 되세요

작년 하반기 신종플루로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신종플루가 swine(돼지를 뜻함) flu라 해서 돼지에서 기인한 신종인플루엔자라고 보도됐는데요. 멕시코 돼지농장 인근 지역에서 첫 발병사례가 발견됐다죠? 이 멕시코의 돼지농장은 미국의 대기업 공장형 가축농장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이 점에서 광우병 파동에 이어 이번 신종플루도 결국 '인간'이 재앙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라고 밖에 말 할 수 없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여러분! 딱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의 살생만으로 살아가면 안되겠습니까? 저는 육식동물로 태어났지만 자연의 섭리에 따라 제가 배고플 때만 살생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닭들을 평생 좁은 철망 안에서 몸조차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 채 24시간 밝은 백열등 아래서 알 낳는 기계로 전락시켜버리는가 하면, 소 · 돼지 등은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지도 않은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기르다가 도축장으로 끌고 가 극도의 공포심을 주고 도살을 합니다.

화려하고 멋있는 모피코트나 겨울외투를 만들기 위해 밍크 · 여우 · 너구리 등을 산채로 가죽 벗기는가 하면 잔인하고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개를 도살해 보신용으로 먹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을 사용해 의학적인 실험을 행하고 생명현상을 연구합니다. 물론 인간들이 이러한 노력 끝에 편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유할 수 있긴 했죠. 허나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하지만 인간의 편리함만을 위한 과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모든 생명은 불성을 가진 소중한 존재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오계를 가르쳤는데 그중에서도 불살생계를 강조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중생은 나름대로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는 성질, 즉 불성(佛性)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일체중생 실유불성(一切衆生 悉有佛性)'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구현할 수 있는 자질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그러한 본질은 다른 힘에 의해 구속되거나 속박당하지 않는 자유성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신심 있게 따르는 불자라면 이러한 생명의 존엄성을 자신이 침해하거나, 또는 타의에 의해 그 존엄과 자유가 침해당하거나 중단되는 것(죽음을 당하는 것)을 거부하는 생활 자세를 지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작은 미물 하나라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될 것이고 더더군다나 그 생활터전을 없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잘 알겠죠? 우리는 부처님 제자니까 지금부터라도 불살생도를 지켜나가보아요~!

육식동물인 저도 살기 위해 살생합니다
동물복지 실천하는 사육프로그램 쓰세요

#동물보호 실천해요

자, 우리가 불살생의 중요성을 알았다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육식생활을 줄이고 모피 · 가죽제화 등을 사용하지 않기 등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육식을 즐겼던 분들이라면 단번에 끊기는 힘들 수도 있고, 시중의 잡화상품은 대부분 가죽이라 불가피하게 구매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직접적인 동물보호실천을 할 수 없다면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 '동물복지'에 관심을

최근 농촌진흥청이 소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소의 웰빙지수' 관리 표준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더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국내 농장동물 복지지침을 개발 중입니다. 진흥청은 '동물복지'의 개념을 통해 소가 행복해지면 육질이 좋아지고, 육질 좋은 고기를 먹는 사람들도 즐거울 수 있다는 뜻에서 제정했다고 합니다. 또 현재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동물의 행복이 안전한 먹거리를 이끈다는 인식들이 확산되면서 동물복지 실현 농가와 관련 상품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동물복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동물복지제도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나라들이 많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이미 20년 전에 국가적으로 동물복지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 조악한 환경에서는 아예 닭과 돼지를 키우지 못하게 돼 있으며 도살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영국은 동물학대방지협회(RSPCA)에서 동물복지 상태에 따라 인증하는 '프리덤 푸드(Freedom Food)'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1994년에 제정된 '프리덤 푸드'는 식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해당 로고를 포장지에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9가지 동물에 대한 표준기준을 갖고 있는 이 제도는 가축동물들에게 5가지 자유가 반드시 주어져야 합니다. 5가지 자유는 △공포와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 △고통과 부상,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배고픔과 갈증으로부터의 자유 △생활의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정상적 행동을 표현할 자유인데요 이들 상품의 가격이 조금 비싸지만 인증 기준이 철저하다는 인식이 퍼져 있어 소비자들에게도 호응이 좋다는데요. 축산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참고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동물복지제도를 실천하는 즉, 동물의 복지를 고려한 사육 프로그램을 통해 질병의 위험과 고통을 최소화하는 기업들의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간접적인 동물보호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별 것 아닌 실천이라고 생각할테지만 이렇게 현명한 소비자들이 많아지면 기업들도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동물복지를 생각하는 대한민국이 돼 있지 않을까요?

#동물실험 하지 않는 상품 구매하기

의약품, 화장품 등은 사람에 대한 임상시험 전에 효력과 안정성을 예측하기 위해 동물실험 결과를 필요로 합니다. 이 과정 중에서 수 많은 동물들이 사용되며 동물에 가해지는 고통도 정말 다양합니다. 임신한 동물의 자궁절개수술을 하거나, 장기간 잠을 안 재우고, 먹이와 물을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암 종양의 유발, 뇌손상의 유발 등 잔인한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으~ 듣기만 해도 소름끼치지 않나요?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매년 6억3000여 만 마리(초당 20마리)의 동물들이 동물실험에 의해 죽어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600만 이상의 동물들이 실험으로 희생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에서 동물실험에 쓰이는 동물들의 숫자는 해마다 30~40%씩 증가하고 있구요.

특히 화장품과 같이 인간의 아름다움을 위해 수많은 동물을 실험에 이용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불행 중 다행인 소식은 EU가 2009년부터 동물실험을 거쳐 개발된 화장품 판매를 단계적으로 규제, 2013년에는 관련 제품의 판매금지를 단행할 예정이라는 것!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해 유럽, 북미, 일본, 중국 등 여러나라 기업들이 새로운 화장품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동물실험 대체법 연구에 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실천해야할 방안은 동물실험 대체법을 연구하는 기업들을 독려해주고 기존의 동물실험을 통해 생산한 제품에 대한 구매를 줄여나가는 것이 아닐까요?

점점 많은 소비자들이 동물의 권리를 존중해주고 생명체들과 더불어 살아감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기업들의 제품을 구매하기를 적극 권유하는 바입니다.

#반려동물은 끝까지 책임지세요!

현재 한국의 애견수는 150만 마리로 추산되고 있는데 한 해 20만 마리의 떠돌이 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7마리 중 1마리는 기르다 버려진다는 것이죠. 한때 사랑받았던 애완견이 늙고, 병들고 또는 키울 여건이 안 된다는 핑계로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버려진 유기동물은 유기견 보호소에 있다가 보호기간인 10일이 지나면 안락사를 시킵니다.

불자 여러분~! 내 자식이 아파서, 또는 바빠서 키울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버리지는 않잖아요? 개 뿐만 아니라 기타 반려동물들을 기를 때에는 책임감과 개인의 양심이 뒤따라야 함을 명심해 줬으면 합니다.

#자타불이, 동체대비로 동물과 함께 하시길

짧게나마 사람들이 동물들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 봤습니다. 별 것 아니라 여길 수도 있겠지만 물방울이 모여 강을 이루고 바다가 되듯이 작은 힘이 하나 돼 동물과 인간 등 모든 중생이 더불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타불이와 동체대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2010년에는 저희 호랑이를 비롯한 일체 생명을 헤아리고 소통하는 참 불자가 되시기를 앙망합니다.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경 축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재 등재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부설
옥천범음대학

2009년 동계방학 특강 안내

귀의삼보 하옵고
어느 듯 시간의 강이 흘러서 한해의 마지막 달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영산재가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재로 선정 되는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옥천범음대학에서는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짓소리, 법고무, 불교일용의식** 과정을 개설 하여 강의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이 있으시길 바라며 항상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짓소리 과정 (교수 김구해 스님, 중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보유자)			
개 강 일	2010년 1월 4일 (월요일)	기 간	6주(매주 2회)
종 강 일	2010년 2월 11일 (목요일)	수업시간	오후 3시~5시
수업요일	매주 월요일, 목요일		

법고무 과정 (교수 이기봉 스님,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전수조교)			
개 강 일	2010년 1월 5일 (화요일)	기 간	4주(매주 2회)
종 강 일	2010년 1월 28일 (목요일)	수업시간	오후 3시~5시
수업요일	매주 화요일, 목요일		

불교일용의식과정 (교수 조인각 스님, 중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개 강 일	2010년 1월 5일 (화요일)	기 간	6주(매주 2회)
종 강 일	2010년 2월 10일 (수요일)	수업시간	오후 3시~5시
수업요일	매주 화요일, 수요일		

* 주의 : 각 과목별 수업요일과 시간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접수방법 특강수강신청서 1부 (옥천범음대학 행정실) **문의** 전화 02)392-3234 FAX 02) 392-3239

옥 천 범 음 대 학 장 이 기 봉 합장

공 고

고불총림 백양사 문도회의

삼보의 귀의하옵고,
고불총림 백양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문도회의를 개최합니다.
백양사 문도 여러분은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 목 : 고불총림 백양사 문도회의
▣ 일 시 : 2010년 1월 2일(토) 오후 4시
▣ 장 소 : 고불총림 백양사 교육관
▣ 문 의 : 백양사 종무소 (061)392-7502

대한불교 조계종 고불총림 백양사 주지 시몽

"법시·재시 아끼지 않는 보살행 실천"

■ 부산 화엄사 회주 각성 스님-38년생

1950년 음력 7월 20일, 한국전쟁이 일어난 해가 바로 경인년(庚寅年)입니다. 호랑이해 중에도 경인년은 활발하고 기세가 강한 다사다난한 해라서 잘 넘기면 국운이 상승하지만, 잘못 넘기면 국가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 해입니다.

한국에는 사자가 없기 때문에 예로부터 호랑이를 백수(百獸)의 왕으로 여기고 산군(山君)으로 중하게 여겨왔습니다. 산신과 같이 호랑이를 잘 부리면 위엄이 서지만, 호랑이를 부리지 못한다면 잡아먹히고 말 것입니다. 그렇듯이, 용감하고 활달한 마음가짐으로 호랑이를 마음대로 부리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스님과 불자들은 국가와 민족, 개인과 가정을 위해 성실하게 정성을 다해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언제나 남을 위해 법보시와 재보시를 아끼지 않는 보살행을 너도 나도 실천하길 기원합니다.

소승이 한 평생 강의한 경전과 어록에 대한 해설서들이 새해에도 꾸준히 발간되어 공부하는 스님과 불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새해에도 건강을 유지하면서 경전 강의와 함께 염불 정진을 쉬지 않을 것입니다.



"불자 위해 대사회 영향력 확대해야"

■ 한국불교언론인회 공종원 前 회장-38년생

방송과 신문 매체를 비롯해 각계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불자 언론인들은 자신의 종교를 드러내는 경우가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불자로서의 자긍심을 갖기 어려운 것이 현 상황이며, 자칫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단체활동 보다는 개인적으로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경인년에는 불자 언론인들이 성지순례를 비롯한 신행생활을 강화하면서 좀 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세상에 불법을 전하는데 앞장섰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 조계종을 비롯한 종단들은 언론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불자 언론인들을 규합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불교포교와 관련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불교계는 불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불교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사회적인 영향력을 확대해 국민의 따뜻한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발원이 있다면, 가족 모두 건강하고 새해에는 과년한 자식들이 모두 가정을 꾸려 잘 살았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번뇌·망상 내려놓고 활기차게 삽시다"

■금강대 권탄준 대학원장-50년생

새해에는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심신이 건강하고 여유 있게 살았으면 합니다. 번뇌·망상을 내려놓고 심신이 참으로 건강하고 밝게, 활기차게 살아간다면 자신은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건강하고 여유가 있어야 중중무진(重重無盡)으로 얽힌 사회도 맑고 밝게 돌아가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화엄세계를 장엄하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경인년에는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천태종립 금강대학교에 몸담고 있는 교수로서 학생들의 수행과 학업이 무르익도록 뒷받침함으로써 금강대가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발돋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는 천태종은 물론 한국불교의 세계화에도 기여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화엄경 입법계품(入法界品)'을 해설한 책을 <꽃피우는 삶>이란 제목으로 출판할 예정입니다. '화엄경 입법계품'을 공부하면 할수록 그 심오한 뜻이 더욱 드러나는 경이기에, 불자들과 공유하며 함께 수행하는 마음으로 책을 내고 싶습니다. 불자 여러분, 모두가 입법계품의 주인공 선재동자처럼 신심 깊게 구도의 길을 걸었으면 합니다.



"화엄사상 바탕으로 사회 하나 되길"

■ 동아대 윤리문화학과 곽만연 교수-50년생

2010년 새해를 맞이해 총체적으로 양극화된 한국 사회가 불교의 화엄사상(華嚴思想)을 바탕으로 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길 발원합니다. 무엇보다 권력자들은 서민의 입장에서 정치를 풀어가고 서민이 흘리는 억울한 눈물을 따뜻하게 닦아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불교 지도자와 불자 지성인들은 남북, 동서, 좌우로 분열된 사회갈등을 풀어내고 중도원융으로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불교의 화쟁(和諍)사상을 지속적으로 알려야겠습니다.

개인적인 소망은 존엄사, 낙태 등 생명윤리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제기되는 요즘, 불교계에서 학자와 지도자들이 생명윤리에 관한 문제해결의 원칙을 세우고 개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불교윤리덕목'을 연구해 나갔으면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생명의 소리이며, 상생의 외침입니다. 생명·평화의 종교인 불교가 자타불이와 동체대비를 몸소 실천해 보여 우리 시대 생명윤리의 정착을 위해 앞장서길 기원합니다.



"음성포교 일선에서 최선 다할게요"

■ 방송인 김병조(조선대 객원교수)-50년생

2009년, 조계종 포교원에서 주최한 포교대상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받아 부끄럽고, 한편으로 책임감을 느낍니다. 2010년에는 불자님들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불교공부에 매진하는 한편, 음성포교의 일선에서 더욱 열심히 살아가고자 합니다.

조선대 평생교육원에서 초빙교수로 재직하다 同대학 교육대학원 초빙객원교수로 임용돼 2010년부터 교사 및 예비교사들에게 <명심보감>을 강의하게 됐습니다. 현직교사와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강의하게 돼 영광스럽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명심보감>을 가르치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또한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을 내일 같이 하루하루를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의 마음으로 '날마다 좋은날(日日是好日)'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인년이 호랑이띠인 저의 해인만큼 부끄럽지 않은 한해가 되도록 살겠습니다. 우리 불자님들도 2010년 공덕 많이 쌓고 복덕이 구족한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불자여러분,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지으세요~!



"마음공부하는 불자로 평정심 유지"

■ 프로골퍼 배상문-86년생

2009년에 아름다운동행 홍보대사에 임명된 배상문입니다. 아름다운동행 홍보대사 1호인만큼 더 잘 하고 싶었는데 생각만큼 많이 동참하지 못했네요. 해외에 나가랴, 경기 준비하랴 작년에는 마음의 여유가 부족해서 그랬는지, 사찰에 자주 들르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12월 초 일본 Q스쿨을 끝으로 2009년도 시즌을 끝냈는데, 만족할만한 성적은 아니라서 올 한해의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도 기회는 있고, 내년도 전반기에 두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낸다면 그 뒤에 있는 시합도 출전 자격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또 미국에 진출하기 위한 계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마음 쓰지 않고 앞으로 남은 시합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경기를 할 때도 제 종교가 많이 힘이 됩니다. 항상 마음공부하는 불자가 되어 경기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골프 경기도 중요하지만 국제적으로 잘 해야 하니까 어깨가 무겁기도 하지만 제가 열심히 하는 만큼 팬들이 관심 가져주시면 더 힘이 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제가 불교에서 힘을 받은 만큼 불교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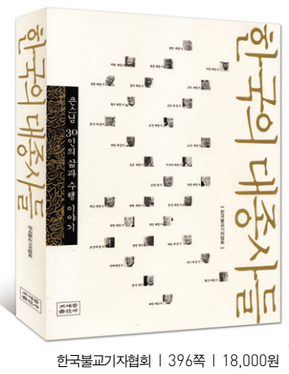
화제의 신간

스승, 세상에 답하다

큰스님 30인이 들려주는,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

여기 평생을 부처님 가르침대로 올곧이 살아온 한국의 대종사 30인이 있다. 삶의 가치 기준이 흐트러지고, 생명의 존엄성이 희미해지는 이 시대, 모든 인간이 지닌 무한한 가능성을 깨우쳐주는 대종사 30인은 가히 우리 시대에 마지막 남은 스승이라 할만하다.

|대종사|
조계종에서 비구 법계의 첫째.
법랍 40년 이상의 종사 법계 수지자 중에서 특히 뛰어난 분들에게 부여된다.
|명사|
조계종에서 비구니 법계의 첫째.



한국불교기자협회 | 396쪽 | 18,000원

한국불교기자협회 창립 20주년 기념 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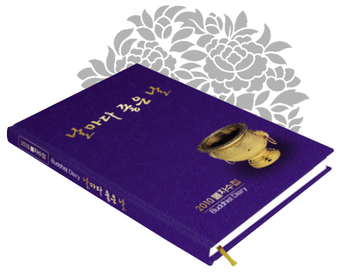
한국의 대종사들

법전 대종사 • 종산 대종사 • 밀운 대종사 • 지종 대종사 • 성수 대종사 • 도견 대종사 • 보성 대종사 • 원명 대종사 • 도문 대종사 • 지관 대종사 • 초우 대종사 • 고산 대종사 • 혜정 대종사 • 원명 대종사 • 활안 대종사 • 진제 대종사 • 혜정 대종사 • 명선 대종사 • 무진장 대종사 • 월서 대종사 • 혜승 대종사 • 정무 대종사 • 현해 대종사 • 고우 대종사 • 법흥 대종사 • 설정 대종사 • • • 광우 명사 • 묘엄 명사 • 명성 명사 • • • 혜초 대종사

문의 02.733.6390 홈페이지 www.jogyebook.com 조계종 출판사

불교 다이어리로 소중한 인연 만들기

겨울수련회나 템플스테이 기념품, 신도회 주요 간부 등을 위한 불자 다이어리!



2010 불자수첩

날마다 좋은 날

불자들에게는 불교 다이어리가 필요합니다

◉ 전통 문양을 적극 활용한 격조 높은 디자인 ◉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찰의 정경 사진 ◉ 한눈에 들어오는 연간, 월간 계획표 ◉ 신심을 키워주는 주간별 소중한 잠언 ◉ 불교공동체 함양을 위한 불자생활정보

158X232 | 전면 컬러 | 12,000원

떠나는 이를 위해 수행의 마음을 내다

2009년, 종교의 벽을 넘어 고인을 기리는 추모문화로 자리 잡다!



효림 지음 | 164쪽 | 7,700원

고인의 삶과 죽음을 따뜻하고 진솔하게 어루만지는 의식

사십구재

佛紀 2554年 庚寅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장 암 사
주지 도명
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산 83
TEL 053)762-3800

대한불교조계종
제 9 교 구 천년기도도량 **덕 사**
주지 연암
신도회 일동
■ 경북 청도군 화양읍 소라리1
TEL 054)372-7640

대한불교조계종
망 월 사
주지 동진
사부대중일동
■ 경북 칠곡군 지천면 달서1리 421-4
TEL 054)972-2700

대한불교조계종
대 승 사
주지 석지형
신도일동
■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458-1
TEL 052)298-5865 · 6623

대한불교조계종
원 각 사
주지 석대혜
신도일동
■ 경북 구미시 선산읍 노상리 159
TEL 054)481-2363

대한불교조계종
보 광 사
자명
■ 경북 안동시 도산면 서부 2리 산 50-7
TEL 054) 854-0109

대한불교조계종
용 화 사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쌍계리 404
TEL 053)614-3087

대한불교조계종
연화산 **옥천사**
사부대중일동
■ 경남 고성군 개천면 북평리 408번지
TEL 055)672-0100
FAX 055)672-0481
홈페이지 www.okchensa.or.kr

대한불교조계종
화악산 **적천사**
주 지 정광
신도회장 변숙현
반야회장 정광심
구도회장 양해성
신도일동
■ 경북 청도군 청도읍 원리 981
TEL 054)373-0307

대한불교조계종
금 용 사
(금용복지회관)
주지 혜선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 1동 172
TEL 053)628-5404

대한불교조계종
불광사 · 경북불교대학
"나와 이웃과 자연이 함께하는 삶"
학장 돈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욱수동 444
TEL 053)792-1353, 1181 FAX 053)791-4951

대한불교조계종
최정산 **남지장사**
주지 선공
사부대중 일동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우록 2리 865
TEL 053)768-9920

대한불교조계종
동화사 직할 포교당
보 현 사
주지 지열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2동 932-35
TEL 053)431-5400

대한불교조계종
관 운 사
주지 지산
■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526
TEL 054)931-7777,933-0808

대한불교조계종
석 가 사
주지 경암
■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천동 97-3
TEL 053)791-8137
FAX 053)792-0784

대한불교조계종
성 화 사
주지 진공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1동 521
TEL 053)625-9030

대한불교조계종
최정산 **광덕사**
주지 운성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190-2
TEL 053)763-0068

대한불교조계종
월 인 사
주지 포전 혜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옥분리 605
TEL 053)767-3971

대한불교조계종
용 천 사
대중일동
■ 경북 청도군 각북면 오산리 1062
TEL 054)372-7204

(株)玖峰·鍍金·精工
ISO 9000:2000 인증업체/QS 2000-1998 인증업체
代表理事 金明錫
■구봉정공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 3가 620-1
TEL 053)351-0009,4856 / FAX 053)352-1717
(주)구봉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암동 905-9
TEL 053)582-0156 / FAX 053)582-0157
구봉도금 : 대구광역시 달서구 갈산동 100-65
TEL 053)581-0009,8907 FAX 053)582-4173
Hompage : www.goobong.com
E-mail : gnbong@kornet.net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비슬산 **은적사**
은적사 부설 룸비니 유치원
주 지 허주
신도회장 황복덕화
합창단장 강정심화
봉사단장 문청량심
부설 룸비니유치원 원장 이수련화
■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3동 1572
TEL 053)653-1572 FAX 053)653-2765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임휴사**
주 지 현장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1321
TEL 053)632-4844, 641-4844
FAX 053)639-5033

한국불교전통조계종
팔공산 **봉경사**
봉경통선원
주지 아산
대중일동
■ 경북 경산시 와촌면 음양리 산 183
TEL 053)857-5686 FAX 053)853-5686

대한불교 원효종
용 주 사
주지 금봉
■ 울산시 북구 매곡동 47
TEL 052)285-1132

대한불교원효종
약 천 사
주지 덕운(운혜)
관음회 회원
■ 울산시 북구 어물동 1236-3
TEL 052)287-6952

개원사 심녕총림
개 원 사
주지 문공
■ 대구광역시 동구 봉무동 196
TEL 053)981-0995

"33관음 나투신도량"
보문시현사
주지 曉東 一雨
관음회 회장 황재숙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3동 2237-33
TEL 053) 655-3380

불교자원봉사단
불교호스피스
단장 정법
(자원봉사단 모집중)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1동 885-4
TEL 053)767-8866

사)대선불교 조계종 총본산
달마서화원 **금봉사**
종정 법왕동산대종사
■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2동 590-433
TEL 053)424-0876

한국불교태고종
불 종 사
주지 현진
「미륵천불전 건립도량」
■ 경북 경산시 정천동 630-2
TEL 053)802-4043

'희망'을 밝히는 2010 불교계 가상뉴스

"불자여 비전을 향해 뛰어라"

2010년 경인년 호랑이의 해가 밝았다. 가상뉴스로 '희망'을 밝힌 지난해는 △조계종 총무원장 단일후보 선출 △영산재 세계문화유산 등재 △불교 서적 및 전문 복합점 건립 등이 현실화 됐다. '희망'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자에게 '꿈'은 단순한 망상이 아니다. 새해에는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해 불심을 모아보자

#조계종 승려노후복지 마련… G20 정상 불교문화 극찬

조계종은 2010년 6월 승려연금 및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해 승려노후복지문제를 확실히 해결했다.

노령연금 및 의료보험 관리를 위한 재단이 설립됐으며, 각 교구본사 별 1개 이상의 승려복지 주거시설이 마련됐다.

승려노후복지 해결을 계기로 개인재산 축적 등 각종 비위문제는 대폭 줄어들었다. 이러한 결과 GB리서치가 지난 8월 20일부터 27일까지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5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종교의 신뢰도 조사'에서 불교는 신뢰도 5점 만점에 응답자 평균 4.8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국민 신뢰회복과 함께 불교계가 대한민국을 세계에 놀라게 한 자리도 마련됐다. 2010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G20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에게는 각종 테마별 선(禪) 프로그램과 태고종 측이 준비한 영산재 등 불교문화 공연, 사찰음식 향연 등이 선보였다. CNN, BBC 등 해외유수 언론의 생중계 하에 목동 국제선센터를 찾은 세계 각국 수반들은 불교전통과 한국의 정신문화를 체험하고 극찬을 보냈다. **노덕현 기자**

#MB 드디어 삽 내려놔… 4대강 사업 전면 중단

편법사업이라는 멍에와 국민의 우려 속에 시작부터 삐걱거렸던 4대강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국토해양부는 턱없이 불어나는 사업비와 공사 중 지반이 무너지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계속 일어나 공사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현재 공사가 진행된 세 곳의 보만 마무리 작업을 한 뒤 공사는 철수됐다.

4대강사업에 반대시위를 벌여온 환경시민단체들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의 위헌소지가 있는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애당초부터 억지였다"며 "어쨌든 공사 초기단계에 중단된 것이 다행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환경단체는 "생명을 돕고 살리는 일은 의도적이기 보다 저절로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인간과 자연이 상생할 수 있는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4대강 예산을 민생예산으로 돌리고, 4대강 강변을 따라 걸을 수 있는 트레킹 코스를 개발하기로 했다.

박선주 기자

#제2회 포교결집대회에 5만 명 동참

2010년 한해는 불교계 신도들의 놀라운 결집력이 눈 부시는 한해였다. 조계종 포교원은 대전 월드컵경기장에서 전국 5만여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제2회 포교결집대회를 개최했다. 포교결집대회에서는 대중 신행활동을 진행함과 동시에 불자상거래연합회를 통한 물류 거래 통로를 확보, 불자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도 템플스테이는 국내 · 외의 뜨거운 관심사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불자4대 천왕인 장동건, 이병헌, 김민종, 엄태웅은 33관음성지 홍보대사로 위촉돼 올 한해 10만 일본인 관광객 방문을 달성시켰다. 그밖에도 헐리웃 불자 스타 올랜도 블룸은 한국 불교에 심취해 미국에 한국사찰을 불사하고 외국인 템플스테이 전용 공간을 만들어 세계의 관심을 모았다.



지난해 말 출범된 어린이청소년위원회는 파라미타청소년협회 · 좋은벗풍경소리 · 동련 · 불교레크리에이션 등을 주축으로 어린이 · 청소년들을 위한 신개념 인재개발 발전소 '씽크탱크 붓다'를 개소했다. 발전소는 어린이 · 청소년들의 행복만들기 프로그램과 함께 학업과 미래발전에 구체적인 방향설정과 과정으로 전국 시도 모범운영 아카데미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 밖에도 불교여성개발원,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불교상담개발원 등에서는 사찰음식 · 성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인 양성에 나섰다. 중앙신도회는 북한 조선불교도연맹과의 교류를 통한 통일의 물꼬를 트고, 반갑다연우야는 2만 명 무료진료 달성 , 불교생활의례문화원의 본격적 염불봉사, 관혼상제 서비스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상언 기자**

#사회복지도 불교가 으뜸… 복지관 수탁 잇달아

지난해 5월 국내최대의 지역사회복지시설인 영통종합사회복지관을 수탁 받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분당, 평촌, 일산, 판교, 송도, 동탄 등 수도권 신도시지역의 지역산하시설모두를 수탁 받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수탁을 계기로 복지재단은 이웃종교 복지법인 등을 비롯한 경쟁단체를 제치고 시설운영권을 얻음으로써 신도시 지역에 대한 복지 포교의 방향을 제시하는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 이에 따라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등 이웃종교에서는 불교계의 복지노하우를 벤치마킹하기위해 재단 산하시설과 사무실을 찾는 일이 빈번했다.

자승 스님은 "종교계 중에서는 불교복지가 가장 늦었지만 동체대비, 자리이타 정신에 입각해 종단의 대사회 복지활동을 더욱 강화한 결과 연이은 수탁을 이루게 됐다"고 말했다.

이 밖에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기관중 하나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올 한해에만 10만 명의 기증희망등록자를 받았다. 2004년 시작할 당시 2500명이었던 등록자를 2009년에 1만 7000명으로 끌어올린 생명나눔은 현재 등록자수보다 약 4배가 넘는 희망자를 받음으로써 가장 많은 등록자수를 보유하고 있던 대한적십자사를 제치고 '조혈모세포기증희망등록 최다 보유 기관'이 됐다. **이나은 기자**

#동국대, 대학순위평가 수위권 진입

조계종립 동국대(이사장 정련)의 대학평가가 수위권에 진입해 건학 104주년에 걸 맞는 명문사학의 명성을 되찾았다.

00일보 '2010년 대학평가'(2010년 9월 발표)에 따르면, 동국대는 지난해 27위에서 5위권 내에 드는 쾌거를 이뤘다.

동국대의 약진에는 학생 · 교수 · 직원 등 구성원간의 화합을 이끈 이사장 정련 스님의 리더십이 가장 주효했다는 평가다. 스님은 지난해 대학본부 측의 일방적인 새 연구업적평가제 도입에 교수-대학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파격적인 연구지원을 골자로 하는 중재안을 제시해 구성원이 함께 윈-윈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 장학혜택을 재학생 모두로 확대하고, 재단전입금을 유례없던 금액으로 늘리는 등 재단이 앞장서 학교 발전의 모범을 보였다.

동국대 재단 관계자는 "이번 대학평가에 안주하지 않고 화합 · 상생을 화두로 지속적인 학교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동국대가 세계적인 명문대학이 되도록 재단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10만 부 이상 베스트셀러 불서 10 권 출현

법정 스님의 에세이를 제외하면 10만 부 이상 판매된 불서가 드문 불교계에서 2010년에는 10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가 무려 10권이나 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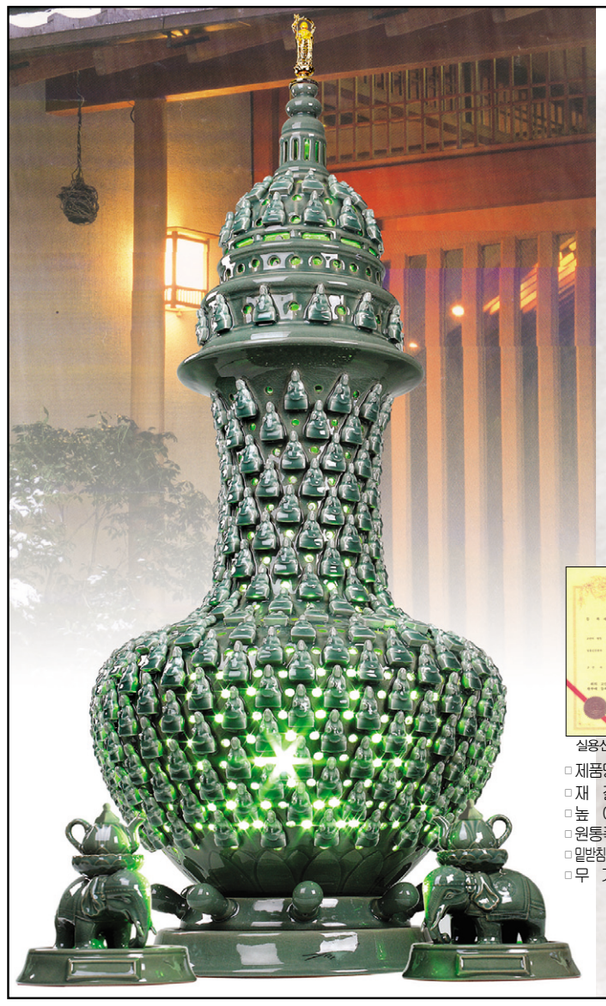
그동안 필자난과 마케팅 및 영업의 영세성으로 인해 일반인에게 어필하는 베스트셀러가 없었던 불교출판계가 불광출판사, 조계종출판사, 동국대출판부 등 불교출판계 '빅3'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기획과 영업 전략으로 큰 성과를 내게 된 것이다.

2009년, 평년의 2배 이상 불서를 발행한 여세를 몰아, 불교전문출판사들과 일반출판사들은 2010년에는 양질의 불서를 쏟아내 불서를 통한 포교에 큰 기여를 했다. 게다가 2010년에는 '불교'라는 콘텐츠를 마지막 블루오션으로 여긴 일반출판사들이 2009년에 비해 또다시 두 배 이상의 많은 불서들을 발행해 '불교출판의 중흥'이란 말을 회자되게 했다. **김성우 기자**

#사찰음식, 선풍적 인기로 대중 입맛 사로잡아

스님들의 수행식인 사찰음식이 일반인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며 일반 요식업계에서도 활기를 띄고 있다. 작년에 열린 사찰음식 대향연이 외국인들과 국내인사들에게 주목을 받으며 2010년에는 일반인들에게도 소개돼 대중음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사찰음식이 대중음식문화 속으로 자리매김하는 데에는 현대인들이 지친 심신을 달래기 위해 찾았던 템플스테이에서 자연스레 불교를 접하고 사찰음식의 매력을 느끼게 된 것이 많은 홍보역할을 했다. 또한 스님이 아닌 일반 요리사들이 직접 사찰음식을 체험해보고 만든 음식들이 블로거, 책 등으로 소개돼 일반인들도 손쉽게 사찰음식을 접할 수 있어 사찰음식대중화에 한몫을 했다. 현재 사찰음식을 주메뉴로 하는 음식점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추세이며, 대형 휴게소와 마트 등에는 사찰음식들이 상품화 돼 판매되고 있다.

한편 불교의 문화를 알리는 면은 좋으나, 스님들의 수행식이 너무 상품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은정 기자**



업장소멸 법륜대(윤장대)
사찰경제 살려!!!

매일매일 경전을 읽는 공덕 업장이 소멸하는 법륜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쪽 법륜대 1080분의 부처님이 봉안되어 가족 이름은 물론
경전을 복장하는 행사가 줄을 이어가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
전생록에 기록된 금강경을 각 개인마다 다른 숫자로 법륜대에
복장하게 되어 전생에 묵은 빚, 해탈이 복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법륜대 예약 대축제
전시장에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께
연중 4회(정월, 봉축, 백중, 동지)로
나누어 지불하시는
혜택을 드립니다


실용신안특허의 기술

□ 제품명 : 순금천불봉안법륜대
□ 재 질 : 대한민국 상감청자
□ 높 이 110cm
□ 원통폭 45cm
□ 밑받침폭 30cm
□ 무 게 25kg

▶법륜대의 특징
1. 대한민국 수제명품으로 불교문화의 예술성이 뛰어난 우리나라 초유의 상감청자 법륜대로 탄생하였습니다.
2. 전기료 걱정 없이 에메랄드 빛이 나는 10w 전구 하나로 조명되어 법당 장엄은 물론 사찰경제 지킴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3. 도량에 따라 (관음, 지장, 약사여래 등) 천불 및 만불전 법륜대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문의 덕유산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



최종

佛紀 2554年 庚寅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홍익법인 한국불교미타종
(종립)한국승가대학
종 정 대종사 의륜
총무원장 대종사 왕인
총무부장 성원 포교부장 법인
※ 종도등록 접수받고 있습니다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3동 2561-17
TEL 053)621-3610, 625-3372

대한불교법화종
천 불 사
주지 법 원
(성주사암 연합회장)
■ 경북 성주군 선남면 관화리 32-1
TEL 054)933-7881

대한불교일붕선교종
팔공산 선 원 사
주지 성 봉
■ 경북 칠곡군 동명면 득명리 185-5
TEL 054)975-6976

대승불교관음종
석 송 사
주지 법 장
■ 경북 영주시 문수면 월호3리 838
TEL 054)636-2201

한국근본불교조계종
대구종무원
성 불 사(구.법성사)
종무원장 법 성
■ 대구광역시 북구 팔달동 132-4
TEL 053)322-0567

한국불교태고종
약 천 사
주지 운산
(스님이 직접 재배한 토종콩에 약수로 담근 된장을 소량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 경북 김천시 구성면 흥평2리 129
TEL 054)435-3903
H/P 011)545-3903
010)3452-3903(스님)

대한불교의왕종
대 광 사
종주 법문(오현권)
■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동 217-16
TEL 053)421-8417~9

한국불교태고종
청 룡 사
대중일동
◇ 복지불사안내
· 매월독거노인지원 · 어르신 무료관광
· 매주 노숙자 무료급식 · 경로위안 문화예술제 봉행
· 독거노인. 장애인 목욕봉사 · 영안실 염불기도 봉사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5동 141-16
TEL 053)656-5266

월항산 삼 광 사
납골당 추모공원
주지 법 진
■ 경북 성주군 월항면 지방리 산 1-2
TEL 054)971-5666

우리불교 우리절
용암산 미 륵 사
주지 석청송
■ TEL 053)981-1199
FAX 053)982-0683

적멸보궁
팔공산 반 야 사
주지 도 오
■ 대구광역시 동구 신무동 813
TEL 053)983-6421

염 불 선 원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 1동 578
TEL 053)782-0120

동국불교조계종 총무원
용 불 사
조 실 월운 성도
총무원장대행 만학
총 무 부 장 청명
위 원 관법
사부대중일동
■ 경북 구미시 사곡동 603-243
TEL 054)465-4658

세계불교지장선원종 종정주석사찰
부처골 지장선원
주지 혜봉 대종사
<다음카페 : 부처골 풍경소리>
■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2리 458-1
TEL 054)383-8553

재단법인 선학원
기 원 정 사
주지 우 륵
■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1152-5
TEL 053)982-9329 / FAX 053)983-1698

대한불교선각종
영천보현산 등 명 사
조 실 석정암
주 지 석혜명
신도회장 이 선 혜
신도일동
■ 경북 영천시 화북면 오동리 603-2
TEL 054)337-4572(등명사) 054)281-7712, 7719(포항자명선원)
H.P 010-5506-944 8

대한불교화엄조계종 대구교구종무원
덕 안 사
주 지
종무원장 종 범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1동 129-11
TEL 053)656-4144

古佛 전법도량
비 슬 산 보 성 선 원
주지 한 북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1동 1952-1
TEL 053)653-7558/FAX 053)653-7560

팔공산 갓바위 앞산
용 주 암
주 지 韓成鶴
사부대중일동
■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동 산 44

대한불교천태종
황 해 사
주 지 진 덕
신도회장 최병렬
신도대중 일동
■ 경북 포항시 북구 학잠동 산20
TEL 054)277-3611 / FAX 054)277-3644

대한불교법화종 인연의 세계
수 참 사
주 지 영 암
신도회장 최영희
회원일동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 6동 640-5
TEL 053)561-3129

대한불교조계종 광덕사
약천사 광주포교당 성거사
회주 포산 혜인
주지 범전 혜공
■ 광주광역시 남구 서2동 143-2
TEL 062)676-1080

대한불교조계종
월명산 관 음 사
주 지 재 곤
신도 가족법회 회원 일동
■ 전북 군산시 나운동 755-1번지
TEL 063)471-0198

대한불교조계종
전 북 포 교 사 단
단 장 김진수
사무국장 이두연
전북포교사 일동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756-5
전북불교회관내
TEL 063)252-4940

익산시불교사암연합회
회 장 우성
부회장 : 덕 림 부회장: 도 진
총 무 : 정 산 재 무: 원 공
사부대중 일동
■ 전북 익산시 여산면 호산리 65번지
TEL 063)836-8047. 836-5984

대한불교조계종
익 산 관 음 사
주 지 덕 림
신도 일동
이리 불교대학
학장 덕림 부학장 김진수
■ 전북 익산시 갈산동 31-9
TEL 063)854-1578. 842-6652

대한불교조계종
천호산 백 운 사
주 지 우 성
신도 일동
■ 전북 익산시 여산면 호산리 65번지
TEL 063)836-8047. 836-5984
홈페이지 : http://www.baekwoonsa.com

정 안 사
주 지 정 안
신도 일동
■ 전북 군산시 회현면 고사리 310번지
TEL 063)466-6055

익산불교신도연합회
회 장 : 박중근
명예회장 : 이의식
고 문 : 김동확, 김진수
각 신행단체및 부회장단
신도임원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소백산 비 로 사
주 지 성 공
신도 일동
■ 경북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 소백산 중턱
TEL 054)638-5033

가족이 하나 되는 길 경전이 말하는 화목한 가정 만들기

가족 부처로 섬기면 불국토가 '여기'

통계청이 구랍 21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 2009'는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거의 무너져 가고 있는 단면을 보여 준다. 통계에 따르면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1985년 6.9%에서 작년에는 20.1%로 급증했다. 아예 결혼을 하지 않거나 이혼 때문에 또 혼자 사는 노인이 는 게 원인이다. 1인 가구 증가와 더불어 가족 해체는 우리 사회의 또다른 어두운 이면이다. 부모의 이혼과 재혼, 또는 부모사망으로 인해 조부모와 함께 사는 조손(祖孫)가구가 2005년 기준으로 1995년보다 65%가 늘었다. 1인가구나 결손가정의 가장 큰 어려움은 낮은 소득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일자리 우선 공급 등은 정부의 몫이다. 그러나, 노인가구 등을 부모처럼 모시는 자비심을 발휘하는 일은 가장 좋은 사회안전망으로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가족 해체의 정도가 너무나 빠른 오늘날,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 온 가족이 하나 되어 화목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부처님 말씀을 통해 체득하고 실천해 보자.

#가정 화목은 수행과 삶의 근거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濟家治國平天下)'라는 명언이 있다. 수신(修身)은 자기관리요, 제가(濟家)는 가정의 화목이요,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는 직장, 사회, 국가에서의 리더십 발휘를 뜻한다. 재가에서 수행하는 불자들에게는 가정의 화목이 개인 수행과 일, 보살행을 실천하는 근거가 된다.

<무량수경>에는 가족과 친척 사이의 화목을 이루기 위한 방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세속에 사는 사람들은 부자 형제 부부 가족, 안팎의 친척 사이에 서로 경애해 미워하지 않으며, 유무상통하여 아끼는 일이 없으며, 말과 안색이 늘 화평하여 서로 뜻이 어긋나지 말도록 해야 한다."

#효도는 열반에 이르는 길

가정의 화목은 무엇보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아내는 시부모님을, 남편은 장인 장모님을 잘 모시는 것이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는 근본이다.

부처님은 <중아함 선생경>에서 자식의 도리를 이렇게 일러주셨다.

"자식은 다섯 가지로 부모를 대해야 한다. 부모의 재물이 불어나게 해야 한다. 부모를 대신해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한다.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도와드려야 한다. 불손하게 뜻을 어기지 않는다.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까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부모를 아무리 잘 봉양하더라도 부처님 법을 만나게 하는 일 보다 큰 공덕은 없다. 부처님께서는 <부사의광경>에서 "음식이나 진귀한 보물만으로는 부모의 은혜를 갚지 못한다. 부모를 인도해 바른 가르침으로 향하게 해야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된다"며 법보시를 강조하셨다. 부처님은 부모님을 깨달음의 길로 이끄는 구체적인 방편도 제시하셨다.

"만약 부모가 신심이 없거든 신심을 일으키게 해야 한다. 만약 계를 안 지키거든 계에 머무르게 해야 한다. 만약 성질이 인색하거든 보시를 행하게 해야 한다. 만약 지혜가 없거든 지혜를 일으키게 해야 한다. 자식이 이렇게 하면, 비로소 보은(報恩)이라 할 수 있다."(비나야율)

이와 같이, 부모를 공양하는 것은 공덕을 닦는 일인 동시에, 열반에 도달하는 수행의 방편이기도 하다. <금강계주수행경>은 "만약 총명한 지혜를 지닌 지자(智者)가 있어서 생사의 피안에 도달하려 한다면, 응당 부모를 존경해야 할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

#부모는 자식을 모자람 없이 보살펴야

부처님은 <중아함 선생경>에서 부모의 자식에 대한 다섯 가지의 도리를 이렇게 일러주셨다.



가족이 함께하는 템플스테이는 가정을 수행공동체로 만드는 소중한 기회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야 한다. 뒤를 보살피되 모자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자식에게 빚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때를 맞춰 결혼시켜 줘야 한다. 재물을 물려줘야 한다."

부처님은 아들 라훌라를 출가시켜 교육시켰는데, 다른 제자들 보다 더욱 엄하게 가르쳤다. 라훌라에게 한 가르침은 부처님의 교육관이 '타율' 보다는 '자율'에 의한 것임을 잘 드러내고 있다.

"라훌라야, 너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 사람들이 거울로 얼굴을 비춰보듯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렇게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즉 '이 일이 깨끗하고 옳은 일인가, 남에게 괴로움을 주는 일인가'를 살펴야 한다. 그리하여 착한 일은 행할 것이며, 악한 일은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모든 행동을 이렇게 한다면 너는 언제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것이다."(중아함 나운경)

#부부가 서로 존중하면 만사형통

부모님에 대한 효도, 자식에 대한 사랑과 함께 가정의 화목을 이루는 가장 원천적인 요소는 부부간의 사랑일 것이다. 신혼 때는 누구나 평생 애인처럼, 도반처럼 살아가리라 다짐하지만, 초발심(初發心) 때의 순수함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부부간의 신뢰와 존중 그리고 상호이해 등이 '둘이 하나로' 살아가는 백년해로의 전제조건임을 알면서도 뜻대로 안되는 게 부부간의 애정전선이다.

요즘처럼 남녀평등을 넘어선 여성상위시대에는 아내의 가족을 잘 모시는 것이 가정의 화목을 유지하는 최고의 비결이 된다. <중아함 선생경>에는 아내를 사랑하는 다섯 가지 방편이 나온다.

"아내를 어여삐 여겨야 한다.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 장신구를 해주어야 한다. 집안일을 맡기고 자유롭게 해주어야 한다. 아내의 친족들에게 소홀하지 말아야 한다."

부처님은 '남편을 사랑하는 법'도 설하셨다.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 일가친척을 잘 거두어야 한다. 공손한 말씨를 써야 한다. 남편이 돌아오면 칭찬하고 격려해야 한다. 맛있는 음식과 편안한 잠자리를 준비해야 한다."

애인 같고 친구 같고, 때로는 부모 같고 스승 같은 배우자는 500생의 인연으로 다시 만난 '나의 반쪽'이다. 서로에게 가장 큰 빚을 주고 받는 부부란 희유한 인연을 통해, 나란히 '의식의 진화'를 이루겠다는 발원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가족은 도반, 가정은 수행공동체

"친족이야말로 으뜸가는 벗임을 알아야 한다. 사람들이 다 친족을 알고는 있지만, 지극한 애정으로 근본을 삼으며, 정성을 앞세우고 의를 뒤로 미루는 태도를 취해야 비로소 같이 살 수가 있다."(출요경)

가정을 수행의 터전이자 자아실현의 장으로 여긴다면 가족을 도반이자, 선지식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한다. 이웃을 공경하기에 앞서 내 부모, 배우자, 자녀를 어른부처, 아기부처로 볼 줄 안다면 가정은 최고의 수행공동체가 아닐 수 있다. 가족 구성원부터 서로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본래부처(本來佛)가 불심으로 부처행을 하며 살아가는 불국토가 '지금 여기'에 곧바로 실현될 것이다.

김성우 기자

가정이 밝아야 세상도 밝다

농업을 기반으로 하던 시절, 모든 것은 가족단위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가족 그리고 조금 확대된 친족 그리고 나아가 마을은 서로 매우 깊은 연관을 맺으면서 운영되었으므로, 그것이 갖는 의미는 실로 컸다. 그러나 산업화 ·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핵가족과 개인주의가 확대돼 오늘날 가족의 의미는 퇴색되고 그 기능은 매우 약화되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가족은 생명의 근원으로 가족 간의 깊은 유대가 없이는 온전한 생명력을 느낄 수 없다. 자살, 폭력 등 사회 문제도 그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 상당부분 가족문제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땅히 서로를 보살피고 어루만져 주어야 할 가족 사이에 오히려 더 많은 상처를 주고 받고, 그로 인해 마음속으로 깊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리고 때로는 늙으신 부모님이나 나이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할 의무를 다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도 있고, 또 더러는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적절한 독립을 방해하고 속박하는 경우도 있다.

부처님께서는 가족 간에 서로 어떻게 대해야하는지 여러 경전에서 수차례 말씀하셨다. 부부 사이는 어떠해야 하고, 부모 · 자식 사이는 어떠해야 하며, 친족 간에는 어떠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가르침들이 참 많다. 따라서 사찰에서는 가족에 대한 불교적인 의미와 가족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가르침을 제시함으로써 가정을 행복한 보금자리로 만들며, 나아가 개별 가정과 가족 구성원들이 이타적인 삶을 살게 해 이웃을 돌보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회에서 가족을 주제로 한 법문과 강좌가 개설되고, 가족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가족법회 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돼야 한다. 현재 많은 사찰에서 가족법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가족법회라고 할 만한 곳은 극히 드물다. 단지 가족이 함께 법회를 참가한다고 그것을 가족법회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족들이 함께 자신들의 가족을 이해하고 가정의 현재를 진단하면서 미래를 예측하고 장단기 계획을 세우고 힘을 모아 목표를 이뤄갈 수 있도록 가족법회 프로그램이 실시돼야 할 것이다. 특히 여러 연령대인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필수적으로 준비돼야 한다. 그리고 생활주기별로 신혼기 부부, 자녀 양육기 부부, 은퇴기 부부, 노년기 부부 등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해 많은 사찰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종단 차원에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

가족법회 프로그램 개발 보급 시급

불교여성개발원에서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한 '혼인준비교실'과 주부를 대상으로 한 '행복가정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국 사찰로 확대되기를 희망한다. 다행히 몇 년 전 불광사와 공동으로 '불교와 가정'이라는 강좌를 개설하기도 했고, 조계사 등에서 아버지 교육, 청소년기 부모교육 등 본격적인 가족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불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비록 가족으로 만났지만 각자의 업에 따라 살아가고 있으므로 집착과 소유욕에서 벗어나 각자의 고유한 성품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불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데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무지와 세속적 욕망과 집착으로부터 좀 더 벗어나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관계가 가장 바람직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렇게 될 때 가정은 수행공동체이고 가족은 그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으로서 도반이 될 수 있다.

수행공동체로서 가정 내에서 가족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서로를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 이웃에게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때 자연스럽게 불교는 전파될 것이다.

"부자간에 형제간에 부부간에 친족간에 항상 서로 사랑하여 시기하거나 증오하지 말라. 안색은 항상 화평하게 하고 서로 멀리 있어도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라."(<무량수경>)



한주영
지혜로운여성 사무처장

태성전기난로
Tae Sung Power Heater
주문당일배송

불자님을 위한 특별할인 보급

300대 한정판매
TS 7300 (1.2kW) = 68,000원 ➡ 58,000원
TS 7200 (2.0kW) = 78,000원 ➡ 68,000원
TS 7000 (3.0kW) = 88,000원 ➡ 78,000원

강력한 화력 / 저렴한 유지비 / 잔고장이 없는 강력난방

실내전체가 훈훈한 태성전기난로 유지비까지 저렴하고 정말 좋네요!



고구마, 떡도 익히는 고열량 방출

가습기 기능
주전자에 물을 담아 올려 놓으시면 건조한 겨울 실내의 습도를 유지하여 가습기 역할을 합니다.

특별할인가 58,000원
▲TS-7300 적용면적 : 10.56㎡ (3.5평형)
열량/ 1.2kW • 사이즈/325×540mm • 무게 / 3.2kg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9.50×1.2kW×8=667원
●TS 7300 안전인증번호 SH07345-8002A

특별할인가 78,000원
◀TS-7000/ WJ3000 적용면적: 24㎡ (7~10평형)
열량/ 3.0kW • 사이즈/355×660mm • 무게 / 4.1kg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9.50×3.0kW×8=1,668원
●TS 7000 안전인증번호 SH07345-8001

특별할인가 68,000원
◀TS-7200/ WJ2000 적용면적 : 16.5㎡ (5평형)
열량/ 2.0kW • 사이즈/325×540mm • 무게 / 3.3kg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9.50×2.0kW×8=1,112원
●TS 7200 안전인증번호 SH07345-8002
※가정용 전기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사무실, 상가 등 일반전기, 산업용전기 사용은 제외)

360° 강력한 화력! 저렴한 전기료!
편리한 이동성! 전기 난로의 진정한 强者!

초강력 난방으로 전기료 절약!!
1일 8시간 사용시
3kW 기준 1,668원
(누진세 미적용)

실내전체가 훈훈해지는 태성전기난로
일반히터는 히터주변만 따뜻하지만 태성히터는 실내온도를 상승시켜 실내공기를 훈훈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스토브가 넘어지면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전도 안전스위치 부착"

태성전기난로 이런 곳에 사용하세요
■ 24시간 쾌적한 난방이 필요한 곳과 지속적인 연료 주입이 어려운 장소
■ 상주 인구가 많아 산소결핍으로 자주 환기를 해야 하는 곳
■ 이동 인구가 많아 시설물 손상에 의한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곳
■ 대형매장이나 식당 등 주난방은 있으나 사각지대가 있어 보조난방이 필요한 장소

100% 국내산/중국산과 비교불허!
●복고풍 디자인의 안전한 전기히터
●좁은 공간에서도 편리한 소형본체
●전도 안전 장치로 쓰러지면 자동으로 전원차단
●이동이 간편하고 온도조절이 용이
●상판위에 물을 데워 실내가습효과
●360도 전방향 적외선 열기전달
●무소음 / 무취 / 무연

1년 무상 A/S보장!
저렴한 유지비로 초강력 난방
전국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중

주사용처 : 사무실 등 협소한 장소, 이동이 잦은 곳, 접객업소(식당/주점/팬션)

구입문의 : 080-810-8800
입금계좌 : 농협 302-0127-6837-61 양유정 (택배비 2,500원 소비자 부담)

가족이 하나 되는 길 우리절 가족법회를 소개합니다!

특화된 가족법회 소통과 화합 한 목소리 '화음'

정각사

눈높이 맞춰 부처님 품으로

정각사 계층별 일요법회 '인기'

"번뇌에 허덕이는 뇌가 진리를 생각하는 뇌로 바뀝니다. 가족들과 손잡고 정기법회에 참여해보세요."

조계종 해인사 포교원인 정각사는 매주 일요법회(가족 · 어린이 · 청소년)를 열고 있다. 주거밀집지역인 산본 신도시 중심상가에 사찰이 위치해 인근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오갈 수 있다.





정각사는 매주 일요일 가족법회를 열어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 남녀노소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일요가족법회(위). 연꽃 어린이회 어린이불자들이 <반야심경>을 독송하고 있다.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에 일요가족법회를 열어 △천수다라니 21편 독송 △사시 예불축원 △불교문화 · 교리강좌를 진행한다.

엄마 · 아빠를 따라 온 어린이들은 부모들이 가족법회에 참여하는 동안 어린이 법회인 '연꽃 어린이회'에 참석한다. 지도법사 담영스님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밌는 법문을 들려주며 율동, 레크레이션, 노래, 구연동화, 그리기 등의 프로그램을 구성해 진행하고 월 1~2회씩 계절별 야외활동 프로그램(수영장, 눈썰매장 가기)을 마련한다.

오후 1시 부터는 중 · 고생 법회를 열어 △공부 잘하는 법 △정신집중 하는 법 △문화재 애호 활동 △공해추방운동 △자원봉사 활동 등 청소년들로 하여금 불심을 키워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 10년째 결식아동을 위한 장학사업 및 지역 사회 복지사업에 힘을 쏟고 있는 정각사는 함께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자원봉사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두 딸과 매주 일요법회에 참여한지 4년째에 접어든다는 정연희(49 · 군포시) 보살은 "회사동료가 읽고 있던 경전을 보고 불교에 관심을 갖게 돼 집근처 사찰을 찾게 됐다"며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불교를 알게 돼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른다. 불교를 알면 알수록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용기와 지혜를 배울 수 있어서 우리 딸들이 배웠으면 하는 바람에 절에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매일 <반야심경>을 사경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한다는 박아름(20) · 아영(18)양은 "엄마가 절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기보다는 우리를 더 믿어주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마다 많은 조언을 줘 참 좋다"고 말했다.

어린이법회는 20여 명의 어린이들이 옹기종기 모여앉아 예불문, <반야심경> 독송을 하고 찬불가를 배워 따라 부른다. 김지혜(13 · 도장초) 어린이는 "정각사에 있는 공부방에서 공부하다가 어린이법회도 참여하게 됐다. 스님 법문도 듣고 종이접기, 만들기도 배우고 캠프도 가서 재밌고 좋다"고 말했다.

주지 정엄 스님은 "한 심리학자가 '절에 가려고 준비하는 마음만 먹어도 뇌 속에서 명상 상태를 반영하는 안정적인 뇌파인 세타파가 나온다'고 했다"며 "항상 설레이는 마음이 중요한데 주말에 집에서 쉬는 것도 좋지만 매주 정기적으로 가족들과 함께 법회에 나오려는 마음가짐이 정신건강에도 좋고 가족들끼리도 화합하는 계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031)398-8001

현대사회는 산업화 · 정보화 등으로 인한 사회구조 변화와 이에 따른 주거환경 변화로 가족제도 자체가 변화했다. 특히 핵가족제도의 보편화는 가족 구성원은 물론 세대 간 대립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2008년 우리나라의 가족형태는 3 · 4인 가구가 전체의 73%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와 자녀만으로 구성된 2대가족, 즉 핵가족이 대세를 이루는 것으로 확인됐다.

맞벌이 등으로 생활고에 찌든 대부분의 도시 거주자들은 부모는 생계를 꾸리느라, 자식은 학업에 열중하느라 서로 대화할 시간조차 없다.

최근 조계종 포교원은 '2009년 수도권사찰 포교역량조사 세미나'를 열어 가족 공동의 발원과 기도가 일상화되도록 하는 신행지도와 가족법회에 대한 대책마련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일요일 또는 특정일에 부부와 자녀가 함께하는 가족법회를 운영해 가족 간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신심을 배가시키는 사찰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 군포 정각사와 서울 법안정사, 금장사의 가족법회 성공사례를 통해 핵가족 시대의 바람직한 포교전략을 모색해보자. 이나은 기자

법안정사

부부법회 17년 신행 · 삶 한길로

법안 스님 "나와 가정 창조하는 행복한 주인 되길"

서울 목동 신시가지에 위치한 법안정사는 한 · 불 수교 100주년을 기념해 설치된 파리공원을 앞에 두고 있다.

도심 사찰이라는 특성에 맞게 법안정사에는 다양한 세대의 부부불자들이 많다. 이들은 1993년 부부불자회를 만들어 현재까지 17년 동안 부부법회, 교화사업, 친목도모, 정법구현, 봉사활동, 산행법회 등 활발한 운영으로 모임을 이어가고 있다.



법안정사 부부불자회는 목동지역에서 10개 지부로 나뉘어 봉사활동, 신행법회, 산사체험 등 다양한 신행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로 40~50대의 부부들로 구성된 불자회 인원은 600여 명이며 최근에는 30대의 젊은 부부들의 참여율도 높아지고 있다.

부부불자회(회장 문정호 · 김상엽 부부)는 매월 첫째 토요일 저녁에 법회를 열고 다양한 신행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 모임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신행활동을 위해 가정법회와 함께 교육 · 봉사 · 상조 · 홍보분과 등이 목동지역 10개 지부로 나눠 활동하고 있다.

특히 정기적으로 가정법회를 열고 산행 · 사찰성지순례를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펼친다. 이와 함께 각자 활동 가능한 시간에 서울지역 복지관, 노인요양원에서 급식, 목욕봉사에 동참중이다.

지도법사인 회주 효경 스님은 "부처님 마음으로 이웃 부부들과 함께 도반이 되는 법안정사 부부불자회에 동참해 성스러운 인연으로 참된 진리를 배우고 수행 정진해 '자신과 가정'을 새롭게 창조하는 행복한 주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2)2646-4975

금장사

모성 닮은 포교중심도량 역할해

보리방과후교실 · 장학금 수여 · 가족법회 운영

서울 서대문 주택 밀집지역에 위치한 금장사는 15년간 학인스님과 어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오며 따스한 어머니같은 포교중심도량 역할을 해오고 있다.



금장사는 매월 둘째 주 일요일 가족동반법회인 '화엄장학법회'를 연다.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보리방과후교실' 공부방을 운영하는 금장사는 연 2회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해 이들을 독려하고 가족법회를 열어 온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사찰은 매주 일요일 오전에는 가족법회와 어린이 법회를,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에는 대학 · 청년법회를 열고 있다.

또한 사찰은 매월 둘째주 일요일에 화엄장학법회를 열어 중앙승가대학교수인 본각 스님의 <화엄경> 강의와 생활법문을 들려주고, 법회가 끝난 후에는 신도들이 불서를 선정해 독서토론회를 여는 등 신심과 교양을 함께 배가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금장사 회주 본각 스님은 "가족 모두가 법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법회시간이 짧든 길든 즐거워야 하는데 내용도 모르는 염불을 계속 외워야 하는 것이 가족법회의 참여를 꺼리게되는 요인"이라며 "불교는 환경적 · 수행적인 면에서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게 재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금장사는 불교를 처음 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법회를 할 때에는 예불시간을 길게 하지 않고, 점심공양은 온가족이 함께 하기에 잔치상처럼 푸짐하게, 어린이들은 어린이법회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노력한다"며 "일주일에 한번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서로 대화를 하는 계기가 되고 부처님말씀도 배워 가족과 가까워지는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02)395-0042

佛紀 2554年 庚寅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천 자 암
조 실 활 안
주 지 대 경
문보덕화
신도회장 여옥란
사부대중일동
전남 순천시 송광면 이읍상리 산1번지
TEL 061)754-3708
H·P 010-3137-3785
FAX 061)754-4347

대한불교조계종
황 룡 사
황룡사 불교대학
울산 제일 기도 · 포교 · 자비도량
주 지 황 산
불교대학 운영위원회
불교동문회 일동
울산광역시 중구 학산동 63-13
TEL 052)211-1949

대한불교조계종
아차산 영화사
부설 영화유치원
회주 송월주 스님 外
사부대중 일동
서울 광진구 구의동 9번지
전화 02)444-4321, 7215

한국불교태고종
봉 원 사
"경인년 새해 항상 여여하시길
삼보전에 기원합니다"
대 중 일 동
서울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전화 02)392-3007~8

옥천범음대학
유네스코 세계 무형 문화유산 등재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보존회
(사) 한국불교 영산재 보존회
회 장 마 일 운
회 원 일 동
서울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전화 02)392-3007~8

가족이 하나 되는 길 우리절 가족법회를 소개합니다2

성불의 길은 법당에만 있지 않아… 가정법회로 신행하자

'더'와 '빨리'를 말하며 효율성과 신속성을 추구하는 이 시대의 법회는 비단 법당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바쁜 삶속에서 마음의 여유를 찾으려는 노력은 시공간을 가리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요즘에는 집이라는 공간에 문턱을 낮추고 가정법회를 여는 집이 늘고 있다. 인간성 상실과 공동체 붕괴, 가정 해체는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때에 우리 불교가 개인의 행복을 찾고 가정의 안정을 찾아주고 있다니 반가운 일이다. 각 사찰과 가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가정법회를 꾸려가고 있는지 정토회와 불광사, 서원사의 가정법회 현장을 살펴보자. **박선주 기자** Zoo211@buddhapia.com

정토회

생활과 수행 하나로 이어져

'우리동네 열린법회' 운영… 국내외 250여 개



정토회 열린법회에 참여하는 보살들은 "내 집이 법당이 되는 것도 이렇게 쉽다는 것, 체험하게 돼서 참 좋다"며 가정법회 자랑이 식을 줄 모른다.

구랍 22일 정토회 송년법회가 열린 날, 서울 서초구 정토회 법당에 200여 명의 불자들이 모였다.

이날 조촐하게 문을 연 정토회의 '우리동네 열린법회(가정법회)'는 가까운 지역의 이웃과 함께 가족간의 갈등, 자녀문제, 부부, 직장 내 갈등, 우울증, 미래에 대한 불안 등 갖가지 의문들을 풀기위한 법회이다. 가정법회에서는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는 법륜 스님(정토회 지도법사)의 영상법문을 들으며 자신과 이웃이 함께 행복을 만들어 간다.

현재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는 '우리동네 열린법회'는 국내 220개, 해외 30개로 총 250여개가 운영되고 있다. 열린법회는 '날마다 웃는 집, 행복한 출근길'을 캣치프레이즈(catchphrase)로 내걸고, 1000만 가족 행복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또 이들은 법회 뿐 아니라 봉사활동도 함께 해 수행과 봉사가 둘이 아님을 입증해내고 있다.

열린법회 회원들은 최근 굶주리는 아시아 어린이 돕기 JTS캠페인 '모두 우리 아이입니다' 진행에도 앞장서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지부가 마련된 정토회 '행복센터'는 열린법회를 총괄하며 법회를 새로 개설 · 지원하는 일을 맡고 있다.

행복센터의 양윤덕 보살은 "가족 · 직장 문제 또는 사회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처음 열린법회를 찾은 분들이 자신을 찾아가며 행복해 지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 전국에 불법을 전하고, 나와 세상을 행복하게 바꾸는 것이 바로 정토회 행복센터의 목표"라고 말했다.

수지구에 거주하는 열 분의 보살들과 함께 1년정도 집에서 법회를 보고 있는 공덕해 보살(38 · 정필자)은 "용인에서 스님 법문을 들으러 서울 법당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집에서 가정법회를 하는 것이 어떨까 했는데 다행히 남편이 허락했다. 법당에 있을 때는 마음이 차분하고 좋다가, 산문 밖을 나서면 마음이 시끄러웠는데 지금은 내 집이 법당이라 집에서도 경건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법회를 하면서 달라진 점을 묻자, 공덕해 보살은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는지 잠시 뜸을 들인 뒤, 답변을 이어갔다.

"처음에는 집 분위기가 차분해지는 것 같아서 좋았죠. 그런데 법회를 보다보니 집에서도 저를 돌아보는 기회도 많아졌고, 제 급한 성격도 이제는 누그러졌어요. 그래서 저희 일곱 살짜리 아들은 법회 보는 걸 좋아해요. 어떤 날은 아침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엄마 거북이 같아'라고 말하더라고요."

끝으로 공덕해 보살은 아직 가정법회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조언 한마디를 남겼다.

"정말 중요한 건 마음이 났을 때 하고보는 거예요. 저도 일단 시작 하니 여기 저기서 지원도 들어오고 도움의 손길도 있더라구요. 아직 준비가 안됐다 면서 미루면 아무 것도 못해요. 일단 가족이나 도반들과 시작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봉사, 정진, 수행이 따로가 아니랍니다."

서원사

상담으로 불자가정 이끌어

각비 스님과 함께하는 가정법회 '인기'


가정법회를 통해 자신의 행복을 찾고 다른 이에게도 행복을 찾게 해주고 싶다는 서원사 신도들의 가정법회. 구랍 21일 서울 수유리의 한 가정집에서 열렸다.

서원사의 가정법회가 열린 구랍 21일 오후 4시 반 서울 수유리 1동 한 가정집에는 서원사 각비 스님과 여섯명의 불자들이 모였다. 집으로 들어가니 벌써 집주인(안선영 보살)이 켜놓은 향 내음이 정신을 맑게 한다.

이날 가정법회는 삼귀의, 계송, 발원문 낭독에 이어 정토삼부경을 함께 공부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그리고 모두 둘러 앉아 차담을 나누는 시간. 오늘 처음 참석했다는 거사님의 질문은 기칠 줄 모른다. <무량수경>의 내용에서부터 깨달음의 문제까지. 불자들의 심오한 질문과 유머러스한 답변이 이어졌다.

이 들 중 오늘의 주인공은 당연 엄마(집주인 안선영 보살)와 딸(김미숙)일 것이다.

"엄마랑 함께 집에서 법회를 보다보면, 스님과 상담하는 시간에 제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한 부분들을 알게 돼요. 엄마는 가장 가까운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죄송한 마음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김미숙양이 가정법회의 소중함을 말하자, 엄마도 고마움을 전한다.

"저는 우리 딸 덕분에 늘 부처님께 감사해요. 우리 아들과 며느리는 아직 부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큰딸이 이렇게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법회도 보니 얼마나 좋습니까. 딸처럼 아들 내외도 언젠가는 돌아 올거라 믿어요. 그것이 이제 마지막 제 바람입니다."

각비 스님은 "진정 불자들을 위해 해 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2009년 4월부터 가정법회를 시작했다. 앞으로도 쉬지않고 가정법회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불광사

법등모임이 곧 전법운동

35년 역사의 불광법회… 공동체 정신 이어


오랜역사를 가진 불광사 법등법회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이다. 사진은 강동구 둔촌동에서 열린 직장인 법등법회.

"우리 인생의 밝은 꽃은 무엇이 될 것인가 생각해 본다. 역시 착한 생각, 아름다운 꿈, 모두와 함께 기뻐하는 소망….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비록 작고 하찮아도 좋다. 그런 것이 내 마음을 밝게하고 기쁘게 하고 하늘 끝까지 숨 쉬게 한다. 우리 마음에 꽃을 심고 아름다운 소망을 가꿀 것을 생각한다." (광덕 스님 명상 언어집)

불광법회를 창시한 광덕 스님의 말씀이다. 광덕 스님은 재를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법회인 법등모임을 많이 갖도록 강조했다. 불광법회는 1975년 10월 16일 종로 대각사에서 부터 시작했다. 당시 사회적 상황에 비춰보면 불광법회가 커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리고 법회를 볼 장소가 필요해 지금의 불광사를 짓게 된 것이다. 이제 35년이라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불광법회는 탄탄하다.

구랍 21일 찬바람이 가시지 않은 겨울 아침, 불광사를 향하는 신도들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불광법회라는 바다에 가정법회(법등법회)라는 물줄기를 주관하고 있는 본공 스님은 "법등이란 전법(傳法)이며, 법등모임이 곧 전법운동이다"고 말한다.

"요즘 공동체가 무너졌다고들 하잖습니까? 하지만 법등법회를 통해 다시 살아날 희망을 봐요.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경조사를 챙기고 돕는 모습을 보면 참 기쁘고 보람을 느낍니다."

맑은 얼굴로 말을 이어가던 스님은 "역시 중생을 돕고 구하는 일은 의도적이기 보다 저절로 이뤄져야 한다"며 흐뭇해 한다.

불광사의 가정법회는 포교 활성화, 가족간 우애, 교육의 효과도 있다는 것이 주변의 평가다.

불광사에서 도반들과 함께 직장인법등법회를 보고 있는 문수월(45 · 이을선) 보살은 "바쁜 일상속에서 번잡한 일도 많아 마음 다스리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스스로 알아 그 마음을 버릴 수 있다"며 "요즘 같은 불황에 다들 어렵고 힘들지만 가정법회로 집안이 항상 편안하니 감사하다"고 말했다.

"처음에 도반들이 우리 집을 찾는다는 것이 번거롭기도 했어요. 하지만 부처님을 맞이한다는 마음을 내니 그 후로는 편안하더라구요. 이제는 도반들과 함께 법회를 보면서 신행경험담을 공유하고 속 깊은 이야기까지 나누니 갈수록 돈독해져요. 서로 반면교사인 셈이죠."

문수월 보살은 또 "기도로 제가 변하니 가족들도 서로를 이해하고 대화가 많아져 자연히 웃음꽃이 피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불광사 법등법회는 신앙생활을 더욱 효과적으로 하면서, 서로 돕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함께 수행을 하는 도반이자 선지식으로서 모두의 행복을 가꾸어 가는 불자들의 모임인 법등모임. 이 법회가 집집마다 마을마다 구역마다 도시마다 부처님 법을 전파하기 위해 행복바이러스를 감염시키고 있다.

佛紀 2554年 庚寅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문수산 축 서 사
문수선원
시민선원
불교대학, 대학원 축서사 합창단 일동
■ 경북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 054)672-7579

선아트스페이스
www.sunarts.kr
서울시 종로구 팔판동 61-1
Tel 02.732.0732
studio 선불화공방
academy 선그림
space 선+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 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돌고래 슈퍼 에너텍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194번지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가족이 하나 되는 길 경전이 말하는 화목한 가정 만들기

가족 부처로 섬기면 불국토가 '여기'

통계청이 구랍 21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 2009'는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거의 무너져 가고 있는 단면을 보여 준다. 통계에 따르면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1985년 6.9%에서 작년에는 20.1%로 급증했다. 아예 결혼을 하지 않거나 이혼 때문에 또 혼자 사는 노인이 는 게 원인이다. 1인 가구 증가와 더불어 가족 해체는 우리 사회의 또다른 어두운 이면이다. 부모의 이혼과 재혼, 또는 부모사망으로 인해 조부모와 함께 사는 조손(祖孫)가구가 2005년 기준으로 1995년보다 65%가 늘었다. 1인가구나 결손가정의 가장 큰 어려움은 낮은 소득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일자리 우선 공급 등은 정부의 몫이다. 그러나, 노인가구 등을 부모처럼 모시는 자비심을 발휘하는 일은 가장 좋은 사회안전망으로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가족 해체의 정도가 너무나 빠른 오늘날,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 온 가족이 하나 되어 화목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부처님 말씀을 통해 체득하고 실천해 보자.

#가정 화목은 수행과 삶의 근거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濟家治國平天下)'라는 명언이 있다. 수신(修身)은 자기관리요, 제가(濟家)는 가정의 화목이요,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는 직장, 사회, 국가에서의 리더십 발휘를 뜻한다. 재가에서 수행하는 불자들에게는 가정의 화목이 개인 수행과 일, 보살행을 실천하는 근거가 된다.

<무량수경>에는 가족과 친척 사이의 화목을 이루기 위한 방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세속에 사는 사람들은 부자 형제 부부 가족, 안팎의 친척 사이에 서로 경애해 미워하지 않으며, 유무상통하여 아끼는 일이 없으며, 말과 안색이 늘 화평하여 서로 뜻이 어긋나지 말도록 해야 한다."

#효도는 열반에 이르는 길

가정의 화목은 무엇보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아내는 시부모님을, 남편은 장인 장모님을 잘 모시는 것이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는 근본이다.

부처님은 <중아함 선생경>에서 자식의 도리를 이렇게 일러주셨다.

"자식은 다섯 가지로 부모를 대해야 한다. 부모의 재물이 불어나게 해야 한다. 부모를 대신해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한다.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도와드려야 한다. 불손하게 뜻을 어기지 않는다.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까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부모를 아무리 잘 봉양하더라도 부처님 법을 만나게 하는 일 보다 큰 공덕은 없다. 부처님께서는 <부사의광경>에서 "음식이나 진귀한 보물만으로는 부모의 은혜를 갚지 못한다. 부모를 인도해 바른 가르침으로 향하게 해야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된다"며 법보시를 강조하셨다. 부처님은 부모님을 깨달음의 길로 이끄는 구체적인 방편도 제시하셨다.

"만약 부모가 신심이 없거든 신심을 일으키게 해야 한다. 만약 계를 안 지키거든 계에 머무르게 해야 한다. 만약 성질이 인색하거든 보시를 행하게 해야 한다. 만약 지혜가 없거든 지혜를 일으키게 해야 한다. 자식이 이렇게 하면, 비로소 보은(報恩)이라 할 수 있다."(비나야율)

이와 같이, 부모를 공양하는 것은 공덕을 닦는 일인 동시에, 열반에 도달하는 수행의 방편이기도 하다. <금강계주수행경>은 "만약 총명한 지혜를 지닌 지자(智者)가 있어서 생사의 피안에 도달하려 한다면, 응당 부모를 존경해야 할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

#부모는 자식을 모자람 없이 보살펴야

부처님은 <중아함 선생경>에서 부모의 자식에 대한 다섯 가지의 도리를 이렇게 일러주셨다.



가족이 함께하는 템플스테이는 가정을 수행공동체로 만드는 소중한 기회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야 한다. 뒤를 보살피되 모자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자식에게 빚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때를 맞춰 결혼시켜 줘야 한다. 재물을 물려줘야 한다."

부처님은 아들 라훌라를 출가시켜 교육시켰는데, 다른 제자들 보다 더욱 엄하게 가르쳤다. 라훌라에게 한 가르침은 부처님의 교육관이 '타율' 보다는 '자율'에 의한 것임을 잘 드러내고 있다.

"라훌라야, 너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 사람들이 거울로 얼굴을 비춰보듯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렇게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즉 '이 일이 깨끗하고 옳은 일인가, 남에게 괴로움을 주는 일인가'를 살펴야 한다. 그리하여 착한 일은 행할 것이며, 악한 일은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모든 행동을 이렇게 한다면 너는 언제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것이다."(중아함 나운경)

#부부가 서로 존중하면 만사형통

부모님에 대한 효도, 자식에 대한 사랑과 함께 가정의 화목을 이루는 가장 원천적인 요소는 부부간의 사랑일 것이다. 신혼 때는 누구나 평생 애인처럼, 도반처럼 살아가리라 다짐하지만, 초발심(初發心) 때의 순수함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부부간의 신뢰와 존중 그리고 상호이해 등이 '둘이 하나로' 살아가는 백년해로의 전제조건임을 알면서도 뜻대로 안되는 게 부부간의 애정전선이다.

요즘처럼 남녀평등을 넘어선 여성상위시대에는 아내의 가족을 잘 모시는 것이 가정의 화목을 유지하는 최고의 비결이 된다. <중아함 선생경>에는 아내를 사랑하는 다섯 가지 방편이 나온다.

"아내를 어여삐 여겨야 한다.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 장신구를 해주어야 한다. 집안일을 맡기고 자유롭게 해주어야 한다. 아내의 친족들에게 소홀하지 말아야 한다."

부처님은 '남편을 사랑하는 법'도 설하셨다.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 일가친척을 잘 거두어야 한다. 공손한 말씨를 써야 한다. 남편이 돌아오면 칭찬하고 격려해야 한다. 맛있는 음식과 편안한 잠자리를 준비해야 한다."

애인 같고 친구 같고, 때로는 부모 같고 스승 같은 배우자는 500생의 인연으로 다시 만난 '나의 반쪽'이다. 서로에게 가장 큰 빚을 주고 받는 부부란 희유한 인연을 통해, 나란히 '의식의 진화'를 이루겠다는 발원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가족은 도반, 가정은 수행공동체

"친족이야말로 으뜸가는 벗임을 알아야 한다. 사람들이 다 친족을 알고는 있지만, 지극한 애정으로 근본을 삼으며, 정성을 앞세우고 의를 뒤로 미루는 태도를 취해야 비로소 같이 살 수가 있다."(출요경)

가정을 수행의 터전이자 자아실현의 장으로 여긴다면 가족을 도반이자, 선지식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한다. 이웃을 공경하기에 앞서 내 부모, 배우자, 자녀를 어른부처, 아기부처로 볼 줄 안다면 가정은 최고의 수행공동체가 아닐 수 있다. 가족 구성원부터 서로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본래부처(本來佛)가 불심으로 부처행을 하며 살아가는 불국토가 '지금 여기'에 곧바로 실현될 것이다.

김성우 기자

가정이 밝아야 세상도 밝다

농업을 기반으로 하던 시절, 모든 것은 가족단위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가족 그리고 조금 확대된 친족 그리고 나아가 마을은 서로 매우 깊은 연관을 맺으면서 운영되었으므로, 그것이 갖는 의미는 실로 컸다. 그러나 산업화 ·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핵가족과 개인주의가 확대돼 오늘날 가족의 의미는 퇴색되고 그 기능은 매우 약화되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가족은 생명의 근원으로 가족 간의 깊은 유대가 없이는 온전한 생명력을 느낄 수 없다. 자살, 폭력 등 사회 문제도 그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 상당부분 가족문제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땅히 서로를 보살피고 어루만져 주어야 할 가족 사이에 오히려 더 많은 상처를 주고 받고, 그로 인해 마음속으로 깊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리고 때로는 늙으신 부모님이나 나이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할 의무를 다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도 있고, 또 더러는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적절한 독립을 방해하고 속박하는 경우도 있다.

부처님께서는 가족 간에 서로 어떻게 대해야하는지 여러 경전에서 수차례 말씀하셨다. 부부 사이는 어떠해야 하고, 부모 · 자식 사이는 어떠해야 하며, 친족 간에는 어떠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가르침들이 참 많다. 따라서 사찰에서는 가족에 대한 불교적인 의미와 가족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가르침을 제시함으로써 가정을 행복한 보금자리로 만들며, 나아가 개별 가정과 가족 구성원들이 이타적인 삶을 살게 해 이웃을 돌보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회에서 가족을 주제로 한 법문과 강좌가 개설되고, 가족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가족법회 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돼야 한다. 현재 많은 사찰에서 가족법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가족법회라고 할 만한 곳은 극히 드물다. 단지 가족이 함께 법회를 참가한다고 그것을 가족법회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족들이 함께 자신들의 가족을 이해하고 가정의 현재를 진단하면서 미래를 예측하고 장단기 계획을 세우고 힘을 모아 목표를 이뤄갈 수 있도록 가족법회 프로그램이 실시돼야 할 것이다. 특히 여러 연령대인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필수적으로 준비돼야 한다. 그리고 생활주기별로 신혼기 부부, 자녀 양육기 부부, 은퇴기 부부, 노년기 부부 등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해 많은 사찰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종단 차원에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

가족법회 프로그램 개발 보급 시급

불교여성개발원에서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한 '혼인준비교실'과 주부를 대상으로 한 '행복가정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국 사찰로 확대되기를 희망한다. 다행히 몇 년 전 불광사와 공동으로 '불교와 가정'이라는 강좌를 개설하기도 했고, 조계사 등에서 아버지 교육, 청소년기 부모교육 등 본격적인 가족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불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비록 가족으로 만났지만 각자의 업에 따라 살아가고 있으므로 집착과 소유욕에서 벗어나 각자의 고유한 성품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불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데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무지와 세속적 욕망과 집착으로부터 좀 더 벗어나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관계가 가장 바람직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렇게 될 때 가정은 수행공동체이고 가족은 그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으로서 도반이 될 수 있다.

수행공동체로서 가정 내에서 가족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서로를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 이웃에게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때 자연스럽게 불교는 전파될 것이다.

"부자간에 형제간에 부부간에 친족간에 항상 서로 사랑하여 시기하거나 증오하지 말라. 안색은 항상 화평하게 하고 서로 멀리 있어도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라."(<무량수경>)



한주영
지혜로운여성 사무처장

태성전기난로
Tae Sung Power Heater
주문당일배송

불자님을 위한 특별할인 보급

300대 한정판매
TS 7300 (1.2kW) = 68,000원 ➡ 58,000원
TS 7200 (2.0kW) = 78,000원 ➡ 68,000원
TS 7000 (3.0kW) = 88,000원 ➡ 78,000원

강력한 화력 / 저렴한 유지비 / 잔고장이 없는 강력난방

실내전체가 훈훈한 태성전기난로 유지비까지 저렴하고 정말 좋네요!



고구마, 떡도 익히는 고열량 방출

가습기 기능
주전자에 물을 담아 올려 놓으시면 건조한 겨울 실내의 습도를 유지하여 가습기 역할을 합니다.

특별할인가 58,000원
▲TS-7300 적용면적 : 10.56㎡ (3.5평형)
열량/ 1.2kW • 사이즈/325×540mm • 무게 / 3.2kg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9.50×1.2kW×8=667원
●TS 7300 안전인증번호 SH07345-8002A

특별할인가 78,000원
◀TS-7000/ WJ3000 적용면적: 24㎡ (7~10평형)
열량/ 3.0kW • 사이즈/355×660mm • 무게 / 4.1kg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9.50×3.0kW×8=1,668원
●TS 7000 안전인증번호 SH07345-8001

특별할인가 68,000원
◀TS-7200/ WJ2000 적용면적 : 16.5㎡ (5평형)
열량/ 2.0kW • 사이즈/325×540mm • 무게 / 3.3kg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9.50×2.0kW×8=1,112원
●TS 7200 안전인증번호 SH07345-8002
※가정용 전기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사무실, 상가 등 일반전기, 산업용전기 사용은 제외)

360° 강력한 화력! 저렴한 전기료!
편리한 이동성! 전기 난로의 진정한 强者!

초강력 난방으로 전기료 절약!!
1일 8시간 사용시
3kW 기준 1,668원
(누진세 미적용)

실내전체가 훈훈해지는 태성전기난로
일반히터는 히터주변만 따뜻하지만 태성히터는 실내온도를 상승시켜 실내공기를 훈훈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스토브가 넘어지면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전도 안전스위치 부착"

태성전기난로 이런 곳에 사용하세요
■ 24시간 쾌적한 난방이 필요한 곳과 지속적인 연료 주입이 어려운 장소
■ 상주 인구가 많아 산소결핍으로 자주 환기를 해야 하는 곳
■ 이동 인구가 많아 시설물 손상에 의한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곳
■ 대형매장이나 식당 등 주난방은 있으나 사각지대가 있어 보조난방이 필요한 장소

100% 국내산/중국산과 비교불허!
●복고풍 디자인의 안전한 전기히터
●좁은 공간에서도 편리한 소형본체
●전도 안전 장치로 쓰러지면 자동으로 전원차단
●이동이 간편하고 온도조절이 용이
●상판위에 물을 데워 실내가습효과
●360도 전방향 적외선 열기전달
●무소음 / 무취 / 무연

1년 무상 A/S보장!
저렴한 유지비로 초강력 난방
전국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중

주사용처 : 사무실 등 협소한 장소, 이동이 잦은 곳, 접객업소(식당/주점/팬션)

구입문의 : 080-810-8800
입금계좌 : 농협 302-0127-6837-61 양유정 (택배비 2,500원 소비자 부담)

부처님처럼 길 위에서 사색하다



움직이는선원 대중들이 순례 출발에 앞서 '100대서원 절명상을 올리고 있다.

이날 서봉암 주지스님과의 차담을 비롯해 도법 스님은 순례일정에 포함된 사찰마다 지리산 성지화 운동에의 동참을 당부했다.(아래)

기원하는 '100대 서원 절 명상'을 시작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가치의식과 삶의 방식을 확립하는 것이 생명평화의 길임을 마음에 새기며 절을 올립니다.'

하루에 두 번 빠짐없이 올리는 절 명상이지만 일 배 일 배 올리는 모습이 경건하기 그지없다.

절 명상 이후 지원팀은 도법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에게 하루 동안 걸을 구간을 설명했다. 16일 걸은 구간은 동점마을에서 청학동마을까지 15km가량. 산림도로 포장으로 인해 2.5km 더 올라간 지점부터 시작해 점심은 양천사에서 해결한다.

도법 스님은 지원팀의 일정소개에 '각 방문 사찰 일정을 미리 알아 찾아야 한다'는 호통아닌 호통을 내렸다.

그동안 거쳐온 사찰은 화엄사, 천은사, 죽림정사 등 규모있는 사찰부터 작은 암자까지 다양했다. 스님 홀로 있는 암자의 경우 오전 · 오후 공양시간에 여러 스님들이 찾는 것조차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함이다.

서봉암을 나선 선원 대중들은 지원팀과 함께 차를 달려 전날 저녁 순례가 끝난 동점 마을로 이동했다.

지원팀이 떠난 산 입구부터 점심공양이 예정된 양천사까지 길은 오로지 스님들의 사색을 위한 공간이었다.

당초 스님들 간 거리는 10m가 넘지만 이날은 취재를 위해 거리를 좁혔다. 앞선 스님의 바랑마다 걸린 '지리산의 꿈'이 찬바람에 나풀거리며 뒤따르는 도반을 이끈다.

새소리, 바람소리 등 지리산의 일체는 죽비와 목탁으로 대중을 바른 정신을 경책했다. 사색에 깊게 잠긴 모습에 '찰칵 찰칵' 나오는 카메라 소리, 뛰어다니는 취재의 움직임도 조심스럽다.

1시간 가량 걸었을까. 지리산 산림도로 포장 구간이 나온다. 산림도로를 포장하던 인부들도 조용히 인사를 올린다. 자갈길을 시멘트로 덮고 있는 모습이 마치 지리산의 목을 죄는 듯하다. 좁디좁은 자갈길을 시멘트를 실은 덤프트럭이 굉음을 내며 지나간다.



'자갈길로도 충분한데 왜 시멘트를 덮는 것일까?'

지난 여름 내포문화권 조성사업으로 진행된 가야산 순환도로 추진건이 떠올랐다.

당시 수덕사 스님들의 '백제미소의 길' 걷기 등을 비롯한 충남지역 불교계의 거센 반발로 순환도로건립안은 폐지되고, 숲길 트레킹 코스로 전환된 바 있다.

반나절간의 동행 이후 선원 대중들은 양천사에서 점심 공양을 먹고 오후 순례를 소화했다.

이날 순례에 대해 원묵 스님은 움직이는선원 홈페이지(www.jirisan.org) 후기에 소감을 남겼다.

원묵 스님은 "걷다가 산면을 마치 도려낸 듯 크게 깎아내는 곳을 보았다. 사람이 저렇게 큰 상처가 난다면 얼마나 아파할까? 산과 숲은 말을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닐 것이다"고 말했다.

원묵 스님은 이어 "하동댐을 지나는데 하동댐을 조망하는 숙박시설이 보인다. 조이랜드 **텔이라는 이름의 건물은 을씨년스럽다.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개발의 미래가, 혹은 천사령 군수가 꿈꾸는 지리산 댐의 미래가 이렇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원묵 스님은 끝으로 "거기에 그것이 있으니 그곳이 빛나고, 그래서 그 곳에 가고 싶다 이래야 하는 거니까"라며 화두에 대한 스스로의 답을 구했다.

이날 길에서 대중 스님들이 든 화두와 답은 무엇일까. 답은 지리산에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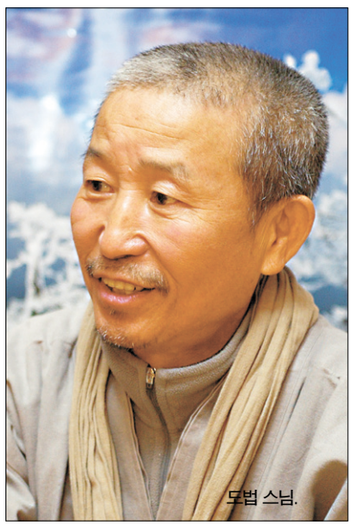
글=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o@hanmail.net

"지리산을 불국토의 큰도량으로"

움직이는선원 선감 도법 스님

구랍 16일 서봉암에서 만난 도법 스님(사진)은 "불교는 성장할 수 있는 분야에서 거의 대부분 성장했다"며 "불교계도 이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조선시대와 일제시대, 그리고 해방 이후 한국불교가 민주화 등을 거치며 체계적이고 세련되어진 반면 지역과 호흡하지 못함을 꼬집은 것이다. 스님은 이날 순례기간 동안 한국불교의 변화를 화두로 궁구한 답을 쏟아냈다.



도법 스님.

-동안거 기간 지리산에서 행하는 행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현대인들은 자동차 등 기계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패스트푸드를 먹고 현대식 건물에 살며 환경호르몬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회 · 경제적 문제를 넘어 인간 본연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현대인들에게 '걷기'를 통한 삶의 방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시골과 산중의 할 일입니다. 새로운 산중 문화운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리산 성지화 운동은 새로운 불교운동입니까?

"지리산 성지화 운동은 민족 모산인 지리산만큼은 불교계와 지역민이 하나 된 마음으로 호흡 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상사 작은학교의 경우, 실상사는 실상사 대중 살림으로 운영이 벅차 내용적으로 해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찰과 스님들이 마음껏 해보라는 의미로 터를 제공하니 뜻있는 재가자들과 대중이 모여 스스로 알아서 일궈냈습니다.

스님들의 역할은 바로 이 것입니다. 사회가 변했고 다양한 능력과 뜻이 있는 재가자들이 많습니다. 스님들이 권위의식, 사심을 버리고 재가자를 믿어야 합니다."

-사찰 · 출가 중심에서 벗어나자는 것 입니까?

"탁발순례 중 서울 순례 당시 빈민촌을 간 적 있습니다. 그곳에서 가톨릭 신부님들과 수녀님들을 보았는데 공양주 없이 직접 밥하고 재봉틀로 옷을 기우며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에서 위화감을 없애고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 입니다.

가톨릭의 경우 수녀 1만 3000명을 비롯해 수사 등이 2만 명을 넘습니다. 조계종은 스님들이 1만 2000명 수준입니다. 하지만 지역 대중과 어울리지 않는 스님들이 많습니다. 기존의 사찰을 관리하는 것조차 벅찬 실정입니다. 스님들은 수행과 교화에 앞장서고 사찰관리 등은 전문성 있는 재가자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출가와 재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모아 그늘을 제공하는 것이 스님들이 할 일입니다. 현재 불교계는 주지들이 가장 활발히 대중 활동을 펴야 하는데 말 겨진 일도 많을뿐더러 절 살림하느라 바쁜 실정입니다. 총무원 등 종무행정 전반을 재가자가 관리하고 스님들은 정치와 행정을 떠나 현장에서 중생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한국불교는 절에 너무 의존합니다. 이래서는 불교가 침체됩니다. 자꾸 '위신이 없어진다' '사회 위상이 낮아진다'고 하는데 역할을 하지 않으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긴 차담에 이어 스님은 "지리산을 다녀보니 이 일이 아니었으면 지리산 사찰을 다 둘러볼 수 있었는지 싶다"며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스님은 끝으로 "좋은 생각을 가진 스님들이 많은데 한데 모으질 못하고 있다"며 "흙탕물도 모이면 더 더러운 것을 쓸고 내려가는 힘이 생기고, 맑은 물도 흘어지면 물방울 일 뿐"이라며 불자들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64형으로 나누어서 본
나의 체질을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나의 체질을 알아야 나에게 맞는 음식. 맞는 과일. 맞는 차를 알고먹어야 병을 만들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제마의 사상의학공부를 40년 넘게 하면서 손등의 피부를 만져보면 정확한 체질을 알려드리오니 시간을 꼭 내셔서 만나보세요.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적인 병은 무엇이며 현재 병증은 왜 있는지를 체질을 알면 다 알수있기에 궁금하신 분, 사는 동안은 아프지 않고 살고 싶은 분은 찾아오세요
현재 병증이 나오면 한약차로 처방을 해주는데 드셔보면 5일 안에 변화를 본인이 느낍니다.

아토피 피부병은 바로완치됩니다.

스님들께는 건강한 몸으로 수행하시라고
모든 특혜를 드립니다

상담연락처 010-9373-3778

統合佛教儀式大典 出刊



총1,2권 2,100 페이지
가격 : 전권 200,000원
크기 : 4×6배판(19×26cm)
본문법화의식대전 / 총1권 : 100,000원

사십구제편	고사편	추천인
1.입재 불공의식 ○화엄시식	1.가정안택의식	韓國佛教 太古宗 宗正
2.삼우제 불공의식 ○삼우제시식	2.사무실고사의식	太古叢林 仙巖寺 方丈 釋 慧 草
3.초재 불공의식 ○지장시식	3.자동차고사의식	中央僧伽大學校 總長 宗 梵
4.이재 불공의식 ○보현시식	4.선박고사의식	
5.삼재 불공의식 ○문수시식	5.삼재살해소의식	
6.사재 불공의식 ○미륵시식	6.태아영가시식	
7.오재 불공의식 ○보문시식		
8.육재 불공의식 ○묘음시식		
9.칠재 불공의식 ○관음시식		

統合佛教儀式大典
문의전화 : 055)747-8350,017-552-7350
계좌번호 : 농 협 801814-51-031377 예금주 : 김춘길
우체국 612713-02-023012 예금주 : 김춘길

수제화
고무신코 만 행 화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방한용털신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특무명털신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5mm단위)

부츠(여)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자연색

최고의 선 물

조각무명
특 무 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자연색

사계절단화
풍산동 99%
지압식 깔창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검정

지압깔창 발명특허원41435
풍산동 99% • 가격 : 20,000원

NAVER 통합검색 만행화 검색
인터넷쇼핑몰 만행화를 검색해 보세요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합장

◆ 동안거 결재중 법공양 올리실 사부대중님의 전화상담 받습니다 ◆

최종

佛紀 2554年 庚寅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불교문화대학원 동림동문회

고 문 성본
자 문 신풍, 대광, 학산
명예회장 송월, 달오, 심산
회 장 무상
수석부회장 유방
부 회 장 오심, 법산, 효신, 청암, 법안
이 사 고담, 혜광, 혜연, 만우, 구상, 명천, 제민, 성구, 혜성, 보문, 도경 ,관성, 무애, 광진, 백성, 법관
감 사 성화, 법초
사무총장 효선
재무부장 선웅
기획부장 일원
총무부장 보덕
간 사 김영수

사무국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1동 370-5 부산은행 5층
회장 017-743-8801 / TEL 070-7630-2253
E-mail : donglimdongm@naver.com

釜山佛敎實業人會
妙 光 禪 院

회 장 김윤환
고 문 강병중, 최 찰, 서춘석, 박수복, 이상태, 하문원
부 회 장 조재원, 이근철, 임정웅, 이달수, 황인관
감 사 안인성, 지호경
총무이사 신병호
재정이사 이학성
사업이사 이환길
관리이사 이규인
재정자문 김정웅

회원 및 마야부인회 회원일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1동 401-9
부산불교실업인회관 4층
대표전화 070-8133-9917

대한불교조계종

해 운 정 사

조 실 진 제
분원장 지 성
명예회장 서석인
신도회장 정대원행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1동 410번지
TEL 051)746-2256, 4812
www.seon.or.kr

대한불교조계종

弘法寺

國際佛光會 韓國釜山協會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한나래문화재단

주 지 **深 山**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동 1220-1
TEL. 051)508-0345
FAX. 051)508-6561
www.busanbuddhism.com
E-mail: 5080345@hanmail.net

대한불교조계종

불교문화 중심도량

동명불원

주 지 정 산
사부대중합장

불교문화아카데미 (수시모집)

* 불교기본교육 : 매주 (월) 오후 2시, 8시
* 경전교육 : 매주 (목) 오후 2시
* 염불공덕회 특강 : 매주 (금) 오후 2시
* 홍승 스님의 사찰음식 강좌 : 매주 (수) 오후 2시, 8시
* 희상 스님의 선화그리기 강좌 : 매주 (화) 오후 2시
* 생활차 만들기 강좌 : 매주 (금) 오후 2시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507번지
TEL 051)624-7667, 626-4337

대 한 불 교 조 계 종

대광명사

대광명 불교대학
<부설> 참마음노인방문요양센터

주 지 목 종

신도회장 최중식

사부대중 일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1동
해운대로데오아울렛 B동 3층
TEL 051)742-7610
FAX 051)742-7606
www.daekangmung.com

가장 행복한 공부로의 초대
월암 스님과 함께하는 참선교육

행복禪수행학교
제2기 교육생 모집

- 개 강 : 불기 2554(2010년) 3월 12일 금요일
- 과 정 : 2년 4학기제
- 강의시간 : 매주 금요일 (주간반) 오후 2시
  (야간반) 오후 7시 30분
- 모 집 : 주 · 야 각 50명
- 접 수 : 051)253-8686, 8808

체계적인 禪 공부를 통하여 대승보살의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禪 수행자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용두산 미타선원

주 지 하 림 합장
사부대중일동

부산시 중구 광복동 2가 1-11번지
(용두산 공원에스컬레이터 첫 번째 하차점)
종 무 소 TEL 051) 253-8687~8
행복선수행학교 TEL 051) 253-8686, 8808
www. mitazen.net

파초여행주식회사

인도불교성지순례!
누구나
한 번은 다녀와야 할 성지 중의 성지
영혼의 고양을 위하여!
청정한 마음으로
성지순례를 안내드립니다.

「인도성지순례 전문 파초여행사」

대표이사 이원겸 합장

부산시 중구 대창동 2가 37-3
센트럴오피스텔 706호
전화 051) 808-7370
긴급 010-8817-0162

경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신협에 가면
즐겁습니다 "

◆비과세로 훨씬 높은 수익률
◆빠르고 편리한 신협 대출
◆정부보증 서민지원대출

성의신협 불교지점

부산시 진구 범천1동 847-18번지
TEL 051)633-9120~3

불교교육 전문기관

부산불교교육대학

학 장 서해 흥교
이 사 장 강선태
운영위원장 현익채
총동창회장 조민정
신 도 회 장 손정숙

회원일동 합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2동
426-7번지 신동아 O/T 5층
TEL 051)711 - 0700
FAX 051)711 - 0703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

<부설> 대자유치원 · 토월도솔유치원
진해 자은 도솔 어린이집 · 영축불교대학

주지 호암지태

신도회일동

■ 경남 마산시 추산동 65-2
TEL 055)246-8393, 245-6544

자비실천수행도량

미 룡 사

회 주 정 각
주 지 청 명
법 사 범 진
신도회장 광운(김동열)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1동 323-194
TEL 051)404-4300, 2100, 403-4848
FAX 051)403-4860 E-mail:jbw000@chol.net

(사)부산불교지도자포럼

고 문 김재진, 김재운, 설동근, 조효식, 최칠관
회 장 박수관 수석부회장 이윤희
부 회 장 권청길, 김수현, 이상수, 이시영, 박순곤, 장남인, 허인구
감 사 권기우, 이종우
사무총장 박영근 재무총장 정원종
총무이사 장병주 기획이사 안병호
섭외이사 배도정 홍보이사 김상훈
천목이사 노종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512-3 정산빌딩 9층
TEL 051)334-0108 / FAX 051)867-4397

보건복지부지정

사)생명나눔실천본부 부산지역본부

나눔은 습관이며 베풂은 수행입니다!!

본 부 장 원범
부본부장 자인, 목종, 신익철
감 사 심산, 이경순
총무이사 해암, 문수용 기획이사 마나, 이욱태
재무이사 법안, 박성미 홍보이사 혜산, 김성수

이사일동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1동 393-12 불교회관 500호
TEL 051)853-0429 / FAX 051)853-0439
http://www.bslisa.or.kr

불교지성인의 전당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반야회 동산불교대학**

법주 무진장 이사장 안동일

동산가족일동

www.dongsanbud.net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2-1206 / FAX 02)732-1207

대한불교조계종

영 주 암

[부설] 양정청소년수련관,
영주암유치원, 영주암어린이집

회 주 불국정관
주 지 범 산

신도일동

■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1동 950
종 무 소 051)754-2210 유치원 051)754-6120
어린이집 051)755-2888 수련관 051)868-0750

사회복지법인 화엄도량

홍 제 사
황 령 선 원

선원장 혜 국
사부대중일동

- 매월(음) 초하루법회, 화엄경강의, 초사흘 신중기도
- 매주 월요일 다라니기도 : 오후7시~9시

■ 부산광역시 진구 전포3동 산 51-2
TEL 051)802-0130, 807-8300

삼천불 봉안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정 토 사

주지 산하덕진

사부대중일동

조계종 신도 전문 교육기관
정토불교대학
무료급식소 : 밝은세상
울 산 시 민 선 원

■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803-5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 금강암

주지 정 만

대중일동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546
TEL 051) 508-4509 / FAX 508-4870

신비령산
마이산 탑사

회주 혜 명
주지 진 성

전국신도회 및 갑룡장학회 일동

■ 경북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 8번지
TEL 063)433-0012

주변 사람과 하나 되는길 진주 대선직물 남정갑 불자 가족

“노력하며 사는 이유는 모두 함께 잘살기 위해서…”



형제 · 자매가 함께 사찰을 찾는 진주 대선직물 남정갑 불자가족. 왼쪽부터 남정갑 대표, 딸 남승희씨, 처형인 이정자 보살(왼쪽에서 네번째)과 손녀 황서영, 막내 처제인 이현숙 보살과 부인 이귀연 보살.



이정자 보살(왼쪽)과 이귀연 보살 등 가족들이 승합차에 타 활짝 웃고 있다.

영진 · 송암 스님 오랜 인연으로 온 가족 ‘불심단결’
형제 · 자매 한마음으로 한 차 타고 사찰 찾아

어느 날, 조계종립 특별선원 문경 봉암사에 회색 승합차 한 대가 들어섰다. 대중공양 온 보살이려니 했는데 조금 달랐다. 차에서는 보살도 내리고 거사 · 아이도 내렸다. 10명이 넘는 인원이 저마다 얼굴에는 환한 미소를 띄우며 쏟아져 내리는 듯 하차했다.

부처님오신날 등 법회 때마다, 동안거 · 하안거 철마다 그들은 전국 사찰을 누볐다. 그 승합차를 비롯해 일행의 차가 서는 곳이면 어김없이 똑같은 사람들이 내렸다. 진주 남정갑(대선직물 대표이사) 불자 가족이다.

절에 다니는 불자 중 대부분은 혼자거나, 두어 명이 일행이다. 그 수가 많더라도 친구, 동창 등 남남으로 모인 사이가 대부분이다. 가족이 함께 절을 찾는다 해도 대여섯명 규모의 직계가족 뿐인 경우가 많다. 이렇다보니 10명 넘는 인원이 꼭 함께 절을 찾는 남 대표 가족의 사연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 실크 생산의 5대산지인 진주 시내에 위치한 남정갑 대표의 자택을 찾았다. 길에서 보인 간판은 대선직물. 실크 가공산업 특성상 가내수공업으로 시작한 경우가 많다보니 대선직물이 곧 남 대표의 집이었다.

이날 남 대표의 집에는 대표의 부인이자 5남매 중 셋째 이귀연 보살(선행화 · 51)을 비롯해 맏이인 이정자 보살(문수화 · 68)과 막내 이현숙 보살(45 · 합천가족사랑상담소장) 등 5남매 중 세 자매와 남 대표의 장녀인 남승희(26)씨, 이정자 보살의 손녀 황서영(9) 어린이가 자리했다. 다른 가족들은 바쁜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지만, 다들 절을 찾을 때면 열일을 제치고 하나가 된다. 비단 5남매 가족뿐만 아니라 남 대표의 동생 남정근 거사(52) 가족까지 모두 모인다.

가족의 불연(佛緣)은 4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젊은 시절 우울증 등 신경성 질환에 시달리던 이정자 보살은 동네 할머니들을 따라 진주 호국사에 올랐다. 마실 물을 뜨러 새벽마다 호국사를 찾던 일행을 쫓아 이 보살도 열심히 절에 다녔다. 그때 새벽 3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절집 문을 열던 어린 스님이 한 분 있었다. 영진 스님(現 봉암사 한주)이었다.

하지만 스님의 얼굴만 익혔을 뿐 보살은 스님과는 말 한마디 나누질 못했다. 몇 해가 지났다. 당시에는 노보살들이 스님을 찾아가 절에서 환갑잔치를 열었다. 어느 노보살의 환갑잔치를 따라 산청 율곡사를 찾았는데 그곳에 영진 스님이 있었다. 보살은 스님을 알아봤지만, 스님은 보살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또 몇 해가 지났다. 해인사를 찾았던 보살은 법당에서 염불하던 영진 스님을 만났다. 스님은 “진주 호국사 신도였냐”며 “안면이 있다”고만 말했다. 그러고만 말고 헤어진 스님을 다시 만난 것은 1995년 설악산 봉정암. 영진 스님과의 인연은 그것이 마지막인 듯 했다.

1989년, 남정갑 대표가 사천서 가내공업 형태로 사업을 힘겹게 꾸려갈 때였다. 그때 지금은 작고한 오빠가 이귀연 보살에게 “화투 치던 사람도 팔공산에 오르고 나면 끗발이 오른다”며 팔공산 갓바위에 가볼 것을 권했다. 그 오라버니가 운명했을 때 시달림 온 스님이 있었다. 지금은 부산에 있는 송암 스님이었다. 순간 남 대표 가족은 맑아 보이는 스님이 세상의 때가 묻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토굴이라도 지어드리고 싶었다. 사업이 어려워 형편도 안됐지만 온식구가 나서 지리산 일대를 누비며 스님에게 시주할 절 지을 터를 찾아다녔다. 하지만 인연터는 쉽게 나타나지 않았다. 남 대표 가족이 지리산을 누비는 동안 다른 인연이 생겼던지 그 스님은 부산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던 때, 남 대표 부부는 산책삼아 진주 월아산을 찾았다가 천곡사 뒤 성운암에 이르렀다. 그곳 스님의 “봉정암은 다녀온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부부는 불현 듯 영진 스님이 생각나 되물었다. 영진 스님과 도반이었던 성운암 스님은 “영진 스님이 지리산 자락 토굴에서 수행 중”이라며 알려줬다. 너무나 반가웠다. 부부는 다시 남원 실상사 등에서 묻고 물어 스님을 찾았다. 반가운 마음에 자매 형제 할 것 없이 온가족이 함께 영진 스님을 만났다. 2002년의 일이었다. 이때부터 남 대표 가족은 스님과 절을 찾을 때면 언제나 함께 다녔다. 승합차를 타고, 자리가 모자라면 승용차를 더했다.

스님을 다시 만난 후 가족은 어렴풋이 오가며 배웠던 불교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다. 막연했던 부처님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알아갈수록 집안일도 잘 풀렸다.

남 대표의 사업장은 4년 전 사천에서 진주로 확장 이전해 이제는 한복지 · 넥타이 · 인테리어 원단 등을 두루 취급하게 됐다. 딸도 이화여대에 진학해 석사과정까지 마쳤다.

남 대표는 “IMF금융위기를 비롯해 최근의 미국발 금융위기까지 불경기로 다른 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해도 우리 사업장은 오히려 식사할 시간도 없이 바빴다. 최근에는 진주 문산단지에 1200평을 분양받아 사업확장을 준비 중”이라 말했다.

현재 대선직물의 직원 수는 40여 명이다. 남 대표는 문산단지에 새 공장을 짓고, 인터넷을 통해 판로도 다양하게 개척할 예정이다.

이귀연 보살은 “영진 스님이 많은 사람 먹여 살리고 베풀고 살라며 내게 ‘선행화’라는 법명을 지어 줬다”면서 “공장과 집을 오가는 생활을 하면서 직원도 내식구라 생각하며 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창부수라 했던가. 남 대표도 “나와 내 가족 먹고 살려면 위험을 감수하며 사업을 확장할 필요는 없다. 여럿이 함께 잘 살기 위해 함께 노력하며 사는 것 아니겠냐”고 거들었다. 남 대표는 직원과 함께 나누는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간부를 중심으로 직원들을 사업별로 분사시키는 방안 등도 추진 중이다.

이어 남 대표는 “지금까지 몸으로 해오던 것을 제대로 해보려고 동생도 같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숭실대 섬유학과에 재학하다 군복무중인 아들을 전문경영인으로 키워 대를 이은 가업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남 대표를 비롯해 이귀연 보살 자매는 모두 <법화경> 사경을 하고 있다. 이귀연 보살은 진주 연화사 등에서 활발한 신행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진주 관음암 신도회장까지 맡았다.

“가정과 사업이 안정되면 단기출가 등을 통해 불교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이 보살은 108순례단에도 동참 중이다. 이 보살은 “사찰 방문시 마다 받는 염주로 108염주를 만들어 가보로 남기고 싶다”고 말했다.

언니인 이정자 보살은 “그저 마음이 편하고 싶어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따를 뿐이다. 하지만 불교를 알면 알수록 ‘내 눈에 안보이는 것부터 좋아진다’는 옛날 노보살 이야기를 새록새록 체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천의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 진주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실크 전제품을 취급하는 대선직물 남정갑 대표의 성공 뒤에는 형제 · 자매 등 온가족이 한마음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따른 신심과 원력이 있었다.

글=조동섭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佛紀 2554年 庚寅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북한산 노적사
주지 종후
사부대중일동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331번지
TEL 02)353-5016

한국불교태고종
무량사
주지 무공무상
태고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단법인 대륜불교문화
(태고)연구원 이사장
■ 서울시 강북구 수유4동 584-12호
TEL 02)904-0016,0081

대한불교조계종
내원정사
주지 현문
사부대중일동
■ 서울 동작구 상도1동 788번지
TEL 02)814-5502

대한불교조계종
봉국사
주지 김월서
신도회장 구광명화
대중일동
■ 서울시 성북구 정릉2동 637번지
TEL 02)919-0211~2 / FAX 02)919-0216

대한불교대승종 총무부장
안화정사
주지 혜암
사부대중일동
■ 강원 횡성군 둔내면 두원리 951-1
전화 033)342-3721 / 016-345-0108

대한불교조계종
약왕사
주지 일산
신도일동
■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371
전화 043)882-2380 / 011-9844-4964

대한불교조계종
영축총림 통도사 옥련암
감원법선
신도일동
■ 경남 양산 하북면 지산리 583번지
전화 055)382-7090, 383-1111
FAX 055)383-1118

대한불교조계종
전등사
주지 혜경
대중일동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635번지
TEL 032)973-0152, 0025
www.jeondeungsa.org

대한불교조계종
월봉사
울산시립노인요양원 · 룸비니유치원
주지 원장 오심
신도일동 · 임직원일동
■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산60번지
종무소 052)251-4602 / 유치원 052)236-2626
■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2지구 37B3N
요양원 052)246-8061~2

대한불교조계종
염불사
주지 성직
사부대중일동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 산 17번지
TEL 03)471-2300

강관 사람이 하나 되는 길 4대강 발원지에서 띄우는 편지

흐르고 흘러 만생명을 기르는 국토의 젖줄

보살님, 4대강 보살님.
지금 대한민국은 '4대강 개발'을 두고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개발논리와 반대논리가 밀어붙이려는 세력과 저지하려는 세력으로 패를 나눴습니다.
지역이기주의와 당리당략이 정쟁으로 번져 있습니다. 이 땅의 뭇 생명을 기르는 젖줄로서 그 흐름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보살님의 깊고 유장한 품에 삽을 대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의 갈등, 그 본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갈등의 시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보살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살님의 정수리 그 그윽한 발원(發源)의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경인년 새 아침 4대강 보살님 심귀명 하오며…

한강 발원지에서 일체법의 순환을 생각하다



정암사 보궁에 삼배올리고 겨울바람에 깨져 나가는 수마노탑 풍경소리의 영롱한 빛살에 몸을 기댔습니다. 함백산 드높은 고갯마루에서 아스라이 조망되는 대간의 물결들. 너울대는 산자락들을 눈으로 어루만지니 감격은 차라리 서글픔으로 복받쳐 올랐습니다.
태백 시내를 에돌아 17Km를 달려가 마주치는 검룡소. 곧게 뻗은 낙엽송 오솔길을 걸어 올라가며 자꾸만 머리카락이 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해 바다의 이무기가 용이 되고자 한강을 타고 올라와 샘으로 들어갔다는 전설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이무기의 몸처럼 구불구불한 개울을 따라 오르는 동안 발원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물과 일에는 그 근원이 있고 구도자에게는 초발심이 있습니다. 처음이 왜곡된 일에 끝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전도를 떠나는 제자들에게 "설법을 할 때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도록 하라"고 하셨지요.

낙기실자기수(落基實者基樹)
음기류자기원(飮基流者基源)
과일을 먹으며 그 나무를 생각하고
물을 마시며 그 근원을 생각한다.

중국 남북조시대 북주의 유신(庾信 513~581)이 나라를 잃고 타국에서 목숨을 부지하면서도 물 한 모금의 근원을 생각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던 것도 큰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처음, 근원을 생각하는 숙연함이야말로 인간세상을 정토로 만드는 근원일 것입니다.
하루 2000톤의 맑은 물이 솟아오르는 검룡소. 겨울나무들이 빼곡하게 투영되어 또 하나의 숲을 이룬 샘을 들여다보며 알몸으로 퐁당 빠져 버리고 싶었습니다. 나를 길렀던 처음의 물, 어머니의 태속에서 헤엄치던 그 물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1억 5000만 년 전에 형성되었다는 석회암 동굴 검룡소는 어머니의 자궁처럼 생겼습니다. 거기서 첫울음 터드리듯 솟구쳐 오른 물들이 무한의 생명력을 머금고 개천으로 흐르다 또 다른 개천을 만나 냇물이 되고 냇물로 흐르다가 또 다른 냇물을 만나며 넓이와 깊이를 더해 강줄기를 만듭니다. 강줄기는 다시 수없는 개천과 냇물을 끌어안으며 흐름을 멈추지 않습니다.

보살님, 검룡소에서 일체법의 순환구조를 생각했습니다.
한 번의 흐름으로 끝이 아니고 다시 돌아와 흐를 것이라는 믿음이야말로 한 번의 흐름을 제대로 흐르게 하는 정신이 됩니다. 강의 흐름은 공간으로 진화해 가는 행로이기도 하고 시간으로 향상되어가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사람도 한 생으로 모든 것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무수한 생을 반복했고 지금의 삶을 마쳐도 다시 돌아와 무량한 생을 더 살아야 한다는 믿음이 있기에 눈 한번 마주치는 인연도 예사롭지 않은 것입니다.
검룡소의 물길이 떠나는 여정은 1000리(405.5㎞)입니다. 삼척 대덕산(大德山:1307m)의 정기를 끌어 모아 남서쪽으로 흘러 영월읍에서 평창강(平昌江)을 합치고 충북 단양군을 지나며 서쪽으로 흐름을 바꾸어 제천시를 거쳐 충주호(忠州湖)에 27억 5000만의 물을 채우고 시설용량 40만㎾의 발전소(1985년 준공)를 움직인 다음 북서(北西)로 유로를 바꾸어 달천(達川)을 합쳐 충주시를 지나서 경기로 들어갑니다. 강원도와 경기도 어름에서 섬강(蟾江)을 합치고 이어서 청미천(淸渼川)을 합류하여 북서로 유로를 잡아 여주군을 관류하면서 양화천(楊花川) 복하천(福河川)을 받아들입니다. 양평군으로 들어서면서 흑천(黑川)과 만나 서쪽으로 유로를 돌려 북한강과의 합류점인 두물머리에 이르고 서울의 25개 교량 아래를 흘러 임진강을 만나 조강(祖江)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그리고 강화도를 끼고 서해로 흘러들어 5대양에 몸을 풀어 넣습니다. 이토록 유장한 흐름의 끝이 어찌 바다라고 말 할 수 있겠습니까? 흐름에는 끝이 없습니다. 흐름 그 자체로 흐르고 흐를 뿐입니다.
보살님, 흐름을 멈추려 하고 흐름을 바꾸려 하고 흐름을 강제하려는 발상을 보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4대강 개발'을 앞두고 입장과 입장, 세력과 세력이 대립하는 이유를 일체법이 순환하고 결국 하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깊이 통찰하지 않은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강에 의존해 온 역사는 길어도 강이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거나 거기 깃든 생명을 내친 적은 없습니다.
강은 여여하게 흐르고 무량하게 베풀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탐심은 한 순간도 여여하지 못하고 베풀기보다는 쟁취하는데 몰두해 있습니다. 그것이 재앙으로 되돌아 올 것을 염려하지 않는 오만함이 날카로운 삽자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태백의 정기 예 솟아 민족의 젖줄 한강을 발원하다.'
검룡소 앞에 놓인 돌에 새겨진 이 문장에 담긴 단어들 하나하나를 음미해 보니 한강의 온 몸이 한 눈에 보이는 듯 했습니다.


서해의 이무기가 거슬러 올라간 자국일까? 검룡소에서 솟은 물이 돌에 깊은 길을 내며 1000리 여정을 떠나고 있다.

낙동강 발원지에서 행복의 조건을 생각하다



황지(黃池)는 태백 시내 한복판에 있습니다. 아늑한 공원입니다.
반도의 중턱에서 남쪽 바다로 이어지는 물길이 시작되는 곳이 시민의 휴식공간이란 사실이 재미있습니다.
'낙동강 1300리 예서부터 시작되다'
커다란 화강암에 시원스럽게 새겨진 선언에서 깊은 강심(江心)의 울림을 느낍니다. 낙동강 강바람에 치마폭을 날리던 '처녀뱃사공'의 애잔한 곡조도 떠오릅니다. 길이 506.17Km의 낙동강. 남한에서는 가장 큰 강입니다. 함백산의 정기를 알알이 머금은 채 황지에서 솟구쳐 흐르는 물줄기는 봉화 영주 안동으로 흐르며 수많은 지류들을 제 몸으로 만들어 서쪽으로 비스듬한 물길을 이룹니다. 상주에 이르기 전 내성천(乃城川)과 영강(嶺江) 등의 지류들을 옆구리에 끼면서 몸집이 불어나고 흐름을 남쪽으로 곧추세웁니다.

그리하여 상주 남쪽 아래서 위천(渭川)을 선산 부근에서 감천(甘泉)을 받아들이고 대구 부근에서 금호강을 남지부근에서 남강을 합치며 길을 동으로 돌려 삼랑진 부근에서 밀양강을 만납니다. 거기서 다시 남쪽으로 방향을 잡아 남해로 들어갑니다.
오래 들여다보고 있으면 눈에 푸른 물이 들 것 같은 황지. 그 맑음 속에 주변의 건물들이 모두 들어찼습니다. 건물과 하늘만 들어 찬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전해 오는 전설도 담겨 있습니다. 1991년 7월 황지라이온스클럽이 세운 빗돌에 새겨진 '황지 못의 전설'을 읽습니다.

황지3동 시가 중심부에 위치하여 둘레가 100m인 상지(上池)와 50m인 중지 30m인 하지로 된 3개의 못으로 이루어졌다. 상지 남측에 깊이를 잴 수 없는 수굴(水窟)이 있어 수원이 된다. 수량은 가뭄에도 장마에도 변함없는 1일 약 5000톤이 용출되며 수온 또한 상온 15도를유지하는 해발 700m의 이 지역 주민들의 상수도 취수장으로 전국 최적의 오염되지 않은 상수원이다. (중략)
전설에 의하면 이곳은 원래 황씨(黃氏)성을 가진 황씨가의 옛터로서 주인 황씨는 많은 재산에 풍족하게 살았으나 돈에 인색하기 짝이 없는 수전노 노랭이였다. 어느 봄날 황부자는 외양간에서 쇠똥을 쳐내고 있었는데 옷차림이 남루한 노승이 시주를 청했다. 황부자는 시주하기를 거절했으나 노승은 물러나지 않고 거듭 염불을 외며 시주를 청했다. 이에 그만 화가치민 황부자는 쇠똥을 한 가래 퍼서 시주바랑에 넣어주며 "이거나 받아가라" 하였다.
노승은 조금도 노하지 않고 공손히 인사하고 돌아가는데 마침 아기를 업고 방아를 찧던 며느리가 이를 보고 부끄러이 여겨 시아버지 몰래 자기가 찧은 쌀 한 바가지를 퍼내어 노승에게 시주해 올리며 시아버지의 죄를 용서 빌었으나 노승이 며느리에게

佛紀 2554年 庚寅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승 가 사
주지 정호
신도회 일동
■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산 1
TEL 02)379-2996 FAX 02)391-9975

대한불교조계종
전법도량 신흥사
청소년 수련원
주지 오성일
대중일동
신도일동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 72-11번지
TEL 031)357-3916,2695 FAX 031)357-8687

대한불교조계종
관 음 사
주지 진산 종하
사부대중일동
■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519-3
TEL 02)582-8609
www.kwaneumsa.net

대한불교전통조계종
법 륜 사
주지 법륜
사부대중일동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10-38호
TEL 018-382-3448

호명산
감로사·승가사
본사 발전을 위하여 아껴주신 제방에 스님과 신도불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 본 승가사는 뉴타운 재개발로 인하여 부득이 충당 큰 스님께서 창건하고 화중생연 · 육신등공하신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 산 1-4(청평검문소에서 우측 4 km 우무내절)로 이전 합병하고 중랑구 면목동 1092-2 나동에 서울종무원(포교원) 설치(용마산길 농협 용마지점 옆 건물)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지 지산 지성 합장
■ 승가사 02)2292-3418 전송 2282-3418
■ 감로사 031)584-0117 전송 585-5747
■ 핸드폰 010-3722-3418 이메일 ijk3418@naver.com

2010년 진관사 開山千年이 되는 해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진관사
회주 진관
주지 계호
사부대중일동
부설 : 코끼리유치원 · 진관무위원
■ 서울 은평구 진관동 354번지
TEL 02)359-8410 www.jinkwansa.org

재단법인 선학원
관 음 사
주지 도기
신도일동
관음유치원 .군포교 .재소자포교활동
■ 경북 영주시 이산면 원리 739
TEL 054)633-1138

대한불교조계종
흑응산 연방사
주지 일봉
신도일동
■ 경북 예천군 예천읍 백전리 208
TEL 054)654-2464

대한불교조계종
능 하 사
주지 성련
신도일동
■ 서울 마포구 공덕1동 105-95호(4층)
TEL 02)701-7488

한국불교태고종
화엄도량 부석사
주지 근일
사부대중 일동
■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148
TEL 054)633-3464

강의 덕성배워 상생의 지혜 모으는 새해가 되길…



황지의 둘레 100m상지. 물이 맑아 하늘과 주변 건물들이 투영되고 있다.

"이 집은 이미 운이 다하였으니 아기를 업고 속히 소승의 뒤를 따라오시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시오"라고 일러주었다. 이에 며느리는 곧 집을 나서 송이재를 넘어 구시리(지금의 도계읍) 산마루에 이르렀을 때 뇌성벽력과 땅이 갈라지는 듯한 소리에 깜짝 놀라 노승의 당부를 잊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돌이 되어 버렸고 황부자의 집은 땅 밑으로 꺼져 내려가 간곳이 없고 집터는 큰 연못으로 변하였다.(후략)

보살님, 전설의 내용은 다소 허황될지라도 그 속에는 매우 현실적인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황지의 유래를 설명하는 전설도 낙동강 발원지로서의 격에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몇 가지 깨우침을 줍니다. .

아무리 발복하여 부자로 살던 땅도 마음을 악하게 쓰면 복이 다하고 화가 뭉친다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운이 다하여 꺼져버린 땅에서 다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물길이 솟아 연못을 이루었다는 사실이겠습니다.

보살님, 낙동강의 발원지 황지에서 행복의 조건을 생각합니다. 황지 못의 전설이 이미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의 귀함과 남의 귀함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쳐야 합니다. 전설에서는 노승의 시주가 그 상생의 도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진리를 깨우쳤다 하여도 그 깨우침을 생활화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허사입니다. 중생의 습성을 완전하게 떨쳐내지 못하고 현실과 이상 사이를 방황하는 것도 큰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굉음에 그만 뒤를 돌아 본 며느리가 이에 해당하는 '불완전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도계읍 구사리 산마을에 조성된 며느리 석상을 지역 사람들은 미륵이라 부릅니다. 그때 완전한 열반에 이르지 못하고 세속에 남아 돌이 되어버린 탓에 다음 생의 부처로 인식된 것입니다.

보살님, 낙동강 1300리에 깃든 생명들이 각자의 모습과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간섭하지 않는 길은 없겠습니까? 유난히 공단지대를 많이 끼고 있는 낙동강이기에 수시로 오염물질에 몸살을 앓아 온 낙동강이기에 거기 물줄기에 입을 대고 사는 뭇 생명들이 서로 상생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날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금강 발원지에서 마음속의 절을 짓다



전북 장수군 장수읍 수분리(水分里). 신무산(897m) 능선에 형성된 마을 이름에는 금강과 섬진강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마을 수분재에 있던 집에 비가 내려 용마루를 경계로 남쪽으로 떨어지면 섬진강으로 흘러 남해로 가고 북쪽으로 떨어지면 금강으로 흘러 서해가 되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금강만큼 흥망성쇠로 얼룩진 이 땅의 역사를 가까이에서 지켜 본 강도 없을 겁니다. 멀리는 백제의 찬란한 문화가 스러져야 했던 역사가 그렇고 가깝게는 녹두장군의 함성이 금강에 스며들어 아직도 잠들지 못하고 웅성거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수분리는 '물뿌랭이 마을'이라고도 불립니다. '물뿌리 마을'의 지역 사투리입니다. 이 이름에서 이미 큰 강의 발원지가 이곳임을 예시하는 겁니다. 물뿌랭이를 만나러 마을 뒷산을 오릅니다. 차가운 겨울 아침 바람을 뚫고 2.5Km를 오른 곳에서 뜬봉샘을 만납니다.

뜬봉샘에도 전설이 있습니다. 조선을 창업하기 전 태조 이성계가 신무산 중턱에서 백일기도를 했습니다. 새 나라를 열기위해 산신으로부터 계시를 받고자 하는 기도였습니다. 백일째 되는 날 새벽 단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오색찬란한 무지개가 떠오르더니 그 무지개를 타고 봉황이 너울너울 하늘로 날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새 나라를 열어라"하는 계시가 들렸습니다. 얼른 무지개가 뜬 곳에 가보니 풀섶으로 덮인 옹달샘이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옹달샘 옆에 상이암을 짓고 샘물을 제수로 삼아 천제를 모셨다는 것입니다. 봉황이 든 샘이라고 하여 샘의 이름이 뜬봉샘이 되었는데 그 샘이 바로 금강의 발원입니다.

뜬봉샘에서 비롯된 물길은 첫 실개천인 강태등골을 흘러 마을 앞에서 원수분천과 만나 장수읍을 적시고 천천을 끼고 흘러 장수를 벗어납니다. 다시 진안의 죽도를 휘감아 흐른 뒤 전북과 충청지역을 관통하는 금강이 됩니다. 물길은 395.9Km로 1000리에 이릅니다.

제법 추운 날씨지만 뜬봉샘 앞은 포근합니다. 최근 둥근 돌담으로 샘을 단장했고 샘 주변도 터를 고르게 다져 두었습니다. 둥근 샘 앞으로 돌을 깔아 첫 물길을 안내하여 강태등골로 이어지게 했는데 지역사람들의 정성이 묻어 있습니다.

보살님, 금강의 발원지 뜬봉샘에서 마음속의 절을 한 채 짓습니다. 뜬봉샘 전설에 등장하는 상이암을 지어봅니다. 지금 마음속에 짓는 상이암은 강물처럼 앞을 다투지 않고 강물처럼 차별 없이 받아들이고 강물처럼



새롭게 정비된 뜬봉샘과 첫 개울물.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은 세상을 발원하는 지극한 기도도량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뜬봉샘 성수(聖水)를 길어 차를 달이고 제불보살님께 향기로운 차 한 잔을 공양 올리며 강과 사람이 상생하고 산과 사람이 어우러지며 뭇 중생이 행복해지는 세상을 기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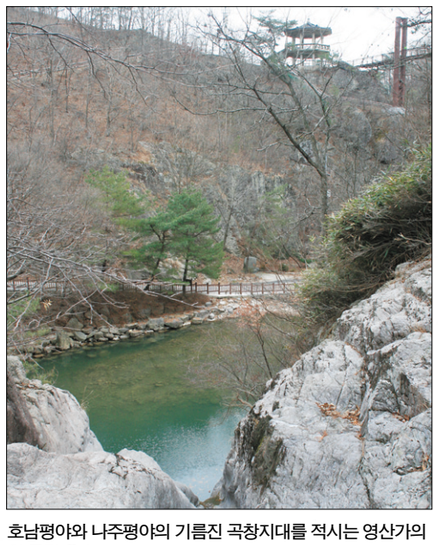
영산강 발원지에서 상생의 길을 생각하다



영산강의 공식 발원지 용소(龍沼)는 전남 담양군 용면 용연리 가마골에 있습니다. 사기그릇을 굽는 가마가 많았던 곳이라 이름이 가마골이며 생태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용소라는 이름이 상징하듯 용과 관련된 전설이 전합니다. 남원의 부사가 풍류를 즐겨 용소로 놀러 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용이 승천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용은 노승의 모습으로 부사의 꿈에 나타나 놀이를 취소하라고 했지만 부사는 놀이를 왔고 용은 승천하지 못한 채 죽었다는 내용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길고 긴 시간 승천을 꿈꿔 온 용을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그 비참한 전설의 현장에서 발원한 물길은 담양호와 담양습지를 거쳐 광주로 흐릅니다. 빛고을을 에돌며 장성과 무등산에서 내려 온 황룡강 극락강을 만나 도도한 강심을 이룹니다. 그 뚝심이 바로 호남평야와 나주평야를 적시며 국내 최대의 곡창지대를 이루어 내는 생산의 원동력이 됩니다.



호남평야와 나주평야의 기름진 곡창지대를 적시는 영산가의 첫 물길 용소.

보살님, 115.5Km를 흐르는 영산강의 발원지 용소에서 상생의 길을 생각합니다. 전설 속의 용과 사람은 상생하지 못했지만 물은 흐르고 흐르며 자연과 인간의 상생을 주선하고 있습니다. 물속 생명과 물가의 생명을 구별하지 않고 논과 밭을 가리지 않으며 부지런 한 사람 더 먹이고 게으른 사람 덜 먹이는 덕행을 보여 줍니다. 그것이 상생입니다.

지금 우리는 생태와 환경의 위기를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불길한 징조들을 애써 외면하려 합니다. 몇몇 운동가와 단체들의 일리라 치부하고 조금 더 정복하고 조금 더 개발하려는 계획만 세우고 있습니다.

보살님, 강은 국토의 핏줄이어서 어느 한 곳이 막히거나 터지면 병이됩니다. 강의 덕성을 인간의 덕성으로 일체화 하는 지혜가 절실한 이때에 2010년의 새 해가 밝았습니다. 뭇 생명이 상생을 합창하는 새 아침이길 발원합니다. 나무 4대강 보살 마하살.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불광불교대학
범음범패 제2기 학인모집

■ 교육기간 : 1년
■ 입 교 식 : 2010년 1월 25일(월요일) 오후 2시
■ 수업일시 : 주1회 / 매주 월요일 오후2시~6시
■ 교육내용
범 패 : 거불, 복청게, 가영, 향수나열, 도량게, 다게작법, 39위, 화청
작법무 : 천수바라, 사다라니, 법고
49재및 천도재
각단불공및 사찰의식 전과정
■ 입교자격 : 범음범패에 관심있는 승려 및 재가불자
■ 교육장소 : 대구시 동구 도동44번지 불광사 불광불교대학 학장 일해스님

접수및 문의 053)986-1080 011-9361-5566

45기 氣치유 수련생 모집

"기치유" 선택 받은 분의 특권이 아닙니다.
"기치유"는 수련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기치유를 할 수 있다.

▶ 본원의 기치유 수련은 마사지나 지압등의 수기법이 아닌 전통 기치유 방법만을 전수함.
▶ 누구나 배워서 스스로 치유할 수 있고 가족이나 이웃의 질병도 치유해 줄 수 있다.
▶ 교육 수료 후 한국 기치유 연구회 인증 수료증 수여

양성반 45기 개강
◆ 수련일자 : 2010년 1월 5일(화요일)
◆ 시 간 : 오후 7:00~9:20(주1회 11주과정)
◆ 대 상 자 : 건강 및 대체의학에 관심있는 일반인등

양성반 46기 개강
◆ 수련일자 : 2010년 1월 16일(토요일)
◆ 시 간 : 오후 2:00~4:20(주1회 11주과정)
◆ 대 상 자 : 건강 및 대체의학에 관심있는 일반인등

문의
◆ 수련장소 : 서초 단우빌딩3층/교대2호선 4번출구 1분거리
◆ 수련문의 : 02-3482-5032, 3482-5065

연구회 본원 및 지부에서 기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치유 및 상담은 예약 필수 / Tel. 02-3482-5032

www.gihealing.com 한국기치유 연구회 Energy Healing Center

수행도우미

기분좋은 환희심나는 체험으로
수행생활의 기쁨을 늘리세요



발 로 해
(특수기능성 양말)
신는순간 따뜻해진 발
노랗거나 갈라진 굳은살.
보들보들, 보송보송
피곤할 때 느끼는
발뒤꿈치, 발목아픔
즉시 해소
(절할때, 성지순례, 운전)



스트레칭 필
절수행, 잠잘때 착용하면
어깨 결리고, 시리고, 뻣뻣함,
오십견과 스트레스 순간해소



청명고요(수행방석)
배에 힘이 모아져 안정된 자세와
집중력, 또렷함 유지
수험생, 고시생, 컴퓨터, 운전할때
졸음 피로 완전 해소

호락호락팬티, 와선삼매요, 보석연꽃면티,
금강저조끼, 기도포, 팔관애원(손목,무릎보호대),
칼라차크라, 배요온대, 다보명차, 아마따차

서울법당 (02) 456-0035 부산법당(051) 583-7886
대구법당(053) 743-0063 광주법당(062) 375-3500

www.법왕정사.kr

새해맞이
141회 3000배 용맹정진

서울숲 법왕정사 새해맞이 3000배는
2010년 한 해는 예쁜 마음으로 미소 짓고
또 웃고 하하하 호호호 히히히

업장소멸의 관건은 지극하고 간절한 성스러움과 최고의 공경심으로 절하며,전신의 노폐물,독소, 나쁜 기운의 땀을 흘리면 괴로운 맘 소멸되고...

소원성취는 해맑게 미소 짓는 기쁜 얼굴로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 대긍정의 감사염송을 온 몸과 맘에 가득 채우며 절하며 100% 성취된다.

■ 날 짜 : 2009년 12월 31일(목) 저녁 9시 ~ 2010년 1월 1일 아침 7시
(절하는 법 교육 : 저녁 7시 ~ 9시, 3000배 시작하기 전)

■ 준비물 : 동참비 2만원
[필수준비물] 수련복 : 100% 면 소재 흰색상의, 회색법복 · 조끼, 방수포(신규동참자는 선물),기도포(방석을 덮을 큰수건), 땀 닦는 수건, 면양말 2켤레, 발로해(절수행 특수 덧신), 면장갑 2개, 위생비닐장갑 1, 목수건
[선택준비물] 무릎, 손목, 발목아프신분(팔관애원보호대), 허리아프거나, 아랫배, 엉덩이, 꼬리뼈, 차가우신분(호락호락 팬티), 어깨 아프신 분(스트레칭 필)

■ 장 소 : 법왕정사 서울숲 법당
☞ 전철 : 2호선 뚝섬역 7번출구 우측으로 직진 150m 하나은행 5층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 행 중 심 교 육 도 량 법왕정사

■서울숲 법당 (02)456-0035 ■부산 금정법당 (051)583-7886
■대구 신천법당 (053)743-0063 ■광주 상무법당 (062)375-3500
한글도메인 : WWW.법왕정사.kr

불자생활정보 | B18 | 제 764호 2010년 1월 1일 금요일

▷ **문의** : TEL 02)2004-8214,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 **마감** : 매주 월~수요일 (입금이 되어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대한불교 대승선교 조계종
※위종단은 비구니(여승)종단 입니다
- 비구니 종단 등록
- 사찰 등록
- 비구니스님이 되고저 원하시는분

서울 총무원 02)579-3690
연락처 010-2606-5121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기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 울산)

역학 · 빙의 · 퇴마
짧은 시간에 속성으로 실전 위주로 확실하게 비법을 개인지도 함
역학 : 귀신 메는 명리 (통변 가능한 분)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사성, 작명
최면 : 전생요법, 빙의, 퇴마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333-3258
011-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입제 · 회향),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 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 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 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 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영산 중요무형문화재 50호 전수
범음범패 바라무 나비춤
천도재 49재 구병시식 전문
02)802-8554
017-219-4757
서울 금천구 시흥본동 885-6
대흥사 주지 연암 합장
선망부모 천도재는 간절한 정성기도
사주, 명리 상담해 드립니다

저렴하게 불공해 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작법무,
살풀이, 범음범패
010-3590-7596
019-688-9885

범음 · 범패
실전위주 학인 모집
각종 사찰행사 전문
일행정사 (서울, 경기)
010-6569-1010

각종 불공 범음 · 범패전문
점안식, 49재, 천도재, 구병시식
예수재, 수륙재, 불교의식, 사물,
바라나비춤, 명리, 주역, 활법
실전 위주 교육. 학인행자모집
031)953-3328
011-9923-3329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역학 · 빙의 · 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 빙의, 전생, 우울, 가위눌림
2. 역학, 사주, 궁합, 택일, 성명학
3. 속성과정 (출장지도 가능)
4. 신들림병 상담환영
5. 스님에 한해 특별 할인혜택
010-2484-5001
031)943-8094

빙의 퇴마 전문치료
수시접수 中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
악령에 시달려 머리가 자주 아픈 분
신병, 빙의로 신내림 받아야 할 분
지장사 주지 광덕 합장
032)261-8425
010-7335-8425
정성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자결혼 상담소
국내 : 초혼, 재혼, 친구, 연인
국제 : 필리핀, 베트남, 한족
성실男 미모女 상담환영.
30대女 무료, 70세까지 (남녀)
아현역 2번출구 (원갑사)
02)365-1345
010-9114-4345

김 현산 작명 역리원
◎ 작명 ◎ 사주 ◎ 운명철학상담
전국 불자님 전화, 우편상담 환영
사주학 기초부터 개업까지 책임지도
기초과정 후 간명비법 전수
110-320 서울 종로구 낙원동 176번지 (3층)
종로3가역 ① 번출구 직진 낙원상가
방면 미투리의상실 3층
010-9113-8545 김현산
02)741-8449 역리원

불 자 결 혼
- 초, 재혼
- 20-50대 가능
- 국내, 국제 가능

010-4485-8888
혜덕 스님
051)515-1933

만물 만능 氣 잡기
사물의 진가, 정부정책, 마음의 진위,
사업성패, 미래예측, 기풍수,
기사주, 원격투시, 내게 맞는 것 찾기,
영가상태, 만물 만능치유, 운명개척 등
수치까지 확인.
시중철학이 아닌 100% 과학
누구나 쉽고 간편한 방법. 효능은 무궁
016-606-5658

역학 문하생 특별 모집
- 특별 : 법납 10년이상, 대학교수 기타
- 일반 : 누구나(선착순 3명)
- 저자 : 100여권 저서. 30년 지도
- 결재 : 카드 분할 가능

* 종단 10년 운영, 인연 기다림
02)907-5858

부전스님
모십니다
▷학천사 총무원,부산 영남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거창)
070-8791-7845

공양주 구함
▷불심과 신심있는 분 원합니다
▷(50-60세) 숙식 가능하신 분
010-9269-8445
031)535-100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양평군 용문면, 40-50대
010-8922-116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보시금 상담 후 결정
010-3188-5103

자기 도량처럼
출퇴근하며
포교, 화주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고양
018-382-344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보시금 상담 후 결정
010-3188-5103

각종
기도해
드립니다
010-9057-5562

귀 영대암
각종 어려운 사연
남녀문제 절대 비밀 상담해 드림
매매, 사업, 부적, 작명
출장상담 가능
010-5306-8843

28숙기도 (대방등 대집경)
- 기도법을 배우려는 스님, 법당을 모신 보살
- 위치 : 백선사 절 (지하철 1호선 부천역 하차)

☎ 032)664-0048 / 011-741-0867

칭기스칸 대학교
한국캠퍼스 한국불교승가대학 세계화교육
chinggis khaan university
- 정규과정 : 2년제, 4년제 편입학 가능
- 전문과정 : 1년제입학 종교학 (불교문화 학과)
- 강 사 진 : 석사, 박사 12명. 특강
- 과 목 : 종교학, 사회복지학과, 정치외교학과, 불교학, 경영학과, 교육학과, 철학과
- 특 전 : 전세계 대학 편입학 인정, 학비저렴, 시간여유

학교법인 김해대학교육원 강의실 kaya university life education
불교종립 불교문화대학원
학무처 : 0502-788-0808, 055-338-0050, 011-801-8197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 초급4개월 : 중급4개월 : 연구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 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7시~10시. 수시접수
3) 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9~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 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행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원역리학회 동대문구 T: 2243-9598. H.P: 018-470-6314
지현역리학연구원 http://kr.blog.yahoo.com/han10305

큰 법력으로 사물, 바라, 살풀이 무,
극락무 등 시연과 함께 우리말, 한문
등을 마음대로 구사하여 재자와 영가
를 동시에 해탈케하는 정말 신심나는
천도재, 49재 및 불상 불화 점안,
각종 불공의식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리오니
믿고 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1-854-8107
50대 초반 비구승 무불 합장

잠시 · 한 · 두달 · 100일
산사에서... 참선,
쉬고 싶으신 분,
기도하고 싶으신 분
오십시오. ○○○주인공?
031)674-7188 백마사
033)441-0664 장안사

체용 사주원리 요해 무료강좌
▶강사 : 김영진 선생님 (故 이석영 선생님 제자)
▶일시 : 2010년 1월 9일 (토요일) 시작
(오후 2-5시까지)
전화 : 02)306-7988 / 010-5624-1365
수색 광복사

유 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 종 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 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하루 저녁에 깨우치는 풍수지리 입문
나경 사용법
연습용 19층 칼라 나경 도해 사진
나경을 쉽게 배운다
양택론 요점론
명당 결정법
수맥 측정과 수맥파 차단법
진산

하루밤에 깨우치는
나경(패철)사용법
문학박사 전용원 저 2만 5천원 전국 대형서점
전화주문: 하나은행 388-910003-23704
한국역학협회로 2만 5천원 입금, 전화주시면
저자가 직접 서명하고 낙관찍어 월간역학 1권
(8,800원) 무료기증 함께 보내드립니다.
전화 1688-1137 역학 동영상강의 www.kbs.cc

불 사 안 내
소승은 비로자나 부처님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불사에 도움 주시는 분에게
월하 큰스님 서예 2점을
보시하겠습니다.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010-3389-1237
경북 안동 만성 합장

기복, 방편을
쓰지 않고 정법을
실천하는 납자입니다.
거제도나 부산 근교에
사찰이나 터를 싸게
보시하실 분 연락요.
011-9143-0098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이름 작명
작명, 개명, 상호, 회사명, 아호, 단체명, 모든 분야 이름
문의 051)867-8438
부산경상대학 졸업, 김해가야대학교 졸업
현,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국가공인한자1급,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명리학 개인지도 속성*
부산시경 뒤 시청 어린이집 뒤편 삼화탕 옆 송광정사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명리학 성공하실분 노크하세요.(사주첩경) 이석영 통달. 수월정사
011-498-5067 / 02)826-5067
031)774-5067 (주말)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행자(예비스님) 모집
21세기형 행자교육!!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수행과 수계 이후 모든 지원!!
- 성별 : 남자, 학력 : 고졸이상
-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교육
- 수행 ·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 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문의 : 010-2488-8228

대구 도심 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 최첨단 시설, 편리한 교통, 한발 앞선 장례문화시설!!
- 언제나 염불, 기도소리 들리는 법당 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설 • 추석 • 기일 • 영가 천도일에 천도 축원해드립니다
- 문의 : 010-6296-0108

행자 모집 합니다
사찰운영 및 기도정진,
주지스님 시봉하시다가
주지스님 열반 후에 본인
앞으로 사찰 등기 가능함.
(세수 35-45세까지)
* 신심이 확실한 분만 전화하세요.
010-3499-3721

조계종 수번 생활광고하여도
전화만 올 뿐, 답답하여 다시내니
객관적 문제가 있는것도 아닌데
노승이 그만 쉬고자 **비구니 4-50대**
답사하여 안착운영관리 바람.
그리고 조용한 도량에 의지있고
불심있는 **4-50대 공양주 연락바람.**
소백산 지장보궁 내원암
경북054)653-1180
010-6353-1180

이 기구만 있으면 풍수지리 대가가 될 수 있다!!



명당 탐지기
관룡자, 심룡척
관룡자와 심룡척은 1990년부터 월간역학을 발행해오는 문학박사 전용원이 1970년대 개발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로도 판매되는 기구입니다. 이들 제품은 성능과 모양이 똑같으며 상표만 다릅니다. 명당혈에서 옆으로 90도 회전하여 100% 정확히 명당혈을 찾아냅니다. 묘터나 집터, 사찰, 아파트, 공장터를 잡거나 감정할 때 사용하며 누구나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입방법: 관룡자, 심룡척은 본래 88만원이지만 지금 구입하시면 66만원으로 할인+월간역학 1년(105,600원)+수맥 탐지봉(15,000원)+휴대용 케이스(2만원)를 보너스로 드립니다.
하나은행 388-910003-23704 한국역학협회로 66만원 입금, 전화(1688-1137)주시면 즉시 보내드리고 1년간 매월 월간역학을 우송해드립니다.

역학 동영상 강의 www.kbs.cc
사주 관상 풍수지리 주역 육효 자미두수
집에서 편리하고 저렴하게 확실한 공부, 24시간 반복 학습 가능함
사주 초보에서 완성까지 45만원 부터
수료증 자격증 회원증 월간역학 필진 위촉장
한국역학협회 관인 월간역학교육원
서울 중구 광희동 2가 303-15 전화 1688-1137

六壬講師班 募集
아직도 檢證되지 않은 敎材로
講義하고 계십니까?
六壬學 正統 元典修業으로
理論을 定立하십시오!
심사 후, 해당 지역의 한 분만에게만
교육기회가 주어집니다.

1. 敎授 : 李愚山.
서라벌대 및 동국대(사회교육원) 교수.
『六壬入門』·『六壬實戰』 著者.
2. 敎材 : (唐)『六壬心鏡』, (宋)『大六壬畢法賦』, (明)『六壬指南』, (明)『六壬大全』, (淸)『六壬粹言』 등, 五大 六壬經典.
3. 進路 : 해당 지역에서 六壬學 講師 活動.
4. 特典 : 해당 지역 평생교육원, 문화센터 강좌 개설 협조.
5. 制限 : 六壬學 熱功 3년 이상된 분.
6. 地域 : 부산 · 경남지역, 대구 · 경북지역, 광주 · 전남지역, 전주 · 전북지역, 대전 · 충남지역, 청주 · 충북지역, 경기도 지역, 강원도지역.
7. 問議 : **고려육임학회**
02)816-2115
010-7321-5539

스님...대출이 필요하십니까?
스님들의 노후복지를 위해 불교병원건립 등
복지재단 설립을 위해 노력하는 보현사신협 입니다.

1. 사찰매매시 잔금대출, 불사자금 대출 전문 **불교은행**입니다.
2. 이사장(**前 제9교구 본사 동화사 주지 지성 큰스님**) 스님을 비롯한 대덕 큰스님들께서 운영하시는 불교은행입니다.
3. 보현사신협은 수익금을 **초파일 연등법회, 제등행사, 봉축위원회 분담금 지원, 불교대학 장학금, 불교신행단체 지원** 등 불교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전국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4. 보현사신협 **전 직원은 불자**로서 불교적 소양과 역량을 갖추고 있어 **종교편향에 의한 불이익**은 절대 없으며 오히려 사찰운영 및 불사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5. 대출 감정시 20년 전통의 노하우로 일반인들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사찰의 토지, 건물, **가람의 배치 및 단청과 역사적 보물 그리고 사찰이 지닌 역사적 가치**까지 정직하고 꼼꼼하게 평가해 드립니다.



보현사신협 문의전화 (053)428-1133
전문상담 : 전무 서일영 011-527-1037, 차장 정종철 010-2543-1037

한방(韓方) 치료
파킨스씨병, 치매, 우울증,
치질, 탈항, 고질성 위장병,
전립선염 비대,
해독, 통풍,
백내장, 메니에르 증후군,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혜당 한방병원
02)326-3161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63-14
(서울 합정역 6번 출구)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091102-중-6224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 50.000원
  규격 가로 7cm – 70.000원
  규격 가로 10cm – 100.000원
- 계좌번호 : (주)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 협 053-01-269088
- 문의전화 : 02)732-1522 / 02)2004-8215
- 원고접수 : jabi82@naver.com
  FAX 02)737-0696

※ 매주 수요일 마감. 다음주 수요일 게재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 법당 : 30(목조)
- 요사 : 100평
- 부지 : 1,000외 3,000
- 가액 : 14억

- 위치 : 서울
- 법당 : 20평
- 요사 : 40평
- 부지 : 100평
- 가액 : 14억 5천

- 위치 : 동해
- 법당 : 25(목조)
- 요사 : 50(목조)
- 부지 : 270평
- 가액 : 4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 송 기 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 위치 : 북한산
- 부지 : 150평
- 인법당 : 45평
- 명당터
- 가액 : 4억5천

- 위치 : 서울선원
- 부지 : 90평
- 법당 : 70평
- 요사 : 60평
- 가액 : 18억 5천

- 위치 : 강원산사
- 부지 : 2000평
- 법당 : 25평
- 요사 : 40평
- 가액 : 3억 9천

※ 30년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구입자금 융자 알선해 드립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인연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10-2221-2807/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 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 및 토굴안내

해운대바닷가 근처 아름다운 절
- 총부지 : 550평
- 법당 20평, 요사채 30평, 산신각
- 바다전망, 남향, 뒤편 산자락
- 마당 넓은 절
- 가액 : 6억 5천

- 총 대지: 양산 신도시 근처
- 대지 총평수: 1300평
- 법당 35평, 요사채 80평(방 10칸), 대종각
- 전통기와양식 내3포 외5포
  산세수려(큰 바위산) 계곡접
- 약 30억 불사
- 가액: 12억

사찰전문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부산 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사찰 터 안내

- 위치 : 산청군 단성면 관정리
- 평수: 약 2만평
- 현재 조립식 2채, 전기시설 완비,
- 단독진입로
- 평수에 관계 없이 허가가능,
- 진주 진양호가 보이는 운치 있는 위치
- 가액: 4억(절충가능)

017-547-1120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개정동
- 평수: 135평(3층, 4층, 5층)
- 3층 : 방 5개, 화장실
- 4층: 방 3개, 공양간 및 화장실
- 5층 : 대법당, 화장실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세 80만원
  시설비 2800만원

010-2599-6020

사찰실버타운안내

- 위치 : 창녕군 창녕읍 여초리
- 44,120평
- 화왕산 주령 사찰터
- 가액: 3억 2천만원
- 관리지역, 농림지역

017-570-1600

토 굴 안 내

- 위치 : 영덕군 창수면
- 총평수 : 328평
- 임법당, 삼존불, 바깥에
  지장보살석불, 산신석불,
  산신각, 문수전, 창고
- 가액 : 1억 5천만원

010-4660-5388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 금강공원 입구
- 평수: 75평(시설완벽)
- 3층 건물인데 엘레베이터有
- 시설비: 1억 5천 투자 됐는데
  급해서 3500만에 정리 급 양도
  (전세 및 달세 별도 있음)

010-2828-1951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원주
- 땅 10,000평
- 건물 대웅전 1채,
  요사채 3채, 공양채 1채
- 즉시 법회
- 가액: 7억

070-7764-6989

사 찰 안 내

- 위치 : 논산시 연산면
- 법당 18평, 대지 112평
- 요사채 2동
- 가액: 1억 3천만원

016-742-2122

사찰(급)안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율리 율현마을 751번지
- 평수: 대지 250평, 법당(40평),
- 이층 산신각,요사채 20평
- 별장으로 사용 가능함
- 가액: 상담후 결정

055)277-3569
011-847-1556

포교원 안내

- 위치 :울산시 동구 방어동
- 평수: 25평, 이층
- 삼존불(아미타불, 지장보살,
  관세음 보살) 신중, 산신
- 가액: 전세 800만원, 월 55만원
- 시설비: 2000만원

010-6488-8204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장흥
- 법당 20평,요사채 25평,부지 350평
- 공양실, 삼성각, 선방 총 5동
  전체 동 기와단청
- 건물 뒤 거대 바위산 있음
  바위 모양이 달마 형상
- 가액: 1억 5천만원
  (융자 3천 포함)

018-603-145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 이대입구(대흥동)
- 지하철 2호선 5번출구
  60M위치 교통편 최적지
- 4층건물중 3층 약 25평
- 삼존불, 신중, 산신, 영단
  입주 즉시 법회가능함
- 보증금, 시설비 포함
  2500만원(월세 50만원)

02)719-7709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영천시 북안면
- 사용부지 6,500평
  (실등기 5,000평)
- 법당 : 20평, 산신각, 요사채
  2동 중 황토방 1개,
  실내외 화장실 3개
- 가액 : 4억 3천만원(전세가능)

011-816-9104
011-815-9104

포교원 안내

- 10년된 포교원
- 원불 300불 모셔진 안정된 곳
- 바로 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 시설비 2,000만원

011-3723-077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
- 대지 300평, 종교용지 300평
- 법당 29평, 주지실 별도
- 요사 24평, 요사채 아파트식구조
- 조경 되어있고, 법당 시설 완벽
- 가액: 1억 9천만원
  (은행융자 5천만원 가능)

010-4193-3366

명 당 터 안 내

- 위치 : 경남 창영
- 평수 : 임야 약 1만평(약 80%사용가)
- 특징 : 사찰 암자 및 선산 등
  모혈명당, 고암면 감리
  (밀양 넘어가는 국도 첫째 산, 정봉
  아래 정혈, 도로에서 약 120M)
- 가액 : 2억 8천 5백만원
  명당가 평당 3만,
  인연자에게 가격 떠나 양도함

010-7325-125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의왕시 내손동
  평촌 롯데마트 앞
- 안양 평촌요지 교통편리
- 평수 45평, 5층 ●시설완벽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 1백만원, 시설비 1천만원
- 스님 사정으로 급 양도

031)426-0555

사찰 요양 원적지

- 위치: 경북 성주군 선남면
  (대구근교)
- 풍부한 양과 질좋은 지하 암반수
- 허가된 창고 40평
- 기도하기 적합한 굴이 있음
- 약 2,500평
- 가액: 7억 5천만원

010-5383-245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역앞 동성로
  (지하철 1분거리)
- 4층 약 30평(정원있음)
- 가액: 보증금 200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800만원
- 상담 포교 최적

010-2446-262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 남부 시장부근
- 평수 54평(현 법회중)
- 4층건물 중 3층(관리비 無)
- 시설A급, 법당1실, 방 4개
- 가액: 보증금 3천만원
  월 35만원(올 전세 가능)
  시설비 저렴하게 보시

055)372-3563
010-2553-8827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광양
- 부지: 1,200평, 법당 30평
- 요사채 35평, 공양실 20평
- 전체 기와 단청
- 가액: 5억 5천만원

010-3967-0048

사 찰 안 내

- 위치: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남내
- 평수 : 약 800평
- 법당(55평), 요사채 : 50평
  산신각 8평, 주차장 넓음
- 삼존불 모셔있음
- 가액: 전세 4,500만원,
  시설비 1,000만원(조정가능)

031)764-0180
010-2747-9791

사 찰 안 내

- 위치: 창원시 동읍 월잠리
- 대지 200평, 건평 80평
- 가액: 전세 5천만원
- 시설비 3천만원
- 주지 건강상 급 안내

011-5040-7584
055)253-8878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촌IC에서 10분이내
- 부지: 9630평
  (1523여평+임야 8000평)
- 한옥신축대응전, 신축황토방 요사채
  조립식건물+산신각
- 추가건축허가유(사회복지시설 가능위치)
- 바로앞 홍천강 경관과 기도도량
- 가액: 13억

011-9888-1563

전원주택 토굴안내

- 위치: 경북 청도군 매전면
- 토지: 1000평
- 건물 1층 40평, 2층 20평
- 조경과 잔디밭 너무 좋음
- 집앞에 강물이 흐르고 앞 뒤
  에는 소나무 숲이 있음
- 완벽한 집, 그림 같은 집
- 가액: 4억 5천만원

011-9071-7713

암 자 안 내

- 위치 : 밀양 얼음골
  근교 경관수려함
- 임야 10,000평

010-4876-5535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 빌라 주택 밀집 지역
- 시장입구
- 삼불, 후불탱화는 인등으로
  설치되어 있음
- 가액:보증금500만원 월35만원
- 시설비: 2,500만원
- 주지 건강상 급 양도

011-544-977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경기 안산 상업지역
- 평수 50평(현 법회중)
- 5층건물 중 2층
- 옥상 텃밭 30평
- 법당 단청, 최고급 인테리어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1천 5백만원

010-8954-8033

작은 암자 터 안내

- 위치: 창원시
- 평수: 대지 49+36평
- 구교지 87평 사용중
- 건평: 약 20평(황토방)
- 가액: 1억 (절충가능)
- 주변 체육 공원, 야산 있음

010-2327-8277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김해시 행림면
  안양리 510번지(무척산아래)
- 법당 27평, 산신각 4평,
- 요사채 방 3,
- 화장실, 목욕탕, 공양간
- 총평수: 220평
- 가액: 1억 5천만원
  (융자 3천포함)

070-8809-3800
010-8327-3808

포교원안내

- 위치:경북 영양읍 동부리
- 사찰 30년 하던 건물
- 한옥 약 20평
- 호조건
- 가액: 상담 후 결정

011-548-356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1호선 신이문역(도보5분)
- 2층: 약 40평, 법당, 방 1
  공양간 (원불 300불)
- 특징 : 아주 편리
  마당 약 40평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3,000만원

018-293-7075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영천시 화북면
- 평수 : 약 14,000평 중
  2000(밭)
- 시설 : 현재 법당 가건물
  요사채, 화장실, 전기시설,
  전화, 건축허가필
- 맑고 깨끗하고 조용함
- 가액: 4억 5천 (절충가)

010-3918-033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 서구 비산동
- 법당 : 30평
- 삼존불
- 가액: 보증금 300만원
  월 20만원

010-5340-6357
053)324-535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초구 방배동
  내방역 2번출구
- 4층 건물중 3층(50평)
- 삼존불 청동불, 최신 인테리어 시설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 월세 245만원(부가세별도)
- 시설비 6천만원

010-5851-498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 광역시 달서구
  죽전동 4거리 (죽전지하철역2분거리)
- 평수: 약 42평(2층)
- 구조: 법당 약 20평(삼존불 모셔있음)
- 방2개, 주방 겸 거실,
  단독 남, 녀화장실 (약 22평)
- 가액: 보증금 500만원에
  월 30만원(시설비 별도)

010-6835-737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인천시 부평구 부개1동
- 3층건물 3층, 50평
- 법당20평, 방 3개, 거실, 주방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 월 40만원
- 시설비 상담 후 절충 가능

010-8761-1628
070-8279-162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남해군 고현면
- 부지 총 2,000평(종교부지 165평)
  법당 15평(단청), 산신각 5평(단청)
- 요사채 30평,
- 저수지 물 보이고 옆 계곡물 흐름
- 가액 : 2 억 (가격절충)

010-5430-396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대구시 동구
- 3층건물중 3층 전체사용
- 법당 70평, 요사채 30평,
- 공양간 10평, 휴식공간 30평
  사무실1, 방6개. 시설 최상급
- 보증금 3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상담 후 절충가능

010-4199-0047

대 형 포 교 원 (전세 및 양도)

- 위치 : 부천신도시 고속터미널 부근
  100만 신도시아파트 상가밀집지역
- 평수 : 220평. 14층 중 5층
- 법당전체와 모든 방사 고급나무 문양인테리어됨
- 법당앞에 2011년 지하철개통,
  주차장 100대 가능
- 가액 : 임대 2억 9천(양도가능)
  시설비 절충가능(융자포함 양도가능)

011-707-5552

고급주택 토굴겸 사찰안내

처음 시작하는 비구니스님,법사님,보살님, 불자 가족
- 깔끔한 전주시내 대지 65평
- 건평 35평,
- 법당 방 1, 큰방2, 작은방 1,거실, 욕실, 화장실2
- 특징 : 소나무, 꽃나무, 화채류 잔디있음
- 가액 : 1억 3천 8백만원(주인직거래)
- 저금리, 대출 가능

011-650-8481

암 자 안 내

- 위치 : 원주 미륵산 약 일백년 된 좌청룡 우백호 산세 좋은 명당터
- 신축 요사 35평인 법당,심야 기름 겸용, 삼성가 목조 5평
- 자연석 조경 및 돌탑 잘 되어있음, 큰 도로 시내버스 정류소 300m
- 교통 : 원주시청–충주시청 4차선 전용도로 개통 시 약 10분거리 위치
  중간에 있음(현재 부분개통사용)
- 땅 : 1230평, 시세 : 평당 40만원, 현지답사 후 절충가
- 주지스님 건강 문제로 급매.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주세요

011-371-5567

사찰(포교원) 안내

- 위치 : 밀양시 무안면 땀흘리는 표충비각에서
  5분거리, 국도변 위치(교통편리 시내외 정류소옆)
- 대지: 230평, 주차장 넓음
- 요사채: 적벽돌 슬라브 60평 (2층 증축가능),
  최고급 원목 실내 시설, 태양열 설치
- 법당 : 18평 1동 (사찰 전자제품 포함, 조경완벽)
  (삼존불 및 후불 35평형 탱화)
- 가액: 2억 4천 5백만원(절충가능)
  (은행융자 7,000만원 포함)

010-8846-709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시화신도시 정왕동 E마트사거리
- 대형공원과 아파트 대규모 단지로서 포교최고지역
- 4층건물중 4층, 전체 약 110평, 옥상전체, 화장실및 복도 전체사용 ● CCTV설치
- 법당: 삼존불, 약사여래불, 신중단, 영단, 인등단(관음인등 108불) 큰방 3개, 사무실 1개, 창고1개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120만원
- 시설비 8천5백만원

010-4340-8866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하동 ●총 800평, 법당 20평
- 요사채 2채, 방4개, 큰 창고
- 주차시설 완비, 관상용 양어장
- 맑고 깨끗한 약수가 있는곳
- 현재 관광지 목적으로 인도 살림욕을 공사하고 있음
- 비구니 스님 기도처로서는 최고 명당
- 가액: 2억 3천만원

010-3138-4897

참숯가마(급)안내

- 위치: 경남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
- 평수 1208평 ● 건물 : 대지 392평
- 시설: 참 숯가마 7개, 폐수처리장(1억 3천 가설비 들었음)
- 지하수 350m이상에서 매일 100톤의양
- 식당 90평, 목욕탕 95평
- 기본숙소 방 5개, 120명수용가능
- 가액: 현 시세 22억을 18억
  (모든시설포함) 급 양도. 절충가능,
- 현재 영업중이며 몸만 들어오시면 됨

010-9735-3477
010-9418-5938

부 산 대 사 찰

- 목조법당 25평 단청필, 목조요사 30평
  단청필, 벽돌집 요사 2동 50평
- 명부전, 산신각, 용왕단, 종각, 약사여래상 15층
- 지하수 산수도 사용, 창고 2동, 화장실 2동,
  심야 보일러 사용, 사찰 내 주차 20대 이상
- 대지 : 300평 ● 국유지 : 450평(국유지 사용료 내고 있음)
- 가액 : 9억 7천만원
- 사찰 내 20년 된 벚꽃나무 50종 있음

011-563-1545

우리는 동창 불심도 하나

“창불회는 내 삶의 비타민, 도반 있어 행복해”



창덕여고 15기 동창생들의 불자모임인 ‘창불회’ 회원들이 2009년 마지막 정기모임에서 유식발원문을 낭독하고 있다(위). 창불회를 10년째 이끌고 있는 권도정 회장.

창덕여중 · 고 동창생 8명 졸업 후 35년 만에 창불회 조직
11주년 맞아 회원 32명으로 늘어… 총동문회서도 으뜸 모임

12월 23일 오전 10시 서울 방배동 광명선원 공양간.

공양주 보살보다 더 바쁜 이들이 있다. 밥상을 펼치고, 유인물을 돌리고, 카세트에 테이프를 넣고, 방석을 깔면서도 하나둘 모이는 도반에게 인사를 하는 이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재숙아 어서와.” “이쪽으로 와서 앉아.” “유인물 받았니?” “어머~ 고맙다. 이런 것까지 준비하고 너 참 대단하구나.”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친구 사이처럼 보이지만 사실 보통 도반 사이가 아니다. 10시 30분이 되자 오디오에서 혜거 스님의 <금강경> 강의가 들린다. 언제 그랬냐는 듯 왁자지껄하던 공양간에 고요가 찾아든다. 지각생들은 수업에 방해가 될까 까치발을 하고 들어온다. 그 와중에도 작은 목소리로 “은자야 이것 가져가” “지금 여기 하고 있어”라며 인사를 하고 자기 앞에 놓였던 커피도 내어준다. 내 공부는 뒷전이고 친구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항상 ‘나’보다 ‘친구’가 우선이고 ‘내 것 챙기기’보다 ‘친구 것 챙겨주기’가 우선이다. 친구들과 함께인 순간, 부처님 법을 함께 공부하는 현재의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다는 이들은 바로 창덕여고 15기 불자 동창생 모임인 창불회(회장 권도정) 회원들이다. 얼굴에는 시간을 비켜갈 수 없는 주름이 조금 생겼을 뿐 풋풋했던 소녀의 웃음과 열정은 그대로였다.

2009년 마지막 정기 모임이었던 이날은 창불회 동창생들이 각자 집에서 하던 <금강경> 사경을 회향하는 특별한 날이기도 했다.

“<금강경>을 사경하고 회향할 수 있는 인연은 엄청난 인연이야. <금강경> 사경집을 보시해 기회를 준 이순이에게 박수를 보내자.”

박수를 이끈 권도정 회장은 수업 내내 앉지도 못하고 친구들에게 묻고, 듣고,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 사이 옆에서는 지난 달 손녀딸을 품에 안게 돼 감사하다는 의미의 큐이 돌려지고, 어떤 이는 당연한 내 일처럼 대중에게 전할 커피를 잔마다 따르고 있었다. 한편에서는 공양을 준비하고, 회비를 걷고,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앞으로 진행해갈 공부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1958년 그때는 먹고 살기도 힘들어 ‘여자가 공부하면 못 쓴다’던 시절이었다. 한국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던 당시 서울 종로구 재동에 위치했던 창덕여중에서부터 이들의 인연은 시작됐다. 당시 학사에 따라 창덕여고까지 6년을 함께 다니며 동고동락했던 이들은 졸업 후 35여 년 만에 불자회를 조직했다. 불자 동창생 7~8명에서 시작된 창불회는 협심과 이해심, 하심과 희생심 등 불자 특유의 저력을 발휘했다. 올해로 11주년을 맞이한 창불회는 32명 동창들이 함께하는 열혈 불자 모임으로까지 성장해 창덕여고 총동문회에서도 으뜸가는 모임으로 소문이 났다. 회원들은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치게 됐고 이는 자연스럽게 창불회 활동에 참가하고자하는 동창생의 증가로 나타났다.

이들은 매년 국내 주요 사찰 순례와 템플스테이, 미얀마 · 중국 등 해외 성지 순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정기 법회를 통해 <금강경> <반야심경> 등 경전을 배우고 익히며 우정과 친목을 넘어선 신행활동을 펼쳐왔다. 또 동창들의 경조사에는 가족처럼 함께해 왔다. 특히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는 조문은 물론이고 49재까지 함께 기도하며 진심어린 위로와 격려로 힘이 돼주고 있다. 작년부터는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 100만원을 매년 전달해 훈훈한 감동도 전하고 있다.

권도정 회장은 “이웃종교에서는 주변인의 경조사에 조직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내적 깊이는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느꼈다. 친구들과 함께 영가를 위한 기도를 하다보면 진정 마음으로 하는 보살행이기에 불자들의 기도 깊이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며 불교계의 상제례를 통한 포교활성화에 대한 가능성도 내비쳤다.

최근에는 남편을 잃고 건강상의 문제까지 있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동창에게 창불회의 지속적인 연락과 응원은 큰 힘이 됐다. 당시 도움을 받았던 친구는 “힘든 시기에 부처님의 품으로 더욱 가까이 이끌어준 회장님과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김유연씨는 “창불회 모임을 왔다 가면 마음이 넓어지고 따뜻해지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어서 돌아간다. 물 한 모금도 남을 위해 먼저 베풀고자 애쓰는 친구들을 통해 대자비심을 배운다”며 창불회의 저력을 설명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김정자씨는 명퇴 후 불교 공부를 하며 삶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김정자씨는 “매달 이 날을 손꼽아 기다릴 정도에요. 매 순간 나의 행동 하나가 이 우주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다는 것을 배우고 익히며 실천하도록 돕죠. 창불회는 나에게 비타민 같은 존재에요. 세상에서 이렇게 큰 행복을 전해준 친구들에게 감사할 뿐”이라며 밝게 웃었다.

이렇게까지 창불회가 성공적인 신행단체로 성장한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간으로 회원들의 자발적, 적극적 참여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창불회원들은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 잘하고 있다’며 스스로를 칭찬하고 아껴주느라 입에 침이 마른다.

동방불교대학에서 불교학 공부도 함께 하고 있다는 심정숙씨도 “불자라면 누구나 이런 모임을 조직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남을 위해 베푼 조그마한 배려가 더 큰 자비심과 행복을 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친구로부터 권유를 받고 동참하게 된 조순남씨는 “혈연적인 유대감이 흐른다. 활발한 교류를 통한 융합, 통합, 화합을 통해 자체 신행활동을 넘어 이웃에 포교활동까지 하고 있는 창불회에 불교계에서는 상을 줘야 한다”며 믿지 않은 자화자찬을 보였다.

회원들은 모임 내내 상대에 대한 칭찬 일색이었다. “광명선원 도헌 스님과 공양주 보살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곳에서 행복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에요” “이 친구는 숟가락도 예쁘게 놓는다”는 등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그들에게는 모두 감사와 행복이었다. 글=이상언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사회적 기업과 하나되는 길 **불교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아세요?



서울 견지동 조계종 중앙신도회 전법회관 1층에 위치한 '연우와 함께' 내부 모습.

사회적기업을 통한 사회활동이 부처님 가르침의 새로운 실천 방편으로 주목되고 있다. 불교계 사회적기업은 '행복을 나누며 나와 남을 동시에 위하는 베품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설립'되는 형태로 식품유통, 공정무역, 문화사업, 환경사업 등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

현재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중인 '연우와 함께'는 불교 관련 사업의 육성과 개발을 통해 취약계층에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으로 사회 전반의 공익 실현에 앞장설 전망이다.

#사회적기업이란?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

한마디로 좋은 일을 하면서 수익을 내는 기업이다. 이윤추구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 서비 제공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은 시민사회(비영리조직)와 기업(영리기업)의 중간형태다. 일반 기업처럼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 · 판매하는 영리활동을 하면서 창출된 이익을 장애인, 노숙자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서비스를 제공 등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노동부에서 인증한 전국 266개의 사회적 기업이 있으며, 환경파괴, 저임금, 고용불안 등을 시장경제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서 생겨나고 있다. 미국은 사회적기업이 170만개에 달하며 노동자 1160만 명이 종사하고, 유럽은 130만개 기업이 900만 명의 일자리 창출을 낳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된 영국은 5만 5000개로 270억 파운드 이익 창출, 6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불교와 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은 생존을 위한 경쟁이 아닌 상생을 위한 공동체로 '자비 나눔'을 실천하는 방편이다. 경제적 이윤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한다. 불교가 무소유와 해탈, 공을 말한다고 해서 불교와 경제활동을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부처님은 경전에 부모, 아내, 자식, 그리고 남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다만 '돈'이 목적이 돼 집착함으로써 고통에 빠지는 것을 경계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일을 한다는 것은 타인을 이롭게 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는 일종의 보시 행위다. 대가에 집착하지 않고 진정으로 조직과 사회, 이웃을 위해 일하는 것은 곧 보살행이다. 단순히 이윤이 목적이 아닌 이윤 창출을 어떻게 회향할 것인가에 목적을 둔 사회적기업은 부처님 가르침의 확실한 실천 방편이다.

아무리 경제적 이익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행복을 가져올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도 가질 수 없다. 현대기업의 경영사상이 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반면 불교경영은 행복의 극대화를 지향한다. 행복 추구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적 활동을 한다는 사회적기업과 목표가 같다. 철저하게 윤리적일 것을 요구하는 불교경영은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의 경영 철학과 맞아 떨어진다.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 고려해야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에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청년층의 유휴인력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 취업자를 위한 돌파구로 사회적기업이 대두되고 있다.

20대 고학력 청년층은 직업 선택의 기준으로 내재적 보상을 우선시 하는 사람의 비율이 38.2%로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압도적이다.(2009년 12월 15일 삼성경제연구소 발표). 내재적 보상이란 근로자에게 성취감, 자아실현감, 사회문제 해결의 기쁨과 보람 등의 보상을 뜻한다. 사회적기업의 일자리는 임금 등 외형적 보상보다 일의 보람과 같이 내재적 보상을 통한 성취감이 크다는 점은 불교 문화 콘텐츠를 이용한 사회적기업 설립과 함께 인재양성, 인력확충에도 좋은 해결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생 · 화합, 참선 · 명상, 환경운동 · 생명존중사상, 경전, 불교문화재, 수행법, 사찰음식, 부동산, 연등축제 등은 불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활용해야 할 자원으로 손꼽힌다. 템플스테이, 사찰여행, 음악회, 불교언론매체 등을 활용해 계층별 포교전략의 극대화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접근을 통한 사회적기업 출범이 가능하다.

"위대한 성공 아니면 장렬한 전사"

(주) '연우와 함께' 이재희 대표이사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 30여 년 동안 경영 마스터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불교계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최고의 유통전문회사로 종단, 중앙신도회, 스님, 사찰, 재가신도의 공동체로 성장시켜 부처님께 공양 올리겠습니다."

불교계 제1호 사회적기업을 지향하는 (주)'연우와 함께' 이재희 대표이사.

지난해 12월 출범한 '연우와 함께'를 진두지휘 할 이재희 이사장은 하얏트리젠시, TNT Express, 유니레버코리아, 인천국제공항 등 세계적인 기업에서 인증 받은 30년 경력의 경영 마스터다. 우리나라 대표 불자 글로벌 전문경영인으로 절정의 기량을 갖춘 그가 부처님 성전에 제대로 된 '사회적 기업'을 공양할 것을 발원하고 나섰다.



이재희 대표이사.

"저는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 살아온 사람입니다. 제가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세계적 기업에서 활발히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준 분이 부처님이셨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할 시절인연이 도래했습니다. 다시 부처님께 그 길을 물을 것이고 제 발원을 반드시 회향할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그의 첫 회향지는 불교계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유통전문회사 연우와함께다. 하지만 그에게 연우와함께는 단순한 경영을 통한 이익과 회향 이상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

"유기농 식품을 잘 팔고 못 팔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기업이기 전에 종단, 중앙신도회, 스님, 사찰, 재가신도를 하나의 연결고리로 묶는 구심점, 한국 불교의 에너지 집결체로 성장 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부처님의 사상과 일치되는 면이 많았다. 또 그가 CEO를 지내면서도 놓지 않았던 환경, 지속경영, 여성, 다양성의 화두를 타파할 수 있는 곳이기도 했다.

"사회적기업은 불교의 공생사상과 같은 이치입니다. 소모적인 자비행이 아니며, 적나라한 집착을 바탕으로 한 이익단체도 아닙니다. 공존, 공생, 공업, 자비, 보시, 참여와 활동을 통한 이익을 회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은 기본적으로 불교 사상과 밀접한 기업형태입니다."

독실한 불자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절을 다녔던 그는 전문 CEO로 활동하면서 더욱 부처님께 귀의했다. '1000배를 10만 번은 족히 했을 것' 이라는 이재희 이사장은 어려운 일에 숱한 좌절과 선택의 기로에 설때마다 부처님께 길을 물었다. 하지만 경영인으로 살아오던 그에게 무소유와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불교사상과 기업 활동이 쉽게 연계되지 않았다. <반야심경>의 공사상은 경영을 하던 그에게 20여 년간 '화두'였다. <반야심경>의 '공' '비운다'는 말을 이해하고 '걸림 없음'을 새로운 비즈니스 패러다임으로 말한다면 '투명성' '정직성'이라는 답을 얻었다.

"진정한 자비, 보시, 무소유,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야 비로소 경영이 보입니다. '걸림이 없으면 고통이 없고 고통이 없으면 두려움이 없다'는 말이 바로 제 경영 철학입니다. 진정한 대승적인 삶, 그것은 비우면서도 동시에 공해지지 않고, 채우면서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잘한 욕심에 얽매이지 않으며 그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흐른다면 별다른 전략 없이도 성과는 훨씬 좋게 나오거든요."

발원을 하고 전문 경영 전문가의 시각에서 불교계를 바라봤을 때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경영의 기본인 자본, 전문가(인력), 시장이 없으니 제품력이 있을 리는 만무하다. 산발적이고 산만한 운영체계 등은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 정도였다.

"자본은 없지요. 인력양성은 말로만 외칠 뿐 이었습니다. 불교계에서 주 상품인 단주, 초, 향 등이 대부분 수입되고 있는데 수입업체 80~90%는 다른 종교인이 운영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상품의 질과 포장은 물론이고 한국불교를 대표할 만한 불교 상품도 하나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재희 이사장은 악조건 속에서도 특유의 승부근성과 깊은 불심으로 새로운 사업영역을 구축할 전망이다. 친환경, 친자연, 유기농 장류, 곡류, 반찬류, 등의 기초 상품을 토대로 승가복지, 인재양성을 위한 학교, 공예, 보험, 여행 상품 등을 목표로 삶의 전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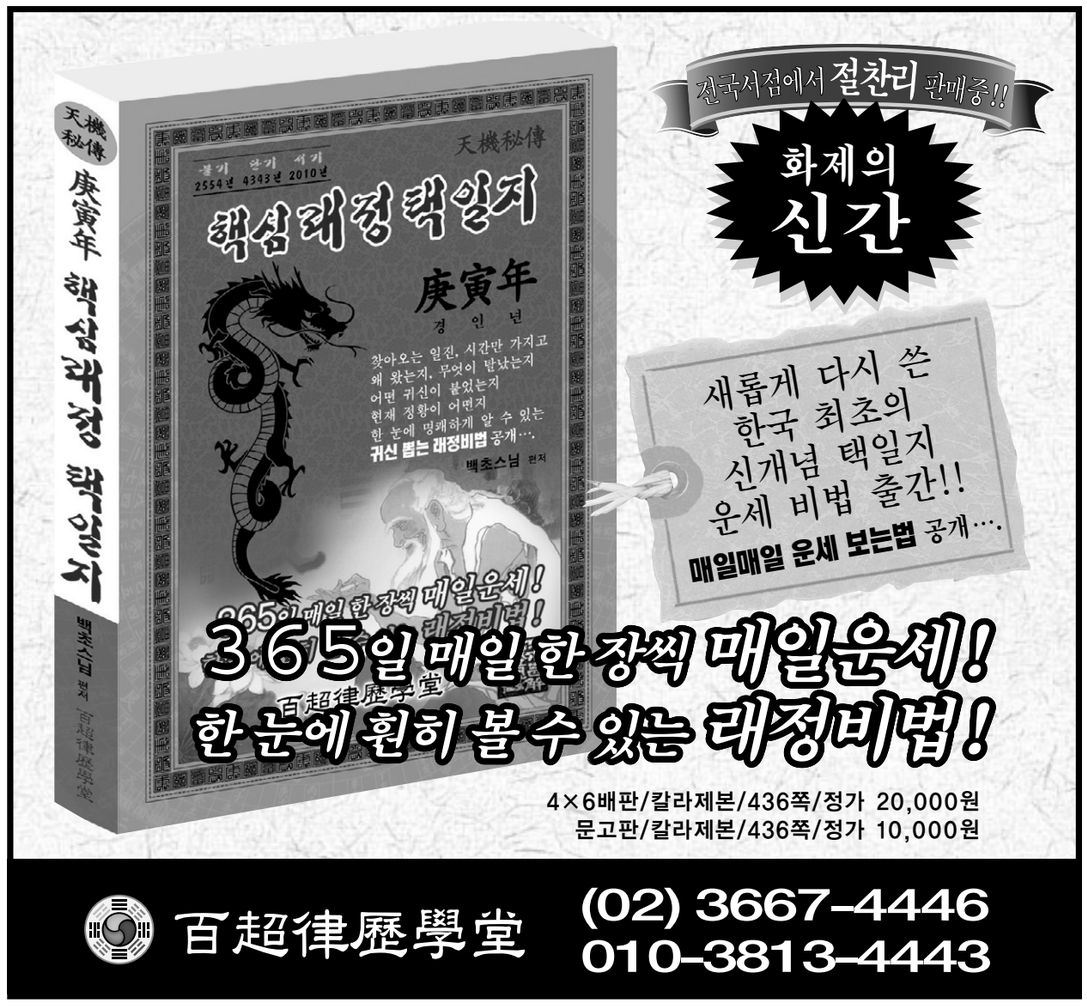
"생활영역 전반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이뤄낼 것입니다. 10만 불자 동참, 100억의 이익을 내면 바로 착한 나눔을 실천할 것입니다. 승가복지사업을 위한 회향은 곧 훌륭한 인재 확충의 효과를 부를 것입니다. 또 불자 영세업자를 위한 생산자 지원팀을 만들어 회계, 마케팅, 포장, 유통, 레이아웃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도 동국대와 MOU를 체결하고 생산자 실명제, 불교인증 마크 등을 실시한다. 내년 봄까지 전국 거점 사찰 10여 곳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가게를 열어 불자들의 생산과 유통, 소비의 판로를 개척해 나간다. 또 불심마케팅으로 불자들을 포섭, 종교를 초월해 많은 사람들의 착한소비, 착한나눔 실천이 가능토록 제품의 질에 승부수를 건다.

그는 최근 불교계에 인재가 없음을 절감했다. 이재희 이사장은 "젊은이들을 포섭하지 못하는 불교는 죽은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한국불교의 기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현대화가 시작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론적으로 봤을 때 연우와함께는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경영난, 퇴출 위기에 처한 기업을 업계의 선두주자로 올려온 그의 주특기 발휘로 '위대한 승리'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佛紀 2554年 庚寅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大 韓 佛 敎 曹 洞 宗

宗 正 **智明 德瓚** 僧正院長 **怛 帝. 德周**

總務院長 **大隱 德牛**

中央監察院長 **德性 行性** 中央宗會議長 **海倫 行峰**

禪 院 長	**眞 一**	江原宗務院長	**慧 覺**
中央護法院長	**慧 泉**	忠北宗務院長	**慧 惺**
中央布敎院長	**優 潭**	忠南宗務院長	**法 空**
中央敎育院長	**光 慧**	嶺東宗務院長	**慧 空**
中 央 律 院 長	**雲 潭**	慶南西宗務院長	**法 光**
中央宗會副議長	**雲 性**	慶南中宗務院長	**慧 山**
中央宗會副議長	**道 一**	嶺南宗務院長	**慧 悟**
京畿宗務院長	**法 空**	慶北宗務院長	**雲 鶴**
南海宗務院長	**淸 雲**	釜山宗務院長	**道 一**
僧正副院長	**心 月**	文 化 部 長	**月 峰**
僧 正 委 員	**圓 峰**	監 察 部 長	**慧 明**
僧 正 委 員	**法 空**	布 敎 部 長	**素 圓**
僧 正 委 員	**慧 空**	文 化 局 長	**平 潭**
副 院 長	**眞 法**	監 察 局 長	**道 賢**
總 務 院 長	**古 牛**	布 敎 局 長	**月 光**
財 務 部 長	**法 蓮**	財 務 局 長	**淸 淨**
社 會 部 長	**慧 山**	社 會 局 長	**法 文**
敎 務 部 長	**海 權**	糾 正 局 長	**松 潭**

■ 총무원 : 서울 노원구 상계4동 산 154번지 전화 02)2091-0408

대승불교 태 고 종

종 정 법성

총 무 원 장 **화 봉**

사 서 실 장	**성학**	총 무 국 장	**호산**
원 로 원 장	**명운**	원 로 위 원	**혜안**
교 육 부 장	**학운**	포 교 부 장	**이운**
비구니총무	**용주**	비구니위원	**법정**

서울종무원장	**태웅**	경기도종무원장	**도경**
강원종무원장	**설경**	충북종무원장	**정운**
경북종무원장	**지영**	충남종무원장	**관웅**
경남종무원장	**현공**	전북종무원장	**송광**
전남종무원장	**해공**	부산종무원장	**태국**

[전국 사암 및 종도 입종안내]

▶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주지임명장, 승려증, 법사증

▶ **입종자격 :** 승려, 법사, 포교사, 스님이 되고자 하는 분

▶ **입종서류 :** 입종신청서1부, 주민등록증복사 1매, 사진 4매

■ 총본산 : 경남 창녕군 계성면 사리 113 용주사

■ 총무원 : 경남 밀양시 삼량진읍 숭진리 산 121-2(석산사)

☎ 055-351-0562 / 휴대폰 : 010-4054-0562

대한불교 조동종 종정 주석사찰

삼각산 청련사

주 지 **지명 덕찬**

신도일동

■ 서울 종로구 평창동 562-1번지
전화 02)379-3935

대한불교 조동종 총무원장 주석사찰

수락산 도선사

주 지 **대은 덕우**

신도일동

■ 서울시 노원구 상계4동 154번지
전화 02)2091-0408

현대불교 신문사
경남남부 지사

지사장 **청운 합장**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63번지
전화 055)867-0776

사찰,법당
영상음향
설비공사

음향설비 렌탈·각종 마이크·스피커·
앰프 설치·찬불가 반주기 설치(550곡수록)

佛紀 2554年 庚寅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휴대용 충전식(방생) 유무선 마이크 겸용 포터블 엠프 시스템





무선마이크



TV, 컴퓨터 모니터로 사용하면서 녹화기능까지..
(아간에도 녹화 가능함)

4분할

사찰 하이파이 앰프

사찰 CCTV 설치

투윈미디어 Twin Media
방송 · 음향 · 영상설비전문업체
www.twinsound.co.kr
서울 종로구 장사동 156번지 아세아전자상가 가열 119호 代表 최유창
Tel 02)2265-4288, 2275-8079
Fax 02)2275-1242 H·P 010-8705-4288

고객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완벽한 A/S보장



佛紀 2554年 庚寅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사 단 법 인 한국불교미륵종
사회복지법인 미 륵 원

총 무 원

총무원장 (종정대행) **송 정**

감찰원장 보성 교육원장 경보 포교원장 마하 사서실장 영운
문화부장 영민 총무부장 도연 규정부장 영성 사회부장 영인

충청종무원장 혜초 경기종무원장 혜능 경북종무원장 일해

법우회 회장 혜초 비구니회 회장 혜법
총무 혜안 총무 주연

중앙종회

종회의장 혜 월

종회의원 혜 담 혜 초 혜 정
혜 능 혜 연 일 해
혜 묵 영 운 혜 운
영 민 지 운 도 연
혜 민 영 성 영 인
혜 법

■ 미륵종 총무원 :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211번지
■ 법인사무실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신안리 900번지 대표전화 055-345-4741/ fax 055-355-4743 홈페이지 www.mireuk.og

---

사단법인 **한국불교미륵종**

법 우 회

회장 혜초

총무 혜안

■ 전남 여수시 연등동 577-2번지 자비사
TEL : 061)665-5556

사단법인 **한국불교미륵종**

비구니회

회장 혜법

총무 주연

■ 충북 청원군 연화사
TEL : 043)213-3239

사단법인 **한국불교미륵종**

도 명 암

주지 묘각

신도회 일동

■ 서울 은평구 구산동 211번지
TEL : 02)351-3679

사단법인 **한국불교미륵종**
경북교구 종무원

불 광 사
불광불교대학

학장 일해

신도회 일동

■ 대구시 동구 도동 44번지
TEL : 053)986-1080

사단법인 **한국불교미륵종**

거 오 사

주지 혜련

신도회 일동

■ 경북 영천시 북안면 고지리 121
TEL : 054)335-6603

한국불교 태고종

석문산 **용 문 사**

주지 如虛 혜 종

신 도 회 회장 강춘원
거사림 자비신행회 회장 한태선

■ 전남 강진군 도암면 석문리
TEL : 061)433-4879

미디어법
원천무효
4대강
운하사업
절대반대

대한불교 조계종 **문 빈 정 사**

대한불교 조계종

무등산 **원 효 사**

주지 현지스님

신도회 일동

■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846
TEL : 062)266-0326

대한불교 조계종

법 림 사

사)아름다운세상대해복지회

주지 무진

대해노인복지센터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어른들을 위한 주간보호, 방문요양,
노인일자리사업, 집청소, 목욕봉사, 점심대접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광주광역시 동구 내남동 649-1
TEL : 062)234-2207
노인복지센터 062)234-2213

대한불교 조계종

종남산 **송 광 사**

주지 도영

■ 전북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569번지
063-243-8091
http://www.songkwangsa.org

■ 사회복지 법인 송광 정심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501번지
TEL : 063)243-1212

謹賀新年
불기 2554년 / 경인년



庚寅年
새해 福
많이 나누세요

조실 보광 혜정 회주 진불장 혜성 부조실 경하 현성
주지 선묵 혜자 청담장학문화재단 이사장 동광
청담문도회, 청담장학문화재단, 복지법인 혜명복지원
학교법인 청담학원, 강북청소년수련관,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호국참회관음기도도량 삼각산 도선사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264번지 전화 : (02) 993-3161~3 팩스 : (02) 993-3164 홈페이지 : www.dosunsa.or.kr

우리 '화계사' 대중은 삼가 부처님 전에 두 손 모으고 경인년에는 이렇게 살 것을 서원합니다.
"국토가 불안합니다. 청정국토를 지키기 위하여
온 생명을 부처님으로 섬기고 이웃을 부처님으로 공경하는 생활을 실천하겠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三角山 華溪寺

조 실 송원 설정
주 지 수경
국제선원 입승 보화
신도회장 차호법행 외
사부대중일동

행사일정
• 12월 31일(목) 저녁 9시 송구영신법회 및 타종식
• 2월 27일(토) 오후 5시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기 본 반 : 3개월 과정	화요반(3월 9월 개강) 일요반(6월 12월 개강)
불 교 대 학 : 2년 과정	수요반 / 토요반
불교대학원 : 1년 과정	화요반 / 일요반
교양반 : 각 3개월 과정	토요반 (천수경, 예불반야심경 / 의식)



서울시 강북구 수유1동 487번지 ☎ 02) 902-2663
전송 02)990-1885 www.hwagyesa.org

佛紀 2554年 庚寅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꿈이 이루어지는 낙 산 사 (홍련암)



www.naksansa.or.kr
관음진신주처 관음성지 오봉산낙산사

■ 낙산사
· 낙산사 양양포교당(무산사)
· 불교대학
· 관음회
· 보현회
· 의상회
· 바라밀회
· 합창단

■ 낙산사 복지재단
· 낙산사 상락원
· 낙산노인복지센타
· 양양어르신 무료급식소
· 무산지역아동센타
· 의상청소년 도서관
· 낙산유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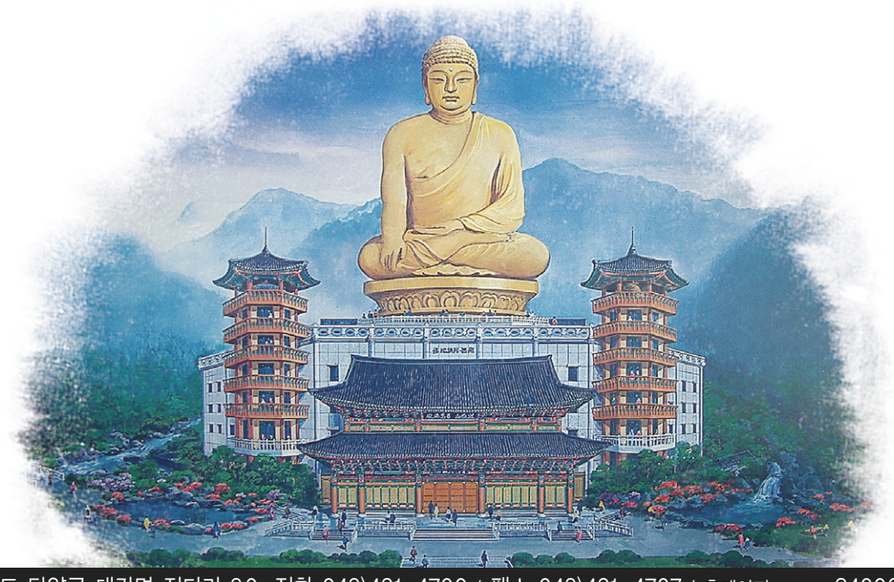
기축년 한해에 낙산사 복원불사에 관심과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과
제방의 원로대덕 큰스님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인년 새해에는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낙산사 주지 무문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55번지 ☎ 033)672-2447~8 이메일 www.naksansa.or.kr

佛紀 2554年 庚寅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 조계종 백만불전 대도량 道樂山 廣德寺

회주 포산 혜인
주지 범전 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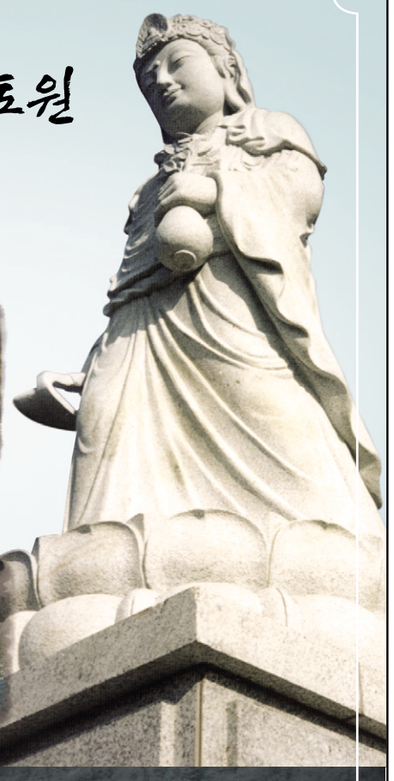


충정북도 단양군 대강면 직티리 30 전화 043)421-4700 / 팩스 043)421-4707 / 홈페이지 www.84000.or.kr

천년 가야의 전설을 간직한 봉화산 정토원

故노무현 전 대통령 49재 및 100재에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삼가 합장인사 올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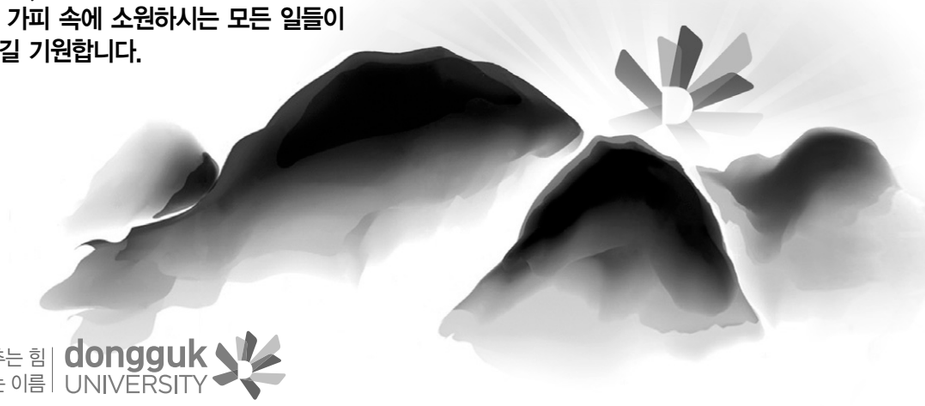
봉화산 정토원
원장 선 진 규 합장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3번지
☎ (055) 342-2991~2
▲ 봉화산 정토원 호미 든 관음개발성상
www.bonghwasan.org

불기 255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그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으로
동국대학교가 힘껏 추진해온 혁신의 결과들이
하나씩 결실을 맺는 시간이었습니다.
대학 최초로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품질경영상 대통령표창' 을 받았고,
대학 최초로 2년 연속 한국의 경영대상
'고객만족경영대상 최우상' 을 수상하였습니다.

2010년 올해도
끊임없는 노력으로 동국 백년대계를 위한
초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인년 새해, 하시는 일 속에 기쁨이 넘치고
부처님의 가피 속에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세상을 비추는 힘
세상을 깨우는 이름
dongguk UNIVERSITY